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 책임연구자: 안선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자: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강영배(대구한의대학교·교수)
배경내(인권교육 들·활동가)
- ▶ 연구보조원: 조혜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박민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발 간 사 ■ ■ ■

청소년 진로교육은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 왔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일과 일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진로를 찾고 그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개인의 안녕과 사회의 경쟁력 모두에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한편, 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이 일하는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며 가장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정책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체험과 좀처럼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청소년 근로환경 문제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이 가정과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자신과 사회,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건강한 안목을 키우고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일하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 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경험의 양적, 질적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경험이 청소년의 발달에 건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입안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최근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체험은 지식위주의 평면적이고 소극적인 진로교육의 대안으로 그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 포함되었으며, 신정부의 핵심공약인 자유학기제 도입도 직업체험을 포함한 청소년의 체험기회가 확대될 전망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양질의 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강도가 높은 ‘직업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우리사회의 열악한 청소년 근로환경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경험으로 작용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노동인권을 정당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지닌 대상으로 보는 시각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아르바이트가 양질의 ‘직업체험’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근로환경의 체질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식을 제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실태를 고찰하기 위해 진로체험 경험유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의 태도, 진로체험 도움 정도, 향후 진로체험 참여의사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진로체험 실태조사로 밝혀진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직업 이해, 특정직업인의 직업관련 강연 등 간접적인 방식의 진로체험 경험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성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진로체험 사전교육 및 사후활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와 ‘아무런 활동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해서는 자발적,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과반수가 약간 넘었으며,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진로체험을 통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진로선택에 있어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향후 직업모의체험이나 직업현장체험,

학교견학 및 전공체험 등 직접적인 진로체험에 더욱 많이 참여하고 싶어했으며, '관심 있는 분야 직업인과의 만남 기회 확대'와 '직업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를 향후 주요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및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 강화, 현장중심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와 관련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제공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고찰하기 위해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인지 수준,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인지 경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특성, 청소년 근로보호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학교교육을 통한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전까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청소년은 3분의 1 수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 뚜렷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또한 가정의 경제적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시기의 아르바이트는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며,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사회의 청소년 근로보호 수준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치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비율이 20.8%에 그치는 등 관련 법 위반이 만연한 상태였으며, 아르바이트 중 부당처우를 경험하거나 업무상 재해를 경험하는 청소년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비해 부당처우를 경험할 경우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청소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 감독 강화, 관련 노동관계법 교육과 홍보 내실화, 신고·구제체계 내실화와 피해구제 강화, 지방자치단체 지원망과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보호법제와 개선 과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등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어: 진로성숙도, 진로체험의 체계적 운영, 진로체험 사후활동, 진로체험의 도움 정도, 직업모의체험, 현장중심형 진로체험,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체험은 지식위주의 평면적이고 소극적인 진로교육의 대안으로 그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 포함되었고, 신정부의 핵심공약인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인해 청소년의 직업체험기회가 확대될 전망을 보임.
- 우리사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노동인권을 정당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지닌 대상으로 보는 시각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아르바이트가 양질의 ‘직업체험’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근로환경 체질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식을 제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경험의 양적, 질적 실태를 파악하고,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입안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에서는 청소년 직업체험의 개념과 의미, 청소년 직업체험 참여 실태, 청소년 직업체험의 효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청소년 발달의 관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등에 대해 다루었음.

2) 설문조사

- 전국의 중·고등학생 10,119여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진로체험 영역에서는 진로체험 경험내용,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태도, 진로체험 경험과 관심 있는 진로와의 관련성 및 진로체험의 도움 정도, 향후 진로체험 참여의사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개선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아르바이트 영역에서는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인지 수준,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인지 경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특성, 청소년 근로보호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3)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

- 연구 내용 및 방법, 설문내용 타당성,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도출을 위해 학계,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였음.

4) 콜로키움

- 해외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와 관련 연구 동향에 살펴보기 위해 콜로키움을 실시하였음.

3. 주요결과

1) 청소년 진로체험

(1) 진로성숙도

-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를 조사한 결과, 진로성숙도의 하위척도인 계획성, 태도, 자기지식, 진로행동, 독립성 중에서 '태도'(직업에 대한 태도)와 '자기지식'(자신의 적성 및 흥미에 대한 이해)은 높은 수준이었으나, 진로준비행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여자청소년, 대도시 거주 청소년, 고등학생(일부 하위척도 제외), 고교계열 중 특목/자율고 재학 청소년,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적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남.
- 이에 비해, 남자청소년, 읍·면 거주 청소년, 특성화고 청소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취약계층청소년의 진로성숙도는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보여줌.

(2) 진로체험 경험내용

-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경험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시청각 자료를 통해 직업에 대해 배웠으며(66.9%), 특정직업인의 직업관련 강연(59.8%)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현재 대부분의 진로체험이 이러한 유형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중소도시와 읍·면거주 청소년의 진로체험 경험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소수의 예외항목을 제외하면, 중학생, 특성화고 재학생,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진로체험 경험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진로체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는 진로체험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높았으며, 특히 '특정직업인과의 만남/인터뷰', '특정직업인의 진학/진로관련 멘토링(상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견학·진공체험', '직업모의체험' 등을 경험한 경우 진로성숙도가 더욱 높았음.

(3)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태도

- 조사대상 청소년의 54%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사전교육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은 것에 비해 '매번 사전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4.8%에 불과했음.
-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사후 활동으로는 '만족도조사'(3,176명), '사후활동 없었음'(2,922명), '에듀팟 작성 및 기재'(1,399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체계적인 사후활동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음.
- 배경변인별로는 중학생, 대도시 거주, 고교계열 중 특목/자율고 재학청소년이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사전교육 및 사후활동에 더 긍정적인 응답 경향을 보임.
- 최근 1년간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스스로 원해서' 참여했다는 응답을 한 청소년의 비율은 52.8%정도였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은 청소년의 약 57%로 나타남.
- 여자청소년, 대도시 거주 청소년, 고등학생, 특목/자율고 재학 청소년, 그리고 기대하는 교육수준이 높고 학업성적이 높은 편이며, 가정의 사회경제적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자발적,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도가 높았음.

(4) 진로체험 경험과 관심 있는 진로와의 관련성 및 진로체험의 도움 정도

- 최근 1년간 참여한 진로체험프로그램과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진로분야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약간 넘는 청소년(51.5%)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음.
-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진로체험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73.2%), '진로 선택에 있어 더 많은 정보 습득'(70%), '학교 공부가 장래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이해'(68%) 순으로 응답하였음.
- 중학생, 특목/자율고 재학 청소년,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이 진로체험이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으며, 청소년들의 진로/진학관련 영역에 대한 진로체험 경험의 도움 정도는 진로성숙도 수준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음.

(5) 향후 진로체험 참여의사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개선사항

- 향후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사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직업관련 강연뿐 아니라 직업 모의체험이나 직업현장, 학교견학 및 전공체험 등 비교적 직접적인 방식의 진로체험에 더욱 참여의사가 높았고, 대체적으로 여자청소년, 대도시거주 청소년, 기대하는 교육수준이 높은 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참여 의사를 보였음.
- 진로성숙도 하위척도 중 계획성, 태도, 진로행동은 특정직업인과의 강연 및 만남과 인터뷰, 멘토링이나 상담과 같은 진로체험 활동과 상당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음.
- 진로체험에 스스로 참여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경우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가 더욱 높았으며, 그중에서 가장 참여의사가 높은 항목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견학 또는 전공체험'이었음.
- 진로체험프로그램의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개선사항 1순위는 '관심 있는 분야 직업인과의 만남 기회 확대'(35.5%)였고, 2순위는 '직업현장에서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25.1%)로 나타남.
- 특히 개선사항 1순위로 꼽힌 '관심분야 직업인과의 만남의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남자청소년,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 고등학생, 특목/자율고 재학 청소년에게서 응답률이 높았음.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실태

(1)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인지 수준

-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핵심적인 연소자 근로 보호 관련 노동관계 법령을 17항목으로 구성하여 인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항목은 '아르바이트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와 '2013년도 최저임금' 두 항목에 그쳤음.
-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항목이 17항목 중 5항목을 차지하는 등,

청소년들의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확연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조차도 기본적인 연소자 근로보호 관련 법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 법과 제도를 알지 못할 경우 근로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임.

(2)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인지 경로

- 청소년들이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를 알게 되는 주된 경로는 TV와 인터넷으로 나타남.
- 학교교육을 통해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를 알게 된 비율은 제시된 인지 경로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했음.

(3)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특성

①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 중학교 시기에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비율은 10.7%이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3분의 1이 이상이 한번 이상 아르바이트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규모가 작거나 교육포부가 낮을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 계열 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크게 차이를 보임.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절반 이상인 50.2%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일반계고 학생은 22.8%, 특목고/자율고 학생들은 14.5%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음.

- 학업성적 수준에 따라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성적이 '낮은 편'(22.3%)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높은 편'(12.0%)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이 10% 이상 높게 나타남.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 뚜렷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정의 경제적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음.

② 지금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

- 지금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 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하는 경험으로 인식하지 않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21.1%), '부모님의 반대'(15.7%)이며, '괜찮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은 13.4%를 차지함.
- 기대하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특별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는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교육포부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아르바이트는 청소년기에 당연히 경험해야하는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와 학업은 병행하기 어려운 것이며,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4) 청소년 근로보호 수준

① 서류제출 및 작성

-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20.8%,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비율은 각각 32.1%, 19.2%로 나타남. 2011년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비율이 더욱 낮아졌음을 알 수 있음.

-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치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 여부를 질문한 결과,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13.7%에 그쳤으며, 이 중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비율이 64.4%에 달했음.

② 아르바이트 중 부당처우 경험 및 대처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한번이라도 부당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19.2%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중 부당경험 유형을 조사한 결과, ‘같은 일 이외에 다른 일까지 억지로 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16.8%로 가장 높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5.6%,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4.2%,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2.6%,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11.8%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중 부당처우를 경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질문한 결과, ‘참고 계속 일했다’(33.2%)와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24.3%)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음.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3.8%, ‘교사나 교육청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2%, ‘상당소나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는 0.7%에 그쳤으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도 9.8%에 달해, 청소년들이 근로 중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음.

③ 업무상 재해 경험

-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재해를 경험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 1번 이상 ‘뜨거운 것에 데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2.0%로 가장 많았고, ‘네 번 이상 데인 적이 있다’는 응답도 6.8%에 달했음.
- ‘날카로운 것에 베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4.3%로 나타나서 재해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발생 비율을 나타냈고 ‘무거운 짐을 들다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2.4%,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친 적이 있다' 9.6%, '빠가 부러지거나 뺨 적이 있다' 4.9%,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3.4% 등으로 나타남.

4. 정책제언

1) 청소년 진로체험

(1) 청소년의 진로발달 강화

① 진로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한 진로성숙방안 모색

-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참여기회 확대
- 진로체험 활동시간 확대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성이 있는 활동으로 진로체험 활동내용 기획

② 발달단계별 진로체험프로그램 제공 확대

- 청소년들이 이른 시기부터 자신의 능력과 흥미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시기부터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청소년의 발달단계별, 그리고 교급별 단계에 따른 적절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2)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주도적 참여 촉진

① 동기부여 강화

- 수동적인 진로체험활동 참여가 아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강조
-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가정에서부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함.

② 청소년 주도적인 진로체험 참여 유도

-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청소년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기획
- 청소년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 진로체험활동을 연계하여 통합·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

(3) 현장중심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① 현장중심형 진로체험 지원시스템 구축

- 현장중심의 진로체험과 관련된, 교사-학생-기업 간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
-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홍보를 위한 인증시스템 구축 및 특별 보조금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인센티브 필요

② 자유학기제와 같은 집중적인 직접체험 기회 확대

- 직업현장에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진로체험을 위하여 현재 시범운영중인 자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
- 현재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실시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진로체험 및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 필요

(4) 개인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제공

① 개인 맞춤형 진로체험을 위한 욕구 파악

- 성별, 교급 및 고교계열, 거주하고 있는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학업성적,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욕구 파악 필요

- ② 취약계층 청소년의 진로체험 지원 강화
- 진로체험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지원을 강화하고, 고교특성별로 특화된 진로체험프로그램 제공
- 낮은 학업성취와 기대교육수준을 가진 청소년들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불리한 환경을 이겨내고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전문직업인의 멘토링이나 상담 등 제공

(5)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및 기록·관리 강화

- ① 체계적인 사전교육 및 사후활동 기반 마련
- 진로체험프로그램 제공 시 사전 계획 및 일정을 현실성 있게 마련하고, 사전교육 및 사후활동을 의무화 함.
-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체험기관용, 학생용, 교사용, 부모용 진로체험매뉴얼을 개발하여 확대·보급할 필요가 있음.
- ②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기록·관리 강화
- 진로체험프로그램의 활동 내역과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청소년의 실질적인 진로준비를 위한 포트폴리오가 되도록 함.
-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내용을 에듀팍(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과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기록하도록 더욱 홍보할 필요가 있음.

(6) 진로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 활용

- ① 진로체험 지원체계 마련 및 전문 인력 역량 강화
-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확대·설치와 진로체험과 관련한 정보를 관리·운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며, 기대하는 정책효과를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고안도 요구됨.

- 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지역사회 내 파트너로서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자원을 관리하고 진로체험 매칭을 담당할 진로(체험)코디네이터 또는 진로코치와 같은 전문 인력 선발·양성 제도 도입

② 전문직업인의 활용 확대

- 청소년들이 전문직업인과 인터뷰하거나 멘토링 또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업인을 섭외·활용
- 학부모와 지역사회 내 인사를 적극 활용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홍보방안과 유·무형의 인센티브 고려

2) 청소년 아르바이트

(1) 정부 정책의 개선과제

- ① 청소년 고용 사업장 감독 강화
 -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확충하고 법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장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 없이 불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서류 조사 중심에서 벗어나 일하는 청소년과의 면접조사도 강화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이 강화되어야 함.
- ② 관련 노동관계법 교육과 홍보 내실화
 - 인터넷 홍보나 홍보자료의 제작·배포에서 더 나아가 배포된 자료가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SNS 활용 등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홍보방식을 강구해야 함.
 - 단순한 법령 중심의 홍보를 벗어나 구체적인 권리 구제방안에 대한 홍보와 접근하기 쉬운 신고·상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정부가 직접 위촉한 한정된 인원을 중심으로 홍보·캠페인에 주력하기보다는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통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배치될 진로진학상담교사로 하여금 청소년 노동인권 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을 통해 노동관계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나, 진로진학상담교사에게만 일임하기보다 신입교사 연수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관련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강사풀 형성과 지원 등의 보완책이 뒤따라야 함.

③ 신고·구제체계 내실화와 피해구제 강화

- 2012년 정부종합대책에서 알바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교육청 상담창구 개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상담원복지센터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나, 이 정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알바신고센터 운영 지원, 전담교사·상담원·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피해 신고 시 신속한 현장근로감독 실시, 타 지역과의 공조체계 마련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 상담센터나 상담전화를 개설해놓고 청소년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닌, 청소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함.

④ 지방자치단체 지원망과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 일하는 청소년들의 생활세계와 밀접한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시(市)나 구(區) 차원에서도 별도의 지원망 구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 노력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 공조, 예산 확보와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법제와 개선 과제

①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나 청소년 다수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교부 사항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② 근로시간과 휴게·휴가

- 근로감독 등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휴식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③ 정당한 임금 보장과 임금체불 금지

- 청소년들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이 기대할 수 있는 최고임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청소년 노동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기대하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기 쉬움. 최저임금 제 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수준을 경제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의 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④ 폭언, 폭행, 성희롱 금지

-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때 폭행은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폭언을 포함하는 한다는 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대다수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수치심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성희롱 피해를 외부로 드러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와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규정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교육과 사업장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⑤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안전

-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나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과 사업주에 대해 관련 법 규정과 대응 절차에 대한 홍보가 시급함.

- 안전·보건에 취약한 업종과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점검표를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법 위반 내용도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제언

-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방향을 '법적 보호'에서 '권리 신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함.
- 정부 주도형 대책 위주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연계형, 네트워크 지원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 법 기준 홍보 방식을 벗어나 '청소년 존중'의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
1) 문헌연구	5
2) 설문조사	5
3)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	6
4) 콜로키움	6
3. 연도별 추진계획	7
II. 선행연구 고찰	9
1. 청소년 직업체험	11
1) 청소년 직업체험의 개념 및 의의	11
2) 청소년 직업체험 참여 실태	20
3) 청소년 직업체험의 효과	37
2. 청소년 아르바이트	39
1)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청소년 발달	39
2) 우리나라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42
III. 설문조사	57
1. 설문조사 개요	59
1) 설문조사 목적	59
2) 설문조사 방법	59
2. 표본설계	60
1) 모집단과 모집단 분석	60
2) 표본설계	64
3) 가중치와 모수추정	70

3. 조사내용	73
4. 조사결과	77
1) 청소년 직업체험	77
2) 청소년 아르바이트	126
3) 요약	192
IV. 정책제언	201
1. 청소년 직업체험	203
1) 청소년의 진로발달 강화	203
2)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부여 및 주도적 참여 독려	205
3) 현장중심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207
4)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제공	209
5)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및 기록·관리 강화	212
6) 진로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활용	213
2. 청소년 아르바이트	216
1) 정부 정책의 개선과제	216
2)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법제와 개선 과제	225
3) 청소년 노동인권예 대한 새로운 접근 제언	232
참고문헌	235
부 록	249
부록 1. 청소년 진로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251
부록 2. 청소년 진로체험 설문조사 결과 부표	267

표 목 차

〈표 Ⅰ-1〉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영역 및 조사내용 개요	5
〈표 Ⅱ-1〉 직업 체험의 정의	11
〈표 Ⅱ-2〉 주제별 청소년 진로체험의 의의	19
〈표 Ⅱ-3〉 학교단계별 청소년의 진로직업발달과제	20
〈표 Ⅱ-4〉 청소년 직업체험학습프로그램(Job School)의 구성 및 활동 내용	21
〈표 Ⅱ-5〉 주요 직업체험 유형	22
〈표 Ⅱ-6〉 직업체험의 종류와 내용	23
〈표 Ⅱ-7〉 직업체험 유형 및 활동내용	23
〈표 Ⅱ-8〉 직업체험 유형별 사례와 시사점	24
〈표 Ⅱ-9〉 직업체험 유형	25
〈표 Ⅱ-10〉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여부에 대한 지표 항목별 비교	26
〈표 Ⅱ-11〉 진로체험프로그램 내용별 현황	27
〈표 Ⅱ-12〉 2011 청소년실태조사-진로체험 경험	28
〈표 Ⅱ-13〉 2012년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 인원(강연형, 현장견학형 등 간접체험형은 제외)	29
〈표 Ⅱ-14〉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 비교	30
〈표 Ⅱ-15〉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	43
〈표 Ⅱ-16〉 최근 1년간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43
〈표 Ⅱ-17〉 청소년(15-24세)의 경제활동	44
〈표 Ⅱ-18〉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	46
〈표 Ⅱ-19〉 노동부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업체 대비 위반율	49
〈표 Ⅱ-20〉 노동부 점검 결과 법 위반 내용별 현황	50
〈표 Ⅱ-21〉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비교	51
〈표 Ⅱ-22〉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법 인지도	54
〈표 Ⅲ-1〉 설문조사 방법 개요	59
〈표 Ⅲ-2〉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60

〈표 III-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61
〈표 III-4〉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61
〈표 III-5〉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62
〈표 III-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62
〈표 III-7〉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63
〈표 III-8〉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63
〈표 III-9〉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64
〈표 III-10〉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66
〈표 III-1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67
〈표 III-12〉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67
〈표 III-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68
〈표 III-14〉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68
〈표 III-15〉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영역 구분 및 조사 내용	74
〈표 III-16〉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특징	78
〈표 III-17〉	진로체험프로그램 유형	80
〈표 III-18〉	진로성숙도 하위척도별 - 개인 및 지역 특성	82
〈표 III-19〉	진로성숙도 하위척도별 - 학교관련 특성	83
〈표 III-20〉	진로성숙도 하위척도별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	85
〈표 III-21〉	최근 1년 간 진로체험 경험	86
〈표 III-22〉	최근 1년 간 진로체험 경험 - 학교관련 특성	87
〈표 III-23〉	최근 1년 간 진로체험 경험 - 개인 및 지역 특성/사회경제적 배경 특성	89
〈표 III-24〉	진로체험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91
〈표 III-25〉	최근 1년간 참여한 진로체험프로그램 일정의 체계적 진행 정도-지역특성/학교관련 특성	93
〈표 III-26〉	진로체험에 관한 사전교육 여부 - 지역특성/학교관련 특성	94
〈표 III-27〉	프로그램 참여 후 활동(복수응답) - 지역특성/학교관련 특성	96
〈표 III-28〉	프로그램 참여 후 활동 : 없음(복수응답) - 학교관련 특성	97
〈표 III-29〉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 여부 및 참여태도	98
〈표 III-30〉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및 적극적 참여태도 정도 - 개인 및 지역 특성	98

〈표 III-31〉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및 적극적 참여태도 정도- 학교관련 특성	99
〈표 III-32〉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및 적극적 참여태도 정도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	100
〈표 III-33〉	상관분석 :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및 적극적 참여태도 정도	100
〈표 III-34〉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 자발성과 적극성 정도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101
〈표 III-35〉	상관분석 :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 자발성 및 적극성과 진로성숙도	102
〈표 III-36〉	진로체험프로그램과 관심 진로 분야와의 관련성 - 개인 및 지역 특성/학교관련 특성	104
〈표 III-37〉	상관분석 :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관심 진로와의 관련성과 참여태도의 자발성 및 적극성	104
〈표 III-38〉	진로체험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 각 영역에 도움이 된 정도	105
〈표 III-39〉	상관분석 : 진로체험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 각 영역에 도움이 된 정도	106
〈표 III-40〉	진로체험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 각 영역에 도움이 된 정도 - 학교관련 특성	107
〈표 III-41〉	상관분석 : 진로체험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 영역에 도움이 된 정도와 진로성숙도	110
〈표 III-42〉	청소년 진로 도움 정도 - 진로체험 경험 내용에 따른 차이(진로체험 경험자 대상)	111
〈표 III-43〉	진로체험의 도움 정도 - 진로체험에 관한 사전 교육 여부	112
〈표 III-44〉	진로체험의 도움 정도 -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및 참여자 태도	113
〈표 III-45〉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사	115
〈표 III-46〉	진로체험프로그램 유형	115
〈표 III-47〉	진로체험프로그램에 향후 참여할 의사 - 개인 및 지역 특성	116
〈표 III-48〉	진로체험프로그램에 향후 참여할 의사 - 학교관련 특성	118
〈표 III-49〉	진로체험프로그램에 향후 참여할 의사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	118
〈표 III-50〉	상관분석 : 진로체험 참여의사와 진로성숙도	119
〈표 III-51〉	진로체험프로그램 추후 참여 의사 - 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 및 참여태도	120
〈표 III-52〉	진로체험프로그램 개선사항 1·2순위	122
〈표 III-53〉	진로체험프로그램 개선사항 1순위-개인 및 학교관련 특성	123
〈표 III-54〉	진로체험프로그램 개선사항 2순위-개인 및 학교관련 특성	124
〈표 III-55〉	진로체험프로그램 개선사항 - 학교관련 특성/사회경제적 배경 특성	125
〈표 III-56〉	연소자 보호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인지도	127
〈표 III-57〉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른 연소자 노동관계 법률 및 제도	128
〈표 III-58〉	청소년알바십계명 인지 여부 - 개인 및 지역 특성	130

〈표 III-59〉 청소년알바십계명 인지 여부 - 학교관련 특성/사회경제적 배경 특성	131
〈표 III-60〉 아르바이트 관련 법, 규칙에 대한 인지 경로	133
〈표 III-61〉 학년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135
〈표 III-62〉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개인 및 지역 특성	136
〈표 III-63〉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학교관련 특성	137
〈표 III-6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1)	138
〈표 III-65〉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2)	139
〈표 III-66〉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 전체	140
〈표 III-67〉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 비교	140
〈표 III-68〉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 - 개인 및 지역 특성	142
〈표 III-69〉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 - 학교관련 특성	144
〈표 III-70〉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1)	145
〈표 III-71〉 향후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 및 구직 경험 유무- 개인 및 지역 특성	146
〈표 III-72〉 향후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 및 구직 경험 유무- 학교관련 특성	148
〈표 III-73〉 향후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 및 구직 경험 유무-사회경제적 배경 특성(1)	149
〈표 III-74〉 희망하는 아르바이트 종류	150
〈표 III-75〉 학년에 따른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	151
〈표 III-76〉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 - 개인 및 지역 특성	152
〈표 III-77〉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 - 학교관련 특성	153
〈표 III-78〉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1)	154
〈표 III-79〉 지금까지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155
〈표 III-80〉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사용처	155
〈표 III-81〉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사용처 - 개인 및 지역 특성	156
〈표 III-82〉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사용처 - 학교관련 특성	158
〈표 III-83〉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사용처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1)	160
〈표 III-84〉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사용처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2)	162
〈표 III-85〉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164
〈표 III-86〉 아르바이트 관련 부당한 경험 후 대처했던 방법	165

〈표 III-87〉 아르바이트가 역량개발에 도움이 된 정도	166
〈표 III-88〉 아르바이트를 통한 역량개발의 도움 정도 - 개인 및 지역 특성	166
〈표 III-89〉 아르바이트를 통한 역량개발의 도움 정도 - 학교관련 특성	167
〈표 III-90〉 아르바이트를 통한 역량개발 - 개인 및 지역 특성	167
〈표 III-91〉 아르바이트를 통한 역량개발 - 학교관련 특성	168
〈표 III-92〉 가장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170
〈표 III-93〉 평균 주당 근무시간 - 개인 및 지역 특성	171
〈표 III-94〉 평균 주당 근무시간 - 학교관련 특성	172
〈표 III-95〉 구직 경로	173
〈표 III-96〉 구직 경로 - 개인 및 지역 특성	173
〈표 III-97〉 구직 경로 - 학교관련 특성	174
〈표 III-98〉 아르바이트 당시 직원의 수에 따른 서류작성 및 제출 여부	175
〈표 III-99〉 서류 작성 여부 - 학교관련 특성	177
〈표 III-100〉 서류 미작성 이유 - 개인 및 지역 특성	179
〈표 III-101〉 서류 미작성 이유 - 학교관련 특성	180
〈표 III-102〉 아르바이트 만족도	181
〈표 III-103〉 아르바이트 만족도 - 개인 및 지역 특성	182
〈표 III-104〉 아르바이트 만족도 - 학교관련 특성	182
〈표 III-105〉 아르바이트 일의 자율성 정도	183
〈표 III-106〉 업무상 재해 경험 빈도	184
〈표 III-107〉 시급 - 개인 및 지역 특성	185
〈표 III-108〉 시급 - 학교관련 특성	186
〈표 III-109〉 아르바이트 당시 직원의 수에 따른 시간당 임금	187
〈표 III-110〉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따른 부당처우 유형별 경험 유무	188
〈표 III-111〉 부당처우 유형별 경험 유무 - 학교관련 특성	190
〈표 IV-1〉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한 법 위반 적발내역	218
〈표 IV-2〉 불이익에 대한 대처방법	222
〈표 IV-3〉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1)	227

그림 목 차

【그림 I -1】 연도별 연구 추진 계획	7
【그림 II -1】 청소년 진로교육의 필요성	18
【그림 III -1】 진로성숙도 하위척도별 평균값 차이	81
【그림 III -2】 진로성숙도 하위척도별 평균값 차이 : 성별	82
【그림 III -3】 진로성숙도 하위척도별 평균값 차이 : 학업성적	84
【그림 III -4】 진로성숙도 하위척도별 평균값 차이 : 가정의 경제적수준	84
【그림 III -5】 최근 1년 간 진로체험 경험	86
【그림 III -6】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여부	92
【그림 III -7】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사전교육 여부	93
【그림 III -8】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사전교육 여부 : 지역규모	94
【그림 III -9】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후 활동내용	95
【그림 III -10】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자발적 및 적극적 참여 정도	97
【그림 III -11】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자발적 및 적극적 참여태도 :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수준	99
【그림 III -12】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 여부 : 진로성숙도	101
【그림 III -13】 진로체험프로그램과 관심 진로 분야와의 관련성	103
【그림 III -14】 진로체험프로그램과 관심 진로 분야와의 관련성 : 기대하는 교육수준, 고교계열	103
【그림 III -15】 진로체험프로그램이 도움이 된 정도	105
【그림 III -16】 진로체험 경험이 청소년 진로에 도움이 된 정도 : 고교계열	108
【그림 III -17】 진로체험 경험이 청소년 진로에 도움이 된 정도 : 학업성적	109
【그림 III -18】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사	114
【그림 III -19】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사 : 성별과 지역규모	116
【그림 III -20】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사 : 교급과 고교계열	117
【그림 III -21】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사 : 부 교육수준과 경제적수준	119
【그림 III -22】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사 : 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 및 참여태도	120
【그림 III -23】 진로체험프로그램 개선사항 1·2순위	121

【그림 Ⅲ-24】	진로체험프로그램 개선사항 1순위 세부내용	122
【그림 Ⅲ-25】	청소년알바십계명 인지 여부	130
【그림 Ⅲ-26】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청소년알바십계명 인지 여부	131
【그림 Ⅲ-27】	학교관련/사회경제적 배경 특성에 따른 청소년알바십계명 인지 여부	132
【그림 Ⅲ-28】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134
【그림 Ⅲ-29】	학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135
【그림 Ⅲ-30】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136
【그림 Ⅲ-31】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137
【그림 Ⅲ-32】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1)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138
【그림 Ⅲ-33】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2)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139
【그림 Ⅲ-3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 비교	141
【그림 Ⅲ-35】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	141
【그림 Ⅲ-36】	향후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 및 구직 경험 유무	146
【그림 Ⅲ-37】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따른 향후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 및 구직 경험 유무	147
【그림 Ⅲ-38】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향후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 및 구직 경험 유무	148
【그림 Ⅲ-39】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1)에 따른 향후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 및 구직 경험 유무	149
【그림 Ⅲ-40】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	151
【그림 Ⅲ-41】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	152
【그림 Ⅲ-42】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	153
【그림 Ⅲ-43】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1)에 따른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	154
【그림 Ⅲ-44】	아르바이트 당시 부당한 일의 경험 여부	164
【그림 Ⅲ-45】	평균 주당 근무시간	170
【그림 Ⅲ-46】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에서의 직원 수	174
【그림 Ⅲ-47】	서류 작성 및 제출 여부	175
【그림 Ⅲ-48】	아르바이트 당시 직원의 수에 따른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작성 및 제출	176
【그림 Ⅲ-49】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작성 및 제출	176
【그림 Ⅲ-50】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서류 작성 여부-근로계약서	177
【그림 Ⅲ-51】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서류 작성 여부-부모동의서	178

【그림 Ⅲ-52】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서류 작성 여부-가족관계증명서	178
【그림 Ⅲ-53】 서류 미작성 이유	179
【그림 Ⅲ-54】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서류 미작성 이유	180
【그림 Ⅲ-55】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서류 미작성 이유	181
【그림 Ⅲ-56】 시급	184
【그림 Ⅲ-57】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시급	185
【그림 Ⅲ-58】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시급	186
【그림 Ⅲ-59】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대	187
【그림 Ⅲ-60】 부당처우 유형별 경험 여부	188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연도별 추진계획

제 1 장
서 론¹⁾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경험의 양적, 질적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경험이 청소년의 발달에 건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입안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청소년의 직업체험과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은 그 시작과 배경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체험은 지식위주의 평면적이고 소극적인 진로교육의 대안으로 그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2013년 2월 21일에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자유학기제 도입도 직업체험을 포함한 청소년의 체험기회가 확대될 전망을 높이고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이 높아지고 있는 직업체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일부나마 기여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들이 양질의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직업체험의 양적, 질적 측면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이를 기반으로 직업체험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발달’의 관점에서 주로 조망되었던 청소년 직업체험과는 달리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보호’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국내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는 청소년들을 위협하거나 부당한 노동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노동법 위반사례를 포함한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어떤 경험을

1) 본 장은 안선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경험이 청소년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여부나 노동 강도에 대한 이해를 넘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의 성격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를 통해 아르바이트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직업체험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의 출발점은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직업체험과 아르바이트를 하나의 연구 안에서 동시에 다루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목적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직업체험’과는 그 이유나 목적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을 생각할 때 아르바이트는 가장 강도가 높은 ‘직업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을 노동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로 보는 시각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양질의 ‘직업체험’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전국 차원의 조사가 시작된 것은 2000년 이후이다(김예성, 2008). 하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전국단위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조사는 없다.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서 2005년부터 청소년아르바이트 참여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2009년 조사부터는 유해업소 아르바이트 참여 현황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일반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이경상, 김기현, 김가람, 2011). 고용노동부나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심을 갖는 기관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조사마다 결과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질문 방식과 샘플링 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김기현, 유성렬, 2006).

청소년 삶의 일부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아르바이트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활성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직업체험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와 직업체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는 그 성격에 있어 동질적이지 않다. 이는 직업체험도 마찬가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수행된 실태조사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직업체험과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관련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검토를 위해 청소년 직업체험의 개념 및 의미, 청소년 직업체험 참여 실태, 청소년 직업체험의 효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청소년 발달의 관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등에 대해 고찰했다.

2) 설문조사

본 연구의 1차년도인 2013년에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10,119여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경험과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 설문조사의 영역 및 조사내용의 개요는 <표 I -1>과 같다.

표 I -1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영역 및 조사내용 개요

영역 구분	조사 내용
직업체험	직업체험 경험 특성
	직업체험 경험 평가
아르바이트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아르바이트 경험 특성
	아르바이트 경험 평가
	연소자 근로 보호 실태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지역 특성
	학교관련 특성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

3)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

연구 내용 및 방법, 설문 내용 타당성,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도출을 위해 학계,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였다.

4) 콜로키움

해외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와 관련 연구 동향에 살펴보기 위해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3. 연도별 추진계획

본 연구는 5개년 연구로 기획되었다. 연도별 연구 추진 계획은 【그림 1-1】 과 같다.

1차년도 (2013년)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도구 개발 •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실시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전문가 의견조사 • 전국규모 설문조사, 워크숍, 해외출장
2차년도 (2014년)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년도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실시 •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승인 통계 생산 • 비진학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도구 개발 • 비진학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실시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전문가 의견조사 • 전국규모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워크숍
3차년도 (2015년)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년도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실시 •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승인 통계 생산 • 비진학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실시 • 고용주 대상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인식 조사 실시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전문가 의견조사 • 전국규모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워크숍
4차년도 (2016년)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년도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실시 •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승인 통계 생산 • 비진학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실시 • 학부모 대상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인식 조사 실시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전문가 의견조사 • 전국규모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워크숍
5차년도 (2017년)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차년도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실시 •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승인 통계 생산 • 비진학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실시 • 교사 대상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인식 조사 실시 • 청소년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도출 •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전문가 의견조사 • 전국규모 설문조사, 워크숍, 컨퍼런스 개최

【그림 1-1】 연도별 연구 추진 계획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 직업체험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 직업체험²⁾

1) 청소년 직업체험의 개념 및 의의

(1) 청소년 직업체험의 개념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의는 국내·외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구에서는 일터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예, Cunnién, MartinRogers, & Mortimer, 2009; Mann, 2012; Sattar, 2010; National Collaborative on Workforce and Disability for Youth, 2011 등),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실제 직업현장에서의 직무 체험을 통한 학습으로 정의되고 있다(한상근, 이영대, 최동선, 정윤경, 2007). 영국 학자인 와츠(Watts)는 직업체험이란 “아직 노동자는 아니지만, 실제 직업 환경에서 일을 경험해보는 무보수 경험”이라고 했으며, 이를 통해 유의미한 학습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Watts, 1983, 1991: 한상근 외, 2007에서 재인용)(<표 II-1> 참조).

표 II-1 직업 체험의 정의

학자 및 기관	정 의
Watts (1991)	직업체험이란 아직 노동자로서의 완전한 정체성을 가지지 않은 채 실제 직업 환경에서 일을 경험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 체험을 하는 학생들은 노동자가 아닌 학습자의 역할을 하며, 따라서 단기간에 걸친 무보수 경험이 대부분이다.

2) 본 절은 김희진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강영배 교수(대구한의대학교)가 공동 집필하였음.

학자 및 기관	정 의
California Department for Education	직업체험이란 고용주의 동의하에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업현장체험이다. 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무보수인 경우도 있고 보수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Department for Education & Skills (in UK)	직업체험은 학생들이 학습적인 측면에서 고용인이 하는 특정 업무나 의무를 수행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Wikipedia (미국 온라인 백과사전)	직업체험은 ‘특정 영역이나 직업에서 일한 경험’으로 정의된다.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직무 환경을 느껴보기 위하여 자원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미국에서는 동의어로 인턴이 있음).

※ 출처 : 한상근 외(2007).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재인용(p. 9)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아동·학교·가족부에서는(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8) 청소년의 직업과 관련된 학습경험을 전체적으로 직업관련 학습으로 지칭하고, 이를 직업에 유용한 지식과 기술, 이해 등을 발달시키기 위한 직업 맥락에서의 계획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직업체험을 통한 학습, 직업과 직업실습에 대한 학습, 직업을 위한 기술학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직업관련 학습 활동으로써 진로정보 습득, 커리큘럼과 연계한 작업장 방문, 기업교육, 전문직업인이나 고용주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나 모의사업 기회 제공 및 멘토링, 모의취업면접, 단기 실습경험, 모의직업체험이나 역할극, 실제 작업장에서의 직업체험, 일 따라하기(work shadowing) 등과 같은 직업과 관련한 광범위한 학습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실제 작업장에서의 직업체험의 경우 협의의 직업체험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경험을 통한 학습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실제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일련의 일을 수행하도록 고용주가 일자리에 배치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직업체험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일반적으로 직장이나 일자리 환경에서)에서 학생들에게 일과 관련된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학교교육과 직장과의 연계 때문에 학교-일자리 이행프로그램으로도 알려져 있다(Canadian Council on Learning, 2009).

한국에서의 직업체험에 대한 논의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학습체험으로 규정하여, 직접적인 체험과 간접적인 체험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한상근 외, 2007). 예를 들면, 직장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직접체험으로 인턴십, 현장견학, 현장탐방 등을 포함하여, 도제제도, 산학협동학습, 직업 따라하기(job shadowing), 멘토링 등 실제로 학교 밖의 환경에서 일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통한 교육활동을 의미하기도 하며, 간접체험에는 직업체험관

견학, 강연, 시청각 직업정보를 활용한 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지연, 정윤경, 2006; 정연순, 고재성, 강옥희, 서정화, 2012; 한상근 외, 2007).

국내의 직접적인 직업 환경에서의 체험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여 지역사회의 산업체 인사 초청 및 산업체 방문, 산업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청소년 직업체험활동으로 보고 있다(박봉수, 김홍권, 이재근, 2005). 김기현과 김가람(2011)의 연구에서는 진로체험과 직업체험을 유사한 개념으로 보았으며, 학교 교실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을 보완하고, 직업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게 위해 직업에 대해 실제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하는 활동으로서, “체험을 통한 진로교육”을 청소년 진로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의 정연순(201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직업체험을, 청소년들이 진로탐색과 설계를 위해 학습자로서 직업세계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얻는 활동’(p. 3)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일터에서의 체계적인 직접체험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근로자로서의 정체성을 갖지는 않지만 청소년이 일터에서 일과 관련된 과제를 경험·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있다(정연순 외, 2012). 또한 직업체험활동을 직업체험과 직업관련 정보획득 수준이 아닌,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과 탐색을 통해 청소년 자신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활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재성, 2013).

직업체험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고 있는 연구에서 직업체험은 직업현장 방문 및 관찰과 같은 직접 체험과 전문가 강의, 직업현장 견학, 시청각을 통한 직업정보의 탐색과 같은 간접체험을 포함한다(김동규, 2004). 또한 청소년 직업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한 한상근 외(2007)의 연구에서도 직업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체험, 직업현장에서의 상황과 직업인의 활동 관찰, 직업인 초청 및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직업세계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직업체험으로 보는 등 매우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지원체제에 관한 정윤경, 김나라와 서유정(2011)의 연구에서는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진로체험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실제 직업현장(일터) 또는 직업환경과 유사하나 환경(장소)을 방문하여 작업을 직접 해보거나 관찰하는 등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진로체험 장소는 학교 또는 학교 밖 기관을 포함하며 대학의 전공체험활동도 포함”(p. 294)하여 정의하였다. 이 경우 일터에서의 직업체험 기회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체험 장소를 학교 내·외의 기관과 대학까지 직업체험을 위한 물리적인 환경에 포함하고 있어 직업체험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2012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발한 진로체험매뉴얼에서도 진로체험³⁾ 활동의 개념을 직업체험과 유사하게 보고 있는데, “학생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직업체험, 직장체험, 학교체험, 학과체험, 진로캠프의 5가지 체험영역을 분류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1).

이외에도 박가열, 남기성, 오민홍, 임영식과 정철영(2008)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취업준비와 직업세계로의 이행, 관련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다양한 취업준비활동과 구체적인 직업교육훈련까지 포괄하고 있다. 임지연, 김정주(2008)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실에서의 직업교육이 아닌 체험활동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 직업체험 활동을 특정 청소년을 위한 단기간 취업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이 아닌, 대다수 일반 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하여 미래를 설계하도록 학교교실 위주의 직업교육에서 탈피한 체험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업체험의 개념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업체험을 청소년들이 미래 직업(진로)설계 및 준비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장소에서 직·간접적인 관련 활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청소년 직업체험의 이론적 관점

① 진로발달론적 관점

발달론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진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Ginzberg, Super, Crites, Gottfredson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진로발달론자들은 자아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진로발달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보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특정한 시기뿐 아니라 발달단계별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들 가운데 Super는 진로의식의 발달단계를 크게 성장기와 탐색기로 분류한 후, 청소년기를 성장기에서 탐색기로 이행하는 시기로 보았다. 또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선택에 있어 능력을 중시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흥미, 능력 그리고 취업의 기회를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토론과 일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3)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 하반기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로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업체험을 특성화고교에 국한된 직업교육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또 진로체험이라는 용어가 진로교육 측면에서 적절한 용어라는 판단으로 직업체험이 아닌 진로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정윤경 외, 2011).

그리고 Super는 인간이 생애주기별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수행하게 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각 발달단계상의 역할 또는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다음의 발달단계에 대한 준비도 원활해진다고 보고 있다. 각 단계에서의 역할 수행의 성공여부는 진로성숙도에 달려 있으며, 진로성숙도는 학교 또는 학교밖 시설에서의 학습경험과 가족과 교사 등의 심리사회적 기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진로성숙도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학자로 Super와도 공동연구를 진행한 Crites(1969, 1981)를 들 수 있다.

Crites(1981)는 진로성숙도를 진로선택내용과 진로선택과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진로선택내용에 있어서는 일관성과 현실성을, 그리고 진로선택과정에 있어서는 선택의 역량과 태도를 중시하였다. 또한, 그는 개인의 능력과 흥미, 인격적 특성, 사회계층과 같은 요인들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는 진로와 관련된 역량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진로성숙도 척도」를 개발하였다(Betz, 1988). 그가 개발한 진로성숙도 척도는 자신 및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목표선택능력, 진로계획능력, 문제해결능력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柳井(야나이)(2001: 20-12)는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현실적 요건을 고려하여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진로설계 및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가’,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 및 이해는 충분한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등과 같은 요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Gottfredson(1996)은 사람들의 직업적 기대가 아동기 때부터 성별, 인종별, 사회계층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한(circumscription)과 타협(compromise)이론을 개발하였다(Swanson & Fouad, 1999: 86-88). 그는 인간의 직업기대를 크게 4단계로 분류하고, 청소년기는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 해당하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 가운데 자신의 흥미, 가치, 능력을 고려하여 선택지를 좁혀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 때 타협의 대상은 직업에 대한 흥미, 직업이 가지고 있는 명성과 성별, 직업유형(남성직, 여성직)이며, 직업적 흥미가 타협의 1순위가 되며, 최고의 선택보다는 최선의(good enough) 선택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② 사회학습이론적 관점

사회학습이론은 인간을 사회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통제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존재’로 본다. 이 이론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Bandura(1977)에 의해 제창되었지만, 이 개념을 진로분야에 도입한 것은 Krumboltz, Hakett and Betz 등과 같은 연구자들이다. Bandura(1977)는 인간의 행동은 환경과 인지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행동의 선행요인 중에서도 인지적 요소인 자기효능감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 때 자기효능감을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들로는 성공 경험(Performance Accomplishments), 대리학습(Vicarious Learning),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정서적 환기(Emotional Arousal)를 들고 있다.

위의 4가지 요인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공경험이란 과거에 자신에게 필요한 행동을 실제로 달성한 경험을 말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어진 자기효능감은 이후의 경험에 대한 성취기대로 이어진다. 대리학습 또는 모방학습이란 직접적인 행동에 의한 성공 및 실패 경험이 아닌 타인의 경험을 관찰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능감을 의미한다. 이 때 성공경험에 대한 관찰은 성취기대로 이어지지만, 반대로 실패 경험에 대한 관찰은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언어적 설득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언어적 영향을 의미하는데, 행동과 성취에 대한 언어를 통한 격려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환기란 자신의 생리상태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긴장하거나 불안감을 느낄 때보다 정서적으로 안정적일 때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반두라의 이론과 직업체험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직업체험에서의 성공 경험, 일하는 모습의 관찰과 직장인과의 대화 등은 자기효능감을 획득하기 위한 주요 요인으로, 성공 경험, 대리학습, 언어적 설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체험들이 직업체험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울러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적극적이며 주체적인 진로 탐색 및 준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山田(야마다)(2008)는 청소년이 인지하는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의 범위와 직업적 흥미 유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그들의 진로미결정적 성향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Hackett and Betz(1981)는 반두라의 자기효능감을 진로에 도입하여 진로자기효능감이란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 개념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진로효능감을 조사한 결과, 남자청소년은 연구, 건축, 운전 및 조종 등과 같은 남성직에, 그리고 여자청소년은 보육, 간호, 사무직에 편중되는 수평적 직업분리는 그들이 어린 시절에 획득한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본다. 즉, 이러한 결과는 어린 시절의 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획득한 자기효능감이 청소년기 이후의 진로선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은 높은 효능감을 경험한 직업 또는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장래의 진로선택지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강영배, 2013b: 196).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설령 적성과 소질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Krumboltz(1999)는 청소년들의 진로의사결정의 영향요인으로, 유전적 특성, 환경적 상황과 사건, 학습경험, 과제접근기술을 언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학습경험과 과제접근기술은 직업체험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다양한 학습경험 또는 체험활동의 내용을 전부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학습경험과 체험활동을 종합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직업체험의 효과가 진로경로의 선택에 즉각적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장기적 또는 간접적인 형태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제접근기술은 앞의 유전적 특성, 환경적 상황과 사건, 학습경험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생성되는 기술로, 학습의 경험과 체험활동이 얼마나 조직적, 체계적으로 실천되느냐에 따라 과제접근기술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과제접근 기술에는 과제에 몰입하는 방법, 인지과정 그리고 정서적 반응이 포함된다(강영배, 2013b: 202).

③ 합법적 주변참여론 관점

합법적 주변참여론(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LPP) 관점은 1991년 Lave and Wenger(1991)가 제시한 학습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이들은 학습을 개체에 의한 지식과 기능의 획득과정이 아닌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의 참여과정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체에 대한 ‘참여’는 예를 들어, 기업, 학교와 같은 실천공동체에 새롭게 진입하는 이들이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합법적인 또는 적절한(legitimate)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상태를 참여라고 여기며, 구성원의 역할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본다. 이 때, 실천공동체의 구성원과 공동체 내부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 언어 등은 공동체의 새로운 참여자에게 하나의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능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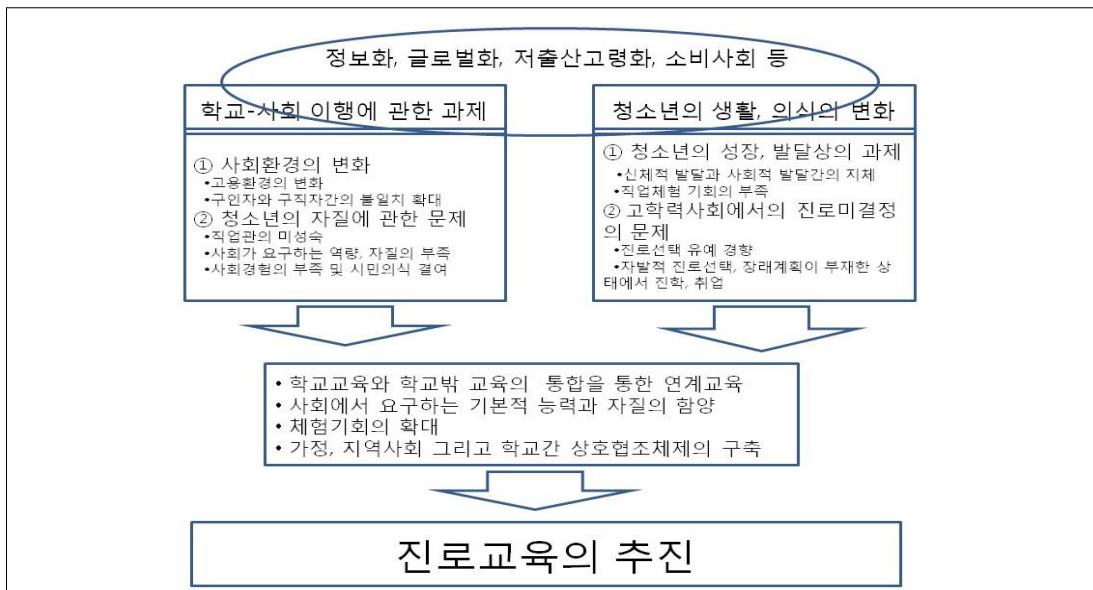
Lave and Wenger(1991)는 이러한 학습 과정에는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가 필연적으로 동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합법적 참여 관점에서 직업체험을 설명하면, 학습 과정에는 참여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의미하는 ‘시간’적 요소와, 참여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문맥에

해당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공간’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직업체험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실천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기존의 직장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가치관을 배워나감과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이 청소년의 노동관 또는 직업관을 육성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吉田(요시다)(2009)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체험이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을 통해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힘들며, 직업체험을 통한 직업적 정체성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3) 청소년 직업체험의 의미 및 필요성

2009년 창의적체험활동 도입 이후 진로활동영역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의 직업 및 진로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윤정(2012)과 장원섭(2007)은 현재 우리사회에 있어 절실하게 필요한 진로교육의 내용 및 방향은 교과서와 심리검사 등을 이용한 텍스트형 진로교육보다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형 진로교육이라고 주장한다. 체험이 신체활동을 통하여



文部科学省(2012), 「中学校キャリア教育の手引き」, p.10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II -1】 청소년 진로교육의 필요성

개인과 사회, 현실과 이상 그리고 이론과 실재를 통합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직업체험은 단순히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직업세계를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에 근거하여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와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가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구축해가는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직업체험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를 포함한 학교, 청소년관련기관 그리고 지역주민,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 주체들에게 있어 청소년의 직업체험이 가지는 의의로는 첫째, 청소년은 직업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됨과 동시에 직업세계를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직업체험을 통하여 직업의 사회적 가치와 책무성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계기를 가지게 된다.

표 II -2 주체별 청소년 진로체험의 의의

주 체	내 용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에 대한 이해, 체험이 가능 ◦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을 응용, 활용 가능 ◦ 직업체험을 통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 ◦ 장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 마련 ◦ 노동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 가능 ◦ 취업의식 및 자립심의 고취 ◦ 자신의 직업적성 파악
학교 및 청소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기업과의 밀접한 관계 구축 가능 ◦ 일세계와 학교와의 협력관계 구축 지원 가능 ◦ 기업의 요구를 이해하며, 이에 대한 대응력 마련이 가능 ◦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보다 효과적이며 교육적인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 ◦ 교사 및 청소년지도사의 교육 및 지도역량 강화 계기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청소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기업의 시스템과 사회적 역할, 공헌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 ◦ 진로직업체험을 통하여 사원들의 교육능력 향상 ◦ 청소년의 직업가치관 파악

※ 출처 : 강영배(2013c).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의 운영 및 효과성 검토 방안-일본사례 분석을 중심으로(p.79)

둘째, 학교는 직업체험을 통하여 기업 또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며, 진로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 및 내용의 편성에 있어서도 기업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양방향형 교육과정편성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적인 직업체험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소년들의 학교급별(초, 중, 고등학교) 진로발달 특성과 발달과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3 학교단계별 청소년의 진로직업발달과제

구분	진로직업 발달특성	진로직업 발달과제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탐색, 선택에 관한 기반형성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적극적 관심 형성, 발전 주변의 직업 및 환경에 대한 관심 및 의욕의 증가 꿈, 희망,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미지 형성 일의 가치를 존중하며, 장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익힘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실적 탐색과 잠정적 선택의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자기효능감 획득 흥미, 관심 등에 기초한 직업관의 형성 진로계획의 수립 및 잠정적 선택 인생 및 진로에 대한 현실적 탐색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실적 탐색, 시행과 사회적 이행준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이해의 심화와 자기 수용 선택기준으로서의 직업관 확립 장래계획 수립 및 사회적 이해의 준비 진로의 실현가능성 검토, 직업세계 이행 준비

※ 출처 : 강영배(2013b), 청소년 진로교육 및 상담론에서 재인용(p.20)

셋째, 지역사회 및 기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체험 기회의 제공은 단순히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의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및 기업 스스로가 진로교육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기타 직업체험 제공은 직업체험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역량을 향상,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강영배, 2013c).

2) 청소년 직업체험 참여 실태

(1) 청소년 직업체험의 국내 현황 및 실태

① 국내 청소년의 직업체험 유형

직업체험 활동 및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해서는 다수의 관련 연구에서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 박가열과 노경란(2006)의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잡 스쿨 프로그램의 구성 및

활동내용과 관련하여 <표 II-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전학습 및 현장학습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현장학습으로서 대학의 전공 이해와 기업체에서의 직업체험으로 직업체험학습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표 II-4 청소년 직업체험학습프로그램(Job School)의 구성 및 활동 내용

프로그램 구성	주요 학습 활동	장소
사전학습	① 직업의 목적, 역할, 의미 이해 ② 인기직업 및 유망직업 ③ 고용시장 동향 ④ 직업정보 수집 방법 ⑤ 자기에 대한 인식과 직업	참가자 학교
현장학습	대학 전공학과에 대한 이해 ① 전공학과에 대한 이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②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역할 ③ 졸업 후 진로 및 전망(취득 가능한 자격증)	대학교
	대학에서의 전공 체험 ① 전공학과별 특성을 반영한 간단한 실험 및 실습	대학교
	기업체에서의 직업체험 ① 기업소개(업무, 근무조건, 채용 조건 등) ② 공장 및 작업실 견학 및 체험 ③ 해당 직업에 대한 안내(예, 방송국 아나운서 등)	기업체

※ 출처 : 박가열, 노경란(2006). 청소년 직업체험학습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p.24)

한상근 외(2007)의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들에서 다루고 있는 직업체험의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도제제도, 산학협동 교육, 직장 내 훈련, 멘토링, 직업현장 체험, 인턴십, 직업 따라하기, 직업현장방문, 업무/학습 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학습, 학교 기반 기업, Job-shop 실험실, 직업 시뮬레이션 실험실, 직업 실험실, 모의 기업 프로젝트, 현장 기반 프로젝트, 모의 인터뷰, 진로축제/진로의 날, 직업인의 학교 강연까지 포함되어 있다(한상근 외, 2007의 p. 17 도표 재구성). 특히 직업체험을 직업현장에 초점을 둘 경우, '직장기반 현장체험'은 도제제도, 산학협동 학습, 잡채도잉, 멘토링, 인턴십 등과 같이 학교 밖의 일터에서 구체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Hoerner & Wehrley, 1995: 한상근 외, 2007에서 재인용). 이러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한상근 외(2007)연구에서는 <표 II-5>와 같이 직업체험 유형을 보다 광범위하게 재분류하였다.

표 II-5 주요 직업체험 유형

유형	내 용
현장견학	수요자들이 사업체나 직업현장을 견학하고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짐.
현장체험	기업 및 기관 등 직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체험을 통해 직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직업인 초청	CEO나 주요 직업의 현직자를 학교에 초청하여 직업세계의 변화와 직업별로 하는 일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 토의를 함.
주요기관의 직업체험 활용	노동부의 Job School, 교육부의 WISE 지원 사업 등과 같이 기존에 중요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함.
1교 1사 직업체험	학교별로 지역 내 기업체와 협약을 맺고 기업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활용함.
시청각활용	다양한 직업세계를 알려주는 비디오, CD ROM 등의 시청각 자료를 시청하여 직업 세계에 관한 정보를 습득함.

※ 출처 : 한상근 외(2007),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연구(p.15)

정윤경 외(2011)의 연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기존에 개발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유형화하였는데, 첫째, 직업의 일부 직무 또는 기술들을 체험하는 직업체험, 둘째, 직업인의 업무 및 역할체험, 그리고 강의를 포함한 견학 및 탐색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정연순(2012)의 최근 연구에서는 직업체험 종류를 이야기 나누기, 방문, 직접체험으로 크게 구분하고, 직업인 강좌, 직업인 인터뷰, 직업인 멘토링, 시설 및 일터 견학, 모의 체험, 훈련 체험, 기능 체험, 직장 체험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특히 직업체험을 보다 다양하게 유형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II-6>).

표 II - 6 **직업체험의 종류와 내용**

구분	종류	내 용
이야기 나누기	직업인 강좌	직업인이 학교를 방문하여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직업인 인터뷰	학생 개인이 관심 가는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을 선택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인터뷰함으로써 해당 직업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
	직업인 멘토링	관심 분야의 직업인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직업이나 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선택과 준비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
방문	시설 견학	직업 관련 박물관, 전시장, 체험관 등 전시·체험 시설을 견학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일터 견학	대규모 공장 시설을 함께 둘러보거나, 지역의 일터,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관찰하면서 직업과 일터를 이해한다.
직접 체험	모의 체험	시설이나 일터 견학 시 간단한 기능을 모의로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직업을 이해한다.
	훈련 체험	직업훈련기관에서 관련 직종의 직업세계 진출 가능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짧은 기능 훈련을 받아본다.
	기능 체험	지역의 장인, 기능인들을 학교로 초청하거나 공방으로 찾아가 간단한 만들기 과제를 수행하면서 직업을 체험한다.
	직장 체험	지역의 직장이나 일터에서 하루 이상 일을 돕고 체험함으로써 직업세계를 이해한다. 직업 기술을 익히기 위한 체험은 비교적 장기간 진행되지만, 직장 문화와 일의 태도를 익히기 위한 활동은 비교적 단기간 진행된다.

※ 출처 : 정연순(2012),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사례 : 직업체험을 중심으로, 2012년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진로체험 활동 사례 콜로키움 자료집(p.4)

교육과학기술부(2012a)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한 진로체험매뉴얼에서는 진로체험유형을 직업 체험, 직장체험, 학교체험, 학과체험, 진로캠프로 구분하였고, 체험방법으로는 <표 II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접체험형, 현장견학형, 학과체험형, 현장직업체험형, 강연형(대화형), 캠프형, 기타 1校1社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표 II - 7 **직업체험 유형 및 활동내용**

매뉴얼상 분류	활 동 내 용	교과부 분류
간접 체험형	영상미디어 자료활용 ◦ 시청각 자료 활용 시간을 통해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강연형 (대화형)
	전문직업인 초청 ◦ 기업 CEO, 현직자,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직업인들의 강연을 청강하여 이를 통해 직업과 인생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함.	

매뉴얼상 분류	활동 내용	교과부 분류
현장견학형	◦ 진로교육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기업이나 박물관, 공공기관 등을 견학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나의 직업이나 진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학습 활동	현장견학형
학과체험형	◦ 학과체험을 통해 폭넓은 직업 탐색의 기회 및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 학습 기회 제공 예) 대학 학과(직업)체험, 특성화고를 활용한 직업체험	학과체험형
현장직업체험형	◦ 2~5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의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간단한 업무를 체험하며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일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	현장 직업체험형
캠프형	◦ 특정 장소에서 단기간에 진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1일 6시간 이상 운영)	캠프형
위탁형	◦ 대행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탁하고, 위탁기관과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진로 체험 방법 및 기관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	-
기타	◦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1교1社 등 추진 ◦ 기업이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학습지원, 복지제공, 채용 등이 가능하도록 협약하여 운영(특성화고)	1교1社형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2a). 진로체험 매뉴얼 : 학교 및 교육청용(p.1)

또한 최근의 직업체험프로그램 특징으로, 각 시·도 교육청별로 다양한 유형의 진로·직업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 내 학교와 사업장 연계형,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형, 재능기부 연계형과 같은 각각의 독특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II-8>과 같다.

표 II-8 직업체험 유형별 사례와 시사점

유형 (사례)	지자체 협력형 (서울시교육청)	사회적 기업 연계형 (대구시교육청)	재능기부 연계형 (경남교육청)
내용	◦ 각 자치구와 협력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구축 ◦ 지역 내 학교와 다양한 사업장을 연계하여 직업체험 실시	◦ SK그룹과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대구행복한미래재단) 공동 설립 및 운영 ◦ 제공 프로그램: 찾아가는 진로 학습 코칭, 직업체험캠프, 학부모진로교육 및 세미나, 교육진로교육 연수, 커리어컨설턴트 양성과정	◦ e-나눔미를 통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단체 등 617개 교육기부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유기적·지속적 관리 ◦ 기부 포인트를 통해 기부점수를 확인 가능
시사점	◦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직업체험의 시스템 구축에 기여	◦ 사회적 일자리 모델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	◦ 직업체험 매칭 시스템 개발에 시사점 제공

※ 출처 : 손유미(2013).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활동 : 가능성과 한계, 2013 준계공동학술대회 청소년진로체험활동 자료집(p.56).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생활실태조사’의 진로체험영역에서는 진로박람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잡 스쿨,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체험프로그램,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프로그램,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진로체험을 조사하고 있다(여성가족부·통계청, 2011).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 유형에 대해, 직업체험의 성격과 특징, 체험 장소, 진로관련 정보 습득방식 등을 고려하여 직·간접적인 직업체험 유형으로 구분·정리하면 <표 II-9>와 같다.

구분	직업체험 유형
간접체험	영상미디어(시청각)자료를 통한 직업세계 이해
	기업 CEO나 전문직업인 초청 강의
	직업인 방문 및 인터뷰
	직업인 멘토링
	진로박람회 및 전시시설 견학
직접체험	직업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현장견학(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직업탐색을 위한 대학의 전공학과 체험
	시설이나 일터 견학 시 간단한 모의 체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간단한 훈련 체험
	현장직업 체험(직업현장의 직무를 직접 경험)
	잡 스쿨,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
	인턴십

② 국내 청소년의 직업체험 현황 및 실태

우리나라의 진로체험 실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른 진로교육 유형보다(예, 진로상담, 적성검사 등) 직업체험 참여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직업체험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만족도와 효과도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직업체험과 관련하여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7,560명의 대규모 표본을 조사한 최인재, 김봉환, 황매향과 허은영의 연구(2009)를 보면, 학생들이 경험한 직업체험 유형 중 '진로박람회(엑스포)'경험률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표 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26.2%)',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잡 스쿨)(21.3%)'과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21.2%)'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인 직업체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인 19.1%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 중 청소년들은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 관련 견학 프로그램'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대학의 견학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3.6%가, 그리고 진로박람회, 잡 스쿨, 산업체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략 24%~26% 정도의 응답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의 경우는 9.4%수준)(최인재 외, 2009).

표 II-10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관련 경험여부에 대한 지표 항목별 비교

문 항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진로박람회(엑스포)	30.0	70.0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스쿨(잡 스쿨)	21.3	78.7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 교육	26.2	73.8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19.1	80.9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	21.2	78.8
전 체	23.6	76.4

※ 출처 : 최인재 외(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청소년 진로·직업 지표)(p.190).

직업체험을 중심으로 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연구(정윤경 외, 2011)에서도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실태조사를 위해 117개 학교를 대상으로 474명의 학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 체험활동이 4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론(29.1%), 견학(26.5%), 기타(의견발표나 면담 등 3.1%) 순이었다.

표 II -11 진로체험프로그램 내용별 현황

프로그램 활동 중심	프로그램 개수(%)	운영시간	참여 학생수
이론 중심	41(12.4)	9.5	179
견학 중심	30(9.1)	4.2	162
체험 중심	95(28.7)	9.0	71
내용 혼합(기타 포함)	75(22.6)	5.9	133
계	241(100.0)	7.5	119

※ 출처 : 정윤경 외(2011). 직업체험 중심 진로교육 지원체제 연구(p.76)

이 연구에서의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에는 구체적인 직업명이 제시된 직업체험이나 산업체험, 기관 견학 및 방문, 답사프로그램, 대학 및 전공체험, 특강 및 초청강연, 캠프프로그램, 진로박람회, 진로의 날 행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정윤경 외, 2011).

또한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한 직종으로는 방송 관련 직업(PD, 기자, 아나운서, 방송기술자), 보건, 의료직(의사, 간호사, 한의사, 수의사, 건강관리사 등), 항공관련 직업(조종사, 승무원), 음식 관련 직업(요리사, 바리스타, 제과제빵사 등), 영화 및 연극 관련 직업(영화제작자, 연기자, 시나리오 작가 등), 법조인(판사, 변호사 등)이 많았다(정윤경 외, 2011). 이 연구에서 진로체험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은 2010년도에 44.4%였던 것에 비해 2011년에는 66.2%로 참여율이 증가하였는데,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진로분야와 관련성이 있다는 응답은 70.2%, 관련이 없다는 응답은 27.4%로 보고되었다(정윤경 외, 2011).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함께 실시한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중 진로체험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약 2,200명의 조사대상 청소년(9세~24세) 중 체험 활동별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정도가 진로체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2>).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청소년 중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인 진로체험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 관련 견학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었다(30%).

표 II-12 2011 청소년실태조사-진로체험 경험

항목	구분	받아본 경험이 없음	받아본 경험이 있음	도움 유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약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1) 진로박람회에 간 경험	전체	77.4	22.6	2.1	7.0	11.6	1.9
	남	79.7	20.3	2.8	5.7	9.5	2.3
	여	75.3	24.8	1.5	8.2	13.5	1.6
2)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잡 스쿨에 간 경험	전체	90.8	9.3	1.3	3.9	3.6	0.5
	남	90.8	9.2	1.4	3.9	3.2	0.7
	여	90.9	9.2	1.2	3.9	3.9	0.2
3)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전체	76.3	23.7	3.0	9.1	10.7	0.9
	남	76.4	23.6	3.4	9.5	9.5	1.2
	여	76.2	23.8	2.7	8.7	11.8	0.6
4)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전체	83.5	16.5	1.5	5.3	8.2	1.5
	남	85.2	14.9	1.7	5.2	6.3	1.7
	여	82.0	17.9	1.3	5.3	9.9	1.4
5)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 관련 견학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전체	69.8	30.1	1.7	6.9	16.7	4.8
	남	73.9	26	2.5	6.2	14.0	3.3
	여	66.0	33.9	1.0	7.4	19.3	6.2

※ 출처 : 여성가족부, 통계청(2011), 2011 청소년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23.7%, ‘진로박람회에 간 경험’ 22.6%,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16.5%,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 스쿨 경험’ 9.3% 수준이었다(여성가족부·통계청, 2011). 그 중 가장 도움이 된 진로체험은 대학에서 실시하는 견학프로그램이었으며(‘약간 도움이 됨’과 ‘매우 도움이 됨’의 합친 비율이 21.5%), 잡 스쿨 경험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41%).

교육부의 2013년 자료를 분석한 가장 최근 실태를 살펴보면, 2012년에 진로 및 직업체험에 참가한 학생은 대략 120만 명으로 전체 중·고등학생(3,769,181명)의 약 3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표 II-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장 및 직업체험은 63만 명, 대학과 특성화고를 활용한 학과 체험은 32만 명, 공공기관 및 기업 주관 체험은 25만 명 등으로 나타났다(손유미, 2013).

표 II-13 2012년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 인원(강연형, 현장견학형 등 간접체험형은 제외)

구 분	인원	전체 학생 대비 비율
직업체험(직장체험)	635,508	16.9%
학과체험(대학과 특성화고 활용한 진로체험)	320,755	8.5%
기타(외부기관, 기업 등에서 주관한 체험)	246,170	6.5%
계	1,202,433	31.9%

※ 출처 : 손유미(2013).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활동 : 가능성과 한계, 2013 춘계공동학술대회 청소년진로체험활동 자료집(p.57).

또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직업체험 유형이 편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학생의 경우 진로심리검사 경험비율이 82.5%로 가장 높은 것에 비해, 직업체험은 52.7%가 경험하였으며, 진로박람회나 진로캠프의 참여율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직접적이고, 다양한 직업체험 활동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손유미, 2013).

한국 청소년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미국 청소년들의 진로준비 실태를 함께 비교·조사한 최근 연구에서는(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송민경, 2012), 한국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경험률이 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II-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진로지도 항목 중 한국 청소년은 진로관련 검사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96.5%), 그 다음은 학교 및 학과 안내(93.7%)였으며, 이후 진로상담(90.6%), 진로관련 강연(89%), 직업체험(80.8%)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체험은 다른 진로지도 경험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 응답률은 다른 국가의 청소년 응답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직업체험 경험에 대한 만족도도 역시 다른 진로지도 내용과 비교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고등학교 재학 시 직업체험을 경험한 청소년의 진로·직업선택의 결정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향후 자신의 직업세계에서 성공하거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확신성 수준은 높게 보고되었다.

표 II-14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 비교

단위: %(명)

내 용	한국(N=1498)		중국(N=1484)		일본(N=1479)		미국(N=1319)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진로관련 강연(전문가, 선배 등)	89.0	11.0	91.2	8.8	88.0	12.0	87.3	12.7
학교 및 학과 안내	93.7	6.3	96.8	3.2	92.6	7.4	91.4	8.6
진로관련 검사(적성, 흥미 검사 등)	96.5	3.5	92.8	7.2	91.4	8.6	86.9	13.1
직업체험	80.8	19.2	88.7	11.3	80.6	19.4	91.1	8.9
진로상담	90.6	9.4	89.7	10.3	94.8	5.2	82.8	7.2

※ 출처 : 안선영 외(2012).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 연구(p.118)

또 다른 국제비교연구인 PISA 조사⁴⁾에서, 직업박람회, 기업인강연, 기업체방문, 현장실습 등을 포함한 주요 진로 및 직업체험프로그램의 학교 운영 여부를 보면, 한국은 비교대상 28개국 중 20위권 밖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기업체 방문(44.1%)이나 현장실습(4.8%)의 경우는 최하위권으로 보고되었다(김기현, 맹영임, 2011). 핀란드 학교의 경우 기업체 방문과 현장실습의 운영비율이 각각 94%, 99.1%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이러한 직접적인 진로체험 경험이 한국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사점

국내의 선행연구 및 국제비교조사를 통해 국내 청소년의 직업체험 실태를 살펴본 결과, 한국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산업체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진로 및 직업체험 활동보다는 진로검사나 관련 박람회 관람 등 간접적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다 직접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직업체험 경험률이나 직업체험 유형이 각각의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실태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무엇보다 기존의 진로 및 직업체험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 개인의 직업체험 경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청소년이 조사대상일 경우에는 그 표본 규모가 작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로

4) OECD에서 실시한 2006년 국제학업성취도 조사(PISA: 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 결과

및 직업체험의 전국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전국규모의 표본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에도 직업·진로체험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진로지도 및 교육 전반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을 조사내용에 포함하거나 혹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조사내용 중 진로박람회 및 잡 스쿨 경험, 청소년기관과 복지관련기관이나 산업체 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 일부 유형의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여부만을 조사하고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직업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 실태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기 어렵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기초로 향후 개선방안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표본추출 및 조사과정을 통해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활용한, 청소년 직업체험에 대한 심도 있는 실태 파악이 우선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의 참여 경험과 더불어,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사전교육 및 사후활동 등 포함) 및 자발적 참여 여부와 청소년들의 참여태도, 진로체험프로그램과 관심진로분야와의 관련성, 자신의 진로·직업 탐색 및 이해,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진로선택에 도움 정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다양한 유형의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와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과 향후 발전방안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실태파악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2) 청소년 직업체험의 해외 실태

① 일본의 청소년 직업체험 현황 및 실태

日本キャリア教育学会(일본진로교육학회)(2008)는 일본 정부가 진로교육정책을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진로지도(Career guidance)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기업이 참여하는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으로 전환한 시점을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보고 있다. 이 시기는 소위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릴 만큼 경기침체가 장기화, 고착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청(소)년 일자리 감소,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역량의 변화 등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직업체험과 같은 체험형 진로교육보다는 교과서 위주의 이론형 진로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실제로 国立教育政策研究所(국립교육정책연구소)(2005)의 조사에 따르면,

1989년 시점에 전체 공립중학교의 1.2%만이 직업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도 6.2%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문부과학성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체험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책수단 및 추진체제의 부재, 협력기관의 미확보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직업체험은 발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의 능력관을 둘러싼 관점이 변하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그것이 바로 1996년 문부과학성의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위원회가 제기한 「生きる力(이키루찌카라)」이다. 여기서 말하는 '生きる力(이키루찌카라)'란 기초학습능력과 인성 그리고 체력이 조화를 이룬 역량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표현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生きる力(이키루찌카라)'의 개념은 진로교육에도 적용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인간 관계형성능력, 자기이해 및 관리능력, 과제대응능력, 진로설계능력 등으로 표현된다(강영배, 2013a).

1998년 이후, 학교교육에 「総合的学習時間(종합적 학습시간)」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진로교육은 교과서 위주의 교실수업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체험형 진로교육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2005)의 조사에 따르면, 2001년을 기준으로 공립중학교의 80% 이상이 직업체험을 교과과정에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2004년에는 거의 90%에 가까운 중학교가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가장 최근의 자료인 内閣府(내각부)(2013)의 『平成25年度版 子ども・若者白書』(평성25년도판 아동청소년 백서)(2013)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공립중학교의 직업체험 실시율은 9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를 볼 때, 일본의 거의 모든 공립중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内閣府(내각부)(2013)의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직업체험 실시율은 76.4%로, 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증가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国立教育政策研究所(국립교육정책연구소)(2012)는 고등학교의 직업체험 실시율이 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로 직업체험을 위한 기업 확보의 곤란, 직업체험을 담당할 전문교사의 부족, 대학진학 준비로 인한 체험시간의 부족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国立教育政策研究所(국립교육정책연구소)(2012)의 분석에 따르면, 학교형태 및 학교급별로 직업체험 실시율과 기간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학교의 경우 2학년(87.3%)이 다른 학년(1학년 48%, 3학년 7.9%)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실시율을 보였는데, 이는 교육과정 편성상 중학교를 갓 입학한 1학년과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3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험시간의 확보와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2학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内閣府(내각부)(2013)의 자료에 따르면, 인문계 고등학교(75.6%)와 전문계 고등학교(92.3)간에 직업체험(인턴십) 실시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직업체험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체험시간과 참여기업 발굴의 어려움 등을 들고 있다.

② 미국의 청소년 직업체험의 현황 및 실태

Hoyt(1975)는 미국에서 학교 진로교육의 방향이 교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된 시기를 1970년대 중반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종래의 교실중심 진로교육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기업 등이 참여하는 통합형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994년 『학교-직업세계 이행 지원 법(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이하, 이행지원법)을 제정하면서 학교와 기업이 동시에 진로교육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독일의 듀얼시스템(Dual System)을 모델로 삼아 미국형 이원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행지원법에서는 청소년들의 원활한 학교-직업세계 이행을 위해서 교과목 간 통합, 학교와 기업 간 통합, 그리고 학생, 교사, 기업전문가 간 통합의 3가지 요소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Osterman & Iannozzi, 1993; Research Policy Committee of the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1996). 이와 아울러 학교와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Zemsky, Shapiro, Iannozzi, Cappell & Bailey, 1998).

한편,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진로 및 직업체험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으로는 학교와 기업이 연계하는 체험활동을 포함하여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산학협동교육(Cooperative Education), 청소년들이 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직업을 관찰하는 잡 쉐도우(Job Shadow), 학교가 아닌 기업현장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인턴십(Internship)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Karen과 동료연구자들에 따르면,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실시율에서 산학협동교육이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잡 쉐도우(Job Shadow)가 43%, 인턴십이 25%인 것으로 나타났다(Karen, Doug, Peter. & Martha, 2000).

잡 쉐도우(Job Shadow)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짧게는 만나질, 길게는 1-2일에 걸쳐 직업 현장에서 그림자처럼 직장인을 따라다니면서 직업을 관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4년의 『학교-직업세계 이행 지원법』의 제정과 더불어

도입되었으며, 워크스연구소(워क्स연구소)(2004)의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특징으로 직장인 인터뷰 및 관찰, 직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교과학습과의 통합에 대한 인식의 제고, 대인관계와 팀워크의 중요성 강조, 그리고 작업환경 및 노동자의 복리후생 등과 같은 노동조건에 대한 관심 등을 꼽을 수 있다. 藤田(후지타)(2004)에 의하면, 잡 쉐도우(Job Shadow)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업현장을 관찰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관심과 흥미를 재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③ 핀란드의 청소년 직업체험의 현황 및 실태

핀란드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초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핀란드의 학제는 크게 취학 전 교육, 기초교육(종합학교), 상급 중등교육, 그리고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으로 구분되는데, 기초교육에서부터 적극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진다(EURYDICE, 2001, 권대봉, 김경희, 2002에서 재인용). 기초교육을 마치게 되면 상급학교 진학, 또는 직업교육을 통한 직업세계로의 진입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권대봉, 김경희, 2002). 기초교육 전 과정에 걸친 진로지도서비스를 위해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1~2학년, 3~6학년, 7~9학년 단계별로 진로지도교과의 목표와 내용체계를 제시하고 있다(이지연,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2009). 교과 중심의 진로지도 활동은 주로 7~9학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되는데, 학습기술, 자기이해, 계속교육 훈련의 기회, 직업세계의 이해가 교과에 포함되고, 필요 시 개인 또는 집단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교육이 끝날 무렵에는 1~2주일 정도 직업체험을 하게 된다(이지연 외, 2009).

특히 종합학교 8~9학년(추가과정인 10학년과 고등학교 단계 포함) 학생들에게는 1~2주간 동안 “직업생활 소개기간(Introduction-to-Working-Life Period, TET)”이라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실제 직업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업생활에 관한 경험을 갖도록 하고 있다(김현철, 2013; 정연순 외, 2012). 이러한 직업생활 소개기간 중 학생 자신이 직접 선택한 회사의 직업세계를 관찰하고 또 작은 업무도 맡아 수행하는 등 실제 직업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PPO(Practical Professional Orientation)”라는 체험기간을 제공한다. PPO기간 동안은 하루 6시간씩 주 5일 동안 근무하게 되지만, 이 체험기간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간주되어 학생들은 임금을 받지 않으며, 이후에 고용주는 학생의 시간 엄수나 근면성과 같은 태도와

자발성, 적응정도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하게 된다(정연순 외, 2012).

또한,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이 더욱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직업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직업체험 온라인 정보망(TET-tori⁵⁾이 구축·운영되고 있는데, 이 정보망을 통해 학생, 학생의 보호자, 학교 상담교사, 기업들 간에 학생들의 효과적인 직업체험을 위한 자율적인 지역사회 수준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이 TET-tori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업들과 관련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기업들은 이 사이트에 수용 가능한 학생 수와 시기에 대한 기본 정보, 학생들의 업무 예시, 복장 및 태도, 회사 연락 방법 등에 대한 것 등 학생들의 직업체험을 위해 책임 있는 정보를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김현철, 2013).

기초교육(종합학교)에서의 직업체험 이후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대체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이 목적인 일반교육과정이나 졸업 후 바로 사회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과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원화된 교육과정은 상호이동도 가능하다. 핀란드의 직업교육과정에서는 특히 직업세계로의 효율적인 전환을 위하여 직업세계 현장중심인 현장실습과 도제훈련이 강조되고 있다(권대봉, 김경희, 2002).

④ 해외사례의 시사점

첫째, 일본의 직업체험은 1999년 학습지도요령 개정 이후 청소년들의 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며 계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강영배, 2013a). 즉, 1999년 진로교육정책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직업체험을 포함한 진로교육의 학교단계별 계통성을 중시한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산업체 견학 등과 같은 간접체험을 통한 직업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고, 중학교에서는 직장(職場) 체험을 통한 직업적 적성 및 가치관 파악이 이루어지며, 고등학교에서는 인턴십을 통한 현실적인 진로탐색 및 직업적 특성 이해 등과 같은 교육내용이 계통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의 직업체험은 직업체험의 방식, 기간 및 참여주체에 있어 직접체험을 중시하며, 장기간에 걸쳐 그리고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가 직업체험활동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체험방식에 있어서는 학교에서는 교실수업을 통한

5) TET-tori(<http://peda.net/veraja/tori>)는 Jyväskylä 대학교 부설 '핀란드 교육 연구소(Finnish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에서 운영함.

사전학습을 하지만 직업체험은 가상의 체험시설이 아닌 실제 기업에 가서 직접 노동자들과 어울리면서 체험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체험기간에 있어서는 중학교의 경우 대체로 5일간에 걸쳐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山田(야마다)(2008)는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에 몰입하는데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경우 다양한 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직업체험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잡 쉐도우(Job Shadow)와 같은 체험방식은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을 통하여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아울러 진로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예를 들어 복리후생, 근무환경, 노동조건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직업체험이 청소년들의 흥미 본위로 하나의 일과성 행사가 그칠 여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체험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업체험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넷째, 핀란드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 운영에서 '진로지도의 제공'이 중요한 원칙으로 다뤄지고 있고(이지연 외, 2009), 학생들의 직업교육이 교육기관 중심(school-based learning)에서 현장 중심 체제(work-based learning)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권대봉, 김경희, 2002).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진로탐색과 직업체험을 통해 일찍부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이 현장중심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교육수준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너무 이르게 보일 수도 있고,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으나,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해 일찍이 고민하고,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섯째, 핀란드의 직업체험 활동의 경우, 주체인 학생과 기업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주로 개별 학교 담당교사가 학생들의 직업체험 활동을 준비하고, 학생과 기업은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핀란드의 사례는 직업체험 활동의 효과성 차원뿐 아니라 관련 교사나 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김현철, 2013). 그러나 이는 학생, 학교의 진로지도상담자나 담당교사 뿐 아니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유관 교육기관, 산업체 간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 청소년 직업체험의 효과

(1) 국내 선행연구

청소년의 직업체험에 관한 효과성 검증에 관한 논의는 2009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통합진로 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의 도입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즉, 2009년 교육과정 개정 이전에는 청소년들의 직업체험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주로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한 직업체험 또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들(양종국, 2004; 이현림, 손향숙, 2006; 이현림, 이난희, 이영옥, 2006; 박가열, 2008)과 경제학 및 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 또는 일 체험이 노동시장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김주섭, 2003; 이병희, 2002; 채창균, 2002)이 많았다.

이러한 연구들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은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재학 중의 일 경험이 임금과 취업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김기현과 유성렬(2006)은 청소년 시기의 일 경험은 미래의 직업세계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학교부적응과 소비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김우영(2002)도 재학 중의 일 경험이 노동시장의 성과에 있어 반드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2009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는 이전의 연구와는 달리, 체험방식(최윤정, 2012; 한상근, 2009)에 따른 차이와 체험의 역동성, 역량 변화에 관한 연구들(남수정, 2011;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최창욱, 신윤희, 2012 등)이 늘어나고 있다.

직업체험의 방식에 따른 효과성에 관한 연구로서 먼저, 한상근(2009)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체험 유형에 있어 직업설명회, 현장견학 그리고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간접체험보다는 기업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체험을 실시하는 직접체험방식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며, 직업체험이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최윤정(2012)의 연구에서는 직접체험도 중요하지만 진로교육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과목, 심리검사와 직업체험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실제로 서울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극적 진로교육 경험이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와 목표의식,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체험이 청소년의 진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먼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9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직업체험이 진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남수정(2011)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영상, 강연회, 교실수업을 통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보다, 산업체 견학프로그램, 커리어스쿨, 대학 방문프로그램 등의 효과가 청소년들의 진로역량 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자기이해와 의사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창욱과 신윤희(2012)의 연구에서는 직업체험이 의사소통기술, 의사결정기술, 인간관계기술, 자기이해기술 등과 같은 리더십생활기술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직업체험은 청소년들의 진로선택 및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자기이해와 의사소통기술, 의사결정기술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체험의 효과를 연구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2)의 분석에 따르면,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의식, 직업이해, 자기이해, 실천의지의 네 가지 영역 가운데 직업이해를 제외한 경제의식, 자기이해, 실천의지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하여 직업체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외 선행연구

직업체험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국의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직업체험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현실의 직업세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게 되며(Carr, Wright & Brody, 1996), 학교재학 중에 일을 경험할 경우 이후의 고용과 임금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Wright & Carr, 1995, 정운경 외, 2011에서 재인용). 특히 일 기반 학습의 경우 학교출석률 및 학교참여 증가, 학교중단율과 유급 등을 감소시키며(Medrich, Calderon & Hoachlander, 2002), 일 기반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대학에 더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bs for the Future, 1998).

구체적으로 직업체험프로그램이 고등학교 졸업률과 진로준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어떠한 유형의 직업체험프로그램이든 이를 경험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Noonan, Hall & Blustein, 2007), 직장과 학교 참여(Alfeld et al., 2007; Mulraney et al., 2002; Smith, Green & Brennan, 2001), 리더십(Bennett, 2007; Zanibbi, Munby, Hutchinson, Versnel

& Chin, 2006), 동기(Colorado Department of Education. 1999; Hughes & Golann, 2007)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anadian Council on Learning, 2009에서 재인용).

또한 학교기반 학습과 일 기반 학습을 포함한 진로준비 및 직업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업성적과 자기확신감, 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Johnson, 1997), 직업교육과 유급 또는 무급의 직업경험과의 연계는 청소년의 고용과 소득,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attar, 2010). 캐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동기는 증가하였으나, 학업성취기여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Canadian Council on Learning, 2009).

학교교육에서 직업체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관련 보고서에서는, 직업체험을 통해 참여청소년의 3분의 2가 미래의 진로포부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고, 나머지 3분의 1의 청소년은 직업결정에 매우 유용했다고 응답함으로써, 직업체험은 청소년들이 성인기로의 전환시기에 더 확고한 진로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Mann, 2012). 또한 직업체험은 청소년들의 대학입학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직업체험 이후 학교생활 적응이나 학업성취에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취업과 관련해서도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경험은 청소년들의 취업을 위한 기술개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Mann, 2012).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일(예,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일 경험에 대한 우려도 있다(Zimmer-Gembeck & Mortimer, 2006). 그러나 보다 최근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직업체험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일을 통한 학습기회는 생산적인 성인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적자본의 발달을 촉진한다고 밝히고 있다(Cunniën et al., 2009).

2. 청소년 아르바이트⁶⁾

1)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청소년 발달

학교와 학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활 방식이 청소년기의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6) 본 절은 안선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배경내 활동가(인권교육 등)가 공동 집필하였음.

청소년을 ‘일하는 존재’ 즉, 노동자로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낮설다. 그래서인지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이들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그리 크지 않다.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가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가 전무한 것은 아니나(한경혜, 2000),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경상과 유성렬(2007)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의 교육적 가치가 낮고, 사회전반에 걸쳐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학업성적이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은데, 청소년의 공부시간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긴 편에 속하는 한국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이경상, 유성렬, 2007). 김기현(2003)은 아르바이트가 고등학생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학업성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학업의 부담이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3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본 해외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빼기고(Marsh, 1991),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Oettinger, 1999) 학교생활과 공부에 몰두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학업 동기를 높이고(Ruscoe, Morgan & Peebles, 1996), 학교생활의 지루함을 이길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함으로써 학교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있다(Stern & Nakata, 1989).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 중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라는 이분법적인 입장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하는 일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경우도 있다(Mortimer, Shanahan & Ryu, 1994; Mortimer et al., 1996).

아르바이트의 주당 노동시간이나 노동기간 등 노동 강도가 너무 높을 경우 청소년 발달의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는 점에는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치된 결과를 보인다(김예성, 2008; Frone, 1998; Mortimer et al., 1992; Vickers, Lamb & Hinkley, 2003). 종단데이터(Longitudinal Surveys of Australian Youth)를 사용하여 청소년기 취업 경험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Vickers et al.(2003)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 청소년들의 경우 일주일에

5시간 이내로 일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고등학교를 자퇴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남자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대부분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경상과 유성렬(2007)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그들의 직업성숙도에 아무런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정경은과 이해경(2005)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아르바이트가 청소년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국내에 전무한 것은 아니다. 김해동과 이창한(2002)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장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을 발견한 바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청소년이 경험하는 노동 부담(Savery & Wooden, 1994), 노동 자율성(Barling, Rogers & Kelloway, 1995), 스트레스(Holmes, Yu & Frenztz, 1999), 고용주와의 관계(Barnett & Brenna, 1995; Iverson & Erwin, 1997) 등과 같은 노동의 특성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김예성, 2008에서 재인용). 이 밖에도 일의 종류와 강도가 취업과 진로개발에 미치는 영향(Patton & Smith, 2010) 등 아르바이트의 특성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내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사회에서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정의 경제적수준이 낮거나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상도 이러한 우리사회 특성의 방증이다.⁷⁾ 하지만 본 연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경험이 모두 부정적이지는 않으며,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갖는 경험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 발달에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

7)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율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특성에 있어서도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차이를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보편화되어 있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학업성적에 따라 참여 여부에서 뚜렷한 패턴을 찾기 어렵다(일본노동연구기구, 2000; Mortimer, 2010).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거나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김기현, 2003; 양정호, 2004).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보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확률이 확연히 높게 나타난다(양정호, 2004; 임영식 외, 2011; 장상수, 2001).

2) 우리나라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최근 들어 갑작스레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남성 생계부양자와 그의 소득에 의존하는 아내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가족형태에서 벗어나는 가족, 일할 수 있는 모든 가족구성원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가족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특히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를 경유하면서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빈곤 현상⁸⁾과 소득양극화 현상⁹⁾이 심화되면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2000년대 초반 YMCA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조사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했고, 2002년 이후부터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2005년 이후에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태조사 기관도 다양해졌고, 실태조사의 방식과 초점도 다변화되고 있다.

(1)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규모있는 최초의 조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0년 전국 45개 중고등학생 3,6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서, 이 조사에서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29.4%, 고등학생의 경우만 살펴보면 3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철위, 박창남, 정혜영, 2000). 2003년 노동부 조사에서는 전국 중고등학생 36,825명 가운데 22.1%인 7,969명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뒤를 이어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는 물론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고용노동부와

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2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회 ‘근로빈곤층’(전체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2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매년 발간한 고용전망 보고서를 추적해보면, 2000년 한국의 저임금 고용 비중은 28%였으나 2007년에는 32.3%, 2009년 25.7%, 2010년 25.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임금 평균값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33%에 불과할 만큼,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주지 않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9)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내놓은 ‘2012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이 중간계층 소득의 절반보다 적은 소득으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상대적 빈곤율은 2008년 현재 15%에 이르러, 10가구 중 1.5가구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6년 9.29%에 비해 더욱 증가한 수치다. 김문길, 김태완(2012)이 내놓은 「2012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시장소득(근로소득+비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 비율은 2006년 10.7%에서 2011년 12.0%로 늘어났다.

중앙대산학협력단(2011)에서 시행한 가장 최근의 연구 조사에서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여전히 15~30% 정도를 오가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표 II-15>참고).¹⁰⁾

표 II-15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

조사기관	조사년도	조사지역	조사대상	유경험률
노동부 (리서치21 의뢰)	2009년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3~고3 3,100명	32.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년	전국 중고등학생 확률 표집	중1~고3 6,509명 (중3~고3은 4,517명)	11.7% (중3~고3은 14.4%)
참교육연구소	2011년	전국 16개 광역시도	고등학생 1,681명	26.9%
고용노동부 (중앙대산학협력단 의뢰)	2011년	전국 15개 광역시도 (제주 제외)	총 2,842명 (중3~고3 2,700명, 비진학청소년 142명)	27.4% (진학청소년)

고용노동부와 중앙대산학협력단(2011)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총 조사대상자 2,842명 가운데 827명(29.1%)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은 739명(27.4%)이었으며, 학업중단 상태에 있는 비진학 청소년은 88명(62.0%)으로 조사된 바 있다. 대부분의 조사가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업중단 청소년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면 더 높은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표 II-16> 참고).

표 II-16 최근 1년간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구 분		집 단		전체
		진학	비진학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없다	1,961 72.6%	54 38.0%	2,015 70.9%
	있다	739 27.4%	88 62.0%	827 29.1%
전 체		2,700 100.0%	142 100.0%	2,842 100.0%

※ 고용노동부, 중앙대산학협력단(2011),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p.47.

10) 이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다. 일본노동연구기구(2000)의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81.7%가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나타냈다. 2011년 미국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6-19세 청소년의 24%가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취업상태로 나타났고, 15세 청소년의 10%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번이라도 경험하는 미국청소년의 비율은 60% 내외로 나타났다(일본노동연구기구, 2000; Mortimer, 2010).

동일한 연구에서 성별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32.2%로 여자청소년의 25.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급 간 비교에서는 중학생이 10.7%, 특성화고교 학생이 53.8%, 인문계고 학생이 23.1%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고3 44.2%, 고2 39.7%, 고1 21.5%, 중3 9.9%로 나타나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2013년 5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협력하여 발표한 「2013 청소년통계」를 살펴보면, 15~19세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은 7.7%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이 수치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거나 학업을 중단한 채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숫자만을 드러낼 뿐, 간헐적으로 노동시장을 들락날락하거나 자의든 타의든 장기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힘든 다수 청소년들의 수는 포괄하지 못하는 제한적 수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표 II-17참고>).

표 II-17 청소년(15-24세)의 경제활동 (단위 : 천명, %, %p)

	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2000	6,960	2,298	2,049	249	4,662	33.0	10.8
2005	6,113	2,034	1,826	208	4,079	33.3	10.2
2006	5,983	1,807	1,627	180	4,176	30.2	10.0
2007	5,937	1,671	1,524	147	4,266	28.1	8.8
2008	5,919	1,554	1,410	145	4,365	26.3	9.3
2009	5,934	1,507	1,359	149	4,427	25.4	9.9
2010	5,981	1,525	1,375	150	4,456	25.5	9.8
2011	6,016	1,535	1,387	148	4,481	25.5	9.6
2012	6,104	1,626	1,480	146	4,478	26.6	9.0
15 ~ 19세	3,298	253	231	22	3,046	7.7	8.8
20 ~ 24세	2,806	1,373	1,249	124	1,433	48.9	9.0
증감(률)**	1.5	5.9	6.7	-1.1	-0.1	1.1	-0.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각년도: 통계청,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 통계」에서 재인용

※주: * 15~24세 인구

** 2011년 대비 2012년 증감(률)

고용노동부 외(2011, pp.83-88)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의 경우 61.2점, 학교 밖 청소년¹¹⁾의 경우 61.7점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급여액 40.0%(매우 불만족 16.7%, 대체로 불만족 23.3%), 근로강도 34.5%(매우 불만 13.4%, 대체로 불만족 21.1%)를 주로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자신의 미래 직업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47.3%를 차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한 30.5%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꼭 해보고 싶다’가 전체 2,841명의 24.9%, ‘가급적 해보고 싶다’가 37.8%로 나타나 자신의 미래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상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상당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

① 기존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노동인권 현황

청소년들은 전단지나 스티커 배포, 음식점 서빙, 패스트푸드점, PC방, 편의점, 음식 배달 등 단순 반복적인 성격의 노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다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임노동, 쉬는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 위험노동, 성희롱과 언어적·물리적 폭력의 경험에 노출돼 있는 모욕적 노동, 노동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힘든 불안정 노동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특별단속 결과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사업주의 의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전국 규모로 이루어진 연구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겪는 노동인권 문제는 <표 II-18>에서 요약한 바와 같은데, 이 내용은 여성가족부(2010a)

1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탈학교 청소년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일괄 표기하고자 한다.

12)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5월 현재,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1천10만6천 명에 이른다. 이는 2011년 982만 명에 비해 1년 새 30만 명가량이나 늘어난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이 시작된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 세대들의 창업으로 영세 자영업자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일자리도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연합뉴스(2012. 7. 9), 「자영업 효과’ 5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 1천만 돌파」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분석」과 2009년 학생의 경험에 대해서는 최인재(2010)의 「한국청소년진로·직업실태조사」 자료를, 2010년 학교 밖 청소년(비진학 청소년)의 경험에 대해서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0)의 「학교 밖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II-18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

조사 기관	노동부 (2009)	청소년노동 인권네트워크 (2009)	여성가족부 (2010a)	참교육연구소 (2011)	고용노동부 (2011)
조사대상	중3~고3 3100명	청소년 1,087명 (고등학생 1,070명, 중학생 5명)	중3~고3학생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652명, 학교 밖 청소년 유경험자 (만15~18세) 100명	고등학생 1,681명	2,842명 (중3~고3 2,700명, 학교 밖 청소년 142명)
위반항목					
근로계약서 미작성	85.1%	-	학생 80.8% 학교밖 74.0%	76.4%	77.0%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미제출	70.2%	-	학생 71.1% 학교밖 46.0%	63.6%	60.8%
최저임금 위반	37.6%	34%	학생 50.0% 학교밖 48.7%	주중노동 46.8%/ 주말노 동 44.8%	46.7% (학생 44.9% 학교밖 61.1%)
임금 체불 또는 일방적 삭감	15.7%	-	학생 18.0% 학교밖 24.0%	26%	26.5%
법정 노동시간 초과(7시간, 1시간 연장 가능)	8시간 이상 전체 31.7% (진학 청소년은 28.4% 비진학 청소년은 65.9%)	6시간 이상 44.3%	학생 27.0% 학교밖 54.0%	-	8시간 초과 27.7%
추가근무 요구 & 가산수당 미지급	추가근무 요구 : 36.2% (학생 35.7% 학교밖 41.8%) 가산수당 미지급 40.1% (학생 39.4% 학교밖 45.5%)	-	추가근무요구 : 학생 15.8% 학교밖 18.0% 야근 및 휴일수당 미지급: 학생 7.3% 학교밖 7.0%	-	45.9% (학생 29.4% 학교밖 39.6%) 가산수당 미지급 40.1% (학생 40.2% 학교밖 40.0%)
휴게시간 미제공	-	휴게시간 따로 없다, 62.0%	-	-	-

조사 기관	노동부 (2009)	청소년노동 인권네트워크 (2009)	여성가족부 (2010a)	참교육연구소 (2011)	고용노동부 (2011)
조사대상	중3~고3 3100명	청소년 1,087명 (고등학생 1,070명, 중학생 5명)	중3~고3학생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652명, 학교 밖 청소년 유경험자 (만15~18세) 100명	고등학생 1,681명	2,842명 (중3~고3 2,700명, 학교 밖 청소년 142명)
위반항목					
야간 노동	-	-	-	20.8%	-
업무상재해 관련 경험	4.7%	근골격계질환 경험 59.0% 사고경험률 23.95%	학생 30.3%, 학교 밖 청소년 27.0%	11.9%	27.7%
폭력	0.6% (폭행만 파악)	언어폭력 24.5% 물리적 폭력 4.2%	학생 11.2%, 학교 밖 청소년 15.0%(폭언모욕) 학생 4.8%, 학교 밖 청소년 4.0%(구타,폭행)	30.9%	43.4%
성희롱 (성폭력)	1.2%	2.6%	학생 4.8%, 학교밖 18% (행위별 중복응답)		6.0%
부당해고	4.1%	-	-	8%	11.6%
강제노동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함)	-	-	-	10.6%	-

조사기관에 따라 점검한 항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절반가량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초저임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꼴로 법정 노동시간이 7시간을 초과한 과잉 노동을 요구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휴게시간의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점검되지 않았는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2009) 조사에서는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거의 쉬지 못한다'는 응답이 62.0%에 달해 청소년 다수가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고강도 노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무상 재해경험률은 조사기관마다 매우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큰 사고나 질환이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식하지 않는 인식 탓에 질문지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 응답률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2009)의 조사는 재해 위험과 폭력 경험 등을 통한 건강권 실태에 집중한 조사였기

때문에, 경험한 증상이나 사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문해 재해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폭력 경험의 경우도 구타나 폭행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물어본 노동부·(주)리서치21(2009) 조사에서는 응답률이 0.9%에 그쳤지만, 폭언이나 모욕을 폭력에 포함시키거나 별도 질문으로 물어본 다른 조사에서는 응답률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의 경우에도 성희롱에 관대한 사회문화와 낮은 젠더인식으로 인해 아주 심각한 정도가 아니면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일반적 조사에서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고 경험 여부를 물어본 여성가족부(2010a) 조사에서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접조사와 언론기사들도 청소년 노동인권의 현실을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09년 11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 1,0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함께 28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하였는데,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과 전문계고 청소년들을 주로 만났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정리한 <표 II-18>은 청소년 노동인권의 현실을 한 눈에 보여준다. 또 대다수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다 보니 본인의 감정을 숨긴 채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의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유형 가운데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배달노동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2011)의 조사에서 청소년(전체 조사대상자 665명, 이중 배달노동에 관한 응답자는 205명)이 배달노동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일자리에 비해 시급이 높아서(48.3%)와 다른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21.0%)였다. 배달노동 중 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은 절반이 넘는 50.2%였으며, 이들 중 입원치료 비율이 33.6%, 통원치료 비율이 20.4%에 달해 중대재해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배달노동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남학생 14명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모두 사고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업주의 폭언을 동반한 배달 재촉과 임금 삭감 위험이 과속과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정부부처의 점검 결과는 위의 조사결과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 II-1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부처의 점검에서도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의 법 위반율이 평균 87.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19 노동부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업체 대비 위반율

	2010	2011	2012	2013. 8	계(%)
점검대상 수	1,545	2,711	1,940	1,993	8,189 (100.0)
위반업체 수	1,300	2,384	1,780	1,688	7,152 (87.3)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실 보도자료, 「청소년 고용 사업장, 87.3%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2013.11.5)

그러나 실제 고용노동부를 통해 점검된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앞선 조사들과 큰 차이가 나타난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 1월과 2월, 패스트푸드점, 일반 음식점, 주유소 등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 사업장 753개를 점검한 결과,¹³⁾ 점검 대상의 77.3%에 해당하는 582개소에서 1,706건의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가운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는 299건(17.5%), 친권자 동의서 등 연소자 연령 증명서류의 미비치의 경우는 189건(11.1%), 최저임금 위반은 30건(1.8%)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이루어진 점검 결과에서도 2010년 12월 전체 208개 대상 업체 가운데 위반 사례는 147건, 그 가운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경우는 49건(33%), 최저임금 위반은 9건(6%)에 불과했다.¹⁴⁾ 2011년 7월 조사에서는 전체 232개 대상 업체 가운데 위반사례 144건, 그 가운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는 36건(25%), 놀랍게도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¹⁵⁾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점검 항목이 좀 더 세부화 되었는데, 2011년 이후 몇 차례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표 II-20>과 같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위반 여부만 따로 살펴보면, 2011년 183건(3.2%), 2012년 각각 86건(2.4%)과 110건(3.0%), 2013년 121건(4.3%)에 불과하다. 다른 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청소년이 30%~50% 가까이 육박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1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0. 3. 24.),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77.3%가 노동법 위반」

1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1. 1. 13.),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관계 법령 위반행위 147건 적발」

1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2. 8. 28.),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관계 법령 위반행위 144건 적발 - 여름방학 학생아르바이트 관계 기관 합동점검·단속 결과 발표」

표 II-20 노동부 점검 결과 법 위반 내용별 현황

점검 기간	업체수	구 분	계	금품 체불관련 위반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주지 및 교육의무 위반		근로조건 명시 및 서류 비치의무 위반						기타
				금품 청산	최저 임금	임금 정기 지급	시간외 수당	야간· 휴일 근로 제한	연소자 근로 시간	최저 임금 주지	성희롱 예방 교육	근로 조건 명시	연소자 근로 조건 서면 교부	연소자 증명 서	근로자 명부	임금 대장	법령 요지 게시	
2011. 1.10~ 2.20	1,790 개소	건수(건)	5,546	207	183	141	109	233	129	1,020	554	722	663	519	280	109	114	563
		비율(%)	100	11.5				6.5		28.4		43.4						10.2
2012. 1.10~ 2.7	918 개소	건수(건)	3,520	185	86	209	69	123	93	587	315	495	250	300	209	89	97	413
		비율(%)	100	15.6				6.1		25.6		40.9						11.8
2012. 7.9~ 8.10	894 개소	건수(건)	3,585	188	110	246	115	126	18	574	343	612	124	97	236	147	99	550
		비율(%)	100	18.4				4.0		25.6		36.7						15.3
2013. 1.7~ 2.28	919 개소	건수(건)	2,756	140	121	-	134	56	8	584	331	543	52	-	-	-	-	876
		비율(%)	100	14.3				2.3		33.2		21.5						31.7

※ 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점검결과(2011~2013)를 종합하여 재구성¹⁶⁾

※ 2013년 점검에선 점검 항목이 다소 변경되었음. 미기재 항목은 기타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됨.

전국 차원의 실태조사와 정부부처의 점검 결과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부부처의 점검 대상 사업장이 서류 중심의 근로감독이 용이한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고, 청소년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사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점검 항목도 관련 서류의 비치 여부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근로감독을 나가기 전 사전 고지하도록 한 현행 근로감독직무규정¹⁷⁾ 역시 단속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¹⁸⁾ 일반적인 근로감독이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보호 조항에 치중되어 있을 뿐, 안전 위험이나

1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83.4%가 노동관계법 위반」(2011. 3. 24),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임금 체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위반건수 765건으로 전체의 21.7% 차지」(2012. 2. 10), 「여름방학기간 아르바이트 사업장 894개소 점검 - 금품미지급, 성희롱예방 교육 미실시 등 법위반 다수 발견」(2012. 9. 7.),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919개소 감독 - 금품미지급, 성희롱예방 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 다수 발견」(2013. 3. 13.) 참조

17)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54호) 제17조(감독계획 통보) “지방관서장은 정기감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일 10일 전에 해당사업장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10일의 범위에서 감독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폭력 경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청소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②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변화 동향

최근 변화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 차이, 가출 청소년의 증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미치는 영향, 야간노동의 증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특수고용직화 현상 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는 주로 재학 중인 학생 청소년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실태가 더욱 심각하다는 보고가 등장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의 경우 더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외(2011)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27.4%인 데 반해, 학업중단 상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62.0%로 두 배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가 학생 청소년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는 불이익의 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은 19%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이민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 수는 총 3만8887명으로, 이는 4년 전인 2007년 2만7930명보다 39%(1만957명) 증가한 수치에 해당한다.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b).

표 II-21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비교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최저임금 미만 지급	44.9%	61.1%
폭력, 부당해고 등 불이익 경험	21.0%	42.7%
아르바이트가 미래 직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28.7%	45.5%

가족으로부터 이탈하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귀가 의사가 없거나 가족의 생계형 이산(離散)

18) 중앙일보 사설(2013. 3. 13), “여전히 고달픈 알바생, 사후 감독 강화해야”, 경기일보 사설(2013. 1. 18), “아르바이트생 임금 착취·인권침해 너무 심하다”

으로 돌아갈 집이 없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현재 중·고등학생 수는 약 378만여 명(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 가운데 2012년 현재까지 한번 이상 가출을 경험해본 중·고등학생은 12.2%으로 약 46만 명에 이른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3). 또한 가출 유경험자 중 지난 1년간 1회 이상 가출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7.1%에 달해 연간 20만 명 이상이 가출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⁹⁾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3)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가출청소년 252명 가운데 귀가 의사가 없다고 답한 청소년이 66.2%에 이르렀다.²⁰⁾ 가족과의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거나 돌아갈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 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2009) 연구 결과에서도, 응답자(평균 나이 16.5세)의 34.2%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이후 생계나 주거의 불안정 때문에 지인의 도움이나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해야 하고(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3),²¹⁾ 그나마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거나 더 많은 소득을 벌어야 할 경우 성매매나 청소년고용이 금지된 업소²²⁾에서의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처럼 가족으로부터 이탈한 청소년의 증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나 고용조건 악화는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청소년들을 고용금지 업소나 야간노동 등 열악한 일터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성가족부(2011b)가 발표한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1년 조사 대상 중·고등학생 15,964명 가운데 고용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3.4%로 2010년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2012년 보고서에서는 전국 중·고등학생 15,487명 가운데 유경험자가 8.3%로 올라섰다(여성가족부, 2011b, 2012c). 이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실태조사여서, 학생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경험률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의 야간노동 증가 경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 외(2009) 조사에서 6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학생 수는 28.4%, 학교 밖 청소년은 65.9%였다. 고용노동부 외(2011)

19) 이에 반해 2010년 경찰청 통계는 가출청소년의 수를 22,287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실종신고가 접수된 건수만을 집계했기 때문이다.

20)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은 경기도내 쉼터 이용 가출 청소년 25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아 쉼터 운영 활성화방안을 제안했다.

21) 청소년들은 가출 이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잠잘 곳이 없을 때'(28.3%)와 '용돈이 없을 때'(25.2%),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할 때'(19.6%)의 순으로 꼽았다. 또 응답자의 24.5%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답했다.

22)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 식품접객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유통물영업, 만화대여업 등이다.

조사에서는 6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학생 수는 42.8%, 학교 밖 청소년은 69.3%에 달했다(전체 응답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6.95시간). 질문의 기준 시간이 달라 동일한 비교는 어렵겠지만 일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소비나 물가 수준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2011) 조사에서도 주중 6~7시간 일한다고 답한 학생수가 21.3%, 8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학생수가 19.3%로 전체 가운데 40.6%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는 평일 내내 일한다고 답한 학생수가 49.0%로 절반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방학기간을 활용한 아르바이트의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학생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재확인되고 있다. 학기 중 평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하교 이후 6시간 이상을 일하려면 심야시간(하오 10시 이후)이 되어서야 일이 끝난다는 것이 추정 가능하다.

나아가 최근 다른 일자리는 줄어드는 데 반해 야간에 영업하는 유통·서비스업체의 증가로 심야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²³⁾ 심야시간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주간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1~2천 원 정도 높기 때문에 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구직자들에게는 선호하는 일자리가 되곤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아르바이트 경험률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이루어진 적 없어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다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2009)의 조사에서 배달노동을 해본 청소년의 경우 대개 밤 11시나 12시까지 일을 했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충북 지역 청소년들이 인근 택배단지를 찾아가 밤을 꼬박 새는 택배 상하차·분류 노동에 투입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속칭 ‘지옥알바’로 불리는 택배 상·하차 노동의 경우, 하루 10시간~12시간 밤샘 노동을 하지만 일당은 6만~10만 원 정도의 돈을 바로 벌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 사이에 선호도가 높지만, 워낙 고강도의 일이다 보니 가출 상태의 청소년들처럼 당장의 생계나 주거가 해결되지 않은 이들이 주로 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²⁴⁾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주로 활용해온 일자리들이 전형적 직접고용 형태를 벗어나 특수고용직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배달대행업체의 성행이다.²⁵⁾ 피자집,

23)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의 2013년 6월 7일 현재 채용정보에 따르면, 오전 타임(06:00~12:00)과 오후타임(12:00~18:00) 채용 정보 건수는 3332건인 데 반해, 저녁타임(18:00~24:00)은 8518건, 새벽타임(00:00~06:00)은 330건, 저녁~새벽타임은 3256건에 이른다. 저녁타임, 새벽타임의 일자리는 대개 유통·서비스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24) 머니투데이(2013. 1. 10.), “청소년 일당 10만원 ‘지옥알바’ 따라가 보니 : ‘택배 상하차 알바’ 미성년자에 고임금, “가출 부추겨” 논란”, 이 기사에서는 택배 아르바이트가 마치 가출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가출 이후의 생계나 주거가 막막하기 때문에 ‘지옥 알바’라고 불리는 택배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심지어는 가출 청소년에게 택배 아르바이트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도일보(2013.1.7.), “가출청소년 8명 합숙, 택배시키며 금품갈취”.

치킨집, 보쌈집, 중국집 등 음식점에 지금까지 직접 고용되었던 청소년들이 이제는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오토바이를 임차하고 배달 건수를 넘겨받아 배달 일을 하는 형태의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당 배달료는 2000~4000원, 배달대행업체에 건당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다 보니 수입은 줄고, 사고가 나더라도 개인이 수리비와 치료비를 직접 물어야 하다 보니 더 열악한 처지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노동법상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는 일들도 생겨나고 있다.²⁵⁾

(3)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관련법 인지도

청소년들이 위와 같은 노동인권 침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기준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나,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노동부 등의 조사에 비해 2011년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다.

표 II-22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법 인지도

인지항목		조사기관	노동부(2009)	고용노동부(2011)
근로기준법 등 법령 인지도			학생 23.4%, 학교밖 35.2% (‘잘 알고 있다’는 학생 1.3%, 학교밖 6.9%)	-
세부 항목별 인지도	근로계약서 작성		-	학생 37.8%, 학교밖 42.3%
	최저임금 적용		55.7%	학생 76.2%, 학교밖 71.6%
	기준 근로시간		27.6%	학생 27.4%, 학교밖 38.7%
	산재보험 적용		36.0%	학생 59.3%, 학교밖 62.7%
	연장근로수당		17.2%	학생 62.6%, 학교밖 60.6%
권리구제방안			28.9%	학생 11.9%, 학교밖 17.6%

※ 노동부·(주)리서치21(2009년), 「2009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와 고용노동부·중앙대 산학협력단(2011) 「2011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재구성

25) 경향신문(2012. 6. 4.), “‘배달대행 알바’ 10대 착취 활개”, 경기일보(2013. 1. 22.), “죽어라 배달해도 돈은… 이딴 게 사회경험?”,

26) 헤럴드경제(2012. 11. 27.),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들”, 이 기사에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했던 19세 청소년은 “하루 10시간 넘게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은 한 달 80만원에 불과하고, 사고를 냈을 때는 오토바이 수리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면서 “대행업체의 노동조건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지 경로에 대한 질문에서 2009년 조사에서는 학교교육(28.6%), 방송매체(21.7%), 인터넷(20.7%), 친구(17.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복수응답). 이에 비해, 2011년 조사에서는 친구(23.2%), 방송매체(19.6%), 인터넷(15.5%) 순으로 응답하였고, 학교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했다. 학교교육이나 학교 밖 배움터를 통해 관련 법률과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학습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2011)의 배달노동 관련 조사에서는 배달노동 중 사고 경험이 절반 이상에 달했음에도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66.3%에 이르렀다.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보호장비 착용, 교통법규, 업무지침 등이 교육의 주된 내용이어서 운전을 조심하라거나 헬멧을 착용하라는 단순한 안내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제 3 장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표본설계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

제 3 장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²⁷⁾

1) 설문조사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경험의 양적, 질적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경험이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입안 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설문조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직업체험과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하고, 이러한 경험이 그들의 진로발달 양상 및 청소년의 개인, 지역특성, 학교,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2) 설문조사 방법

본 설문조사의 조사대상, 표본크기, 표집방식 및 조사기간은 <표Ⅲ-1>과 같다.

표 Ⅲ-1 설문조사 방법 개요

구분	내 용
조사대상	전국의 중학교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제주도 포함)
표본크기	10,119여 명
표집방식	총화다단계집락표집 - 지역, 학교유형(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 학교 수 및 학생 수를 고려한 변형비례배분방식
조사기간	2013년 5월 20일(월) ~ 2013년 7월 12일(금)

27) 본 장의 1절과 3절은 안선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 표본설계²⁸⁾

1) 모집단과 모집단 분석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전국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먼저 16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수를 <표 III-2>와 <표 III-3>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3,745,611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수는 중학생 1,836,377명(49.0%), 고등학생 1,909,234명(51.0%)이다. 고등학교 계열을 기준으로, 일반고 고등학생 1,373,956명(36.7%), 자율고 고등학생 142,710명(3.8%),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고등학생 341,294명(9.1%), 특수목적고 고등학생 51,274명(1.4%)이다.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성별 학생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표 III-3> ~ <표 III-9>에 정리되어 있다.

표 III-2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구분	학생수			학교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99,956	103,679	109,763	379	377	375
경기	150,199	152,997	157,196	593	592	589
인천	33,007	33,856	36,010	134	132	133
강원	17,965	18,696	19,126	163	163	163
충북	18,872	19,663	20,451	130	130	129
충남	24,652	25,360	25,865	195	195	194
대전	19,511	20,455	21,139	88	88	87
경북	29,648	29,624	31,740	291	290	289
경남	40,851	42,153	43,474	273	273	272
부산	36,106	37,862	40,204	168	168	169
대구	31,351	31,893	34,485	123	122	121
울산	15,053	15,763	16,657	61	61	61
전북	22,898	24,121	24,643	208	208	206
전남	22,261	22,916	23,825	251	252	253
광주	21,220	22,173	23,161	86	86	85
제주	7,786	7,828	8,263	43	43	42
합계	591,336	609,039	636,002	3,186	3,180	3,168

28) 본 절은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집필하였음.

표 III-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75,488	76,923	75,709	15,019	15,068	17,273	17,881	18,310	18,166	4,307	4,414	4,257
경기	125,265	123,989	120,813	3,850	3,718	3,391	21,923	22,213	21,604	4,244	4,330	4,086
인천	25,484	26,126	26,075	1,502	1,500	1,448	7,260	7,311	7,445	961	987	944
강원	15,107	15,026	14,572	154	160	158	3,557	3,277	3,134	394	382	295
충북	12,871	12,510	12,265	921	1,053	1,037	6,071	6,011	5,751	420	384	342
충남	19,788	19,262	18,700	1,561	1,455	1,343	4,777	4,743	4,481	483	463	407
대전	13,950	13,965	13,203	2,953	3,018	3,253	3,932	3,554	3,368	657	645	625
경북	22,698	22,489	22,125	2,449	2,422	2,418	6,575	6,326	6,241	589	570	498
경남	34,017	33,864	33,048	2,135	2,524	2,190	6,446	6,148	6,129	732	701	564
부산	25,838	26,286	27,355	3,936	4,030	3,985	9,726	10,015	9,051	2,109	2,006	1,943
대구	20,619	21,699	20,994	6,223	6,450	6,481	7,037	6,801	6,691	893	856	705
울산	12,359	12,680	12,230	705	731	906	3,426	3,381	3,333	359	362	245
전북	18,301	18,318	18,060	1,365	1,308	1,315	5,067	4,839	4,588	526	526	477
전남	15,649	15,772	14,975	1,862	1,750	1,795	6,447	6,088	6,024	448	434	348
광주	16,655	16,963	15,939	1,639	1,623	1,892	3,896	3,849	3,783	330	350	300
제주	5,974	6,018	5,940	238	254	249	1,591	1,566	1,461	142	140	94
합계	460,063	461,890	452,003	46,512	47,064	49,134	115,612	114,432	111,250	17,594	17,550	16,130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표 III-4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0	177	174	45	45	45	74	75	75	17	17	17
경기	332	321	311	11	11	10	72	72	72	18	18	16
인천	79	78	76	5	5	4	29	29	29	6	6	6
강원	89	89	89	1	1	1	23	23	23	4	4	4
충북	47	46	46	3	3	3	30	30	30	4	4	4
충남	79	79	78	6	6	6	29	29	29	4	4	4
대전	37	37	37	8	8	8	12	12	12	4	4	4
경북	125	126	126	9	9	9	51	51	51	6	6	6
경남	141	140	137	8	8	7	34	34	34	6	6	5
부산	80	80	80	14	14	14	39	39	39	10	9	9
대구	51	51	51	16	16	16	20	20	20	5	5	4
울산	34	34	33	3	3	3	12	12	12	3	3	3
전북	91	91	91	5	5	5	32	32	32	4	4	4
전남	95	97	95	6	6	6	48	48	48	5	5	5
광주	46	45	44	6	6	6	12	12	12	3	3	3
제주	20	20	20	1	1	1	7	7	7	2	2	2
합계	1,526	1,511	1,488	147	147	144	524	525	525	101	100	96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표 III-5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구분	남학생수			여학생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52,172	54,323	57,284	47,784	49,356	52,479
경기	77,748	79,211	80,866	72,451	73,786	76,330
인천	17,217	17,594	18,495	15,790	16,262	17,515
강원	9,314	9,743	9,814	8,651	8,953	9,312
충북	9,813	10,291	10,441	9,059	9,372	10,010
충남	12,877	13,154	13,367	11,775	12,206	12,498
대전	10,211	10,636	11,013	9,300	9,819	10,126
경북	15,691	15,629	16,620	13,957	13,995	15,120
경남	21,400	22,122	22,777	19,451	20,031	20,697
부산	19,092	20,116	21,037	17,014	17,746	19,167
대구	16,556	17,173	18,260	14,795	14,720	16,225
울산	7,943	8,495	8,749	7,110	7,268	7,908
전북	11,818	12,505	12,822	11,080	11,616	11,821
전남	11,629	11,821	12,308	10,632	11,095	11,517
광주	11,002	11,522	11,942	10,218	10,651	11,219
제주	4,081	4,061	4,343	3,705	3,767	3,920
합계	308,564	318,396	330,138	282,772	290,643	305,864

표 III-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8,023	39,404	38,125	10,339	10,380	12,452	8,443	8,605	8,740	1,389	1,409	1,304
경기	65,679	64,888	63,164	1,936	1,934	1,830	12,115	12,240	12,131	1,488	1,560	1,572
인천	13,493	13,832	13,938	819	832	781	3,747	3,785	3,894	413	422	400
강원	7,475	7,488	7,320	85	83	93	2,375	2,227	2,163	187	178	102
충북	6,696	6,537	6,406	477	573	544	3,404	3,337	3,314	181	145	98
충남	10,180	9,890	9,766	954	917	819	2,848	2,822	2,670	169	156	142
대전	6,953	7,079	6,834	1,746	1,769	1,841	2,353	2,137	1,978	244	245	208
경북	11,039	11,065	10,943	1,604	1,610	1,669	4,479	4,335	4,449	243	247	168
경남	17,289	16,925	16,574	1,710	2,175	1,915	3,974	3,814	3,877	365	357	220
부산	13,665	13,714	14,654	2,010	2,023	1,988	5,942	6,268	5,652	815	739	690
대구	10,267	10,916	10,626	3,531	3,637	3,717	4,399	4,337	4,432	363	316	210
울산	6,536	6,805	6,306	360	382	689	2,057	2,007	2,062	141	127	62
전북	8,741	8,760	8,577	1,236	1,194	1,213	2,971	2,915	2,799	198	220	176
전남	7,394	7,646	7,162	1,401	1,290	1,357	3,794	3,442	3,571	173	167	118
광주	8,343	8,381	7,861	959	978	1,175	2,211	2,199	2,255	152	163	113
제주	3,338	3,343	3,300	0	0	0	761	744	718	65	64	27
합계	235,111	236,673	231,556	29,167	29,777	32,083	65,873	65,214	64,705	6,586	6,515	5,610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표 III-7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7,465	37,519	37,584	4,680	4,688	4,821	9,438	9,705	9,426	2,918	3,005	2,953
경기	59,586	59,101	57,649	1,914	1,784	1,561	9,808	9,973	9,473	2,756	2,770	2,514
인천	11,991	12,294	12,137	683	668	667	3,513	3,526	3,551	548	565	544
강원	7,632	7,538	7,252	69	77	65	1,182	1,050	971	207	204	193
충북	6,175	5,973	5,859	444	480	493	2,667	2,674	2,437	239	239	244
충남	9,608	9,372	8,934	607	538	524	1,929	1,921	1,811	314	307	265
대전	6,997	6,886	6,369	1,207	1,249	1,412	1,579	1,417	1,390	413	400	417
경북	11,659	11,424	11,182	845	812	749	2,096	1,991	1,792	346	323	330
경남	16,728	16,939	16,474	425	349	275	2,472	2,334	2,252	367	344	344
부산	12,173	12,572	12,701	1,926	2,007	1,997	3,784	3,747	3,399	1,294	1,267	1,253
대구	10,352	10,783	10,368	2,692	2,813	2,764	2,638	2,464	2,259	530	540	495
울산	5,823	5,875	5,924	345	349	217	1,369	1,374	1,271	218	235	183
전북	9,560	9,558	9,483	129	114	102	2,096	1,924	1,789	328	306	301
전남	8,255	8,126	7,813	461	460	438	2,653	2,646	2,453	275	267	230
광주	8,312	8,582	8,078	680	645	717	1,685	1,650	1,528	178	187	187
제주	2,636	2,675	2,640	238	254	249	830	822	743	77	76	67
합계	224,952	225,217	220,447	17,345	17,287	17,051	49,739	49,218	46,545	11,008	11,035	10,520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표 III-8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1.9	32.1	33.0
경기	34.5	34.3	34.1
인천	32.8	33.2	33.9
강원	23.4	24.4	24.1
충북	25.6	26.5	27.1
충남	27.0	27.7	28.2
대전	32.1	32.6	33.1
경북	22.2	22.4	23.2
경남	26.8	27.1	27.9
부산	31.1	31.9	32.6
대구	32.9	33.2	35.5
울산	31.2	31.5	32.4
전북	23.4	23.2	23.9
전남	23.9	24.1	24.0
광주	34.1	34.4	35.6
제주	29.4	29.8	30.8
합계	28.9	29.2	29.7

표 III-9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5.1	35.4	35.5	31.5	30.6	33.2	26.5	27.0	26.4	31.9	32.5	31.7
경기	35.5	35	35.2	33.3	33.6	33.5	30.9	31.0	29.9	30.4	30.8	32.4
인천	32.3	31.7	31.9	31.8	30.9	31.9	27.1	27.0	27.6	27.2	27.6	24.7
강원	27.7	27.6	26.3	14.0	14.5	14.4	24.0	22.1	20.1	31.0	29.9	22.6
충북	34.7	34.1	33.1	30.6	34.4	33.9	29.1	28.8	27.3	23.9	22.3	20.4
충남	32.7	32.2	31.7	31.4	30.0	29.7	26.1	25.2	24.4	29.5	27.8	24.5
대전	37.0	36.7	35.1	34.5	35.5	37.4	31.1	28.0	26.6	30.1	29.0	25.7
경북	29.7	29.3	28.7	32.4	32.0	31.9	26.4	24.9	23.5	28.9	28.0	22.4
경남	31.5	30.9	30.7	30.9	34.3	32.5	27.0	25.7	24.7	26.5	25.1	23.4
부산	33.6	33.9	34.7	30.0	30.7	30.4	27.1	27.5	24.7	28.4	29.6	28.2
대구	35.7	37.1	36.0	35.5	35.9	35.1	30.1	29.0	28.4	28.1	25.7	26.2
울산	37.8	37.5	36.8	31.9	32.9	33.4	31.4	30.0	29.1	23.7	24.3	16.7
전북	29.4	29.2	28.7	31.4	30.2	30.4	26.5	24.8	22.6	26.1	26.5	22.8
전남	27.8	27.5	26.9	34.8	34.0	34.9	23.9	21.5	21.3	25.5	22.7	19.0
광주	38.2	37.6	36.8	34.1	33.8	35.5	32.5	31.4	30.7	27.3	28.8	26.8
제주	36.1	36.2	35.7	34.0	36.3	35.6	31.1	30.6	28.8	22.8	22.5	12.1
합계	33.1	32.8	32.5	32.2	32.3	33.1	27.5	26.8	25.7	28.7	28.5	26.3

2) 표본설계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 z^2 p q}{N d^2 + z^2 p q}$$

여기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9,000명으로 결정되었다.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0\%P$ 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2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 광역 시·도 (16개)
- 학교구분 :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5개)
- 학년 (3개)

단, 고등학교 중 자율고와 특성화고는 광역 시도별로 층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층화한다. 또한 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표 Ⅲ-10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중학교	중학교	1	591,336	1,836,377 (49.0%)	4,500 (50.0%)	4,524 (50.1%)		
		2	609,039					
		3	636,002					
고등학교	일반고	1	460,063	1,373,956 (36.7%)	3,238 (36.0%)	2,958 (32.8%)		
		2	461,890					
		3	452,003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1	115,612	341,294 (9.1%)	804 (8.9%)	972 (10.8%)		
		2	114,432					
		3	111,250					
	자율고	1	46,512	142,710 (3.8%)	336 (3.7%)	495 (4.5%)		
		2	47,064					
		3	49,134					
	특수 목적고	1	17,594	51,274 (1.4%)	121 (1.3%)	168 (1.9%)		
		2	17,550					
		3	16,130					
	합 계			3,745,611 (100.0%)	9,000 (100.0%)	9,027 (100.0%)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표 III-1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구분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서울	768	538	128	112	122
경기	1,128	872	207	36	
인천	252	183			
강원	137	105	124	40	
충북	145	89			
충남	186	136			
대전	150	97	229	112	
경북	223	159			
경남	310	238			
부산	280	187			
대구	239	149			
울산	116	88	116	36	
전북	176	129			
전남	169	109			
광주	163	117			
제주	59	42			
합계	4,500	3,238	804	336	122

※ 총계: 9,000명

표 III-12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구분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서울	26.5	16.3	4.7	3.5	4.4
경기	38.9	26.4	7.7	1.1	
인천	8.7	5.5			
강원	4.7	3.2	4.6	1.3	
충북	5.0	2.7			
충남	6.4	4.1			
대전	5.2	2.9	8.5	3.5	
경북	7.7	4.8			
경남	10.7	7.2			
부산	9.6	5.7			
대구	8.3	4.5			
울산	4.0	2.7	4.3	1.1	
전북	6.1	3.9			
전남	5.8	3.3			
광주	5.6	3.5			
제주	2.0	1.3			
합계	155.2	98.1	29.8	10.5	4.4

※ 총계: 298개

표 III-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구분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서울	783	435	162	81	168
경기	1,131	783	243	81	
인천	261	174			
강원	174	87	162	81	
충북	174	87			
충남	174	87			
대전	174	87			
경북	261	174	243	81	
경남	348	174			
부산	261	174			
대구	261	174			
울산	87	87			
전북	174	87	81	81	
전남	174	87			
광주	174	87			
제주	87	87			
합계	4,698	2,871			

※ 총계: 9,033명

표 III-14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구분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서울	27(9)	15(5)	6(2)	3(1)	6(2)
경기	39(13)	27(9)	9(3)	3(1)	
인천	9(3)	6(2)			
강원	6(2)	3(1)	6(2)	3(1)	
충북	6(2)	3(1)			
충남	6(2)	3(1)			
대전	6(2)	3(1)			
경북	9(3)	6(2)	9(3)	3(1)	
경남	12(4)	6(2)			
부산	9(3)	6(2)			
대구	9(3)	6(2)			
울산	3(1)	3(1)			
전북	6(2)	3(1)	3(1)	3(1)	
전남	6(2)	3(1)			
광주	6(2)	3(1)			
제주	3(1)	3(1)			
합계	162(54)	99(33)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315개

(3) 표본배분

학생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43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III-10>과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로 나누면 <표 III-11>과 같이 조사될 학교수가 할당된다. 결론적으로 총 298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라 지역의 자율고 고등학교에 36명(학년당 12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한 학급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므로 실제로는 학년 당 약 30명의 학생이 조사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표본크기가 목표한 것보다 커지게 된다. 아니면 전라 지역의 자율고에 대해서는 한 학급에서 12명만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즉,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여서 변형비례배분 형태의 표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표 III-10>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하여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 하에 학교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43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전체 학교수가 약 300개 정도이고 조사될 목표 학생수가 9,000명을 넘도록 한다.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대략 중학교 29명, 일반고 33명, 특성화고 27명, 자율고 32명, 특수목적고 28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수 및 학교수를 계산하면 <표 III-12>, <표 III-13>과 같다.

(4)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III-13>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43개 층내에서 조사 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각 학년별 학급수가 3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5)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3) 가중치와 모수추정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1차 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무작위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한 학생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k=1,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2) 모수추정

가.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dots, H$). 학교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hi}$)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나.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dots$: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다.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라.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률, n_h/N_h .

- $n_h > 1$ 일 때,

$$\wide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cdot})^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dots}$$

$$\bar{e}_{h\cdot\cdot}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h = 1$ 일 때,

$$\wide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마.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wide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alpha=0.05$) $z_{\alpha/2}=1.96$ 임.

3. 조사내용

본 연구의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청소년 직업체험과 청소년 아르바이트로 구분된다.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영역과 조사내용의 초안을 작성하고, 학계 전문가와 관련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설문 문항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청소년 직업체험과 청소년 아르바이트라는 관련성을 보이면서도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은 2개의 주제를 한 설문도구에 포함시켜야 했기 때문에 초안에서 논의되었던 설문문항 중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문항들을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사내용의 대영역은 진로발달특성, 직업체험, 아르바이트, 인구사회학적 변인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직업체험 영역은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특성과 직업체험

경험에 대한 평가 등 2개의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문항을 개발했고, 아르바이트 영역은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인지 수준, 지금까지의 아르바이트 경험 특성, 최근 아르바이트 경험 평가 등 3개의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문항을 개발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조사 영역 및 조사 내용은 <표 III-15>와 같다.

표 III-15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영역 구분 및 조사 내용

대영역	세부영역	조사 내용	출 처
개인특성	진로발달	• 진로성숙도	• 한국고용정보원(2006) 청소년용 진로발달검사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
직업체험	직업체험 경험 특성	• 직업체험 유형별 경험 유무	• 여성가족부(2011b)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여 사용
		•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체계성	• 연구진 신규 작성
		• 직업체험 참여 동기 자발성	• 연구진 신규 작성
		• 직업체험의 희망진로와의 관련성	• 직업체험 중심 진로교육 지원체제 연구(정윤경 외, 2011)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직업체험 참여 태도	• 연구진 신규 작성
		• 사전 교육 여부	• 청년직장체험 및 직업체험·취업캠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연구(김은석, 2011), 청소년 직업체험 학습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가열·노경란, 2006)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 사후 활동 종류	• 직업체험 중심 진로교육 지원체제 연구(정윤경 외, 2011)
직업체험 경험 평가	직업체험 경험 평가	• 직업체험이 진로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도	• 직업체험프로그램 개발 연구(한상근 외, 2007), 직업체험 중심 진로교육 지원체제 연구(정윤경 외, 2011),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의 효과성 추적조사 연구(박가열 외, 2008) 문항을 연구진이 수정·보완
		• 직업체험 유형별 향후 참여 의향	• 직업체험 중심 진로교육 지원체제 연구(정윤경 외, 2011) 문항을 연구진이 수정·보완
		• 직업체험 개선요구	• 직업체험 중심 진로교육 지원체제 연구(정윤경 외, 2011)문항을 연구진이 수정·보완
아르바이트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인지 여부 및 경로	• 고용노동부(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진학 청소년 문항을 연구진이 수정·보완

대영역	세부영역	조사 내용	출 처
		• 청소년알바십계명 인지 여부	• 연구진 신규 작성
	지금까지의 아르바이트 경험 특성	•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 여성가족부(2011b)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 -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 - 아르바이트를 할 의향 - 희망 아르바이트 종류	• 고용노동부(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진학 청소년 문항을 연구진이 수정·보완
		•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시기	• 고용노동부(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진학 청소년 문항
		• 지금까지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 고용노동부(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진학 청소년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수정·보완
		• 아르바이트 수입 사용처	• 연구진 신규 작성
		• 경제적 목적 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 연구진 신규 작성
		• 부당경험 여부 및 대처방식	• 고용노동부(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진학 청소년 문항과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통계청)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수정·보완
		• 아르바이트를 통한 역량개발	• 김예성(2006)
	최근 아르바이트 경험 평가	• 아르바이트 종류	• 고용노동부(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진학 청소년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수정·보완
		• 아르바이트의 영향	• 김예성(2006)
		• 총 아르바이트 한 기간	• 김예성(2006)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수정·보완
		• 주 평균 근무 일수	• 김예성(2006)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수정·보완
		• 하루평균 근무 시간	• 고용노동부(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진학 청소년 문항
		• 시급	• 고용노동부(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진학 청소년 문항
• 근무일(평일/주말)		• 고용노동부(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진학 청소년 문항	

대영역	세부영역	조사 내용	출 처
		• 직원 수(사업체 규모)	• 연구진 신규 작성
		• 구직 경로	• 고용노동부(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진학 청소년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수정·보완
		• 서류 작성 여부	• 고용노동부(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진학 청소년 문항
		• 서류 미작성 이유	• 고용노동부(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진학 청소년 문항
		• 만족도 - 급여액 - 근로시간 - 근로환경/주변시설 - 근로강도 - 일내용 - 동료	• 고용노동부(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진학 청소년 문항
		• 업무상 재해 경험 빈도	• 김예성(2006)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수정·보완
		• 아르바이트로 인한 부정적 경험 정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a) 2009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수정·보완
인구 사회학적 변인	학생변인	• 성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b) 통합조사 공통문항
		• 학교 성적	
		• 희망 교육수준	
	가족변인	• 가족구성	
		• 부모학력	
		• 부모님 직업 유무	
		• 가정의 경제수준	
• 거주지			
		• 부당경험 유형별 경험 유무	• 김예성(2006)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수정·보완

4. 조사결과

1) 청소년 직업체험²⁹⁾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생 총 10,119명으로 남자청소년 5,311명, 여자청소년 4,808명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성별(남/여), 교급별(중학교/고등학교)로 할당하여 표본추출하였고, 이외 고교계열(일반계/특성화계/특목·자율계)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권역별로 (서울권, 경기·인천권, 강원·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골고루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표 III-16>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들을 살펴보면, 남자청소년 52.5%, 여자청소년 47.5%가 조사에 참여하였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41.8%(4,230명), 중소도시 44.9%(4,546명), 읍·면지역 13.3%(1,343명)가 조사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이들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교육수준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7.1%(714명), 2~3년제 대학졸업 15.6%(1,582명), 4년제 대학졸업 57.7%(5,843명), 석사이상 18.5%(1,868명)가 응답하여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기대하는 청소년은 약 77%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부모 모두가 있는 양부모가정 89.7%(9,075명), 한부모가정 8.4%(849명), 조손가정과 그 외 기타형태의 가정 약 2%(195명)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학교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중학생 49%(4,961명), 고등학생 51%(5,158명)가 조사에 포함되었으며,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일반계 고등학생 72%(3,712명), 특성화고 재학생 17.9%(922명), 특목고와 자율고 재학생 10.2%(524명)로 조사되었다. 청소년들의 2013년 상반기 학급에서의 학업성적에 대해서는 33.7%(3,407명)의 학생들은 낮은 편, 약 41%(4,114명)는 보통, 25.2%(2,550명)는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사회경제적 배경특성으로 조사대상자인 청소년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직업유무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약 4%(398명), 고등학교졸업 31.0%(3,136명), 2~3년제 대학졸업 6.3%(638명), 4년제 대학졸업 30.6%(3,099명), 대학원졸업(석사, 박사) 7%(704명)라고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3.4%(343명), 고등학교졸업 40.4%(4,089명), 2~3년제 대학졸업 6.2%(626명), 4년제 대학졸업

29) 본 절은 김희진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약 25%(2,523명), 대학원 졸업 약 4%(395명)로 아버지의 교육수준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 교육수준의 경우 조사대상 청소년이 모른다고 응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이 모두 약 2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 직업과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직업이 있다는 응답이 90%를 넘었으며(9,140명), 어머니의 경우 직업이 있다는 응답은 65.5%(6,624명) 수준이었다. 가정의 경제적수준에 대해서는 약 23%의 조사대상 청소년이 낮은 편(2,302명)이라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약 40%(4,039명),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약 37%(3,720명)로 가정의 경제수준은 비교적 중간이거나 높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16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특징

단위: %(명)

구 분			N(10,119)
개인 및 지역 특성	성별	남	52.5(5,311)
		여	47.5(4,808)
	지역 규모	대도시	41.8(4,230)
		중소도시	44.9(4,546)
		읍·면	13.3(1,343)
	기대하는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7.1(714)
		2~3년제 대학 졸업	15.6(1,582)
		4년제 대학 졸업	57.7(5,843)
		석사 이상	18.5(1,868)
		무응답	1.1(113)
	가족 형태	양부모가정	89.7(9,075)
		한부모가정	8.4(849)
		조손가정	0.8(77)
		기타	1.2(118)
학교관련 특성	교급	중학교	49.0(4,961)
		고등학교	51.0(5,158)
	고교 계열	일반계	72.0(3,712)
		특성화	17.9(922)
		특목·자율	10.2(524)
	학업성적	낮은 편	33.7(3,407)
		보통	40.7(4,114)
		높은 편	25.2(2,550)
무응답		0.5(48)	

구 분		N(10,119)	
사회경제적 배경특성	부교육수준	중졸 이하	3.9(398)
		고등학교 졸업	31.0(3,136)
		2~3년제 대학 졸업	6.3(638)
		4년제 대학 졸업	30.6(3,099)
		대학원 졸업	7.0(704)
		모름/무응답	21.2(2,144)
	모교육수준	중졸 이하	3.4(343)
		고등학교 졸업	40.4(4,089)
		2~3년제 대학 졸업	6.2(626)
		4년제 대학 졸업	24.9(2,523)
		대학원 졸업	3.9(395)
		모름/무응답	21.2(2,143)
	부직업유무	있음	90.3(9,140)
		없음	4.2(421)
		무응답	5.5(558)
	모직업유무	있음	65.5(6,624)
		없음	28.9(2,922)
		무응답	5.7(572)
	경제적수준	낮은 편	22.7(2,302)
		보통	39.9(4,039)
높은 편		36.8(3,720)	
무응답		0.6(58)	

(2) 진로성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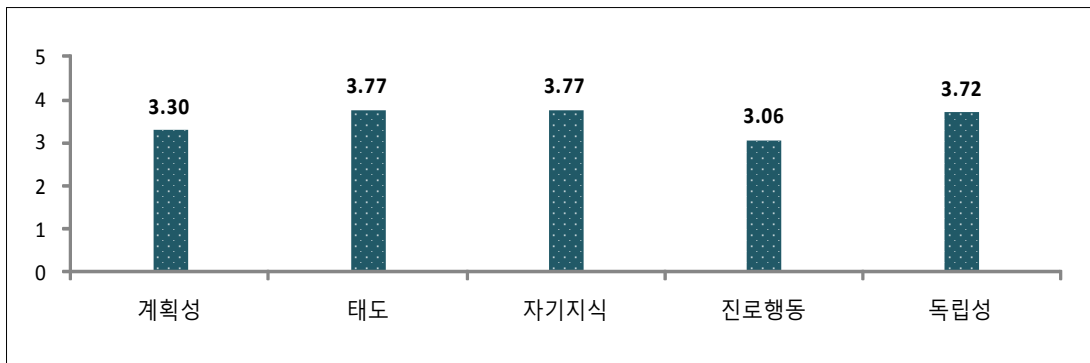
① 진로성숙도 하위척도별 차이

본 조사에서 활용한 진로성숙도 척도는 2006년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계획성, 태도, 자기지식, 진로행동, 독립성의 5가지 하위척도로 구분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항들이 이러한 5가지 하위척도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17>과 같다. 하위척도 중에서 “태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으나 본 조사에서도 전반적으로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개별 문항이 각 하위척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판단되어 5가지 하위척도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17 진로체험프로그램 유형

하위척도	진로성숙도 하위척도별 내용	Cronbach's α
계획성	원하는 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767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나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운다.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나는 내 또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태도	직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599
	직업 자체가 내 인생에서 의미있는 일은 아니다.	
	돈을 많이 벌수만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선택할 것이다.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가 미래의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기지식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776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나의 성격에서 나쁜 점이 무엇인지 안다.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진로행동	내가 관심 있는 진로나 전공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809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해 본 적이 있다.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로지식이 정확한지 알아본 적이 있다.	
	나의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독립성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674
	나의 진로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진로선택은 어른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	
	진로선택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나는 어른들의 결정보다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택할 것이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 하위척도에 대한 응답을 대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섯 가지 하위척도 중 '태도'(직업에 대한 태도)와 '자기지식'이 가장 높은, 보통이상의 평균값을 보였다(각각 M=3.77).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진로성숙도의 다른 하위척도보다 직업의 의미 및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진로와 관련한 자신의 능력과 흥미 등 개인특성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진로행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관심 있는 진로 및 직업, 그리고 전공 및 진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나 지식 수집, 관계자와의 만남이나 상담 등 직접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은 보통수준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M=3.06).



【그림 Ⅲ-1】 진로성숙도 하위척도별 평균값 차이

② 진로성숙도 하위척도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

진로성숙도 하위척도들에 대한 개인 및 지역특성, 학교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인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중 가장 높은 수준인 '태도'와 '자기지식' 하위척도에 대한 개인 및 지역특성별 차이를 보면,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이,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소규모의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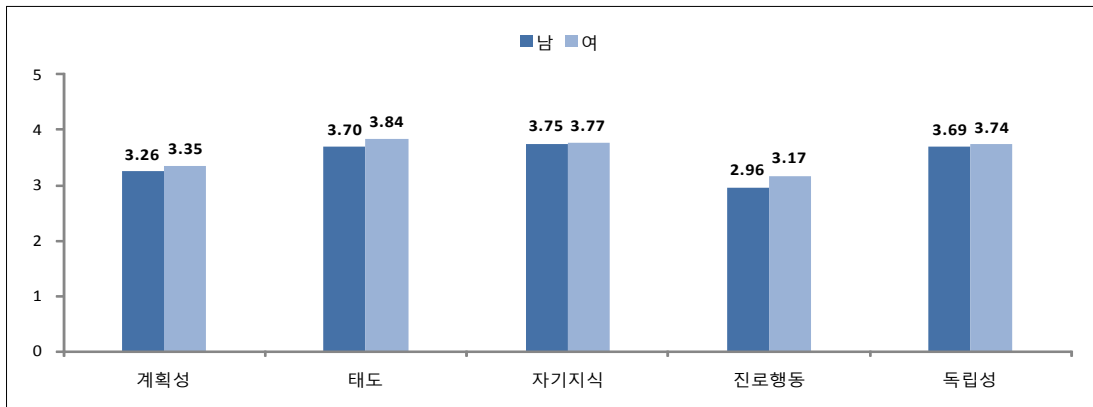
그러나 나머지 하위척도에서도 전반적으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그리고 대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그보다 작은 규모의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진로성숙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청소년과 중소도시나 읍·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로성숙도가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I-18 진로성숙도 하위척도별 - 개인 및 지역 특성

내용/구분	전체 평균값	성별		지역규모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계획성	M(SD)	3.30(.720)	3.26(.735)	3.35(.701)	3.33(.726)	3.29(.724)	3.25(.687)
	t/F		-6.738***		5.896**(ac)		
태도	M(SD)	3.77(.578)	3.70(.601)	3.84(.542)	3.79(.577)	3.76(.579)	3.72(.570)
	t/F		-11.816***		7.767***(ac)		
자가지식	M(SD)	3.77(.599)	3.75(.627)	3.77(.566)	3.79(.589)	3.76(.610)	3.72(.590)
	t/F		-2.910**		8.762***(ab, ac)		
진로행동	M(SD)	3.06(.761)	2.96(.771)	3.17(.735)	3.06(.774)	3.06(.754)	3.02(.743)
	t/F		-13.896***		3.126*(ac)		
독립성	M(SD)	3.72(.618)	3.69(.635)	3.74(.597)	3.74(.621)	3.70(.622)	3.67(.589)
	t/F		-3.860***		8.928***(ab, ac)		

* $p < .05$, ** $p < .01$, *** $p < .001$

※ 주: 지역규모(a=대도시, b=중소도시, c=읍·면) 이하 모든 F값은 Scheffé 검증임.



【그림 III-2】 진로성숙도 하위척도별 평균값 차이 : 성별

또한 학교관련 특성별로는, 교급, 고교계열과 학업성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계획성과 태도, 진로행동은 고등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자가지식은 오히려 중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독립성의 경우에는, 교급과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성장 발달하면서 진로성숙도 수준이 올라간다고 할 때, 결국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도 진로와 관련한 자신의 흥미와 적성, 자기에 대한 이해가 낫다는 부분과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학생과 차이가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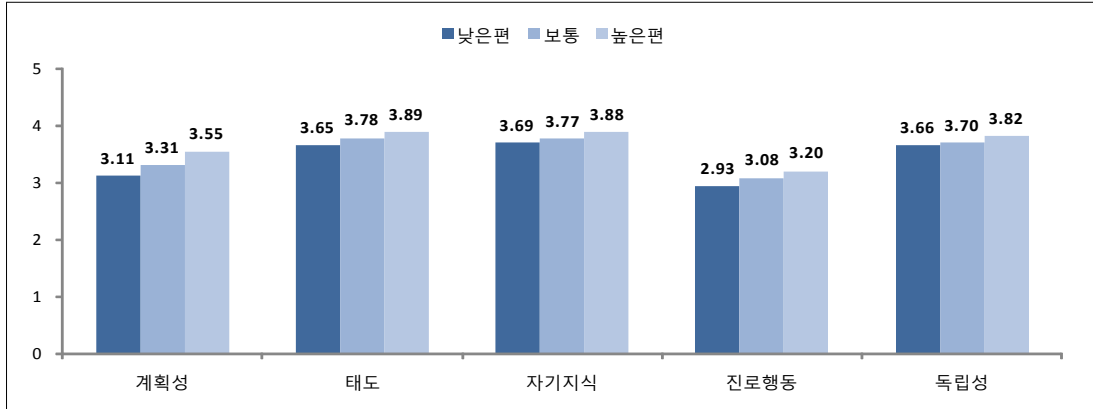
표 III-19 진로성숙도 하위척도별 - 학교관련 특성

내용/구분		교급		고교 계열			학업성적		
		중	고등	일반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계획성	M (SD)	3.25 (.737)	3.36 (.700)	3.35 (.699)	3.26 (.693)	3.57 (.678)	3.11 (.717)	3.31 (.686)	3.55 (.699)
	t/F	-7.829***		34.413***(ab, ac, bc)			296.017***(de, df, ef)		
태도	M (SD)	3.74 (.594)	3.79 (.560)	3.81 (.559)	3.66 (.541)	3.91 (.562)	3.65 (.578)	3.78 (.565)	3.89 (.567)
	t/F	-4.568***		39.794***(ab, ac, bc)			135.250***(de, df, ef)		
자기지식	M (SD)	3.79 (.610)	3.75 (.588)	3.75 (.587)	3.67 (.606)	3.86 (.541)	3.69 (.622)	3.77 (.584)	3.88 (.573)
	t/F	3.979***		17.398***(ab, ac, bc)			77.231***(de, df, ef)		
진로행동	M (SD)	2.93 (.768)	3.19 (.733)	3.20 (.726)	3.04 (.732)	3.39 (.725)	2.93 (.771)	3.08 (.734)	3.20 (.762)
	t/F	-17.368***		40.871***(ab, ac, bc)			92.280***(de, df, ef)		
독립성	M (SD)	3.71 (.627)	3.72 (.608)	3.74 (.608)	3.55 (.585)	3.83 (.598)	3.66 (.615)	3.70 (.602)	3.82 (.630)
	t/F	-.425		47.039***(ab, ac, bc)			54.594***(de, df, ef)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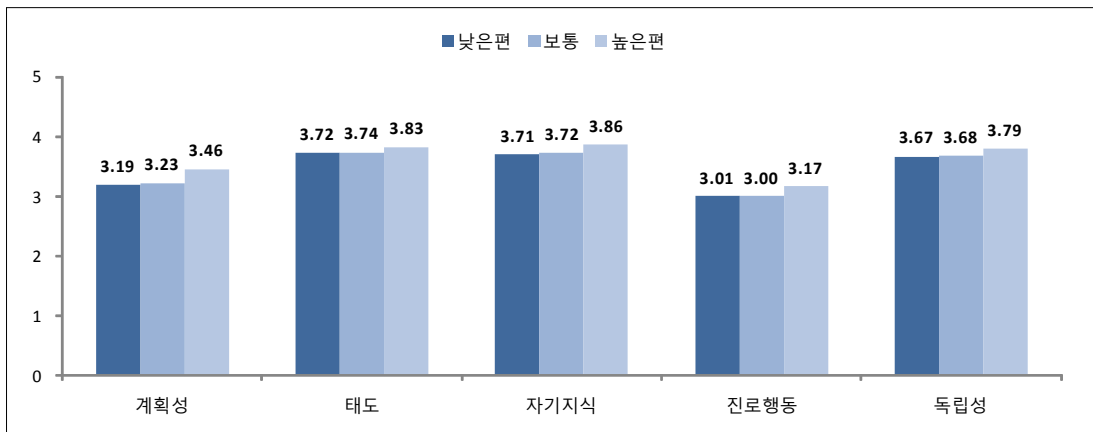
※주: 고교계열(a=일반, b=특성화, c=특목·자율), 학업성적(d=낮은 편, e=보통, f=높은 편)

고교 계열별로는 특목/자율고 재학 청소년들이 일반고와 특성화고 재학 청소년들보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들에게서 직업의 의미 및 중요성, 그리고 진로와 관련한 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적과 관련해서는 【그림 III-3】에서 보듯이, 학업성적이 높은 편일수록 진로성숙도 하위척도의 평균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5가지 모든 하위척도에서, 특성화고 재학 청소년과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계획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3】 진로성숙도 하위척도별 평균값 차이 :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특성별로는, 모든 하위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 모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인 경우, 그리고 경제적수준이 높은 편인 가정의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였다(<표 Ⅲ-20>).



【그림 Ⅲ-4】 진로성숙도 하위척도별 평균값 차이 : 가정의 경제적수준

그러나 【그림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의 경제적수준이 보통이거나 낮은 편인 경우 평균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고 가정의 경제적수준이 낮은 경우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가 낮음을 시사하고 있어 이러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III-20 진로성숙도 하위척도별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

내용/구분		부교육수준		모교육수준		경제적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고졸이하	대졸이상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계획성	M (SD)	3.28 (.697)	3.41 (.720)	3.28 (.700)	3.45 (.713)	3.19 (.721)	3.23 (.695)	3.46 (.719)
	t/F	-8.363***		-10.965***		142.545***(ac, bc)		
태도	M (SD)	3.75 (.561)	3.82 (.587)	3.76 (.562)	3.83 (.713)	3.72 (.572)	3.74 (.560)	3.83 (.594)
	t/F	-5.408***		-5.527***		32.418***(ac, bc)		
자기지식	M (SD)	3.74 (.592)	3.82 (.589)	3.75 (.584)	3.84 (.589)	3.71 (.627)	3.72 (.585)	3.86 (.586)
	t/F	-6.182***		-7.246***		62.309***(ac, bc)		
진로행동	M (SD)	3.08 (.739)	3.16 (.759)	3.07 (.750)	3.18 (.750)	3.01 (.770)	3.00 (.737)	3.17 (.769)
	t/F	-5.125***		-6.565***		57.371***(ac, bc)		
독립성	M (SD)	3.68 (.602)	3.78 (.615)	3.69 (.598)	3.79 (.619)	3.67 (.606)	3.68 (.612)	3.79 (.625)
	t/F	-7.218***		-7.136***		36.614***(ac, 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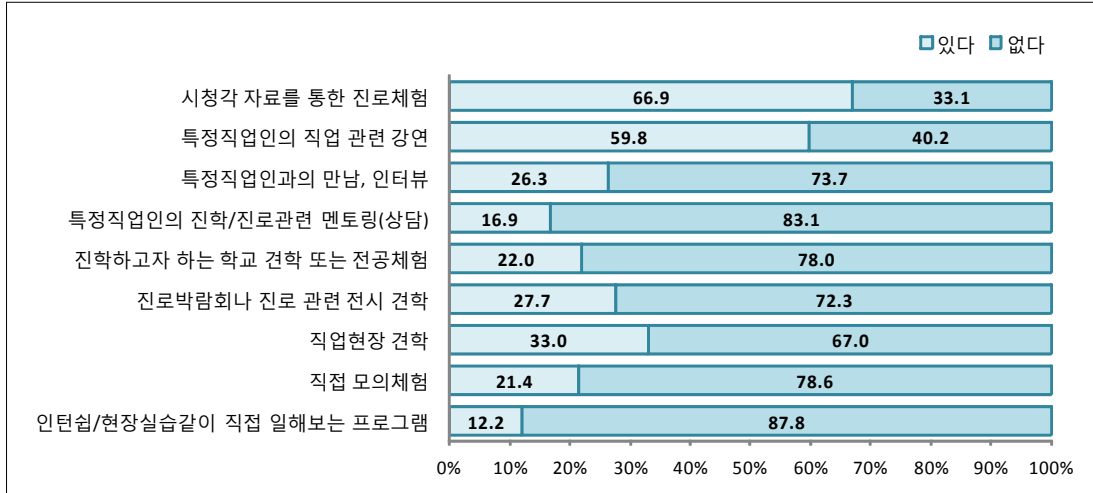
* α .05, ** α .01, *** α .001

※ 주: 경제수준(a=낮은 편, b=중간, c=높은 편)

(3) 진로체험 경험 내용

① 진로체험 경험 여부

현재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경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진로체험에 대한 청소년의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중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진로체험프로그램은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66.9%), '특정직업인의 직업 관련 강연'(59.8%)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직업체험프로그램의 경험 비율은 대부분 그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현재 대부분의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진로체험과 특정직업인 강연 등에 치우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5】 최근 1년 간 진로체험 경험

또한 ‘인턴십/현장실습 같이 직장에서 직접 일해 보는 프로그램’(12.2%)은 제시된 진로체험 항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으며, 이외에 ‘특정직업인의 진학/진로관련 멘토링(상담)’은 16.9%, ‘직업 모의체험’은 21.4% 정도로 나타났다.

표 Ⅲ-21 최근 1년 간 진로체험 경험

단위: %(명)

내 용	경험여부		전체
	있다	없다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	66.9	33.1	100.0(10109)
특정직업인의 직업 관련 강연	59.8	40.2	100.0(10104)
특정직업인과의 만남, 인터뷰	26.3	73.7	100.0(10106)
특정직업인의 진학/진로관련 멘토링(상담)	16.9	83.1	100.0(10104)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견학 또는 전공체험	22.0	78.0	100.0(10105)
진로박람회나 진로 관련 전시 견학	27.7	72.3	100.0(10097)
직업현장 견학	33.0	67.0	100.0(10107)
직업 모의체험	21.4	78.6	100.0(10107)
인턴십/현장실습과 같이 직장에서 직접 일해보는 프로그램	12.2	87.8	100.0(10096)

② 진로체험 경험 여부의 배경변인별 차이

여기에 제시된 9가지 진로체험 경험은 개인 및 지역 특성, 학급 및 학교관련 특성, 가정의 경제적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진로체험이 주로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조사대상자의 학교 및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지역 등의 변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III-22>와 같다. 본 조사에 제시된 진로체험 경험에 대해 대체로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중소도시나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보다, 그리고 특목/자율고 재학 청소년들이 일반고와 특성화고 재학 청소년보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진로체험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진로박람회나 진로관련 전시견학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이 특목/자율고 청소년보다 훨씬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직업현장 견학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이 일반고와 특목/자율고 재학 청소년보다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직업 모의체험 경험은 읍·면 거주 청소년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았고, 인턴십이나 현장실습 경험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특성화고와 특목/자율고 재학 청소년이 일반고 재학 청소년보다 더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표 III-22 최근 1년 간 진로체험 경험 - 학교관련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	있다	66.1	67.6	68.5	61.1	72.3	58.3	68.3	75.9
	없다	33.9	32.4	31.5	38.9	27.7	41.7	31.7	24.1
	전체	100.0 (4954)	100.0 (5156)	100.0 (3709)	100.0 (922)	100.0 (524)	100.0 (3402)	100.0 (4110)	100.0 (2550)
	χ^2	2.465		24.751***			209.365***		
특정직업인의 직업 관련 강연	있다	55.8	63.5	63.2	58.5	75.0	52.5	61.0	67.4
	없다	44.2	36.5	36.8	41.5	25.0	47.5	39.0	32.6
	전체	100.0 (4951)	100.0 (5153)	100.0 (3707)	100.0 (922)	100.0 (524)	100.0 (3400)	100.0 (4109)	100.0 (2548)
	χ^2	62.531***		39.759***			138.230***		
특정직업인과의 만남, 인터뷰	있다	25.8	26.8	27.0	20.1	36.8	20.7	27.2	32.5
	없다	74.2	73.2	73.0	79.9	63.2	79.3	72.8	67.5
	전체	100.0 (4952)	100.0 (5154)	100.0 (3710)	100.0 (920)	100.0 (524)	100.0 (3402)	100.0 (4108)	100.0 (2549)
	χ^2	1.220		48.156***			107.639***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특정직업인의 진학/진로관련 멘토링(상담)	있다	14.5	19.1	18.2	19.1	25.7	15.7	15.9	19.9
	없다	85.5	80.9	81.8	80.9	74.3	84.3	84.1	80.1
	전체	100.0 (4950)	100.0 (5154)	100.0 (3708)	100.0 (922)	100.0 (524)	100.0 (3400)	100.0 (4109)	100.0 (2548)
	χ^2	32.285***		16.311***			23.346***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견학 또는 전공체험	있다	16.9	27.0	25.5	24.1	42.1	17.6	21.7	28.3
	없다	83.1	73.0	74.5	75.9	57.9	82.4	78.3	71.7
	전체	100.0 (4950)	100.0 (5154)	100.0 (3708)	100.0 (922)	100.0 (524)	100.0 (3402)	100.0 (4107)	100.0 (2549)
	χ^2	150.667***		69.280***			97.451***		
진로박람회나 진로 관련 전시 견학	있다	26.1	29.2	26.8	36.5	33.3	23.1	28.9	31.8
	없다	73.9	70.8	73.2	63.5	66.7	76.9	71.1	68.2
	전체	100.0 (4946)	100.0 (5151)	100.0 (3710)	100.0 (919)	100.0 (522)	100.0 (3397)	100.0 (4104)	100.0 (2549)
	χ^2	11.630**		38.360***			60.243***		
직업현장 견학	있다	37.6	28.5	26.2	33.9	35.0	29.2	33.4	37.2
	없다	62.4	71.5	73.8	66.1	65.0	70.8	66.6	62.8
	전체	100.0 (4950)	100.0 (5157)	100.0 (3711)	100.0 (922)	100.0 (524)	100.0 (3400)	100.0 (4109)	100.0 (2550)
	χ^2	96.125***		33.869***			43.701***		
직업 모의체험	있다	25.6	17.4	17.0	15.8	23.4	18.9	22.1	23.7
	없다	74.4	82.6	83.0	84.2	76.6	81.1	77.9	76.3
	전체	100.0 (4950)	100.0 (5157)	100.0 (3711)	100.0 (922)	100.0 (524)	100.0 (3402)	100.0 (4108)	100.0 (2549)
	χ^2	99.040***		14.567**			22.000***		
인턴십/현장실습 과 같이 직장에서 직접 일해보는 프로그램	있다	14.8	9.8	8.8	12.1	12.3	10.7	13.0	12.9
	없다	85.2	90.2	91.2	87.9	87.7	89.3	87.0	87.1
	전체	100.0 (4942)	100.0 (5154)	100.0 (3710)	100.0 (921)	100.0 (523)	100.0 (3398)	100.0 (4105)	100.0 (2546)
	χ^2	41.834***		12.989**			11.336**		

* $p < .05$, ** $p < .01$, *** $p < .001$

학교에서의 진로체험 경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및 지역 변인을 우선 고려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아직 남녀공학이 아닌 학교가 많이 있고, 또 부모의 자녀진로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의 진로체험 경험에 차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표 III-23 >), 대부분의 진로체험 경험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는 높은 경험률을 보였으며(시청각

자료, 특정직업인 강연 및 인터뷰 제외),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진로체험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직업이 있는 경우에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에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외의 직업체험에서는 부모의 직업유무가 크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부표 1>).

표 III-23 최근 1년 간 진로체험 경험 - 개인 및 지역 특성/사회경제적 배경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경제적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	있다	64.2	69.8	70.9	64.0	63.8	63.4	65.5	70.5
	없다	35.8	30.2	29.1	36.0	36.2	36.6	34.5	29.5
	전체	100.0 (5303)	100.0 (4806)	100.0 (4229)	100.0 (4537)	100.0 (1343)	100.0 (2298)	100.0 (4036)	100.0 (3719)
	χ^2	34.810***		54.193***			37.672***		
특정직업인의 직업 관련 강연	있다	58.7	60.9	62.8	57.7	57.1	57.5	57.2	64.0
	없다	41.3	39.1	37.2	42.3	42.9	42.5	42.8	36.0
	전체	100.0 (5299)	100.0 (4804)	100.0 (4226)	100.0 (4535)	100.0 (1342)	100.0 (2299)	100.0 (4032)	100.0 (3717)
	χ^2	5.248*		28.150***			43.890***		
특정직업인과의 만남, 인터뷰	있다	25.0	27.8	29.4	23.8	25.2	22.0	24.6	31.0
	없다	75.0	72.2	70.6	76.2	74.8	78.0	75.4	69.0
	전체	100.0 (5303)	100.0 (4803)	100.0 (4227)	100.0 (4536)	100.0 (1343)	100.0 (2300)	100.0 (4032)	100.0 (3718)
	χ^2	10.067**		36.643***			70.281***		
특정직업인의 진학/진로관련 멘토링(상담)	있다	17.7	15.9	17.5	16.5	16.0	15.8	14.3	20.2
	없다	82.3	84.1	82.5	83.5	84.0	84.2	85.7	79.8
	전체	100.0 (5300)	100.0 (4804)	100.0 (4226)	100.0 (4534)	100.0 (1343)	100.0 (2298)	100.0 (4031)	100.0 (3718)
	χ^2	5.524*		2.633			49.961***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견학 또는 전공체험	있다	23.0	21.0	24.9	19.8	20.6	19.9	19.6	25.8
	없다	77.0	79.0	75.1	80.2	79.4	80.1	80.4	74.2
	전체	100.0 (5299)	100.0 (4806)	100.0 (4229)	100.0 (4534)	100.0 (1342)	100.0 (2298)	100.0 (4032)	100.0 (3717)
	χ^2	5.599*		34.907***			50.968***		
진로박람회나 진로 관련 전시 견학	있다	28.6	26.7	31.1	23.7	30.1	26.5	25.1	31.1
	없다	71.4	73.3	68.9	76.3	69.9	73.5	74.9	68.9
	전체	100.0 (5298)	100.0 (4799)	100.0 (4223)	100.0 (4530)	100.0 (1343)	100.0 (2295)	100.0 (4029)	100.0 (3716)
	χ^2	4.782*		63.579***			36.749***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경제적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직업현장 견학	있다	36.1	29.5	36.7	29.2	33.8	28.2	31.3	37.8
	없다	63.9	70.5	63.3	70.8	66.2	71.8	68.7	62.2
	전체	100.0 (5301)	100.0 (4805)	100.0 (4228)	100.0 (4535)	100.0 (1343)	100.0 (2299)	100.0 (4034)	100.0 (3717)
	χ^2	49.334***		56.738***			68.796***		
직업 모의체험	있다	23.2	19.4	23.1	19.1	24.0	18.4	20.1	24.7
	없다	76.8	80.6	76.9	80.9	76.0	81.6	79.9	75.3
	전체	100.0 (5301)	100.0 (4805)	100.0 (4228)	100.0 (4536)	100.0 (1342)	100.0 (2299)	100.0 (4033)	100.0 (3719)
	χ^2	21.282***		26.968***			40.951***		
인턴십/현장실습 과 같이 직장에서 직접 일해보는 프로그램	있다	14.2	10.0	13.3	11.0	13.1	10.3	10.8	15.0
	없다	85.8	90.0	86.7	89.0	86.9	89.7	89.2	85.0
	전체	100.0 (5295)	100.0 (4801)	100.0 (4222)	100.0 (4533)	100.0 (1341)	100.0 (2296)	100.0 (4029)	100.0 (3714)
	χ^2	41.834***		11.455**			42.642***		

* $p < .05$, ** $p < .01$, *** $p < .001$

전반적으로 낮은 진로체험률을 보인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요약하면, 중소도시, 읍·면 거주 청소년, 중학생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낮은 학업성적의 청소년들로, 이들의 낮은 진로체험 경험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가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경제적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경우에도 진로체험 경험이 낮았으며, 특히 시청각 자료나 특정직업인 강연과 같은 간접적인 진로체험 경험이 여자청소년에게서 더욱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진로체험 경험 유무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III-24>). 9가지 진로체험 경험을 한 청소년들은 진로체험 경험을 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진로성숙도의 계획성, 태도, 자기의식, 진로행동, 독립성 등 진로성숙도의 다섯 영역에서 모두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기청소년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경험이 진로관련 계획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향상에 기여했다는 기존 연구결과(박가열, 2008)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경험 유무에 따라 진로성숙도 수준의 차이를 보인 것은 진로체험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금 조명해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턴십/현장 실습과 같이 직장에서 직접 일해보는 프로그램'의 경험 유무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척도 중, 직업에 대한 '태도'와 직업선택에 있어서의 '독립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24 진로체험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내용/구분		계획성		태도		자기지식		진로행동		독립성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	있다	3.37 (.714)	12.965***	3.81 (.567)	11.342***	3.81 (.581)	8.796***	3.15 (.752)	16.277***	3.75 (.613)	7.586***
	없다	3.17 (.716)		3.67 (.588)		3.69 (.627)		2.89 (.747)		3.65 (.621)	
특정직업인의 직업 관련 강연	있다	3.39 (.724)	14.361***	3.80 (.573)	6.820***	3.81 (.588)	9.324***	3.17 (.755)	17.489***	3.74 (.620)	5.435***
	없다	3.18 (.697)		3.72 (.581)		3.70 (.610)		2.90 (.742)		3.68 (.611)	
특정직업인과의 만남, 인터뷰	있다	3.53 (.727)	19.098***	3.86 (.591)	9.333***	3.88 (.590)	11.274***	3.39 (.780)	25.264***	3.82 (.629)	9.619***
	없다	3.22 (.700)		3.73 (.569)		3.73 (.598)		2.95 (.720)		3.68 (.610)	
특정직업인의 진학/진로관련 멘토링(상담)	있다	3.66 (.717)	22.495***	3.83 (.598)	4.679***	3.90 (.616)	9.803***	3.58 (.762)	30.604***	3.80 (.637)	6.210***
	없다	3.23 (.699)		3.75 (.572)		3.74 (.592)		2.96 (.718)		3.70 (.612)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견학 또는 전공체험	있다	3.61 (.697)	23.112***	3.83 (.595)	6.086***	3.89 (.579)	11.048***	3.42 (.725)	26.000***	3.78 (.634)	5.875***
	없다	3.22 (.704)		3.75 (.571)		3.73 (.600)		2.96 (.740)		3.70 (.611)	
진로박람회나 진로 관련 전시 견학	있다	3.45 (.719)	12.336***	3.79 (.582)	2.420*	3.84 (.585)	7.901***	3.24 (.759)	14.809***	3.74 (.623)	2.549*
	없다	3.25 (.713)		3.76 (.576)		3.74 (.602)		2.99 (.751)		3.71 (.615)	
직업현장 견학	있다	3.43 (.721)	12.243***	3.80 (.583)	3.837***	3.85 (.575)	10.174***	3.20 (.768)	12.783***	3.75 (.619)	3.380**
	없다	3.24 (.712)		3.75 (.574)		3.73 (.606)		2.99 (.749)		3.70 (.616)	
직업 모의체험	있다	3.45 (.739)	10.557***	3.81 (.598)	3.599***	3.86 (.594)	7.917***	3.24 (.783)	12.155***	3.75 (.638)	3.197**
	없다	3.26 (.710)		3.76 (.571)		3.74 (.598)		3.01 (.748)		3.71 (.611)	
인턴십/현장실습과 같이 직장에서 직접 일해보는 프로그램	있다	3.50 (.731)	10.141***	3.75 (.620)	-1.050	3.85 (.615)	4.994***	3.31 (.772)	12.282***	3.71 (.643)	-.393
	없다	3.28 (.715)		3.77 (.572)		3.76 (.596)		3.03 (.753)		3.72 (.61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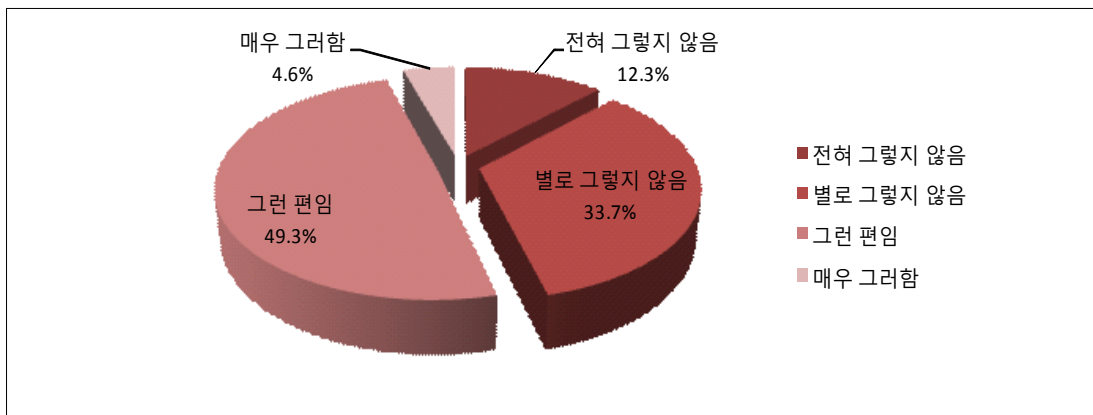
특히 본 조사의 모든 유형의 진로체험 경험은 진로성숙도 중 ‘자기지식’과 ‘태도(직업에 대한 태도)’순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진로행동’에는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각각의 진로성숙도 하위척도에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낸 진로체험 경험을 보면, ‘특정직업인과의 만남/인터뷰’, ‘특정직업인의 진학 및 진로관련 멘토링(상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견학 또는

전공체험', '직업모의체험' 등의 진로체험 경험 등으로, 이러한 내용의 진로체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더 높았다.

(4)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①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여부

최근 1년간 조사대상자가 참여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절반이 약간 넘는 약 54%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그런 편임'과 '매우 그러함'을 합친 값)(【그림 III-6】 참고) 과반수 이상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있었다.



【그림 III-6】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여부

특히 대도시의 청소년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청소년보다, 그리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또 특목/자율고 재학 청소년이 다른 계열학교의 청소년보다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반대로 이러한 긍정적인 응답이 낮은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중소도시나 읍·면 거주 청소년, 고등학생, 특성화고와 일반고 재학 청소년으로, 이들에게서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25

최근 1년간 참여한 진로체험프로그램 일정의 체계적 진행 정도 - 지역특성/학교관련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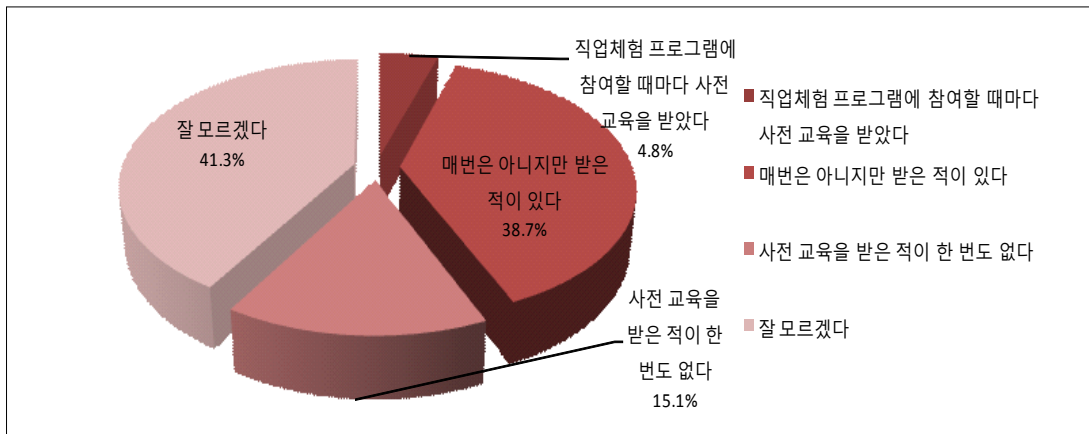
전체 평균값 (SD)	지역규모			교급		고교계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2.46 (.767)	2.52 (.755)	2.40 (.781)	2.48 (.738)	2.53 (.756)	2.40 (.770)	2.39 (.768)	2.38 (.786)	2.46 (.760)
t/F	25.499***(ab, bc)			8.389***		2.063		

* $p < .05$, ** $p < .01$, *** $p < .001$

※ 주: 지역규모(a=대도시, b=중소도시, c=읍·면)

②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사전교육 여부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사전교육은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사전교육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41.3%로 나타났다.



【그림 Ⅲ-7】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사전교육 여부

그 다음으로 '매번은 아니지만 받은 적이 있다' 항목이 38.7%, '사전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가 15.1%로 나타났으며, '매번 사전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4.8%에 불과했다. 결국 '잘 모르겠다'는 응답과 '한 번도 사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는 56.4%로, 사전교육이 더욱 강조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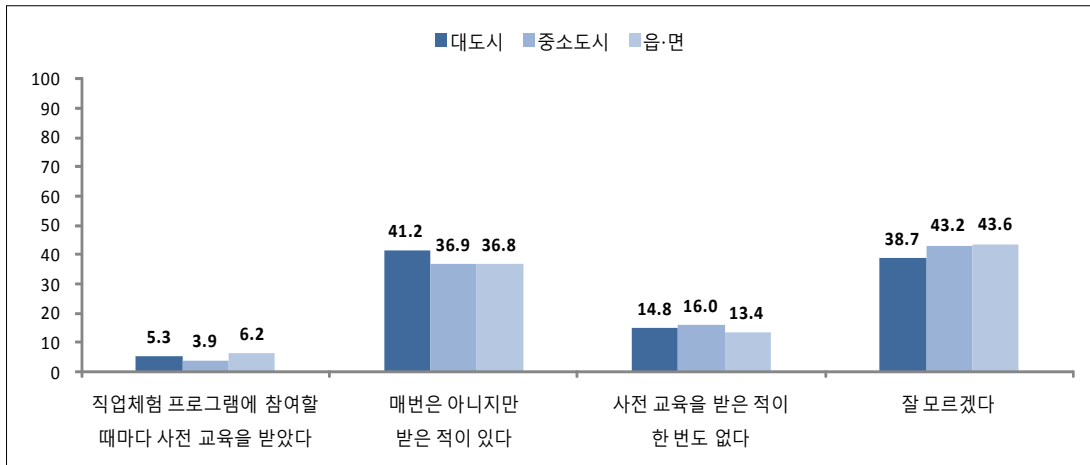
표 Ⅲ-26 진로체험에 관한 사전교육 여부 - 지역특성/학교관련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전체	지역규모			교급		고교계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마다 사전 교육을 받았다	4.8	5.3	3.9	6.2	6.2	3.5	3.2	3.7	5.3
매번은 아니지만 받은 적이 있다.	38.7	41.2	36.9	36.8	39.7	37.8	37.4	38.2	39.9
사전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15.1	14.8	16.0	13.4	11.2	18.8	19.7	15.2	19.1
잘 모르겠다.	41.3	38.7	43.2	43.6	42.9	39.9	39.7	42.9	35.7
전체	100.0 (8734)	100.0 (3752)	100.0 (3814)	100.0 (1169)	100.0 (4224)	100.0 (4510)	100.0 (3224)	100.0 (796)	100.0 (491)
χ^2		39.522***			124.290***		17.137**		

* $p < .05$, ** $p < .01$, *** $p < .001$

응답자의 특성별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사전교육 여부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지역규모와 학교급, 고등학교 계열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매번 또는 한번이라도 사전교육을 받았다'는 대도시거주 청소년이 그보다 소규모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특목/자율고 재학 청소년이 다른 계열 고등학교 재학 청소년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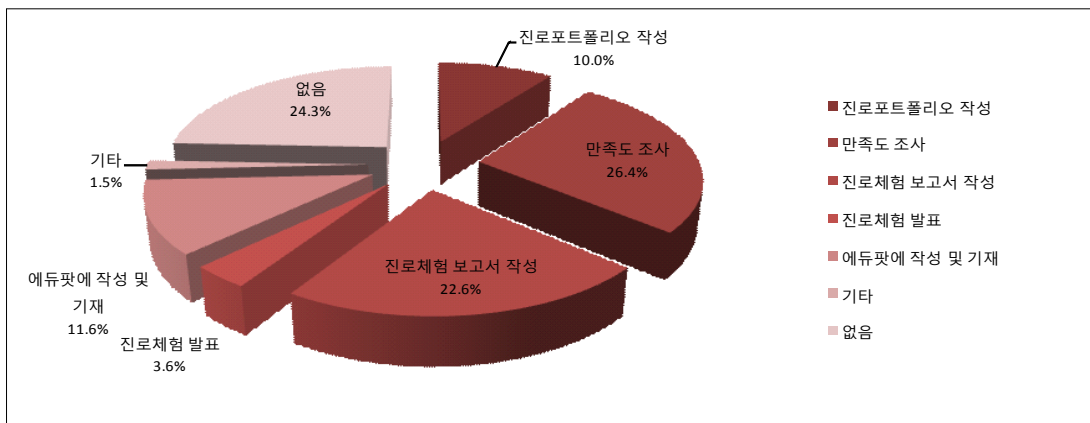


【그림 Ⅲ-8】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사전교육 여부 : 지역규모

‘사전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반대로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이 대도시나 읍·면지역의 청소년보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 일반고와 특성화고 재학 청소년이 특목/자율고 재학 청소년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여 이러한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사전교육을 적게 경험한 것으로 파악된다.

③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사후활동

체계적인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사후활동을 통해 진로체험 경험을 잘 정리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는 조사한 결과(다중응답), <표 III-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족도 조사’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3,176명), 그 다음으로 ‘어떠한 사후활동도 없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2,922명). ‘진로체험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2,719명으로 그 다음 순이었고,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에듀팟 작성 및 기재’는 1,399명이 응답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어떠한 사후활동도 없었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에듀팟 작성 및 기재’ 비율이 낮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그림 III-9】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후 활동내용

특히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 후 ‘어떠한 활동도 없었다’는 응답에 대한 지역 규모, 교급, 고교 계열별 빈도 차이를 살펴보면,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과 고등학교 재학청소년에게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고교계열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특성화고 재학 청소년에게서

‘어떠한 사후활동도 없었다’는 응답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에듀팟 작성 및 기재’는 특히 대도시 거주 청소년, 중학교 재학 청소년, 특성화고 재학 청소년에게서 낮게 나타나 이러한 배경변인별 차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II-27 프로그램 참여 후 활동(복수응답) - 지역특성/학교관련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전체	지역규모			교급		고교계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진로포트폴리오 작성	10.0 (1206)	10.8 (568)	9.7 (500)	8.5 (138)	10.3 (600)	9.7 (606)	9.7 (427)	10.0 (110)	9.5 (70)
만족도 조사	26.4 (3176)	27.5 (1448)	25.3 (1304)	26.2 (424)	29.8 (1731)	23.5 (1445)	22.2 (978)	27.3 (299)	23.1 (169)
진로체험 보고서 작성	22.6 (2719)	24.8 (1305)	19.5 (1009)	25.0 (405)	23.6 (1367)	21.7 (1352)	21.5 (945)	19.3 (211)	26.6 (195)
진로체험 발표	3.6 (437)	3.5 (186)	3.9 (202)	3.0 (49)	4.5 (263)	2.8 (174)	2.2 (98)	3.6 (39)	4.9 (36)
에듀팟에 작성 및 기재	11.6 (1399)	10.7 (561)	11.7 (602)	14.5 (235)	7.8 (450)	15.2 (948)	16.7 (736)	10.9 (120)	12.6 (92)
기타	1.5 (178)	1.3 (70)	1.5 (79)	1.8 (30)	1.7 (97)	1.3 (81)	1.2 (55)	1.5 (17)	1.4 (10)
없음	24.3 (2922)	21.3 (1122)	28.4 (1463)	20.8 (337)	22.3 (1295)	26.1 (1627)	26.5 (1168)	27.4 (299)	21.8 (160)
전체	100.0 (12037)	100.0 (5259)	100.0 (5160)	100.0 (1618)	100.0 (5804)	100.0 (6233)	100.0 (4407)	100.0 (1095)	100.0 (732)

이와 같이,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 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전체응답의 24.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지역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지역규모에 따른 교급별, 그리고 고교 계열별로도 특별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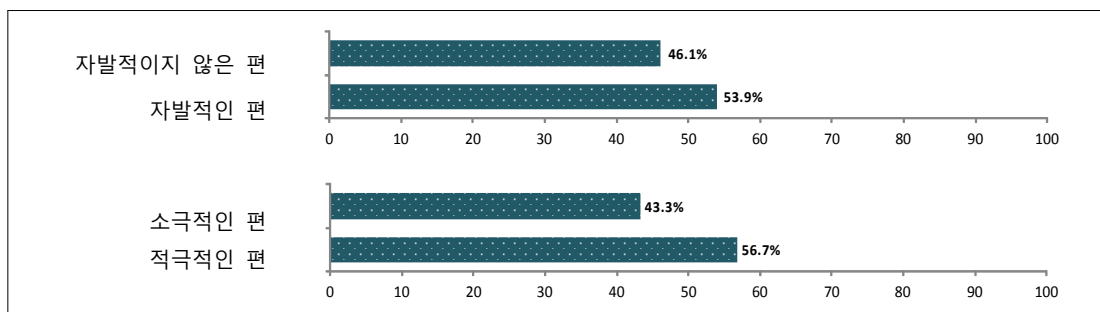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 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에게서, 읍·면지역의 경우는 중학생에게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고교 계열별로는 모든 지역의 일반계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에게서 사후활동이 없다는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에게서는 상대적으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사후활동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내용/구분		프로그램 참여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음						
		교급			고교계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전체
지역규모	대도시	45.3(508)	54.7(614)	100.0(1122)	72.0(442)	16.3(100)	11.7(72)	100.0(614)
	중소도시	42.1(616)	57.9(847)	100.0(1463)	68.5(580)	21.6(183)	9.9(84)	100.0(847)
	읍·면	50.6(170)	49.4(166)	100.0(336)	88.0(146)	9.6(16)	2.4(4)	100.0(166)

(5)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자의 태도

①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자발적 및 적극적 참여 실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청소년 스스로가 원해서 참여했는지,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의 여부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조사결과 최근 1년간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스스로 원해서 참여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53.9%(‘그런 편임’과 ‘매우 그러함’의 합친 값)로 과반수 정도에 그쳐, 비교적 수동적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스스로 원해서 참여했다는, 자발적인 참여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11.9%수준인데 비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2.4%로 더 높았다.



【그림 III-10】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자발적 및 적극적 참여 정도

또한 조사대상 청소년의 최근 1년간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 57%의 청소년이 '적극적인 편이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약간 적극적'과 '매우 적극적'의

합친 값). 그러나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은 약 12% 수준이었으며, '약간 적극적'이었다는 응답 45%, '약간 소극적'이었다는 응답 35.6%,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응답 7.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들이 더욱 자발적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I-29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 여부 및 참여태도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 여부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참여태도	
구분	%(명)	구분	%(명)
전혀 그렇지 않음	12.4	매우 소극적	7.7
별로 그렇지 않음	33.7	약간 소극적	35.6
그런 편임	42.0	약간 적극적	44.8
매우 그러함	11.9	매우 적극적	11.9
전체	100.0(8744)	전체	100.0(8729)

② 자발적 참여 및 적극성 정도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

조사대상자의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참여도와 적극성은 세부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먼저 성,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등의 개인 및 지역특성별 차이를 보면, 자발적 참여도와 적극성(지역규모 제외) 정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III-30>).

표 III-30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및 적극적 참여태도 정도 - 개인 및 지역 특성

내용/구분	전체 평균값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 이상	
자발성	M (SD)	2.53 (.856)	2.43 (.867)	2.64 (.832)	2.57 (.852)	2.50 (.875)	2.52 (.804)	2.34 (.865)	2.42 (.847)	2.53 (.843)	2.70 (.873)
	t/F	-11.325***		5.534**(ab)			39.490***(df, dg, ef, eg, fg)				
적극성	M (SD)	2.61 (.793)	2.58 (.811)	2.64 (.772)	2.62 (.795)	2.60 (.801)	2.59 (.759)	2.48 (.849)	2.53 (.896)	2.60 (.777)	2.74 (.796)
	t/F	-3.895***		1.002			24.312***(df, dg, ef, eg, fg)				

* $p < .05$, ** $p < .01$, *** $p < .001$

※주: 지역규모(a=대도시, b=중소도시, c=읍·면), 기대하는 교육수준(d=고졸, e=2-3년제 대학졸업, f=4년제 대학졸업, g=석사이상)

평균적으로 자발적인 참여 정도보다는 적극적인 참여 정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대체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중소도시나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보다, 그리고 청소년이 기대하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기대하는 교육수준에 따른 자발적인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 역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여, 기대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보다 석사 이상인 경우에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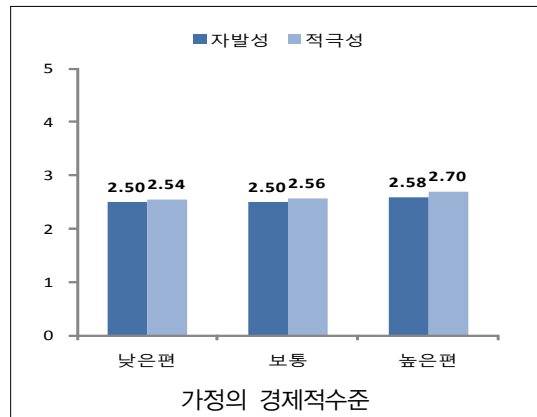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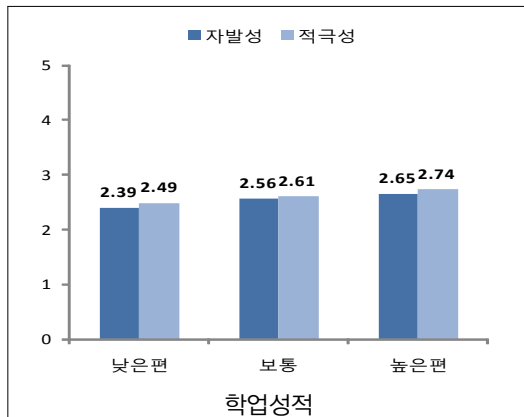
이러한 차이는 학교관련 특성 변인별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진로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적극성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특목/자율고 재학 청소년이 다른 계열 청소년보다, 또 학업성적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및 적극적 참여태도 정도- 학교관련 특성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자발성	M (SD)	2.49 (.852)	2.57 (.859)	2.59 (.856)	2.44 (.856)	2.64 (.863)	2.39 (.854)	2.56 (.836)	2.65 (.868)
	t/F	-4.394***		11.751***(ab, bc)			63.456***(de, df, ef)		
적극성	M (SD)	2.65 (.776)	2.57 (.807)	2.56 (.800)	2.56 (.827)	2.66 (.813)	2.49 (.812)	2.61 (.770)	2.74 (.786)
	t/F	4.837***		3.831*(ac)			61.209***(de, df, ef)		

* $p < .05$, ** $p < .01$, *** $p < .001$

※ 주: 고교계열(a=일반계, b=특성화, c=특목/자율), 학업성적(d=낮은 편, e=보통, f=높은 편)



【그림 III-11】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자발적 및 적극적 참여태도 :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수준

사회경제적 특성별로는 자발적 참여와 적극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이 다소 달랐다. 자발적 참여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청소년에게서,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는 부모 모두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일 때 더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발적 및 적극적 참여 태도 모두 가정의 경제적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 때 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32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및 적극적 참여태도 정도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

내용/구분		부교육수준		모교육수준		경제적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고졸이하	대졸이상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자발성	M (SD)	2.53 (.847)	2.57 (.866)	2.53 (.857)	2.57 (.862)	2.50 (.861)	2.50 (.838)	2.58 (.871)
	t/F	-2.188*		-1.871		8.007***(ac, bc)		
적극성	M (SD)	2.58 (.804)	2.66 (.790)	2.59 (.800)	2.67 (.788)	2.54 (.803)	2.56 (.787)	2.70 (.785)
	t/F	-4.345***		-4.275***		38.064***(ac, bc)		

* $p < .05$, ** $p < .01$, *** $p < .001$

※주: 경제적수준(a=낮은 편, b=보통, c=높은 편)

이러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태도는 배경변인별 유의한 차이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 문항에 대해 상관분석한 결과, 상당히 높은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464, p<.001$). 즉 높은 정도의 자발적인 진로체험은 역시 적극성과 높은 수준의 유의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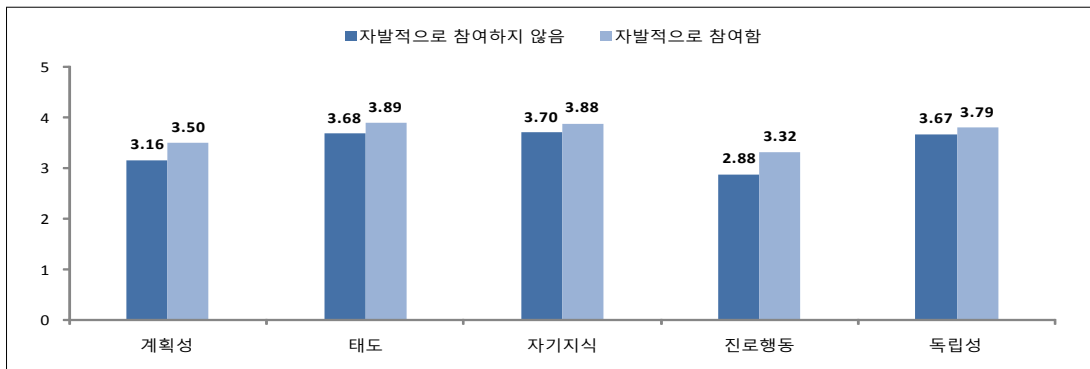
표 III-33 상관분석 :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및 적극적 참여태도 정도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 정도	유의도 수준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 적극성 정도	.464	$p < .001$

요약하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학교, 그리고 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남자청소년과, 기대하는 교육수준과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 경제적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에게서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참여도와 적극적인 태도가 낮은 수준을 보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체험의 자발적인 참여는 적극적인 참여태도와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③ 자발적 참여 및 적극적인 태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자발적 및 적극적 참여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III-34>, 【그림 III-12】 참조). 진로체험을 스스로 원해서 참여한 청소년과 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의 응답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진로성숙도의 계획성, 태도, 자기지식, 진로행동, 독립성의 하위척도 모두에서 높은 평균을 보였다. 특히 진로성숙도의 계획성과 진로행동은 다른 하위척도에 비해 자발적인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III-12】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 여부 : 진로성숙도

표 III-34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 자발성과 적극성 정도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진로성숙도 하위척도 구분		진로체험 참여 자발성 ^{주1)}		진로체험 참여 적극성 ^{주2)}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자발적으로 참여함	소극적태도	적극적태도
계획성	M(SD)	3.16(.704)	3.50(.688)	3.14(.688)	3.50(.694)
	t	-22.568***		-24.462***	
태도	M(SD)	3.68(.574)	3.89(.552)	3.67(.560)	3.88(.563)
	t	-17.005***		-17.159***	
자기지식	M(SD)	3.70(.602)	3.88(.561)	3.67(.589)	3.89(.565)
	t	-14.050***		-18.364***	
진로행동	M(SD)	2.88(.726)	3.32(.722)	2.90(.727)	3.28(.736)
	t	-27.725***		-23.689***	
독립성	M(SD)	3.67(.620)	3.79(.610)	3.64(.601)	3.80(.621)
	t	-9.218***		-12.116***	

* $p < .05$, ** $p < .01$, *** $p < .001$

※주1: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과 '별로 그렇지 않음'을 합친 값의 평균/ 자발적으로 참여함 = '그런 편임'과 '매우 그러함'의 합친 값의 평균

주2: 소극적태도 = '매우 소극적'과 '약간 소극적'을 합친 값의 평균/ 적극적태도 = '약간 적극적'과 '매우 적극적'을 합친 값의 평균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 자발성과 적극적 태도가 진로성숙도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성숙도의 다섯가지 모든 하위척도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 및 적극적인 태도와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자발적인 참여 정도는 진로성숙도 중 '진로행동'과 상당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r=.317, p<.001$),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 적극성 정도는 진로성숙도의 '계획성' 및 '진로행동'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각각 $r=.292, r=.285, p<.001$).

표 III-35 상관분석 :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 자발성 및 적극성과 진로성숙도

	계획성	태도	자가지식	진로행동	독립성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 자발성 정도	.269***	.204***	.172***	.317***	.121***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 적극성 정도	.292***	.203***	.221***	.285***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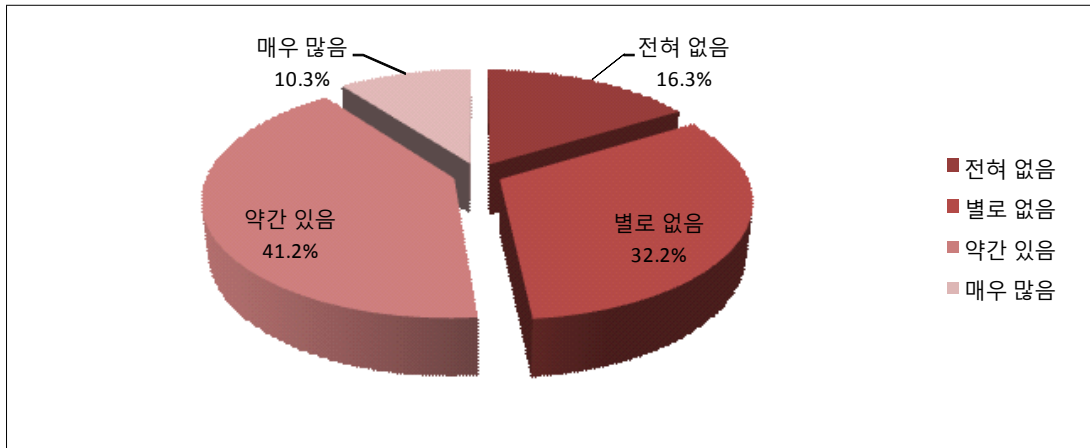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이러한 진로성숙도와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자발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태도와의 관계를 볼 때, 높은 진로성숙도와 청소년들의 더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는 상호 연관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낮은 수준의 진로성숙도와 청소년들의 비자발적이고 소극적인 진로체험과의 관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진로체험과 관심있는 진로와의 관련성 및 진로체험의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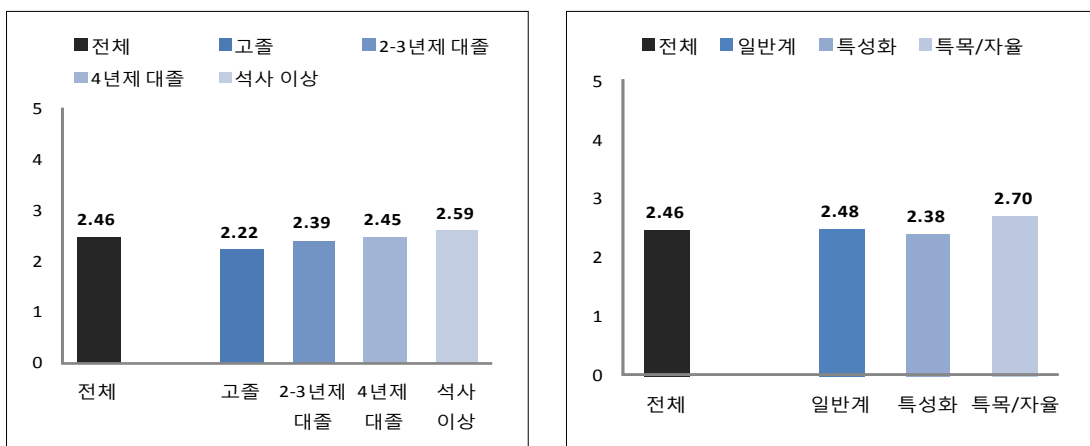
① 진로체험과 관심있는 진로와의 관련성

최근 1년간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참여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진로분야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그림 III-13】과 같다. 관련성이 있다는 응답은('약간 있음'과 '매우 많음'을 합친 값) 과반수가 약간 넘는 51.5% 수준이었는데, 그중 관련성이 매우 많다는 응답은 약 10%에 불과하였으며,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응답은 16.3%로 더 높았다.



【그림 III-13】 진로체험프로그램과 관심 진로 분야와의 관련성

참여한 진로체험프로그램과 관심 진로 분야와의 관련성은 성, 지역 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교급, 고교 계열 및 학업성적 등의 세부 배경변인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표 III-36>).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그리고 거주 지역 규모가 크고, 기대하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이 관심 진로 분야와 더 관련성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학교관련변인 특성별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특목/자율고 학생이 다른 계열 학생보다, 또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험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자신의 관심 진로분야와 관련성이 더 크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읍·면 지역 청소년, 기대교육수준이 고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 특성화고 재학 청소년, 학업성적이 낮은 편인 청소년에게서는 상대적으로 관심 진로분야와 낮은 관련성을 보였다.



【그림 III-14】 진로체험프로그램과 관심 진로 분야와의 관련성 : 기대하는 교육수준, 고교계열

표 III-36 진로체험프로그램과 관심 진로 분야와의 관련성 - 개인 및 지역 특성/학교관련 특성

전체 평균값(SD)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 이상
2.46 (.883)	2.43 (.895)	2.48 (.869)	2.48 (.879)	2.44 (.894)	2.41 (.859)	2.22 (.871)	2.39 (.869)	2.45 (.873)	2.59 (.905)
t/F	-2.773**		4.427*(ac)			29.460***(de, df, dg, eg, fg)			
전체 평균값(SD)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2.46 (.883)	2.42 (.859)	2.49 (.904)	2.48 (.897)	2.38 (.900)	2.70 (.928)	2.34 (.891)	2.48 (.864)	2.56 (.884)	
t/F	-3.372**		19.212***(hi, hj, ij)			44.433***(kl, km, lm)			

* $p < .05$, ** $p < .01$, *** $p < .001$

※주1: 지역규모(a=대도시, b=중소도시, c=읍·면), 기대하는 교육수준(d=고졸, e=2-3년제 대학졸업, f=4년제 대학졸업, g=석사이상)

※주2: 고교계열(h=일반계, i=특성화, j=특목/자율), 학업성적(k=낮은 편, l=보통, m=높은 편)

참여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관심 진로 분야와의 관련 정도가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태도와 어떻게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표 III-37>), 참여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관심진로와의 관련 정도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태도 및 적극성과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각각 $r=.570$, $r=.393$, $p<.001$). 따라서 참여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관심 진로분야와의 높은 관련성은,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태도와도 연관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III-37 상관분석 :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관심 진로와의 관련성과 참여태도의 자발성 및 적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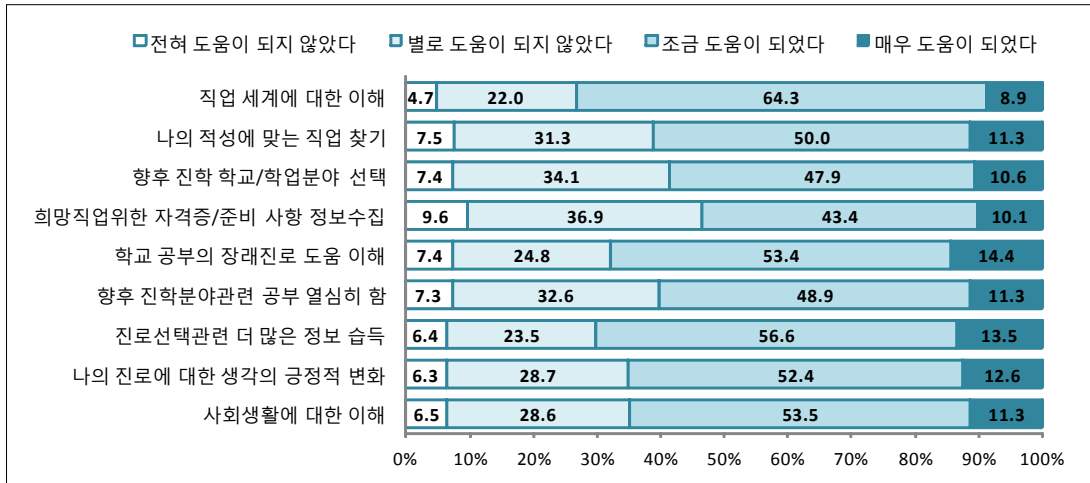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 자발성 정도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 적극성 정도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관심 진로분야와의 관련성	.570***	.393***

* $p < .05$, ** $p < .01$, *** $p < .001$

② 진로체험의 도움 정도

조사대상 청소년이 경험한 진로체험이 실제 자신의 적성 및 진로/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준비 등 다양한 진로관련 내용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표 III-38>, 【그림 III-15】 참조), 9개의 다양한 진로관련 내용 중에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73.2%로

가장 높은 긍정적 응답을 나타냈다('조금 도움이 되었다'와 '매우 도움이 되었다'를 합친 비율).



【그림 III-15】 진로체험프로그램이 도움이 된 정도

그 다음으로는 '진로선택관련 더 많은 정보습득'이 약 70%, '학교 공부의 장래진로 도움 이해'가 약 68%,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의 긍정적 변화'와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는 각각 약 65% 등 과반수가 훨씬 넘는 높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진로체험을 통해 진로와 관련한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진로체험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 각 영역에 도움이 된 정도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조금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합계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4.7	22.0	64.3	8.9	100.0(8740)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	7.5	31.3	50.0	11.3	100.0(8743)
향후 진학 학교/학업분야 선택	7.4	34.1	47.9	10.6	100.0(8735)
희망직업 위한 자격증/준비사항 정보수집	9.6	36.9	43.4	10.1	100.0(8739)
학교 공부의 장래진로 도움 이해	7.4	24.8	53.4	14.4	100.0(8734)
향후 진학분야관련 공부 열심히 함	7.3	32.6	48.9	11.3	100.0(8732)
진로선택관련 더 많은 정보 습득	6.4	23.5	56.6	13.5	100.0(8733)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의 긍정적 변화	6.3	28.7	52.4	12.6	100.0(8736)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	6.5	28.6	53.5	11.3	100.0(8736)

진로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희망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준비사항 등에 대한 정보 수집'(53.5%) 및 '진학하려는 학교 또는 공부하려는 분야 선택'(58.5%)과 같은 내용으로, 청소년들은 자격증 관련 정보나 진학분야 선택 등 보다 구체적인 진로/진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도움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체험 경험이 청소년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도움이 된 내용과 그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각각의 도움 내용은 그 항목 간 정적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9>). 이는 진로/진학과 관련하여 한 분야에의 도움 정도가 역시 다른 분야에의 도움정도와 높은 상호연관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진로체험 경험은 전반적으로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9 상관분석 : 진로체험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 각 영역에 도움이 된 정도

	1	2	3	4	5	6	7	8	9
1.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1								
2.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	.555***	1							
3. 향후 진학 학교/학업분야 선택	.499***	.649***	1						
4. 희망직업위한 자격증/준비사항 정보수집	.448***	.535***	.569***	1					
5. 학교 공부의 장래진로 도움 이해	.449***	.430***	.459***	.440***	1				
6. 향후 진학분야관련 공부를 열심히 함	.494***	.548***	.568***	.513***	.546***	1			
7. 진로선택관련 더 많은 정보 습득	.565***	.561***	.558***	.517***	.473***	.585***	1		
8.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의 긍정적 변화	.508***	.559***	.530***	.480***	.471***	.576***	.619***	1	
9.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	.452***	.380***	.367***	.374***	.389***	.410***	.461***	.531***	1

* $p < .05$, ** $p < .01$, *** $p < .001$

③ 진로체험 도움 정도의 배경변인별 차이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조사대상 청소년의 진로/진학관련 내용에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해 다양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지역규모별로는 일부 내용에 한해서, 그리고 교급, 고교 계열 및 학업성적 등 학교관련 특성별로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부표2>, <표

III-40>). 성별로는 ‘희망직업 위한 자격증/준비사항 정보수집’은 남자청소년의 응답이, 그리고 ‘학교 공부의 장래진로 도움 이해’는 여자청소년의 응답률이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지역규모별로는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에서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평균이, 그리고 ‘향후 진학분야관련 공부를 열심히 함’이나, ‘진로선택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습득’과 같은 내용에서는 대도시 청소년의 평균이 좀 더 높았으나 그 차이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다(<부표 2>).

표 III-40 진로체험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 각 영역에 도움이 된 정도 - 학교관련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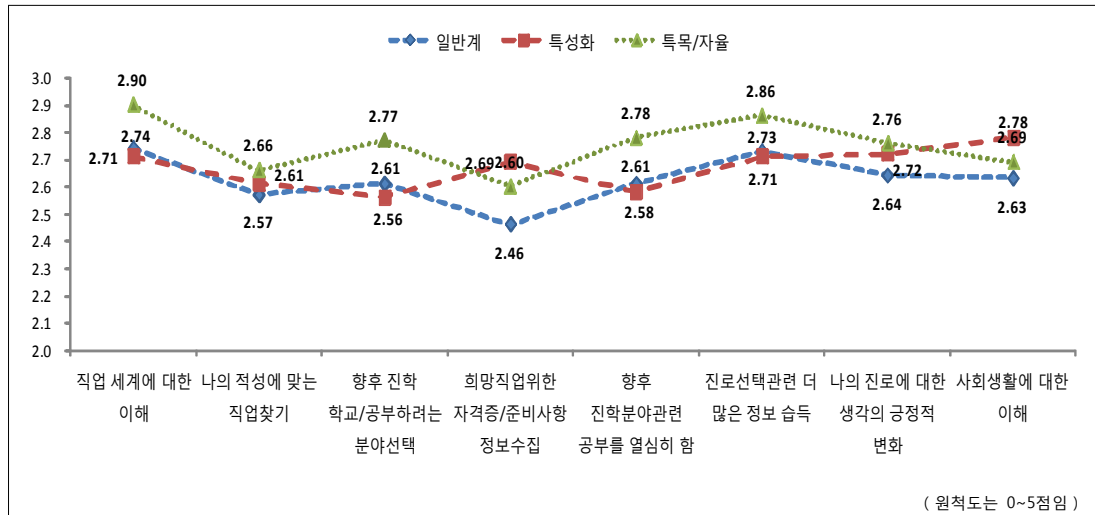
내용/구분		전체 평균값 (SD)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 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 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M	2.77 (.669)	2.80 (.669)	2.75 (.669)	2.74 (.663)	2.71 (.686)	2.90 (.655)	2.70 (.662)	2.79 (.668)	2.84 (.670)
	t/F		3.258**		14.751***(ac, bc)			30.307***(de, df, ef)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	M	2.65 (.776)	2.72 (.786)	2.59 (.761)	2.57 (.760)	2.61 (.775)	2.66 (.743)	2.62 (.760)	2.65 (.769)	2.69 (.804)
	t/F		7.769***		3.568*(ac)			5.799**(df)		
향후 진학 학교/학업 분야 선택	M	2.62 (.772)	2.61 (.783)	2.62 (.763)	2.61 (.765)	2.56 (.756)	2.77 (.739)	2.53 (.751)	2.61 (.770)	2.72 (.787)
	t/F		-.461		11.698***(ac, bc)			40.195***(de, df, ef)		
희망직업위한 자격증/ 준비사항 정보수집	M	2.54 (.801)	2.57 (.809)	2.51 (.793)	2.46 (.787)	2.69 (.785)	2.60 (.797)	2.51 (.793)	2.56 (.788)	2.55 (.832)
	t/F		3.223**		32.021***(ab, ac, bc)			2.920		
학교 공부의 장래진로 도움 이해	M	2.75 (.790)	2.80 (.787)	2.70 (.791)	2.70 (.788)	2.68 (.788)	2.73 (.810)	2.63 (.791)	2.75 (.778)	2.88 (.785)
	t/F		5.534***		.605			61.270***(de, df, ef)		
향후 진학분야관련 공부 열심히 함	M	2.64 (.776)	2.66 (.783)	2.63 (.768)	2.61 (.767)	2.58 (.766)	2.78 (.761)	2.53 (.764)	2.66 (.765)	2.75 (.787)
	t/F		1.996*		11.917***(ac, bc)			53.293***(de, df, ef)		
진로선택관련 더 많은 정보 습득	M	2.77 (.757)	2.80 (.753)	2.74 (.760)	2.73 (.757)	2.71 (.772)	2.86 (.749)	2.69 (.741)	2.77 (.747)	2.87 (.778)
	t/F		3.932***		7.052**(ac, bc)			35.731***(de, df, ef)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의 긍정적 변화	M	2.71 (.762)	2.76 (.766)	2.67 (.757)	2.64 (.755)	2.72 (.764)	2.76 (.744)	2.63 (.757)	2.73 (.752)	2.78 (.776)
	t/F		5.644***		7.812***(ab, ac)			26.109***(de, df, ef)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	M	2.70 (.754)	2.73 (.752)	2.67 (.754)	2.63 (.754)	2.78 (.739)	2.69 (.759)	2.66 (.752)	2.70 (.740)	2.73 (.773)
	t/F		3.897***		13.298***(ab)			5.432**(df)		

* $\rho < .05$, ** $\rho < .01$, *** $\rho < .001$

※ 주: 고교계열(a=일반계, b=특성화, c=특목/자율), 학업성적(d=낮은 편, e=보통, f=높은 편)

진로체험 경험의 다양한 진로/진학 분야에 대한 도움 정도는 교급, 고교 계열, 학업성적과 같은 학교관련 특성별로는 대체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급별로는 전체적으로 중학생이 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진로체험 경험이 가능한 낮은 교급부터 시작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대체로 특목/자율고 재학 청소년에게서 진로체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일반고와 특성화고 재학 청소년 순이었다. 예외적으로 '희망직업위한 자격증 및 준비사항 정보수집'과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는 특성화고등학생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졸업직후 취업가능성이 높은 이들 청소년에게서 좀 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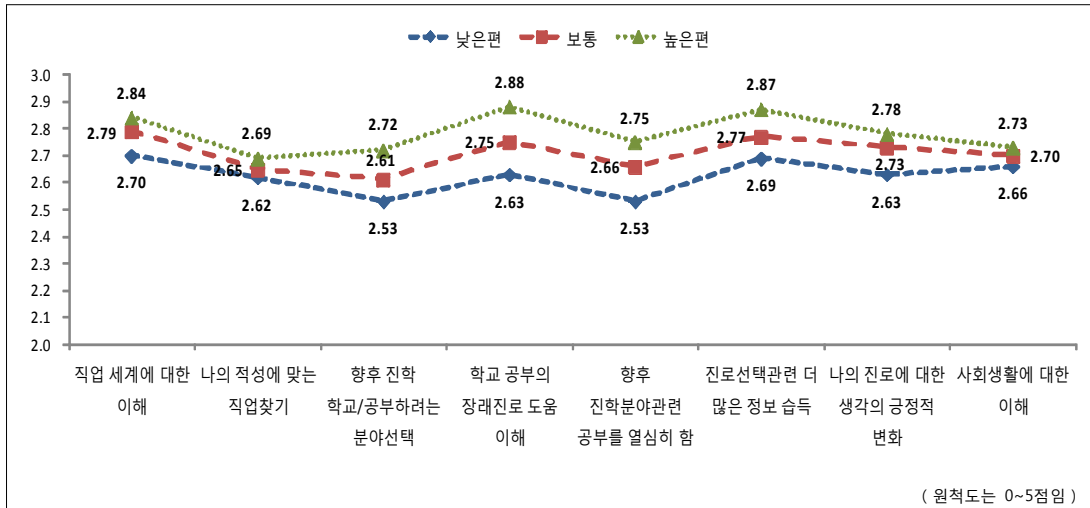
※주: 당초 5점 척도이나 그래프 상 고교계열별 평균차이를 명확히 보이게 하기 위해 조정되었음.

【그림 III-16】 진로체험 경험이 청소년 진로에 도움이 된 정도 : 고교계열

학업성적별 차이에서는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체험이 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고, 특히 학업과 관련된 내용인, 학교공부가 장래진로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향후 진학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는 내용에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배경변인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볼 때, 항목별 차이는 있으나 중학생의 경우 진로체험 경험이 더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가능한 조기 진로체험 경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진로체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하여 이들의 진로선택 및 진로/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더욱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주: 당초 5점 척도이나 그래프 상 고교계열별 평균차이를 명확히 보이게 하기 위해 조정되었음.

【그림 Ⅲ-17】 진로체험 경험이 청소년 진로에 도움이 된 정도 : 학업성적

④ 진로체험 도움정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체험 유형에 따른 차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진학관련 영역에 대한 진로체험 경험의 도움 정도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연관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표 Ⅲ-41>과 같이 진로성숙도의 5가지 하위척도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 진로방향과 직업선택을 위한 준비 및 계획과 관련된 '계획성'과 이러한 진로/진학과 관련된 내용을 실천하고 확인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진로행동'과는 대체로 상당한 수준의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향후 진학 학교 및 공부하는 분야선택'과 '향후 진학분야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도움 정도는 진로성숙도 중 '계획성'과 '진로행동'에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결국 높은 진로성숙도는 진로체험의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내용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실제 효과성 여부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도 긍정적인 연관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II-41 상관분석 : 진로체험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 영역에 도움이 된 정도와 진로성숙도

내용/구분	계획성	태도	자기지식	진로행동	독립성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252***	.170***	.209***	.248***	.105***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	.295***	.129***	.249***	.265***	.106***
향후 진학 학교/학업분야 선택	.358***	.150***	.226***	.315***	.118***
희망직업위한 자격증/준비사항 정보수집	.255***	.061***	.154***	.256***	.055***
학교 공부의 장래진로 도움 이해	.237***	.143***	.169***	.179***	.048***
향후 진학분야관련 공부 열심히 함	.367***	.175***	.246***	.324***	.128***
진로선택관련 더 많은 정보 습득	.270***	.159***	.219***	.260***	.107***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의 긍정적 변화	.309***	.181***	.243***	.265***	.141***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	.195***	.102***	.164***	.181***	.048***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 진로에 대한 도움 정도가 청소년들이 경험한 진로체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진로체험 경험이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로관련 도움을 받았는지 조사하였다(<표 III-42>). 전체적으로 청소년 진로와 관련한 도움 정도는 특유형의 진로체험활동 경험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모든영역의 진로관련 도움에서 '인턴십/현장실습 등 직접 일해 보는 프로그램', '특정직업인의 진학/진로멘토링(상담)', '진학원하는 학교 견학/ 전공체험', '직업 모의체험' 등 직업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직업체험과 진로멘토링과 같은 프로그램이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청각 자료 이용, 직업설명회 등과 같은 간접체험보다는 직접체험방식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한상근(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세계 및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직업체험 유형 중 '직업모의 체험'과 '인턴십/현장실습 등 직접 일해 보는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소년에게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특히 '인턴십/현장실습 등 직접 일해 보는 프로그램'과 '진학을 원하는 학교견학 및 전공체험'을 경험한 청소년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와 학업 분야 선택, 그리고 학교 공부의 장래 진로 도움 정도 및 진학분야와 관련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진학 원하는 학교 견학

및 전공체험'과 '특정직업인의 진학 및 진로멘토링(상담)' 경험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또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이 더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 청소년 진로 도움 정도 - 진로체험 경험 내용에 따른 차이(진로체험 경험자 대상)

내용/구분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	특정 직업인의 직업관련 강연	특정 직업인과의 만남, 인터뷰	특정 직업인의 진학/진로 멘토링(상담)	진학 원하는 학교견학/전공체험	진로 박람회, 진로관련 전시견학	직업 현장 견학	직업 모의 체험	인턴십/현장실습 등 직접 일해보는 프로그램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M (SD)	2.81 (.654)	2.81 (.656)	2.91 (.662)	2.92 (.703)	2.91 (.654)	2.87 (.634)	2.88 (.643)	2.94 (.642)	2.93 (.661)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	M (SD)	2.66 (.771)	2.67 (.771)	2.77 (.776)	2.83 (.810)	2.85 (.754)	2.76 (.760)	2.76 (.764)	2.82 (.770)	2.87 (.778)
향후 진학 학교/학업 분야 선택	M (SD)	2.64 (.772)	2.65 (.777)	2.74 (.784)	2.83 (.795)	2.88 (.748)	2.72 (.769)	2.70 (.773)	2.73 (.787)	2.80 (.781)
희망직업위한 자격증/준비 사항 정보수집	M (SD)	2.55 (.796)	2.57 (.800)	2.67 (.815)	2.76 (.828)	2.73 (.809)	2.66 (.806)	2.66 (.801)	2.70 (.812)	2.78 (.824)
학교 공부의 장래진로 도움 이해	M (SD)	2.78 (.779)	2.78 (.781)	2.83 (.801)	2.88 (.817)	2.88 (.792)	2.83 (.769)	2.83 (.783)	2.85 (.797)	2.85 (.805)
향후 진학분야관련 공부 열심히 함	M (SD)	2.67 (.766)	2.68 (.778)	2.78 (.786)	2.84 (.815)	2.87 (.765)	2.77 (.764)	2.74 (.773)	2.79 (.789)	2.84 (.773)
진로선택관련 더 많은 정보 습득	M (SD)	2.81 (.745)	2.82 (.750)	2.90 (.759)	2.95 (.774)	2.95 (.736)	2.90 (.731)	2.87 (.744)	2.94 (.735)	2.95 (.748)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의 긍정적 변화	M (SD)	2.73 (.759)	2.75 (.759)	2.84 (.769)	2.89 (.793)	2.89 (.746)	2.84 (.744)	2.83 (.763)	2.88 (.761)	2.90 (.757)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	M (SD)	2.72 (.743)	2.73 (.753)	2.81 (.754)	2.84 (.777)	2.81 (.760)	2.79 (.748)	2.82 (.736)	2.85 (.740)	2.90 (.742)

⑤ 진로체험의 도움정도에 대한 체계적 운영여부와 참여태도 차이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사전교육여부가 진로체험프로그램의 도움정도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표 III-43>), '사전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서 진로체험 경험이

더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교육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보다는 '매번은 아니나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서 진로체험이 더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보다 '참여할 때마다 받았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체험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균이 가장 높았다. 결국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마다 매번 사전교육을 받은 청소년에게서 진로체험의 도움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진로체험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있어서 사전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43 진로체험의 도움 정도 - 진로체험에 관한 사전 교육 여부

내용/구분	전체평균값 (SD)	사전 교육 여부/정도			F
		참여할 때마다 받았다	매번은 아니나 받은 적이 있다	한번도 없다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2.77(.669)	2.96(.770)	2.89(.569)	2.64(.758)	79.680*** (ac, bc)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	2.65(.776)	2.80(.823)	2.78(.716)	2.52(.831)	57.667*** (ac, bc)
향후 진학 학교/학업분야 선택	2.62(.772)	2.79(.843)	2.72(.716)	2.52(.827)	40.639*** (ac, bc)
희망직업위한 자격증/준비 사항 정보수집	2.54(.801)	2.72(.885)	2.67(.757)	2.44(.858)	45.134*** (ac, bc)
학교 공부의 장래진로 도움 이해	2.75(.790)	2.92(.835)	2.86(.709)	2.62(.869)	54.254*** (ac, bc)
향후 진학분야관련 공부 열심히 함	2.64(.776)	2.87(.805)	2.77(.719)	2.57(.823)	40.799*** (ab, ac, bc)
진로선택관련 더 많은 정보 습득	2.77(.757)	2.96(.784)	2.89(.683)	2.65(.838)	58.354*** (ac, bc)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의 긍정적 변화	2.71(.762)	2.97(.790)	2.83(.697)	2.61(.813)	53.680*** (ab, ac, bc)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	2.70(.754)	2.89(.823)	2.79(.695)	2.57(.825)	50.330*** (ac, bc)

* $p < .05$, ** $p < .01$, *** $p < .001$

※주: a=참여할 때마다 받았다, b=매번은 아니나 받은 적이 있다, c=한 번도 없다

효과적인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 운영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청소년이 스스로 원해서 참여했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와 같은 참가자의 태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진행과 참가 청소년의 태도가 진로체험프로그램의 도움정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표 III-44>),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과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태도는 다양한 진로체험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또 청소년이 더욱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표 III-44 진로체험의 도움 정도 -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및 참여자 태도

내용/구분		프로그램의 체계성		프로그램 참여의 자발성		프로그램 참여의 적극적 태도	
		그렇지않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소극적	적극적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M(SD)	2.58(.711)	2.94(.579)	2.56(.712)	2.96(.567)	2.56(.682)	2.94(.611)
	t	-26.207***		-29.136***		-26.369***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	M(SD)	2.48(.790)	2.80(.732)	2.42(.785)	2.85(.712)	2.43(.755)	2.82(.749)
	t	-19.494***		-26.292***		-23.793***	
향후 진학 학교/학업분야 선택	M(SD)	2.45(.773)	2.75(.745)	2.39(.767)	2.81(.721)	2.41(.740)	2.78(.758)
	t	-18.234***		-26.569***		-22.782***	
희망직업위한 자격증/준비 사항 정보수집	M(SD)	2.39(.805)	2.67(.776)	2.34(.795)	2.71(.765)	2.34(.774)	2.69(.789)
	t	-16.292***		-22.517***		-20.609***	
학교 공부의 장래진로 도움 이해	M(SD)	2.58(.806)	2.89(.748)	2.57(.805)	2.90(.743)	2.57(.787)	2.88(.765)
	t	-18.141***		-20.072***		-18.480***	
향후 진학분야관련 공부 열심히 함	M(SD)	2.47(.778)	2.79(.743)	2.41(.767)	2.84(.725)	2.41(.741)	2.82(.755)
	t	-19.262***		-27.091***		-25.081***	
진로선택관련 더 많은 정보 습득	M(SD)	2.58(.785)	2.94(.690)	2.53(.773)	2.98(.679)	2.56(.752)	2.93(.720)
	t	-22.613***		-28.277***		-23.067***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의 긍정적 변화	M(SD)	2.53(.782)	2.87(.710)	2.48(.768)	2.91(.698)	2.49(.738)	2.88(.736)
	t	-20.794***		-27.369***		-24.572***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	M(SD)	2.55(.775)	2.82(.713)	2.54(.777)	2.83(.707)	2.53(.747)	2.82(.734)
	t	-16.447***		-17.768***		-18.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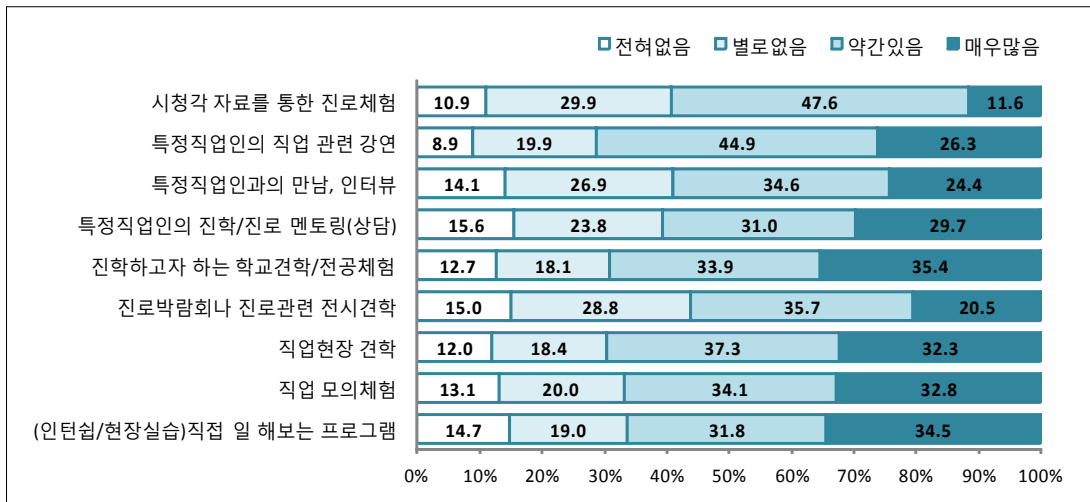
* $\rho < .05$, ** $\rho < .01$, *** $\rho < .001$

(7) 향후 진로체험 참여의사

①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 의사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 의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로체험프로그램의 모든 유형에서 약 60~70%가 넘는 비율로 긍정적인 응답('약간있음'과 '매우많음'을 합친 평균값)

을 보였다. 70%에 달하는 높은 참여의사를 보인 항목들은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는 직업 관련 강연’, ‘직업 모의체험’, ‘직업현장 견학’,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견학 또는 전공체험’ 등이었다. 그러나 그 중 특히 참여의사가 매우 높았던 항목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견학 또는 전공체험’과 ‘인턴십 및 현장실습처럼 직접 일해 보는 프로그램’, ‘직업현장 견학’과 ‘직업 모의체험’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직업 모의체험이나 직업/진학관련 견학 및 체험이었다. 한편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과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인터뷰’와 같은 항목은 가장 낮은 참여의사 비율을 보였다(긍정적인 응답은 각각 59.2%, 59.0%).



【그림 Ⅲ-18】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사

요약하면, 청소년들은 직업관련 강연뿐 아니라 직업 모의체험이나 직업현장, 학교견학 및 전공체험 등 비교적 직접적인 방식의 진로 체험에 더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시청각 자료 활용과 같은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45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사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없음	별로없음	약간있음	매우많음	합계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	10.9	29.9	47.6	11.6	100.0(10063)
특정직업인의 직업 관련 강연	8.9	19.9	44.9	26.3	100.0(10064)
특정직업인과의 만남, 인터뷰	14.1	26.9	34.6	24.4	100.0(10054)
특정직업인의 진학/진로관련 멘토링(상담)	15.6	23.8	31.0	29.7	100.0(10061)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견학 또는 전공체험	12.7	18.1	33.9	35.4	100.0(10057)
진로박람회나 진로 관련 전시 견학	15.0	28.8	35.7	20.5	100.0(10056)
직업현장 견학	12.0	18.4	37.3	32.3	100.0(10062)
직업 모의체험	13.1	20.0	34.1	32.8	100.0(10057)
인턴십/현장실습처럼 직접 일 해보는 프로그램	14.7	19.0	31.8	34.5	100.0(10060)

②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의사

현재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은 체험 장소 및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앞서 국내의 청소년 진로체험 유형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진로체험 유형은 사전학습과 현장학습(박가열, 노경란, 2006), 이야기나누기, 방문, 직접체험(정연순, 2012), 직업체험, 직장체험, 학교체험, 학과체험, 진로캠프(교육과학기술부, 2012)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항목의 진로체험 유형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관련 직업인이나 기타 자료를 통해 관련 정보를 간접적으로 습득하는지, 또는 직접 직업/작업현장에 견학하거나 방문하여 체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체험 및 직접체험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에 따른 배경변인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른 진로체험 유형들의 내적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표 IV-46>과 같이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6 진로체험프로그램 유형

직업체험 유형	내 용	Cronbach's α
간접체험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	.893
	특정직업인의 직업 관련 강연	
	특정직업인과의 만남, 인터뷰	
	특정직업인의 진학/진로관련 멘토링(상담)	
	진로박람회나 진로 관련 전시 견학	
직접체험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견학 또는 전공체험	.935
	직업현장 견학	
	직업 모의체험	
	인턴십/현장실습처럼 직접 일 해보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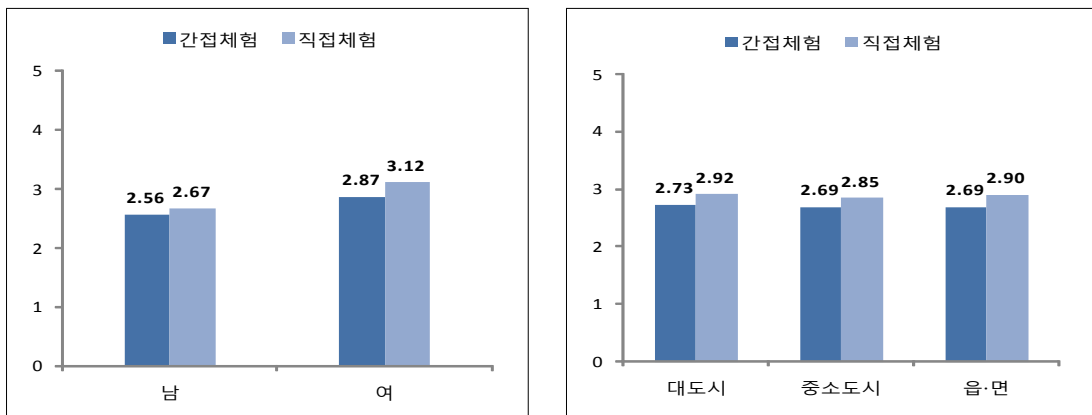
먼저 직·간접 진로체험 유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 <표 III-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이나 특정직업인과의 강연이나 상담과 같은 간접체험보다는 직접 직업현장을 방문하고 체험해보는 직접체험에 대한 참여의사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47 진로체험프로그램에 향후 참여할 의사 - 개인 및 지역 특성

내용/구분	전체 평균값 (SD)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졸	4년제 대졸	석사 이상	
간접체험	M (SD)	2.71 (.770)	2.56 (.780)	2.87 (.724)	2.73 (.740)	2.69 (.797)	2.69 (.767)	2.36 (.778)	2.50 (.766)	2.75 (.746)	2.90 (.759)
	t/F		-20.663***		3.227*			136.485***(de, df, dg, ef, eg, fg)			
직접체험	M (SD)	2.89 (.924)	2.67 (.920)	3.12 (.870)	2.92 (.895)	2.85 (.954)	2.90 (.910)	2.53 (.956)	2.64 (.943)	2.94 (.892)	3.09 (.914)
	t/F		-25.088***		5.566**(ab)			109.311***(de, df, dg, ef, eg, f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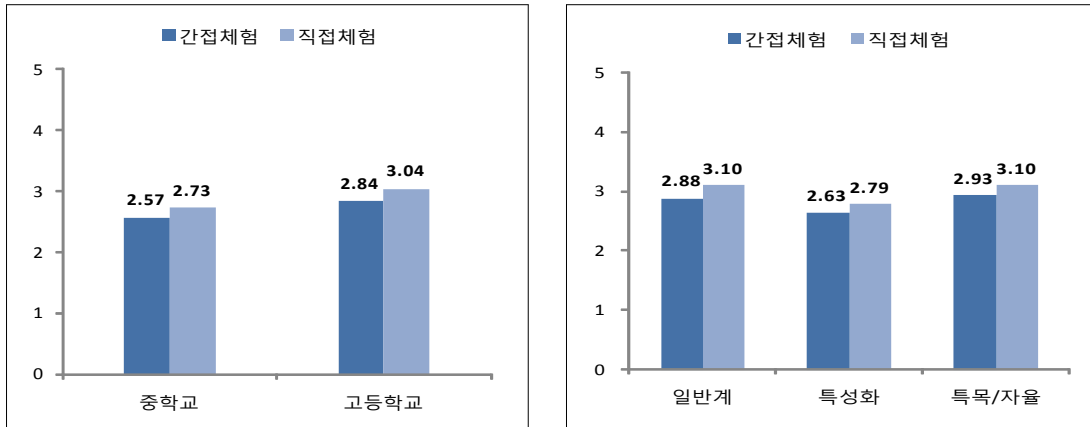
* $\rho < .05$, ** $\rho < .01$, *** $\rho < .001$

그리고 개인 및 지역특성별로 간접체험과 직접체험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향후 직·간접 진로체험에 대한 참여의사가 높았다. 또한 지역규모별 평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도시 거주 청소년이, 그리고 기대하는 교육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의 경우 읍·면지역에서 보다 직접적인 진로체험을 원하는 정도가 약간 더 낮았다.



【그림 III-19】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사 : 성별과 지역규모

학교관련 특성별로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간접체험과 직접체험 모두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20】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사 : 교급과 고교계열

고교 계열별로 살펴보면, 간접체험 선호도의 경우 특목/자율고, 일반계고, 특성화고 재학 청소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접체험은 특목/자율고와 일반계학교 재학 청소년이 유사한 수준의 선호도를 보였으며, 특성화고 재학 청소년은 이보다 낮은 참여의사를 보였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낮은 참여의사는 예상 밖의 결과로, 이미 어느 정도 진로 및 취업이 결정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진로체험에 대한 의사가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진로체험 참여에 대한 무관심으로 참여의사가 낮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II-48 진로체험프로그램에 향후 참여할 의사 - 학교관련 특성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간접체험	M (SD)	2.57 (.785)	2.84 (.731)	2.88 (.713)	2.63 (.778)	2.93 (.699)	2.58 (.785)	2.73 (.754)	2.85 (.744)
	t/F	-17.890***		49.708***(ab, bc)			96.602***(de, df, ef)		
직접체험	M (SD)	2.73 (.938)	3.04 (.884)	3.10 (.861)	2.79 (.947)	3.10 (.856)	2.73 (.956)	2.91 (.896)	3.06 (.888)
	t/F	-17.314***		45.766***(ab, bc)			98.302***(de, df, ef)		

* $p < .05$, ** $p < .01$, *** $p < .001$

※ 주: 고교계열(a=일반계, b=특성화, c=특목/자율), 학업성적(d=낮은 편, e=보통, f=높은 편)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보면, 간접체험과 직접체험 모두 부모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일 때 더 높은 참여의사를 보였고, 직접체험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만 유의하지 않았다(<표 III-49>). 간접체험에 대해서는 경제수준이 높은 편이거나 낮은 편인 청소년의 참여의사가 경제수준이 보통인 청소년보다 더 높았으며, 직접체험에 대한 참여의사는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나 이외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세부 진로체험 항목별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는데(<부표 5>),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일 때 대부분의 진로체험 항목에 대한 참여의사가 높았고, 경제적수준이 보통인 청소년은 진로체험에 대한 참여의사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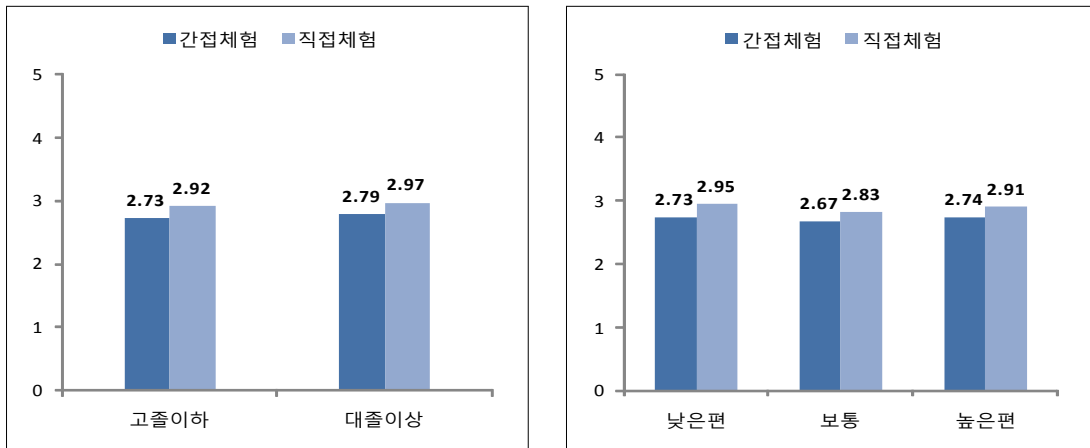
표 III-49 진로체험프로그램에 향후 참여할 의사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

내용/구분		부 교육수준		모 교육수준		경제적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고졸이하	대졸이상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간접체험	M (SD)	2.73 (.775)	2.79 (.748)	2.74 (.765)	2.79 (.753)	2.73 (.761)	2.67 (.771)	2.74 (.771)
	t/F	-3.475**		-2.461*		10.992***(ab, bc)		
직접체험	M (SD)	2.92 (.930)	2.97 (.894)	2.95 (.919)	2.96 (.901)	2.95 (.919)	2.83 (.926)	2.91 (.921)
	t/F	-2.679**		-.550		14.190***(ab, bc)		

* $p < .05$, ** $p < .01$, *** $p < .001$

※ 주: 경제적수준(a=낮은 편, b=보통, c=높은 편)

이러한 개인 및 지역 특성, 학교관련 특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에 따른 차이가 진로체험의 각 세부항목별 참여의사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본 결과, 항목별 통계적 유의도에는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간접 및 직접 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부표 3>, <부표 4>, <부표 5>).



【그림 Ⅲ-21】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사 : 부 교육수준과 경제적수준

③ 진로체험 참여의사에 대한 진로성숙도와 청소년의 참여태도별 차이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와 진로성숙도가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는 지를 살펴본 결과 (<표 Ⅲ-50>), 진로성숙도 하위척도 중 계획성과 태도, 진로행동은 대체로 모든 내용의 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높은 참여의사와 상관을 보였다. 특히 특정직업인과의 강연 및 만남과 인터뷰, 멘토링이나 상담과 같은 전문직업인과의 연계를 통한 진로체험 활동은 청소년들의 진로행동과 상당한 수준의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0 상관분석 : 진로체험 참여의사와 진로성숙도

진로체험 내용	계획성	태도	자기지식	진로행동	독립성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	.207***	.185***	.129***	.222***	.073***
특정직업인의 직업 관련 강연	.289***	.276***	.193***	.318***	.165***
특정직업인과의 만남, 인터뷰	.302***	.271***	.183***	.356***	.171***
특정직업인의 진학/진로관련 멘토링(상담)	.294***	.260***	.161***	.346***	.168***

진로체험 내용	계획성	태도	자기지식	진로행동	독립성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견학 또는 전공체험	.255***	.261***	.162***	.293***	.170***
진로박람회나 진로 관련 전시 견학	.221***	.195***	.127***	.264***	.100***
직업현장 견학	.227***	.254***	.152***	.267***	.149***
직업 모의체험	.233***	.245***	.167***	.269***	.154***
인턴십/현장실습처럼 직업 일 해보는 프로그램	.225***	.240***	.150***	.263***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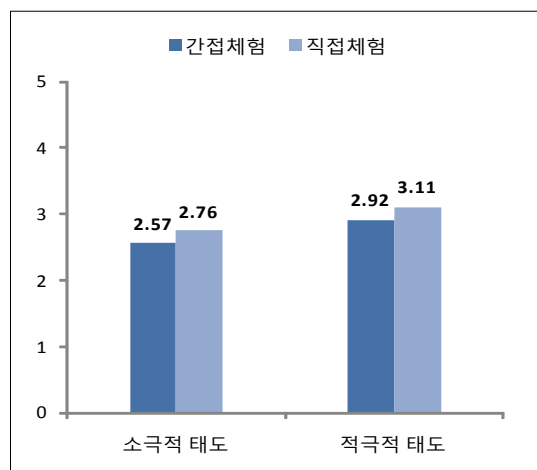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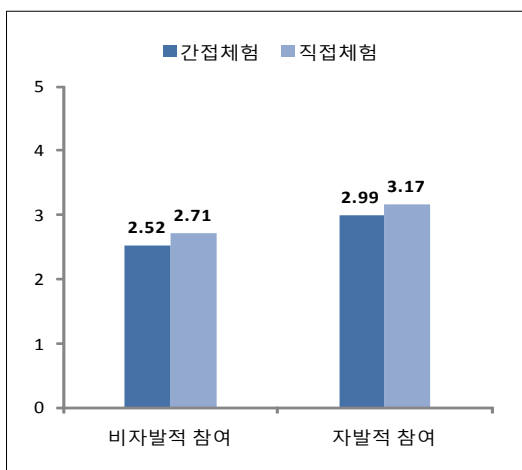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진로체험프로그램 유형이 진로체험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표 III-51>). 간접 및 직접체험 모두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추후 참여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체험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표 III-51 진로체험프로그램 추후 참여 의사 - 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 및 참여태도

내용/구분	전체 평균값 (SD)	프로그램 참여에의 자발성			프로그램 참여태도		
		그렇지않다	그렇다	t	소극적	적극적	t
간접체험	2.71(.770)	2.52(.716)	2.99(.669)	-30.956***	2.57(.712)	2.92(.705)	-22.530***
직접체험	2.89(.924)	2.71(.907)	3.17(.809)	-24.707***	2.76(.899)	3.11(.845)	-18.409***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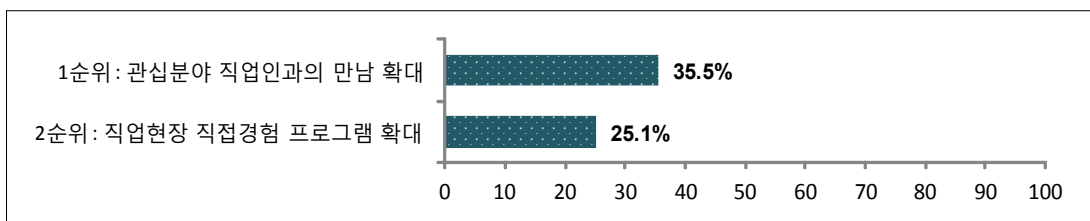
【그림 III-22】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사 : 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 및 참여태도

각 세부 항목별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참여의사도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평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6>). 각 세부항목 중 진로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정도와 적극적 태도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항목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견학 또는 전공체험’이었으며,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항목은 가장 일반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정도가 높은 청소년은 보다 직접적인 진로체험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8) 진로체험프로그램 개선사항

① 진로체험프로그램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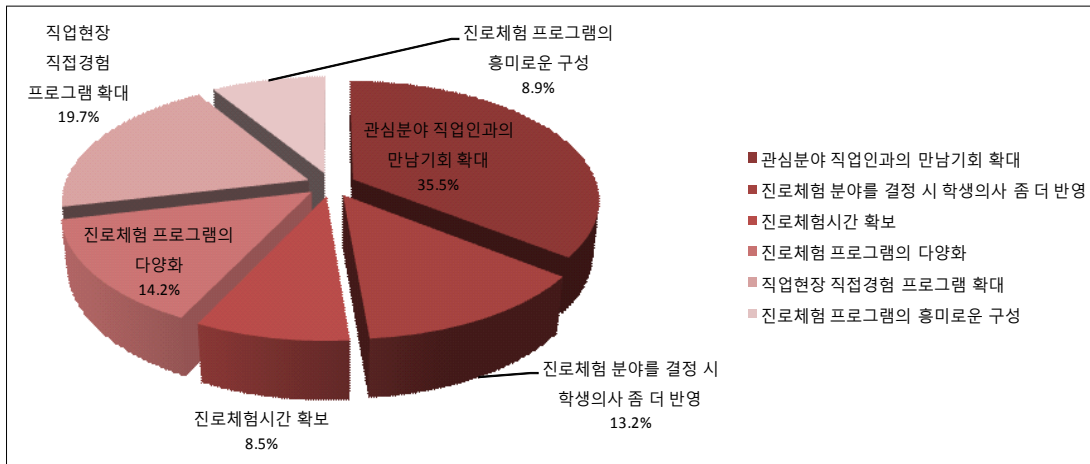
진로체험프로그램의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1순위로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35.5%), 2순위 항목은 ‘직업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19.7%)로 나타났다. ‘진로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는 14.2%, ‘진로체험 분야 결정시 학생 의사 반영’은 13.2%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진로체험시간 확보’가 가장 낮은 응답률(8.5%)을 보여, 진로체험을 위한 시수확대 등과 같은 양적인 내용보다는 내용개선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그림 Ⅲ-23】 진로체험프로그램 개선사항 1·2순위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개선사항 1순위가 ‘관심분야의 전문직업인과의 만남기회 확대’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의 다른 조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진로체험

경험 중 특정직업인과의 만남이나 멘토링(상담) 경험이 10%~20%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고, 또 향후 특정 직업인과의 만남이나 멘토링 등에 대한 참여의사가 60%정도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일맥상통하는 응답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관심분야의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이나 멘토링 등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I-24】 진로체험프로그램 개선사항 1순위 세부내용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개선사항 2순위로 응답한 내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직업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로 약 25%의 응답률을 보였다(<표 III-52>). 그 다음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진로체험프로그램의 흥미로운 구성과 다양한 진로체험(각각 19.3%, 18.5%)이었다.

표 III-52 진로체험프로그램 개선사항 1·2순위 단위: %(명)

내용/구분	1순위	2순위
관심분야 직업인과의 만남기회 확대	35.5(3533)	13.5(1335)
진로체험 분야를 결정 시 학생의사 좀 더 반영	13.2(1310)	13.3(1317)
진로체험시간 확보	8.5(845)	10.4(1029)
진로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	14.2(1413)	18.5(1836)
직업현장 직접경험 프로그램 확대	19.7(1963)	25.1(2488)
진로체험프로그램의 흥미로운 구성	8.9(889)	19.3(1912)
전체	100.0(9952)	100.0(9916)

② 진로체험프로그램 개선사항의 배경변인별 차이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개선사항으로서 1순위와 2순위로 꼽은 항목들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1순위 개선사항인 관심분야 전문직업인과의 만남기회 확대에 대한 응답은 모든 배경변인 특성별로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표 III-53>).

표 III-53 진로체험프로그램 개선사항 1순위 - 개인 및 학교관련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전체	성별		지역규모			교급		고교계열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관심분야 직업인과의 만남기회 확대	35.5	37.7	33.0	34.8	36.4	34.5	32.5	38.4	38.3	38.1	39.2
진로체험 분야를 결정 시 학생 의사 좀 더 반영	13.2	14.3	11.9	14.5	12.1	12.7	14.5	11.9	11.8	10.8	14.7
진로체험시간 확보	8.5	8.7	8.2	8.0	9.2	7.8	8.2	8.7	8.6	9.5	8.1
진로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	14.2	14.1	14.3	14.3	13.5	16.1	15.3	13.1	12.9	16.0	9.8
직업현장 직접경험 프로그램 확대	19.7	15.1	24.8	19.2	20.0	20.3	18.3	21.1	21.9	17.9	21.4
진로체험프로그램의 흥미로운 구성	8.9	10.0	7.8	9.2	8.8	8.6	11.2	6.8	6.5	7.7	6.9
전체	100.0 (9952)	100.0 (5207)	100.0 (4744)	100.0 (4182)	100.0 (4448)	100.0 (1322)	100.0 (4863)	100.0 (5089)	100.0 (3653)	100.0 (919)	100.0 (517)
χ^2		157.580***		21.513*			109.103***		22.252*		

* $\alpha < .05$, ** $\alpha < .01$, *** $\alpha < .001$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배경변인 차이만 제시함(학업성적 및 경제적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특히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그리고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이 대도시나 읍·면지역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또 특목/자율고 재학 청소년이 다른 계열학교 재학 청소년보다 관심분야 직업인과의 만남에 대한 기회확대를 1순위 개선사항으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2순위 개선사항인 직업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에 대한 응답도 역시 모든 배경변인 특성별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표 III-54>). 이 경우에는 여자청소년, 고등학생, 그중에서도 특성화고 재학청소년이 2순위 개선사항으로 '직업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54 진로체험프로그램 개선사항 2순위 - 개인 및 학교관련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전체	성별		교급		고교계열		
		남	여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관심분야 직업인과의 만남기회 확대	13.5	12.4	14.6	13.1	13.8	13.6	12.6	17.4
진로체험 분야를 결정 시 학생의사 좀 더 반영	13.3	15.6	10.7	14.0	12.6	12.6	13.0	12.2
진로체험시간 확보	10.4	11.7	8.9	10.4	10.4	10.1	10.2	12.9
진로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	18.5	18.5	18.5	19.8	17.3	18.1	14.5	16.5
직업현장 직접경험 프로그램 확대	25.1	22.1	28.4	22.1	27.9	28.2	29.3	23.6
진로체험프로그램의 흥미로운 구성	19.3	19.7	18.8	20.6	18.0	17.5	20.4	17.4
전체	100.0 (9916)	100.0 (5186)	100.0 (4730)	100.0 (4833)	100.0 (5083)	100.0 (3651)	100.0 (917)	100.0 (516)
χ^2		114.855***		54.739***		22.998*		

* $p < .05$, ** $p < .01$, *** $p < .001$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배경변인 차이만 제시함(지역규모, 학업성적 및 경제적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개선사항 우선순위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수준에 따라 교급과 학업성적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표 III-55>). 중학생의 경제적수준이 높은 편이고, 고등학생의 경제적수준이 보통인 경우, 또 학업성적과 경제적수준이 모두 높은 편일 때 개선사항 1순위로서 '관심분야 직업인과의 만남기회 확대'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경제적수준이 보통인 경우,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수준이 모두 높은 편일 때 '직업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 확대'를 2순위로 꼽았다. 그러나 경제적 수준이 낮고 학업성적이 보통이거나 높은 편일 때, 그리고 반대로 경제적 수준이 높고 학업성적이 낮은 편일 때는 개선사항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응답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개인 및 지역특성		1순위 : 관심분야 직업인과의 만남기회 확대					2순위 : 직업현장 직접경험 프로그램 확대				
		경제적수준					경제적수준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전체	χ^2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전체	χ^2
교 급	중학교	14.9 (234)	41.7 (655)	43.4 (682)	100.0 (1571)	89.870***	17.5 (187)	41.9 (447)	40.6 (433)	100.0 (1067)	50.012***
	고등학교	27.8 (538)	38.7 (748)	33.5 (649)	100.0 (1935)		29.4 (413)	39.0 (548)	31.7 (445)	100.0 (1406)	
학 업 성 숙 성	낮은 편	32.3 (395)	41.4 (506)	26.3 (321)	100.0 (1222)	240.345***	36.1 (302)	39.0 (326)	24.9 (208)	100.0 (836)	180.184***
	보통	17.4 (243)	45.4 (634)	37.1 (518)	100.0 (1395)		18.8 (194)	47.2 (487)	34.0 (351)	100.0 (1032)	
	높은 편	15.1 (134)	29.7 (263)	55.2 (490)	100.0 (887)		17.1 (103)	30.1 (181)	52.8 (318)	100.0 (602)	

* $p < .05$, ** $p < .01$, *** $p < .001$

요약하면, 진로체험프로그램 개선사항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조사결과, 청소년들은 ‘관심분야의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기회 확대’와 ‘직업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를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꼽아, 진로체험프로그램 시수 확대와 같은 양적 확대보다는 내용 측면에서의 질적 개선에 우선순위를 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개선사항 1순위로 꼽힌 ‘관심분야 직업인과의 만남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남자청소년,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 고등학생, 그중에서도 특목/자율고 재학 청소년에게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외에도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개선사항으로서 다양한 기타의견들이 있었는데, 현실적이면서도 다양한 진로프로그램 체험 기회 확대, 상담 및 멘토링 등을 통한 개별화된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 지원, 진로체험프로그램 홍보, 기업견학 및 현장체험 기회 확대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³⁰⁾

(1)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인지 수준

우리나라 법률에는 성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연소자의 근로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준수되어야 할 사항들이 제정되어 있다. 고용주가 이에 대해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와 동시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핵심적인 연소자 근로 보호 관련 노동관계 법령을 선정하여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항목은 ‘아르바이트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2013년도 최저임금’ 두 항목에 그쳤다.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항목은 17항목 중 5항목을 차지했는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14일 이내에 고용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15.2%), ‘4시간 일할 경우 30분의 쉬는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음’(15.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번도 빠지지 않고 일한 경우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음’(10.6%)이 낮은 인지율을 보였고,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경우 고용주가 치료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소년은 45.7%였는데 비해,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8.7%에 그쳤다. ‘학교나 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소년은 비율은 6.1%에 그쳤다(<표 III-56>).

30) 본 절은 안선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III-56 연소자 보호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내용/구분	인지여부		
	안다	모른다	전체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61.5(6109)	38.5(3832)	100.0(9941)
2013년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임	55.2(5488)	44.8(4452)	100.0(9941)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에 걸리면 고용주(사장)으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45.7(4590)	54.3(5453)	100.0(10044)
고용주는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경우 부모님(보호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함	41.3(4150)	58.7(5906)	100.0(10056)
만19세 미만 청소년 고용 시, 고용주(사장)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일/업종(직업 종류)이 있음	34.3(3452)	65.7(6605)	100.0(10057)
18세 미만인 자를 밤 10시-새벽 6시 사이에 일을 시킬 경우 고용주(사장)는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동의/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함	28.9(2905)	71.1(7149)	100.0(10054)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도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음	28.3(2817)	71.7(7126)	100.0(9943)
휴일 근무, 초과근무, 야간근무를 할 경우, 원래로 한 지급(시간당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음	28.2(2806)	71.8(7153)	100.0(9959)
일하다 부당한 처우 시, 청소년을 도와주는 신고전화(☎ 1644-3119 또는 ☎ 1388)가 있음	25.9(2605)	74.1(7450)	100.0(10055)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어떻게 일하고 임금을 어떻게 받는 등의 내용의 근로계약서 2장 만들어서 사장님과 학생이 한 장씩 가져야 함	24.8(2472)	75.2(7486)	100.0(9958)
만15세 미만(중학교 2학년 이하)에게 일을 시킬 경우 고용주(사장)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23.5(2365)	76.5(7686)	100.0(10050)
고용주(사장)가 청소년근로자에게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시킬 경우,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22.4(2225)	77.6(7730)	100.0(9955)
고용주(사장)는 일을 그만둔 지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아르바이트비)을 지급해야 함	15.2(1514)	84.8(8434)	100.0(9949)
4시간 일할 경우 30분의 쉬는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음	15.1(1520)	84.9(8532)	100.0(10052)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한 경우,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음	10.6(1066)	89.4(8995)	100.0(10061)
고용주(사장)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등 보상 신청 가능	8.7(877)	91.3(9169)	100.0(10046)
학교나 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돼 있음	6.1(616)	93.9(9453)	100.0(10069)

내용/구분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있다	없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안다	75.9(1267)	58.5(4808)
	모른다	24.1(403)	41.5(3406)
	전체	100.0(1670)	100.0(8214)
	χ^2	176.054***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2장을 만들어서 사장님과 학생이 한 장씩 가져야 한다	안다	34.3(573)	22.9(1885)
	모른다	65.7(1097)	77.1(6347)
	전체	100.0(1670)	100.0(8232)
	χ^2	96.906***	
2013년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다	안다	74.4(1242)	51.3(4216)
	모른다	25.6(428)	48.7(3998)
	전체	100.0(1670)	100.0(8214)
	χ^2	298.047***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	안다	37.3(623)	26.5(2178)
	모른다	62.7(1048)	73.5(6039)
	전체	100.0(1671)	100.0(8217)
	χ^2	79.437***	
고용주(사장)는 일을 그만둔 지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아르바이트비)을 지급해야 한다	안다	21.9(366)	13.8(1136)
	모른다	78.1(1307)	86.2(7083)
	전체	100.0(1673)	100.0(8219)
	χ^2	70.036***	
고용주(사장)가 청소년근로자에게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시킬 경우,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다	28.8(481)	21.0(1728)
	모른다	71.2(1191)	79.0(6498)
	전체	100.0(1672)	100.0(8226)
	χ^2	48.282***	
휴일 근무, 초과근무, 야간근무를 할 경우, 원래 받기로 한 시급(시간당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안다	38.4(642)	26.1(2149)
	모른다	61.6(1031)	73.9(6082)
	전체	100.0(1673)	100.0(8231)
	χ^2	103.353***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한 경우,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안다	15.8(267)	9.5(789)
	모른다	84.2(1428)	90.5(7520)
	전체	100.0(1695)	100.0(8309)
	χ^2	58.366***	
4시간 일할 경우 30분의 쉬는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안다	22.9(388)	13.5(1119)
	모른다	77.1(1306)	86.5(7181)
	전체	100.0(1694)	100.0(8300)
	χ^2	97.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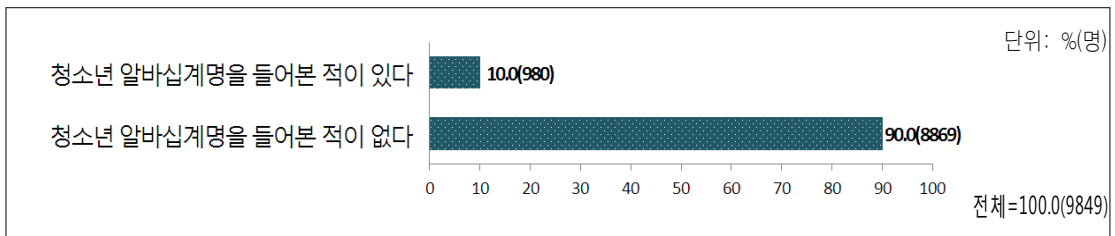
내용/구분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있다	없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에 걸리면 고용주(사장)으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다	55.3(936)	43.8(3630)
	모른다	44.7(758)	56.2(4662)
	전체	100.0(1694)	100.0(8292)
	χ^2	74.656***	
고용주(사장)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등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안다	11.4(193)	8.1(674)
	모른다	88.6(1499)	91.9(7622)
	전체	100.0(1692)	100.0(8296)
	χ^2	19.100***	
18세 미만인 자를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을 시킬 경우 고용주(사장)는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안다	40.8(692)	26.4(2194)
	모른다	59.2(1003)	73.6(6108)
	전체	100.0(1695)	100.0(8302)
	χ^2	142.113***	
일하다 부당한 처우를 당할 경우 청소년을 도와주는 신고전화(☎1644-3119 또는 ☎1388)가 있다	안다	29.0(492)	25.2(2093)
	모른다	71.0(1202)	74.8(6210)
	전체	100.0(1694)	100.0(8303)
	χ^2	10.798***	
학교나 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다	안다	8.8(150)	5.5(457)
	모른다	91.2(1547)	94.5(7858)
	전체	100.0(1697)	100.0(8315)
	χ^2	27.657***	
만15세 미만(중학교 2학년 이하)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경우 고용주(사장)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다	29.8(505)	22.3(1847)
	모른다	70.2(1187)	77.7(6454)
	전체	100.0(1692)	100.0(8301)
	χ^2	45.062***	
고용주는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경우 부모님(보호자)동 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안다	59.4(1007)	37.6(3123)
	모른다	40.6(688)	62.4(5181)
	전체	100.0(1695)	100.0(8304)
	χ^2	275.980***	
만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사장)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나 업종(직업의 종류)이 있다	안다	46.8(794)	31.9(2646)
	모른다	53.2(902)	68.1(5658)
	전체	100.0(1696)	100.0(8304)
	χ^2	139.522***	

* $p < .05$, ** $p < .01$, *** $p < .001$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라 연소자 근로보호 관련 법 인지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III-57>), 모든 항목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관련 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확연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조차도 기본적인 연소자 근로보호 관련 법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점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노동 인권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사항과 제도를 요약하여 ‘청소년알바십계명’을 작성하고, 이를 책자로 제작하여 교육과 홍보 자료로 활용해왔다. 연소자 근로보호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알바십계명’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그림 III-25】).



【그림 III-25】 청소년알바십계명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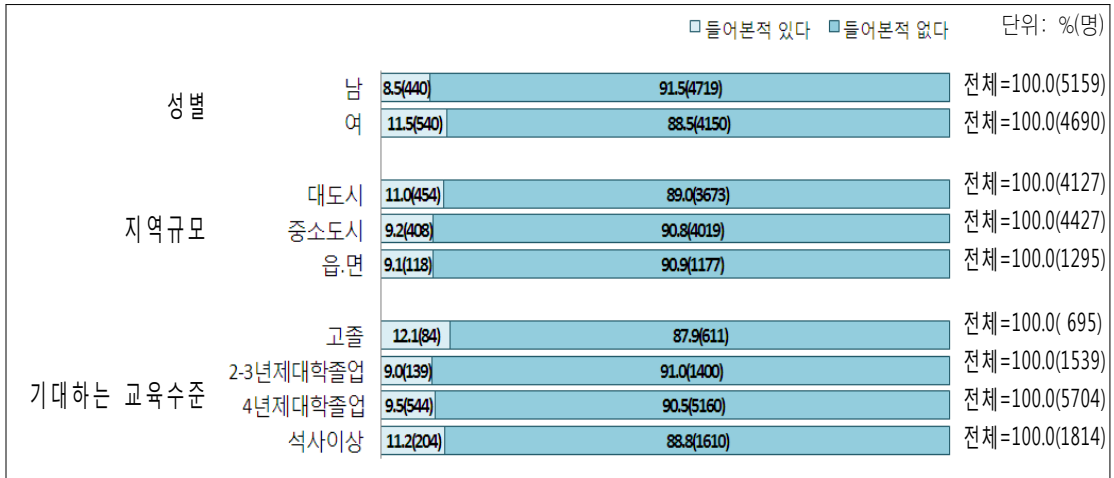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알바십계명에 대한 인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 여자청소년(11.5%)이 남자청소년(8.5%)에 비해 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 청소년(11.0%)이 중소도시(9.2%)나 읍·면 지역의 청소년(9.1%)보다 청소년알바십계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표 III-58>).

표 III-58 청소년알바십계명 인지 여부 - 개인 및 지역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이상	
청소년 알바 십계명	들어본 적 있다	8.5(440)	11.5(540)	11.0(454)	9.2(408)	9.1(118)	12.1(84)	9.0(139)	9.5(544)	11.2(204)
	들어본 적 없다	91.5(4719)	88.5(4150)	89.0(3673)	90.8(4019)	90.9(1177)	87.9(611)	91.0(1400)	90.5(5160)	88.8(1610)
	전체	100.0(5159)	100.0(4690)	100.0(4127)	100.0(4427)	100.0(1295)	100.0(695)	100.0(1539)	100.0(5704)	100.0(1814)
	χ ²	24.431***		8.761*			9.466*			

*p<.05, **p<.01, ***p<.001

뒤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이 청소년알바십계명 인지 여부의 성별 간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소자 근로보호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Ⅲ-26】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청소년알바십계명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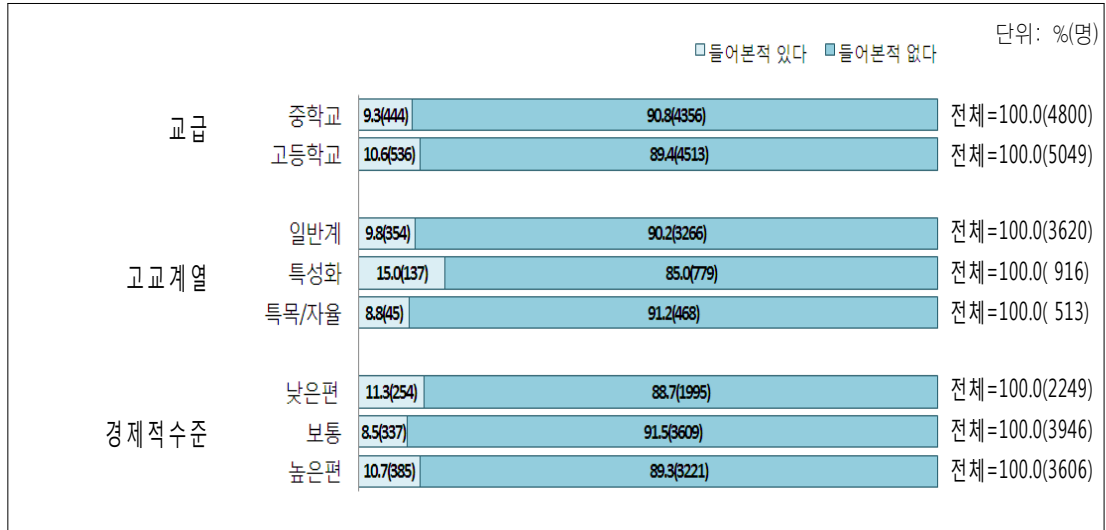
학교관련 및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에 따라 청소년알바십계명에 대한 인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생(10.6%)이 중학생(9.3%)에 비해 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 중에서 특성화(15.0%)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일반계(9.8%), 특목/자율(8.8)고등학생에 비해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경제수준이 '낮은 편'이라 응답한 청소년이 청소년알바십계명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이 1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Ⅲ-59>).

표 Ⅲ-59 청소년알바십계명 인지 여부 - 학교관련 특성/사회경제적 배경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경제적수준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청소년 알바 십계명	들어본 적 있다	9.3(444)	10.6(536)	9.8(354)	15.0(137)	8.8(45)	11.3(254)	8.5(337)	10.7(385)
	들어본 적 없다	90.8(4356)	89.4(4513)	90.2(3266)	85.0(779)	91.2(468)	88.7(1995)	91.5(3609)	89.3(3221)
	전체	100.0(4800)	100.0(5049)	100.0(3620)	100.0(916)	100.0(513)	100.0(2249)	100.0(3946)	100.0(3606)
	χ ²	5.124*		22.696***			15.398***		

*p<.05, **p<.01, ***p<.001

당연한 결과일 수 있으나, 청소년알바십계명의 인지 정도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에서 조금 더 높았다. 고교 계열별 차이를 살펴보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지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다른 고교계열 학생들보다 높은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III-27】).



【그림 III-27】 학교관련/사회경제적 배경 특성에 따른 청소년알바십계명 인지 여부

(2)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인지 경로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연소자 근로 보호에 관한 법률 사항을 알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항목별로 관련 정보를 얻게 된 경로를 조사하였다. 청소년들이 연소자 근로 보호에 관한 법률을 알게 되는 경로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TV와 인터넷이었다. 학교를 통해 관련 법률 사항을 알게 된 비율은 항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제시된 인지 경로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표 III-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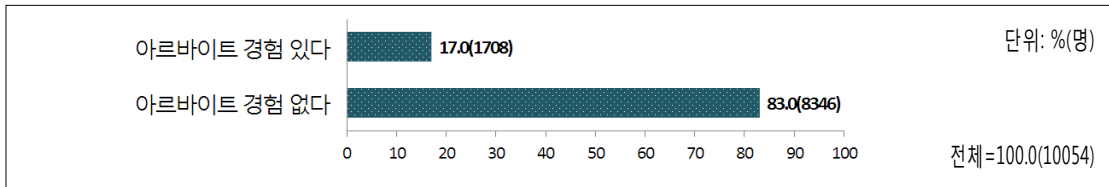
내용/구분	인지경로						
	학교	TV	인터넷	친구	가족	기타	전체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9.3(1063)	32.1(3649)	30.5(3471)	11.5(1313)	9.7(1102)	6.9(780)	100.0(11378)
2013년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임	7.3(723)	30.9(3076)	30.5(3031)	14.5(1446)	10.8(1070)	6.0(593)	100.0(9939)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에 걸리면 고용주(사장)으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7.2(532)	33.3(2472)	28.6(2127)	7.3(544)	13.0(964)	10.7(793)	100.0(7431)
고용주는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경우 부모님(보호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함	8.4(592)	21.9(1546)	26.9(1900)	17.6(1240)	14.2(1000)	11.0(776)	100.0(7053)
만19세 미만 청소년 고용 시, 고용주(사장)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일/업종(직업 종류)이 있음	8.8(529)	30.7(1851)	31.1(1874)	9.2(555)	8.9(537)	11.3(679)	100.0(6026)
18세 미만인 자를 밤 10시-새벽 6시 사이에 일을 시킬 경우 고용주(사장)는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동의/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함	8.5(391)	28.8(1331)	31.2(1442)	11.3(523)	10.0(460)	10.2(469)	100.0(4616)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도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음	8.8(385)	31.5(1380)	32.9(1440)	9.9(432)	9.5(414)	7.5(328)	100.0(4378)
휴일 근무, 초과근무, 야간근무를 할 경우, 원래로 한 시급(시간당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음	9.4(416)	25.5(1132)	29.5(1309)	10.3(459)	15.7(700)	9.6(429)	100.0(4444)
일하다 부당한 처우 시, 청소년을 도와주는 신고전화(☎1644-3119 또는 ☎1388)가 있음	23.2(998)	29.3(1262)	27.9(1201)	5.5(237)	5.1(219)	9.0(386)	100.0(4303)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어떻게 일하고 임금을 어떻게 받는 등의 내용의 근로계약서 2장 만들어서 사장님과 학생이 한 장씩 가져야 함	7.2(532)	33.3(2472)	28.6(2127)	7.3(544)	13.0(964)	10.7(793)	100.0(7431)
만15세 미만(중학교 2학년 이하)에게 일을 시킬 경우 고용주(사장)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11.8(444)	26.5(999)	30.1(1134)	11.2(421)	10.3(389)	10.2(385)	100.0(3771)
고용주(사장)가 청소년근로자에게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시킬 경우,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13.3(449)	28.9(972)	30.9(1039)	9.1(305)	8.8(297)	9.0(303)	100.0(3365)
고용주(사장)는 일을 그만둔 지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아르바이트비)을 지급해야 함	6.3(143)	29.6(669)	34.4(778)	10.5(238)	10.1(228)	9.1(207)	100.0(2262)

내용/구분	인지경로						
	학교	TV	인터넷	친구	가족	기타	전체
4시간 일할 경우 30분의 쉬는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음	11.6(253)	23.6(515)	25.9(565)	12.0(263)	11.6(253)	15.4(336)	100.0(2185)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한 경우,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음	14.7(223)	26.6(404)	26.9(409)	8.5(129)	12.5(190)	10.8(164)	100.0(1520)
고용주(사장)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등 보상 신청 가능	8.2(103)	31.7(397)	29.7(373)	6.3(79)	12.2(152)	11.9(149)	100.0(1254)
학교나 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돼 있음	22.2(197)	25.7(228)	27.8(247)	9.0(79)	7.5(66)	7.8(69)	100.0(887)

(3)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경험 특성

①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들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로 나타났다(【그림 III-28】).



【그림 III-28】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아르바이트 경험해 본 청소년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급과 학년별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청소년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시기에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비율은 10%를 넘고, 고등학교 3학년에 와서는 3분의 1 이상이 한번 이상 아르바이트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II-61>).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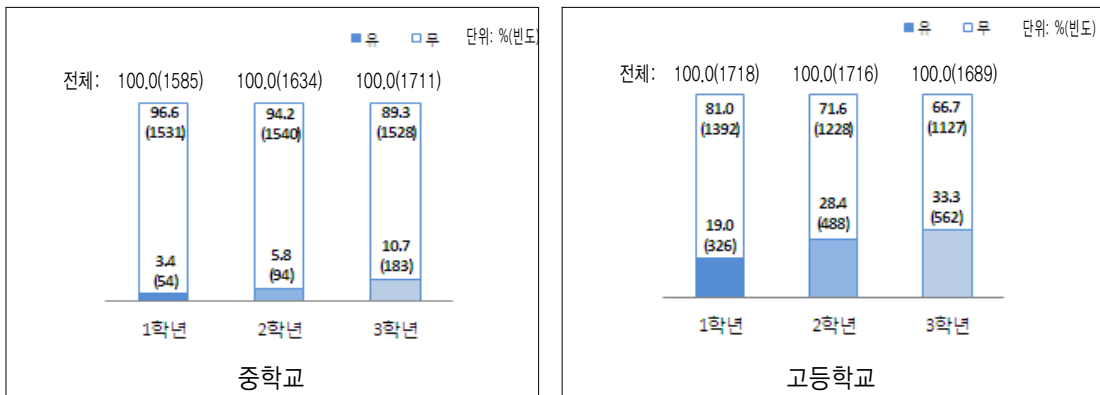
31) 본 설문조사가 1학기 말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각 학년의 2학기에 아르바이트에 처음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본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각 학년별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비율은 여기서 제시된 수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III-61 학년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단위: %(명)

내용/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경험 유무	유	3.4(54)	5.8(94)	10.7(183)	19.0(326)	28.4(488)	33.3(562)
	무	96.6(1531)	94.2(1540)	89.3(1528)	81.0(1392)	71.6(1228)	66.7(1127)
전 체		100.0(1585)	100.0(1634)	100.0(1711)	100.0(1718)	100.0(1716)	100.0(1689)

중학생 시기까지는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연령 제한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총합 통계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그림 III-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등학교 진학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9】 학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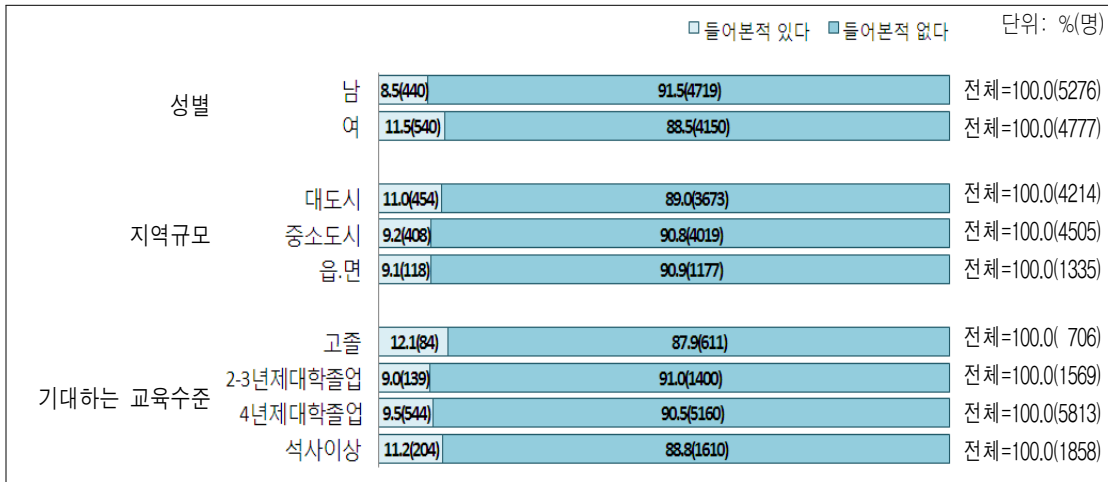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나타냈다. 기대하는 교육수준에 따라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기대하는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 32.7%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데 비해, 4년제 대학졸업의 경우 14.7%, 석사이상일 경우 11.0%로 나타나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62>).

표 III-62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개인 및 지역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이상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16.6(876)	17.4(831)	14.7(619)	18.4(829)	19.5(260)	32.7(231)	25.4(398)	14.7(855)	11.0(204)
	없다	83.4(4400)	82.6(3946)	85.3(3595)	81.6(3676)	80.5(1075)	67.3(475)	74.6(1171)	85.3(4958)	89.0(1654)
	전체	100.0(5276)	100.0(4777)	100.0(4214)	100.0(4505)	100.0(1335)	100.0(706)	100.0(1569)	100.0(5813)	100.0(1858)
	χ ²	1.117		28.035***			271.193***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30】 개인 및 지역특성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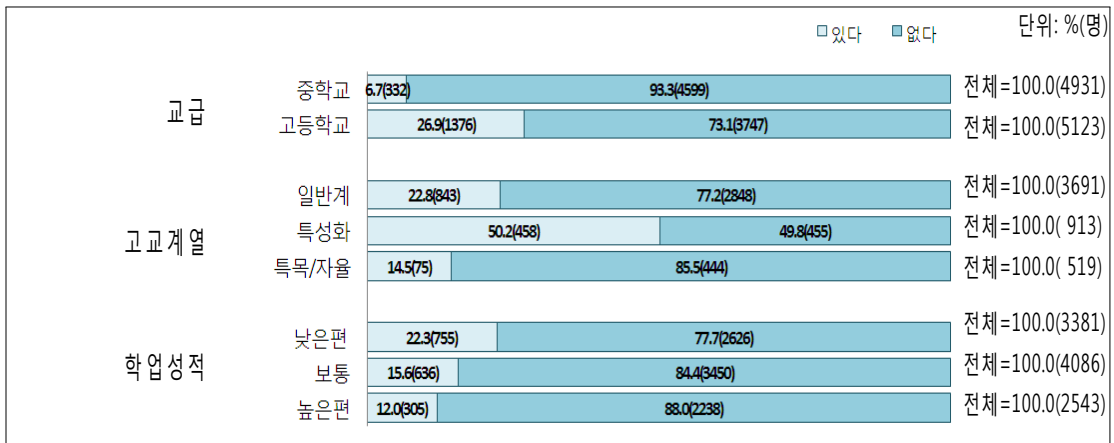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고교 계열 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절반 이상인 50.2%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일반계고 학생은 22.8%, 특목고/자율고 학생들은 14.5%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학업성적 수준에 따라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학업성적이 낮은 편(22.3%)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높은 편(12.0%)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표 III-63>).

표 III-63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학교관련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6.7(332)	26.9(1376)	22.8(843)	50.2(458)	14.5(75)	22.3(755)	15.6(636)	12.0(305)
	없다	93.3(4599)	73.1(3747)	77.2(2848)	49.8(455)	85.5(444)	77.7(2626)	84.4(3450)	88.0(2238)
	전체	100.0(4931)	100.0(5123)	100.0(3691)	100.0(913)	100.0(519)	100.0(3381)	100.0(4086)	100.0(2543)
	χ^2	721.709***		323.454***			119.516***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31】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경제적수준이 '낮은 편'(26.9%)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경제적수준이 '높은 편'(12.0%)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의 2배가 넘었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석사이상'인 청소년들에 비해 3~4배가량 높았다(<표 III-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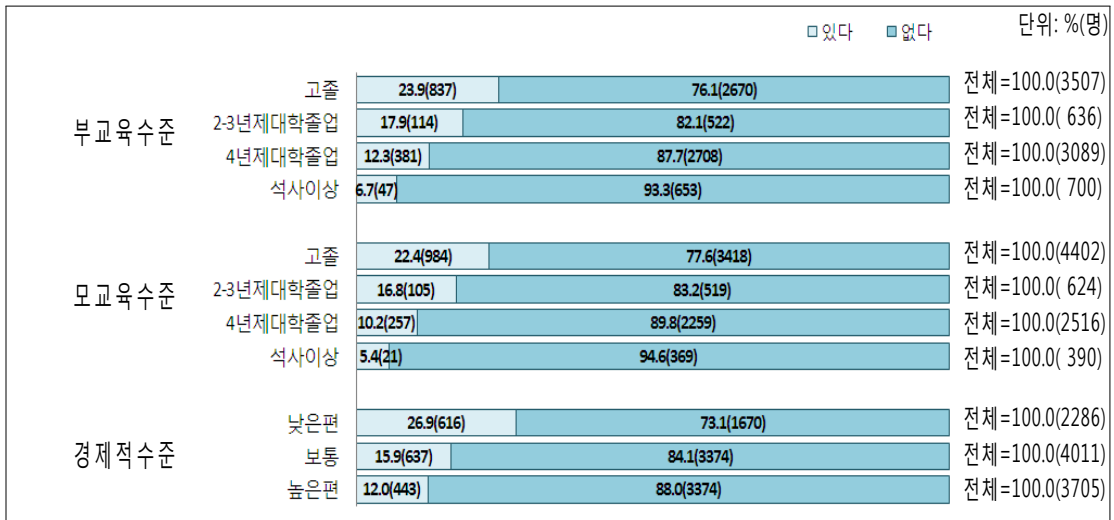
표 III-6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1)

단위: %(명)

내용/구분	부교육수준				모교육수준				경제적수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이상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이상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23.9(837)	17.9(114)	12.3(381)	6.7(47)	22.4(984)	16.8(105)	10.2(257)	5.4(21)	26.9(616)	15.9(637)	12.0(443)
	없다	76.1(2670)	82.1(522)	87.7(2708)	93.3(653)	77.6(3418)	83.2(519)	89.8(2259)	94.6(369)	73.1(1670)	84.1(3374)	88.0(3262)
	전체	100.0(3507)	100.0(636)	100.0(3089)	100.0(700)	100.0(4402)	100.0(624)	100.0(2516)	100.0(390)	100.0(2286)	100.0(4011)	100.0(3705)
	χ ²	213.069***				206.257***				231.085***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32】를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적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 뚜렷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I-32】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1)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부모의 직업 유무에 따라 살펴본 결과(<표 III-65>),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아버지의 경우 직업이 '없을 경우'(27.0%)가 '있을 경우'(15.7%)에 비해 청소년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비율이 2배 가까이 높고, 어머니의 경우는 직업이 '있을 경우'(17.4%)가 '없을 경우'(13.9%)에 비해 청소년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비율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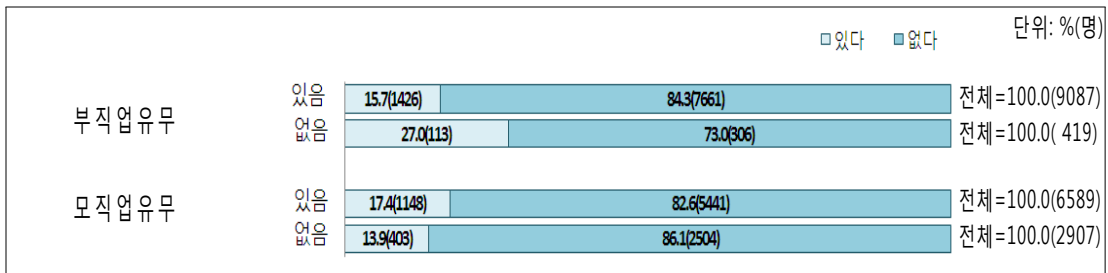
표 Ⅲ-65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2)

단위: %(명)

내용/구분	부직업유무		모직업유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15.7(1426)	27.0(113)	17.4(1148)	13.9(403)
	없다	84.3(7661)	73.0(306)	82.6(5441)	86.1(2504)
	전체	100.0(9087)	100.0(419)	100.0(6589)	100.0(2907)
	χ^2	37.534***		18.706***	

* $p < .05$, ** $p < .01$, *** $p < .001$

부와 모의 직업유무가 자녀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다른 방식으로 관련성을 보이는데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버지의 직업이 없다는 것은 가정의 경제적수준이 낮은 것과 관련성이 높고, 이는 청소년 자녀가 경제적 활동을 통해 가정 경제에 기여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음을 의미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는 경우는 자녀가 어머니의 돌봄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만큼의 연령이 된 것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더 높은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Ⅲ-33】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2)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②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 진로성숙도 수준 비교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들의 진로발달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금까지 한번 이상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지 여부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진로성숙도 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비교 결과(<표 Ⅲ-66>),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집단이 오히려 더 높은 진로성숙도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 보다는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향이 높음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여러 측면의 심리적 발달에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수준을 보이며, 진로성숙도도 예외가 아니라는 설명이 더 개연성이 높다.

표 III-66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 전체 단위: %(명)

내용/구분	M(SD)	지금까지 한번 이상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진로성숙도 전체	M(SD)	3.52(.484)	3.53(.485)	3.50(.478)	3.57(.490)
	<i>t</i>	-.216		-2.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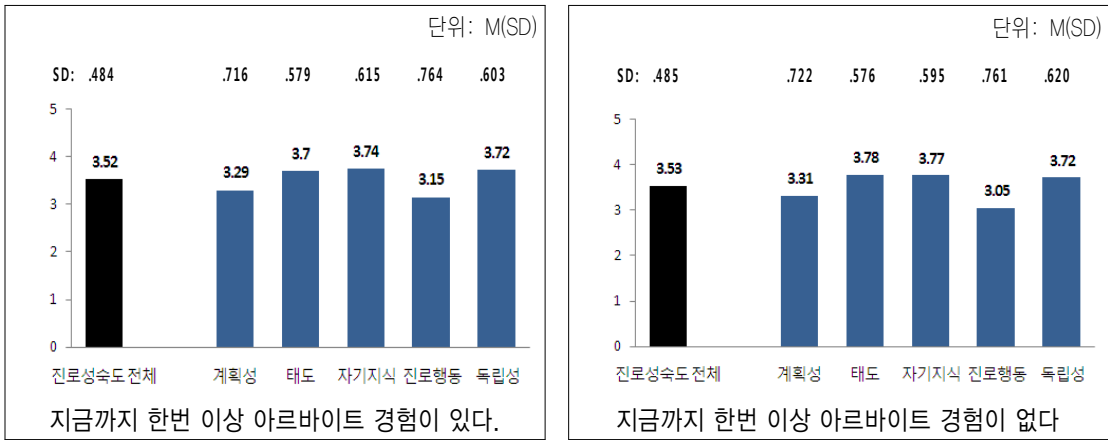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67>은 진로성숙도 수준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진로태도와 자기지식 면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진로행동 측면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III-67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 비교 단위: %(명)

내용/구분	M(SD)	지금까지 한번 이상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있다	없다
진로성숙도 전체	M(SD)	3.52(.484)	3.53(.485)
	<i>t</i>	-.216	
계획성	M(SD)	3.29(.716)	3.31(.722)
	<i>t</i>	-.676	
태도	M(SD)	3.70(.579)	3.78(.576)
	<i>t</i>	-5.451***	
자기지식	M(SD)	3.74(.615)	3.77(.595)
	<i>t</i>	-2.157*	
진로행동	M(SD)	3.15(.764)	3.05(.761)
	<i>t</i>	5.268***	
독립성	M(SD)	3.72(.603)	3.72(.620)
	<i>t</i>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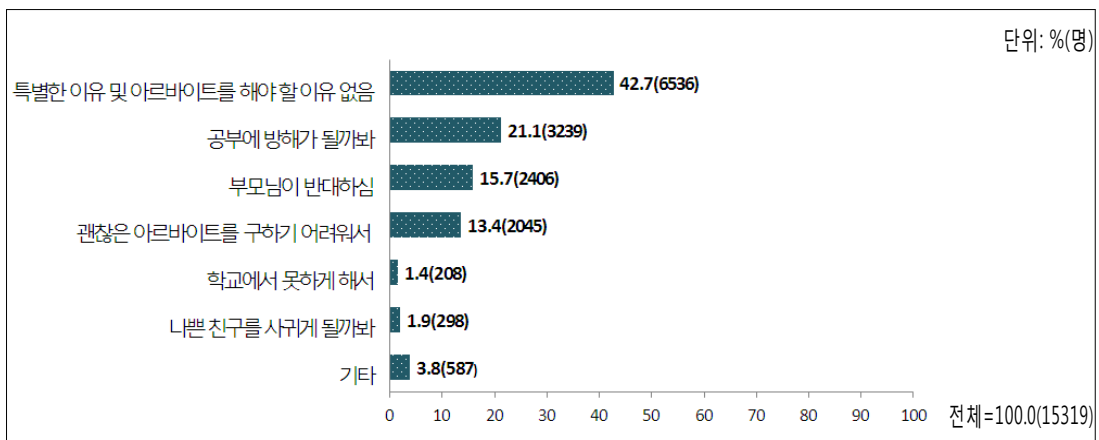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3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 비교

③ 지금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

‘지금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 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를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아르바이트를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하는 경험으로 인식하지 않는 청소년이 많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21.1%), ‘부모님의 반대’(15.7%), ‘괜찮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서’(13.4%) 등이었다(【그림 III-35】).



【그림 III-35】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

<표 III-68>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성별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자청소년(36.1%)의 경우 남자청소년(28.8%)에 비해 '부모님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남자청소년의 경우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될까봐'라는 응답이 여자청소년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도시 청소년의 경우 읍·면지역 청소년에 비해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라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괜찮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은 대도시(46.2%) 청소년에 비해 읍·면지역(41.1%)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일하기에 적합한 일자리가 읍·면지역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기대하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특별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교육포부가 큰 청소년일수록 아르바이트를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설명이 가능한 결과로,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라는 응답은 기대하는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 22.3%로 나타났는데 비해 '4년제 대학졸업'의 경우 45.9%, '석사 이상'인 경우 55.9%로 나타나, 아르바이트가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기대하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68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 - 개인 및 지역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이상
특별한 이유 및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이유 없음	1순위	70.6(3086)	63.2(2485)	68.2(2445)	66.2(2424)	65.9(702)	63.5(299)	64.1(744)	67.5(3335)	69.7(1148)
	2순위	13.0(471)	14.6(495)	14.3(435)	13.3(407)	13.7(124)	12.3(47)	12.9(125)	13.7(577)	14.7(200)
	1+2	83.6(3557)	77.8(2980)	82.5(2880)	79.5(2831)	79.6(826)	75.8(346)	77.0(869)	81.2(3912)	84.4(1348)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1순위	10.9(477)	10.2(401)	11.1(396)	10.4(380)	9.6(102)	5.1(24)	6.9(80)	10.6(522)	14.7(242)
	2순위	34.0(1229)	33.3(1132)	35.1(1069)	32.8(1005)	31.5(286)	17.2(66)	22.7(221)	35.3(1492)	41.2(562)
	1+2	44.9(1706)	43.5(1533)	46.2(1465)	43.2(1385)	41.1(388)	22.3(90)	29.6(301)	45.9(2014)	55.9(804)
부모님이 반대하심	1순위	8.4(369)	13.2(520)	10.2(367)	11.0(403)	11.2(119)	12.3(58)	13.3(154)	10.9(539)	7.2(119)
	2순위	20.4(739)	22.9(779)	22.5(685)	20.9(640)	21.4(194)	17.8(68)	24.6(239)	22.0(927)	20.4(278)
	1+2	28.8(1108)	36.1(1299)	32.7(1052)	31.9(1043)	32.6(313)	30.1(126)	37.9(393)	32.9(1466)	27.6(397)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이상
괜찮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서	1순위	5.8(254)	9.6(378)	7.0(250)	8.0(292)	8.5(90)	12.1(57)	10.2(118)	7.3(360)	5.4(89)
	2순위	20.0(723)	20.3(690)	17.8(541)	21.9(671)	22.1(200)	32.6(125)	26.2(255)	19.7(831)	13.3(181)
	1+2	25.8(977)	29.9(1068)	24.8(791)	29.9(963)	30.6(290)	44.7(182)	36.4(373)	27.0(1191)	18.7(270)
학교에서 못하게 해서	1순위	.7(29)	.3(10)	.4(14)	.4(16)	.8(9)	1.1(5)	.7(8)	.4(20)	.4(6)
	2순위	2.9(106)	1.9(64)	2.3(70)	2.3(71)	3.2(29)	6.3(24)	3.0(29)	2.1(88)	1.8(25)
	1+2	3.6(135)	2.2(74)	2.7(84)	2.7(87)	4.0(38)	7.4(29)	3.7(37)	2.5(108)	2.2(31)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될까봐	1순위	.7(31)	.4(14)	.3(12)	.7(25)	.8(9)	1.3(6)	.5(6)	.5(27)	.3(5)
	2순위	4.8(175)	2.3(78)	3.9(120)	3.4(104)	3.2(29)	5.5(21)	5.2(51)	2.9(124)	4.0(54)
	1+2	5.5(206)	2.7(92)	4.2(132)	4.1(129)	4.0(38)	6.8(27)	5.7(57)	3.4(151)	4.3(59)
기타	1순위	2.9(127)	3.2(127)	2.8(99)	3.3(120)	3.2(34)	4.7(22)	4.4(51)	2.8(140)	2.2(37)
	2순위	4.8(174)	4.7(159)	4.0(123)	5.4(165)	5.0(45)	8.4(32)	5.3(52)	4.3(182)	4.6(63)
	1+2	7.7(301)	7.9(286)	6.8(222)	8.7(285)	8.2(79)	13.1(54)	9.7(103)	7.1(322)	6.8(100)
전 체		200.0(7990)	200.0(7332)	200.0(6626)	200.0(6723)	200.0(1972)	200.0(854)	200.0(2133)	200.0(9164)	200.0(3009)

지금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를 학교관련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표 III-69>), 중학생(40.6%)에 비해 고등학생(48.8%)이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에서 못하게 해서',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될까봐'라는 응답은 중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고교 계열별로 살펴보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은 특목/자율고 학생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라는 이유를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은 일반계 고등학생에서 가장 높았으나, 1순위와 2순위로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를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특목/자율고 학생에게서 가장 높았다. '괜찮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고, '괜찮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 69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 - 학교관련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특별한 이유 및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이유 없음	1순위	70.5(3224)	62.8(2347)	63.0(1788)	53.3(243)	71.7(316)	61.0(1597)	68.2(2343)	72.4(1613)
	2순위	11.4(433)	16.7(533)	16.9(412)	18.1(73)	13.3(47)	14.2(312)	13.3(385)	13.9(261)
	1+2	81.9(3657)	79.5(2880)	79.9(2200)	71.4(316)	85.0(363)	75.2(1909)	81.5(2728)	86.3(1874)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1순위	7.9(361)	13.9(518)	14.4(410)	10.7(49)	13.4(59)	7.3(192)	11.0(377)	13.6(304)
	2순위	32.7(1245)	34.9(1115)	36.4(888)	20.3(82)	41.2(146)	22.6(496)	34.4(998)	45.6(857)
	1+2	40.6(1606)	48.8(1633)	50.8(1298)	31.0(131)	54.6(205)	29.9(688)	45.4(1375)	59.2(1161)
부모님이 반대하심	1순위	8.7(400)	13.1(489)	13.2(376)	16.0(73)	9.1(40)	14.4(378)	10.1(347)	7.1(158)
	2순위	21.9(836)	21.3(682)	21.5(524)	21.8(88)	19.8(70)	24.0(527)	22.2(645)	18.2(343)
	1+2	30.6(1236)	34.4(1171)	34.7(900)	37.8(161)	28.9(110)	38.4(905)	32.3(992)	25.3(501)
괜찮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서	1순위	7.5(342)	7.8(290)	7.2(205)	14.9(68)	4.1(18)	12.1(317)	6.6(226)	3.9(88)
	2순위	20.2(772)	20.0(641)	18.4(448)	32.9(133)	16.9(60)	25.6(564)	19.6(568)	14.6(275)
	1+2	27.7(1114)	27.8(931)	25.6(653)	47.8(201)	21.0(78)	37.7(881)	26.2(794)	18.5(363)
학교에서 못하게 해서	1순위	.7(31)	.2(8)	.3(8)	.0(0)	.2(1)	.6(16)	.5(17)	.3(6)
	2순위	3.3(125)	1.4(45)	1.5(36)	1.5(6)	.6(2)	3.0(65)	2.4(71)	1.8(33)
	1+2	4.0(156)	1.6(53)	1.8(44)	1.5(6)	.8(3)	3.6(81)	2.9(88)	2.1(39)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될까봐	1순위	.8(35)	.3(11)	.2(6)	.7(3)	.5(2)	.6(15)	.7(24)	.3(6)
	2순위	5.4(204)	1.5(49)	1.4(35)	1.7(7)	2.0(7)	4.8(105)	3.4(99)	2.4(46)
	1+2	6.2(239)	1.8(60)	1.6(41)	2.4(10)	2.5(9)	5.4(120)	4.1(123)	2.7(52)
기타	1순위	4.0(181)	2.0(73)	1.7(47)	4.4(20)	1.1(5)	3.9(101)	2.9(99)	2.4(54)
	2순위	5.2(198)	4.2(134)	4.0(97)	3.7(15)	6.2(22)	5.9(130)	4.8(138)	3.5(65)
	1+2	9.2(379)	6.2(207)	5.7(144)	8.1(35)	7.3(27)	9.8(231)	7.7(237)	5.9(119)
전 체		200.0(8387)	200.0(6935)	200.0(5280)	200.0(860)	200.0(795)	200.0(4815)	200.0(6337)	200.0(4109)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표 III-70>),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와 학업은 병행하기 어려운 것이며,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반영한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적수준이 낮을수록 '괜찮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고, 경제적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서 동일한 응답이 40% 이상을 차지한 것은 경제적 상황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의사가 있어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표 III-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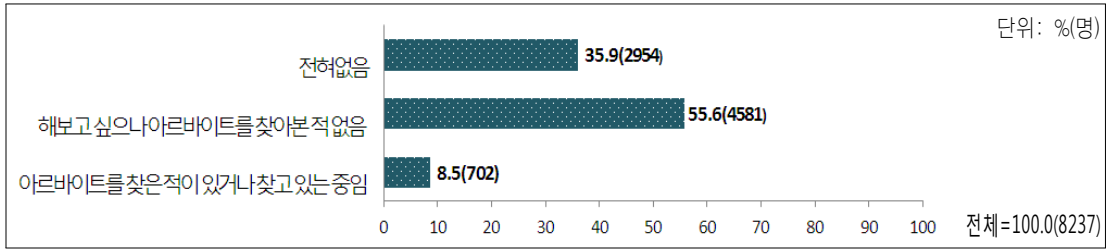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1)

단위: %(명)

내용/구분		부교육수준				모교육수준				경제적수준		
		고졸	2-3년 제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이상	고졸	2-3년 제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이상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특별한 이유 및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이유 없음	1순위	61.7(1639)	69.1(358)	69.8(1884)	72.6(474)	62.9(2144)	66.0(339)	71.4(1607)	71.7(263)	54.6(909)	69.0(2320)	71.3(2315)
	2순위	15.2(344)	11.0(49)	13.8(317)	12.7(68)	14.4(419)	15.2(69)	13.5(257)	11.1(33)	15.4(219)	12.8(364)	13.8(375)
	1+2	76.9(1983)	80.1(407)	83.6(2201)	85.3(542)	77.3(2563)	81.2(408)	84.9(1864)	82.8(296)	70(1128)	81.8(2684)	85.1(2690)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1순위	11.3(301)	10.6(55)	11.4(308)	11.8(77)	11.3(385)	12.3(63)	11.3(255)	11.7(43)	11.1(184)	9.6(324)	11.2(365)
	2순위	29.0(656)	32.2(144)	39.8(918)	42.1(226)	29.8(866)	37.8(172)	39.7(758)	45.3(135)	24.6(350)	32.9(934)	39.2(1067)
	1+2	40.3(957)	42.8(199)	51.2(1226)	53.9(303)	41.1(1251)	50.1(235)	51(1013)	57(178)	35.7(534)	42.5(1258)	50.4(1432)
부모님이 반대하심	1순위	12.7(336)	10.0(52)	10.4(281)	7.8(51)	12.8(435)	9.5(49)	9.5(215)	7.9(29)	15.2(253)	10.0(337)	9.1(296)
	2순위	21.1(476)	22.6(101)	21.4(494)	21.2(114)	23.0(669)	19.1(87)	21.2(405)	16.8(50)	21.6(307)	23.1(656)	20.2(551)
	1+2	33.8(812)	32.6(153)	31.8(775)	29.0(165)	35.8(1104)	28.6(136)	30.7(620)	24.7(79)	36.8(560)	33.1(993)	29.3(847)
괜찮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서	1순위	10.1(268)	5.0(26)	5.1(139)	4.7(31)	9.2(313)	7.2(37)	4.6(104)	4.4(16)	13.7(228)	7.4(249)	4.7(153)
	2순위	23.9(541)	24.2(108)	15.8(364)	13.6(73)	22.9(667)	18.2(83)	15.4(294)	16.4(49)	26.8(381)	20.5(582)	16.3(443)
	1+2	34.0(809)	29.2(134)	20.9(503)	18.3(104)	32.1(980)	25.4(120)	20(398)	20.8(65)	40.5(609)	27.9(831)	21.0(596)
학교에서 못하게 해서	1순위	.6(15)	.6(3)	.2(6)	.8(5)	.4(15)	.4(2)	.3(7)	1.1(4)	.4(6)	.5(17)	.5(16)
	2순위	2.6(59)	.9(4)	2.0(45)	1.7(9)	2.3(66)	2.2(10)	2.2(42)	.7(2)	1.9(27)	2.6(75)	2.4(66)
	1+2	3.2(74)	1.5(7)	2.2(51)	2.5(14)	2.7(81)	2.6(12)	2.5(49)	1.8(6)	2.3(33)	3.1(92)	2.9(82)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될까봐	1순위	.5(12)	.8(4)	.4(10)	.2(1)	.4(13)	.6(3)	.4(10)	.5(2)	.4(7)	.5(18)	.6(20)
	2순위	2.8(64)	3.4(15)	3.3(76)	3.7(20)	2.5(73)	3.7(17)	3.8(72)	4.0(12)	3.4(48)	3.3(94)	4.0(109)
	1+2	3.3(76)	4.2(19)	3.7(86)	3.9(21)	2.9(86)	4.3(20)	4.2(82)	4.5(14)	3.8(55)	3.8(112)	4.6(129)
기타	1순위	3.2(84)	3.9(20)	2.7(72)	2.1(14)	3.0(101)	4.1(21)	2.4(54)	2.7(10)	4.7(78)	2.8(95)	2.5(80)
	2순위	5.4(121)	5.8(26)	3.9(90)	5.0(27)	5.1(149)	3.7(17)	4.3(82)	5.7(17)	6.3(90)	4.7(132)	4.1(111)
	1+2	8.6(205)	9.7(46)	6.6(162)	7.1(41)	8.1(250)	7.8(38)	6.7(136)	8.4(27)	11(168)	7.5(227)	6.6(191)
전 체		200.0(4916)	200.0(965)	200.0(5004)	200.0(1190)	200.0(6315)	200.0(969)	200.0(4162)	200.0(665)	200.0(3087)	200.0(6197)	200.0(5967)

④ 향후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 및 구직 경험 유무

【그림 III-36】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5.9%, ‘아르바이트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실제 구직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55.6%로 나타났다. 한편 아르바이트 의사가 있고 실제로 일자리를 찾아본 경험도 있는 비율은 8.5%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청소년들이 막연하게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그림 Ⅲ-36】 향후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 및 구직 경험 유무

향후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와 구직 경험 여부를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Ⅲ-71>과 같다. 여자청소년(12.0%)이 남자청소년(5.4%)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아르바이트자리를 찾은 적이 있거나 찾고 있는 중임’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지역규모와 기대하는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8.7%)이 대도시와 읍·면에 거주하는 청소년(각각 8.4%) 보다, 기대하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에 대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아르바이트자리를 찾은 적이 있거나 찾고 있는 중임’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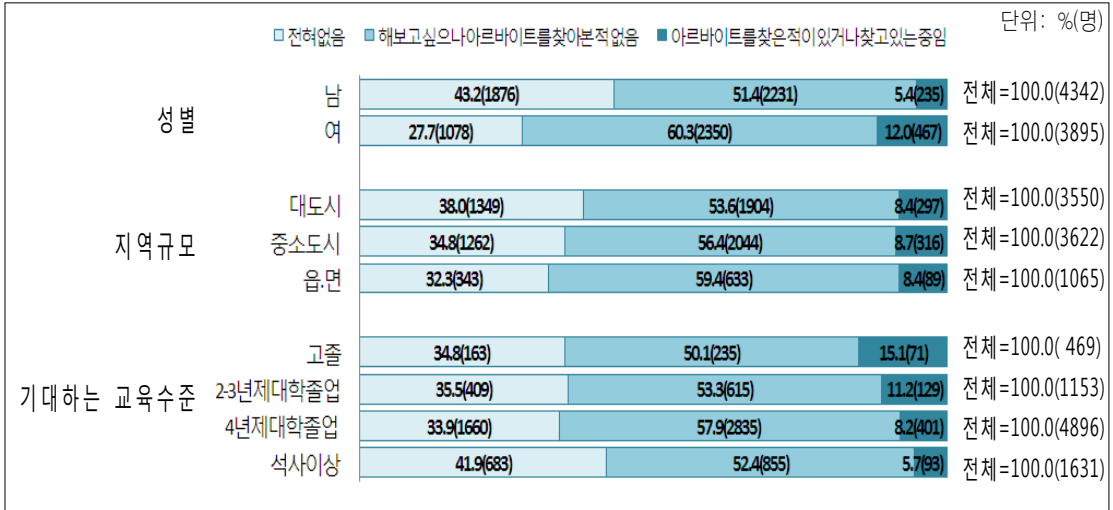
표 Ⅲ-71 향후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 및 구직 경험 유무- 개인 및 지역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이상
전혀 없음	43.2(1876)	27.7(1078)	38.0(1349)	34.8(1262)	32.2(343)	34.8(163)	35.5(409)	33.9(1660)	41.9(683)
해보고 싶으나 아르바이트를 찾아본 적 없음	51.4(2231)	60.3(2350)	53.6(1904)	56.4(2044)	59.4(633)	50.1(235)	53.3(615)	57.9(2835)	52.4(855)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은 적이 있거나 찾고 있는 중임	5.4(235)	12.0(467)	8.4(297)	8.7(316)	8.4(89)	15.1(71)	11.2(129)	8.2(401)	5.7(93)
전체	100.0(4342)	100.0(3895)	100.0(3550)	100.0(3622)	100.0(1065)	100.0(469)	100.0(1153)	100.0(4896)	100.0(1631)
χ^2	271.880***		15.590**			82.722***			

* $p < .05$, ** $p < .01$, *** $p < .001$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향후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과 아르바이트 자리를 실제 찾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기대하는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교육포부가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아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보다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그림 III-37】 참고).



【그림 III-37】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따른 향후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 및 구직 경험 유무

지금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 본적이 없지만 향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지와 실제 구직 경험이 있는 지를 학교관련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표 III-72>), 중학생(58.6%)에 비해 고등학생(70.9%)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는 의사가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고교 계열에 따라 살펴보면, 일반계(61.1%) 청소년의 경우 막연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특성화(56.3%), 특목/자율(57.9%) 고교 계열 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성화고 청소년들은 실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아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목/자율고(34.6%) 청소년들은 향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응답 비율이 일반계(28.3%), 특성화(28.8%)보다 높았다.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높은 편'인 청소년(42.2%)일수록 '낮은 편'(30.0%) 또는 '보통'(36.0%)으로 응답한 청소년에 비해 앞으로도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비율이 높았고, 이에 비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아본 비율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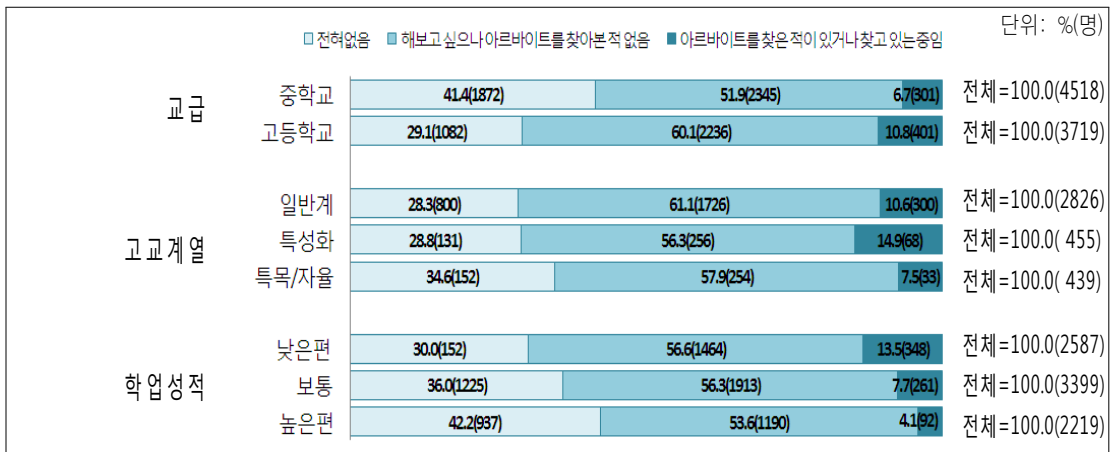
표 III-72

향후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 및 구직 경험 유무- 학교관련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전혀 없음	41.4(1872)	29.1(1082)	28.3(800)	28.8(131)	34.6(152)	30.0(775)	36.0(1225)	42.2(937)
해보고 싶으나 아르바이트를 찾아본 적 없음	51.9(2345)	60.1(2236)	61.1(1726)	56.3(256)	57.9(254)	56.6(1464)	56.3(1913)	53.6(1190)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은 적이 있거나 찾고 있는 중임	6.7(301)	10.8(401)	10.6(300)	14.9(68)	7.5(33)	13.5(348)	7.7(261)	4.1(92)
전 체	100.0(4518)	100.0(3719)	100.0(2826)	100.0(455)	100.0(439)	100.0(2587)	100.0(3399)	100.0(2219)
χ^2	152.038***		18.882***			178.762***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38】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향후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 및 구직 경험 유무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III-73>),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적수준이 높아질수록 향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뚜렷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실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본 비율은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표 III-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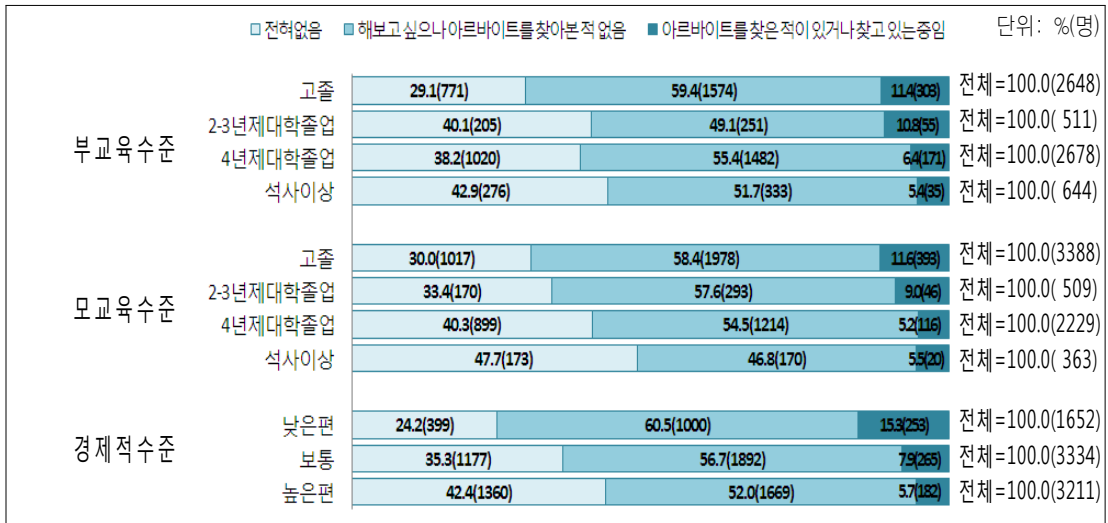
향후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 및 구직 경험 유무-사회경제적 배경 특성(1)

단위: %(명)

내용/구분	부교육수준				모교육수준				경제적수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이상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이상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전혀 없음	29.1(771)	40.1(205)	38.2(1020)	42.9(276)	30.0(1017)	33.4(170)	40.3(899)	47.7(173)	24.2(399)	35.3(1177)	42.4(1360)
해보고 싶으나 아르바이트를 찾아본 적 없음	59.4(1574)	49.1(251)	55.4(1482)	51.7(333)	58.4(1978)	57.6(293)	54.5(1214)	46.8(170)	60.5(1000)	56.7(1892)	52.0(1669)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은 적이 있거나 찾고 있는 중임	11.4(303)	10.8(55)	6.4(171)	5.4(35)	11.6(393)	9.0(46)	5.2(116)	5.5(20)	15.3(253)	7.9(265)	5.7(182)
전체	100.0(2648)	100.0(511)	100.0(2673)	100.0(644)	100.0(3388)	100.0(509)	100.0(2229)	100.0(363)	100.0(1652)	100.0(3334)	100.0(3211)
χ^2	110.483***				136.179***				238.066***		

* $p < .05$, ** $p < .01$, *** $p < .001$

특히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적수준은 향후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의사 유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석사이상'일 경우 향후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비율이 47.7%인데 비해 '고졸'인 경우 30.0%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며, 경제적수준이 '높은 편'인 경우 동일한 항목의 응답 비율이 42.4%인데 비해 경제적수준이 '낮은 편'인 경우 24.2%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의사 유무에 높은 연관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그림 III-39】참고).



【그림 III-39】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1)에 따른 향후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 및 구직 경험 유무

⑤ 희망하는 아르바이트 종류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없지만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카페 점원’이 21.8%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편의점 점원’(17.3%), ‘PC방 점원’(10.0%), ‘패스트푸드 점원’(7.3%)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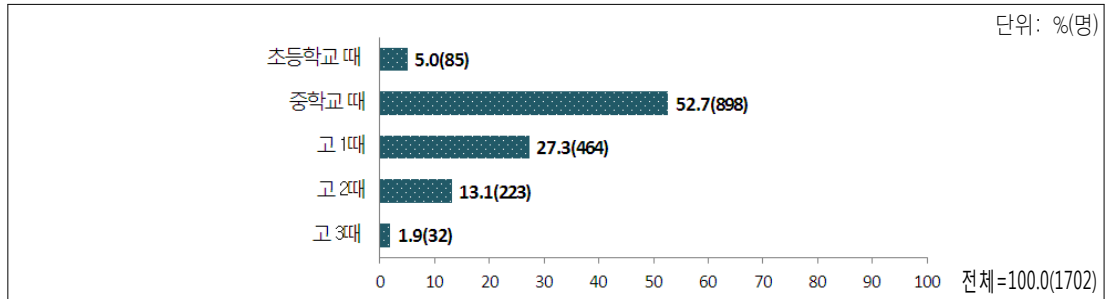
표 III-74 희망하는 아르바이트 종류

내용/구분	%	빈도
전단지돌리기(스티커 붙이기)	7.0	729
24시간 편의점 점원	17.3	1804
패스트푸드점(피자, 치킨) 점원	7.3	763
음식점 서빙	6.8	708
음식 오토바이 배달	.8	81
PC방 점원	10.0	1042
뷔페, 웨딩홀 안내/서빙	5.9	610
건설현장 노동	.6	62
택배 짐 나르기(이사짐 운반 포함)	.5	54
퀵서비스, 심부름 서비스	.4	37
카페 점원	21.8	2275
상품 판매(옷, 장신구 등)	3.7	386
놀이공원 도우미	6.7	696
주유소 주유원	1.1	112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1.8	189
사무업무 보조	4.5	470
공장에서 노동	.4	39
노래방 점원	1.2	125
(노래방을 제외한) 유흥업소 직원	.2	22
기타	2.1	214
전 체	100.0	(10418)

⑥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중학교 때’ 시작했다는 응답 비율이 52.7%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다는 응답이 27.3%를 차지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그림 III-40】).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응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는데 한계가 있다.



【그림 III-40】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

고등학생의 응답을 살펴보면 학년이 낮을수록 중학교 때 시작했다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설문조사가 1학기 말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비율을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 간 엄밀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비교했을 때 2학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시기가 더 빠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75

학년에 따른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

단위: %(명)

아르바이트 시작	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때		1.5(25)	1.2(19)	.9(16)	.5(8)	.5(8)	.5(8)
중학교 때		1.8(29)	4.6(75)	9.7(166)	14.9(258)	11.2(194)	10.4(177)
고 1때		-	-	-	3.4(58)	12.8(221)	10.9(185)
고 2때		-	-	-	-	3.7(63)	9.4(160)
고 3때		-	-	-	-	-	1.9(32)
전체		100.0(1598)	100.0(1645)	100.0(1718)	100.0(1728)	100.0(1732)	100.0(1698)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이 고등학교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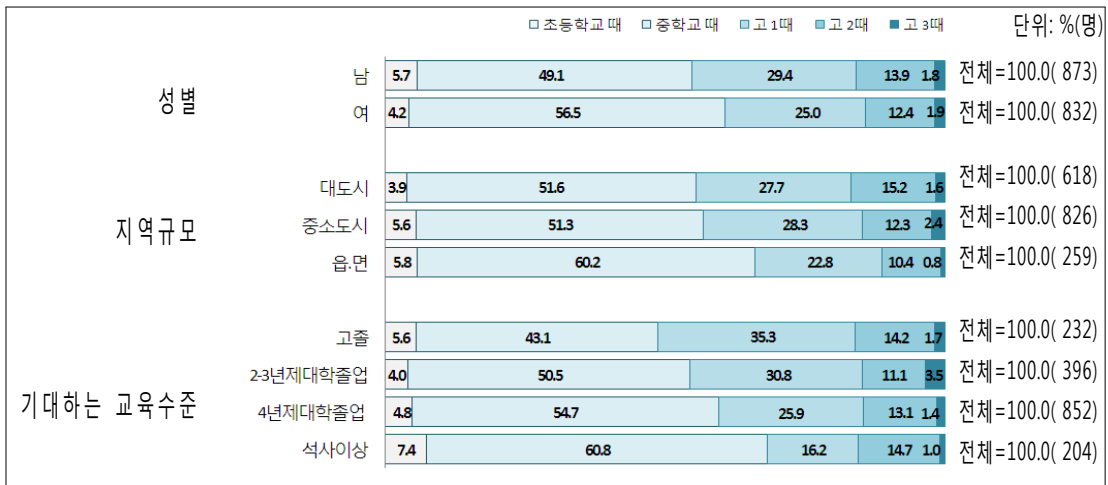
읍·면 지역 청소년의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 청소년에 비해 고등학교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표 III-76>).

표 III-76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 - 개인 및 지역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이상
초등학교 때	5.7(50)	4.2(35)	3.9(24)	5.6(46)	5.8(15)	5.6(13)	4.0(16)	4.8(41)	7.4(15)
중학교 때	49.1(429)	56.5(470)	51.6(319)	51.3(424)	60.2(156)	43.1(100)	50.5(200)	54.7(466)	60.8(124)
고 1때	29.4(257)	25.0(208)	27.7(171)	28.3(234)	22.8(59)	35.3(82)	30.8(122)	25.9(221)	16.2(33)
고 2때	13.9(121)	12.4(103)	15.2(94)	12.3(102)	10.4(27)	14.2(33)	11.1(44)	13.1(112)	14.7(30)
고 3때	1.8(16)	1.9(16)	1.6(10)	2.4(20)	.8(2)	1.7(4)	3.5(14)	1.4(12)	1.0(2)
전체	100.0(873)	100.0(832)	100.0(618)	100.0(826)	100.0(259)	100.0(232)	100.0(396)	100.0(852)	100.0(204)
χ^2	10.147*		14.986			37.334***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7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대하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비율은 낮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대하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III-41】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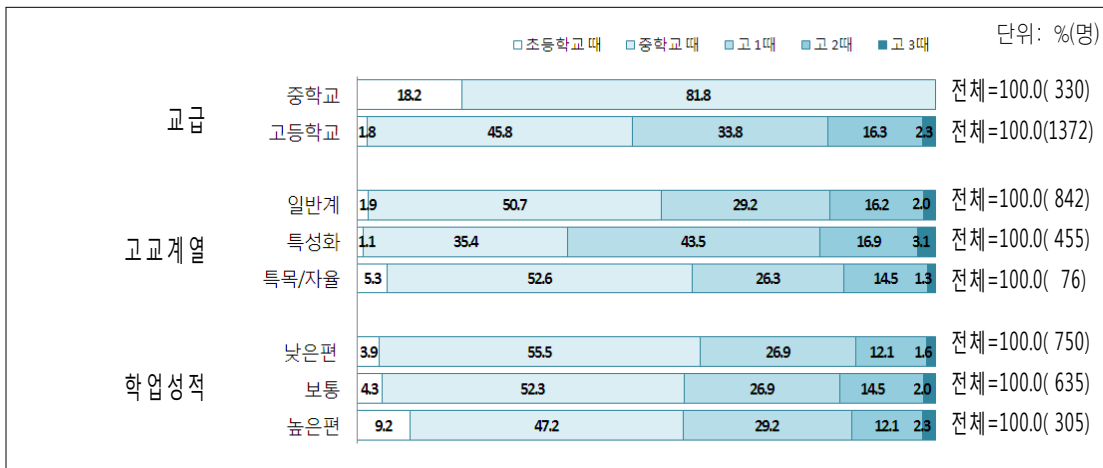
【그림 III-41】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에 대해 학교관련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비율이 급증한다는 점이다(<표 III-77>참고).

표 III-77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 - 학교관련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초등학교 때	18.2(60)	1.8(25)	1.9(16)	1.1(5)	5.3(4)	3.9(29)	4.3(27)	9.2(28)
중학교 때	81.8(270)	45.8(628)	50.7(427)	35.4(161)	52.6(40)	55.5(416)	52.3(332)	47.2(144)
고 1때	.0(0)	33.8(464)	29.2(246)	43.5(198)	26.3(20)	26.9(202)	26.9(171)	29.2(89)
고 2때	.0(0)	16.3(223)	16.2(136)	16.9(77)	14.5(11)	12.1(91)	14.5(92)	12.1(37)
고 3때	.0(0)	2.3(32)	2.0(17)	3.1(14)	1.3(1)	1.6(12)	2.0(13)	2.3(7)
전체	100.0(330)	100.0(1372)	100.0(842)	100.0(455)	100.0(76)	100.0(750)	100.0(635)	100.0(305)
χ^2	381.006***		43.540***			19.052*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42】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

기대하는 교육수준과 유사하게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해보면,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III-78>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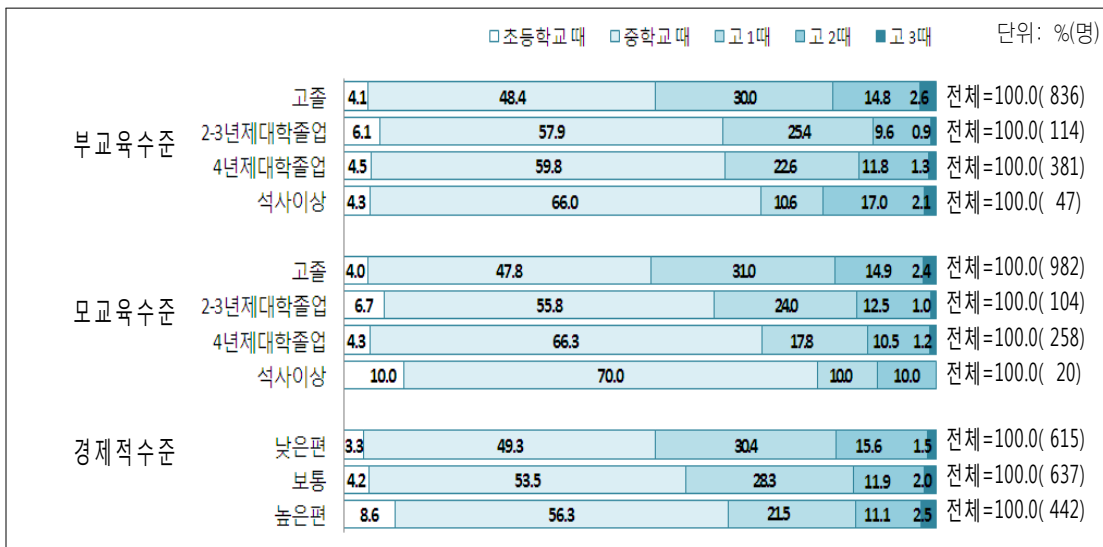
표 III-78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1)

단위: %(명)

내용/구분	부교육수준				모교육수준				경제적수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이상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이상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초등학교 때	4.1(34)	6.1(7)	4.5(17)	4.3(2)	4.0(39)	6.7(7)	4.3(11)	10.0(2)	3.3(20)	4.2(27)	8.6(38)
중학교 때	48.4(405)	57.9(66)	59.8(228)	66.0(31)	47.8(469)	55.8(58)	66.3(171)	70.0(14)	49.3(303)	53.5(341)	56.3(249)
고 1때	30.0(251)	25.4(29)	22.6(86)	10.6(5)	31.0(304)	24.0(25)	17.8(46)	10.0(2)	30.4(187)	28.3(180)	21.5(95)
고 2때	14.8(124)	9.6(11)	11.8(45)	17.0(8)	14.9(146)	12.5(13)	10.5(27)	10.0(2)	15.6(96)	11.9(76)	11.1(49)
고 3때	2.6(22)	.9(1)	1.3(5)	2.1(1)	2.4(24)	1.0(1)	1.2(3)	.0(0)	1.5(9)	2.0(13)	2.5(11)
전체	100.0(836)	100.0(114)	100.0(381)	100.0(47)	100.0(982)	100.0(104)	100.0(258)	100.0(20)	100.0(615)	100.0(637)	100.0(442)
χ^2	26.625**				39.746***				32.739***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43】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1)에 따른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

⑦ 지금까지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전단지돌리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29.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음식점 서빙'(20.5%), '취폐, 웨딩홀 안내 및 서빙'(10.4%)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79>).

표 III-79 지금까지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내용/구분		% (명)	내용/구분		% (명)
1순위	전단지돌리기(스티커 붙이기)	29.8(1019)	11순위	공장에서 노동	1.9(65)
2순위	음식점 서빙	20.5(700)	12순위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1.6(56)
3순위	뷔페, 웨딩홀 안내/서빙	10.4(356)	13순위	주유소 주유원	1.6(55)
4순위	24시간 편의점 점원	6.2(211)	13순위	사무업무 보조	1.6(55)
5순위	기타	6.1(209)	15순위	카페 점원	1.5(53)
6순위	패스트푸드점(피자, 치킨) 점원	5.9(202)	16순위	건설현장 노동	1.5(50)
7순위	상품 판매(옷, 장신구 등)	2.5(87)	17순위	놀이공원 도우미	.5(18)
8순위	음식 오토바이 배달	2.5(85)	18순위	노래방 점원	.5(17)
9순위	PC방 점원	2.4(83)	19순위	퀵서비스, 심부름 서비스	.5(16)
10순위	택배 집 나르기(이사짐 운반 포함)	2.3(79)	20순위	(노래방을 제외한) 유흥업소 직원	.1(4)

※ 주: 다중응답으로 처리하여 N값이 일치하지 않음(N=3420)

⑧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사용처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친구들과 노는데 사용한다’는 응답이 2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옷, 지갑, 가방, 신발 등을 구입한다’는 응답이 20.5%,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다’는 응답과 ‘외식비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10.4%, 10.3%로 나타났다. ‘집 생활비에 보탬다’는 응답은 5.4%, ‘학비 납부와 학원비’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1.1%와 1.0%로 나타났고, ‘저축을 한다’는 응답은 2.6%로 나타났다(<표 III-80>).

표 III-80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사용처

내용/구분	% (명)	내용/구분	% (명)
집 생활비에 보탬(부모님께 드림)	5.4(269)	교통비	5.1(254)
수업료, 교재비 등 학비 납부	1.1(54)	핸드폰 요금	1.2(58)
학원비	1.0(51)	핸드폰 구입	.2(9)
대학등록금 등 저축	2.6(130)	mp3, 닌텐도 등 전자제품 구입	.6(28)
옷, 지갑, 가방, 신발 등 구입	20.5(1014)	여행비	1.0(49)
장신구, 화장품 구입	4.3(213)	인터넷 요금	.2(9)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	10.4(513)	책값	1.0(48)
외식비(간식, 식사 등)	10.3(511)	게임머니구입	2.5(123)
친구들과 노는 돈 (노래방, 카페, PC방 이용 등)	24.6(1215)	기타	1.5(76)
선물(가족, 친구 생일이나 기념일)	6.5(320)	전체	100.0(4944)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사용처를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표 III-81>), '집 생활비에 보탠다'는 비율은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에게서 확연히 높게 나타났고, 교육포부가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학비나 학원비'에 사용한다는 비율은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높아졌다.

표 III-81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사용처 - 개인 및 지역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이상
집 생활비에 보탠다 (부모님께 드림)	1순위	9.6(84)	5.3(44)	8.1(50)	7.4(61)	6.5(17)	12.8(29)	9.3(37)	5.4(46)	6.3(13)
	2순위	3.3(28)	3.7(30)	3.8(23)	3.3(26)	4.0(10)	4.9(11)	3.3(13)	3.4(28)	3.6(7)
	3순위	6.5(52)	3.8(30)	5.6(33)	5.1(39)	4.1(10)	8.6(19)	5.8(22)	4.0(31)	4.8(9)
	1+2+3	19.4(164)	12.0(104)	17.0(106)	15.0(126)	14.0(37)	26.0(59)	18.4(72)	12.8(105)	14.7(29)
수업료, 교재비 등 학비 납부	1순위	1.0(9)	1.1(9)	1.5(9)	1.0(8)	.4(1)	.9(2)	.3(1)	.6(5)	4.4(9)
	2순위	2.5(21)	.7(6)	2.3(14)	1.0(8)	1.6(4)	.4(1)	1.3(5)	1.5(12)	4.1(8)
	3순위	.0(0)	1.3(10)	.9(5)	.3(2)	1.2(3)	.0(0)	.8(3)	.9(7)	.0(0)
	1+2+3	3.5(30)	3.0(25)	4.7(28)	2.0(18)	3.2(8)	1.3(3)	2.4(9)	3.0(24)	8.5(17)
학원비	1순위	1.7(15)	1.0(8)	1.8(11)	1.0(8)	1.5(4)	.4(1)	1.5(6)	1.3(11)	.5(1)
	2순위	.7(6)	.2(2)	.7(4)	.4(3)	.8(2)	.9(2)	.3(1)	.6(5)	.5(1)
	3순위	2.0(16)	.5(4)	2.7(16)	.3(2)	.8(2)	.0(0)	.5(2)	1.4(11)	3.2(6)
	1+2+3	4.4(37)	1.7(14)	5.2(31)	1.7(13)	3.1(8)	1.3(3)	2.3(9)	3.3(27)	4.2(8)
대학등록금 등 저축	1순위	3.3(29)	3.9(32)	2.8(17)	3.6(30)	5.4(14)	4.0(9)	2.0(8)	3.9(33)	5.4(11)
	2순위	2.2(19)	1.9(15)	2.6(16)	1.5(12)	2.4(6)	.9(2)	3.1(12)	1.9(16)	1.0(2)
	3순위	2.9(23)	1.5(12)	1.9(11)	2.1(16)	3.3(8)	4.1(9)	1.3(5)	1.8(14)	3.7(7)
	1+2+3	8.4(71)	7.3(59)	7.3(44)	7.2(58)	11.1(28)	9.0(20)	6.4(25)	7.6(63)	10.1(20)
옷, 지갑, 가방, 신발 등 구입	1순위	24.8(218)	33.5(278)	29.5(182)	27.7(229)	32.7(85)	27.3(62)	33.2(132)	28.5(244)	25.9(53)
	2순위	19.1(162)	17.9(144)	17.0(103)	18.6(148)	22.2(56)	26.3(59)	16.7(65)	17.8(147)	16.3(32)
	3순위	10.6(85)	16.2(127)	13.5(79)	13.9(106)	11.2(27)	10.4(23)	12.2(46)	14.4(113)	15.0(28)
	1+2+3	54.5(465)	67.6(549)	60.0(364)	60.2(483)	66.1(168)	64.0(144)	62.1(243)	60.7(504)	57.2(113)
장신구, 화장품 구입	1순위	.0(0)	3.0(25)	1.0(6)	1.4(12)	2.7(7)	2.2(5)	1.0(4)	1.5(13)	1.5(3)
	2순위	.5(4)	11.0(89)	6.4(39)	5.3(42)	4.8(12)	4.9(11)	6.7(26)	5.7(47)	4.6(9)
	3순위	1.1(9)	11.0(86)	5.1(30)	5.7(43)	9.1(22)	5.0(11)	4.5(17)	7.7(60)	3.7(7)
	1+2+3	1.6(13)	25.0(200)	12.5(75)	12.4(97)	16.6(41)	12.1(27)	12.2(47)	14.9(120)	9.8(19)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	1순위	5.5(48)	4.6(38)	4.9(30)	5.2(43)	5.4(14)	3.1(7)	4.3(17)	4.8(41)	10.2(21)
	2순위	14.7(125)	12.2(98)	13.9(84)	13.4(106)	12.7(32)	10.3(23)	13.1(51)	14.6(120)	12.2(24)
	3순위	13.5(108)	12.1(95)	10.7(63)	15.0(114)	11.2(27)	10.4(23)	11.4(43)	13.8(108)	15.0(28)
	1+2+3	33.7(281)	28.9(231)	29.5(177)	33.6(263)	29.3(73)	23.8(53)	28.8(111)	33.2(269)	37.4(73)
외식비 (간식, 식사 등)	1순위	6.6(58)	11.6(96)	9.4(58)	10.1(84)	4.6(12)	6.6(15)	9.1(36)	10.6(91)	6.3(13)
	2순위	12.5(106)	11.7(94)	13.9(84)	9.8(78)	14.7(37)	11.6(26)	13.4(52)	10.9(90)	15.8(31)
	3순위	9.9(79)	10.1(79)	9.4(55)	10.0(76)	10.8(26)	10.8(24)	8.5(32)	10.1(79)	10.7(20)
	1+2+3	29.0(243)	33.4(269)	32.7(197)	29.9(238)	30.1(75)	29.0(65)	31.0(120)	31.6(260)	32.8(64)
친구들과 노는 돈	1순위	35.8(313)	27.2(226)	29.8(184)	34.1(282)	28.1(73)	32.6(74)	29.2(116)	33.3(285)	29.3(60)
	2순위	23.8(202)	23.8(192)	22.0(133)	26.1(207)	21.4(54)	25.0(56)	24.4(95)	24.3(200)	19.9(39)
	3순위	16.6(133)	19.0(149)	16.9(99)	17.1(130)	22.0(53)	18.0(40)	20.1(76)	18.5(145)	10.7(20)
	1+2+3	76.2(648)	70.0(567)	68.7(416)	77.3(619)	71.5(180)	75.6(170)	73.7(287)	76.1(630)	59.9(119)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이상
선물 (가족, 친구 생일이나 기념일)	1순위	1.4(12)	3.1(26)	1.6(10)	2.2(18)	3.5(9)	1.3(3)	2.0(8)	2.5(21)	2.4(5)
	2순위	4.7(40)	8.6(69)	6.8(41)	7.2(57)	4.0(10)	4.0(9)	5.9(23)	6.9(57)	9.2(18)
	3순위	8.9(71)	13.0(102)	10.7(63)	11.8(90)	8.7(21)	10.8(24)	12.7(48)	10.3(81)	10.2(19)
	1+2+3	15.0(123)	24.7(197)	19.1(114)	21.2(165)	16.2(40)	16.1(36)	20.6(79)	19.7(159)	21.8(42)
교통비	1순위	2.1(18)	2.3(19)	1.9(12)	2.1(17)	3.1(8)	3.5(8)	3.0(12)	1.6(14)	1.0(2)
	2순위	6.2(53)	4.3(35)	5.8(35)	5.4(43)	3.6(9)	5.8(13)	5.4(21)	5.6(46)	2.6(5)
	3순위	10.0(80)	6.4(50)	9.4(55)	8.0(61)	5.8(14)	13.1(29)	10.3(39)	6.3(49)	6.4(12)
	1+2+3	18.3(151)	13.0(104)	17.1(102)	15.5(121)	12.5(31)	22.4(50)	18.7(72)	13.5(109)	10.0(19)
핸드폰 요금	1순위	1.1(10)	.7(6)	1.6(10)	.8(7)	.0(0)	2.6(6)	1.0(4)	.4(3)	1.0(2)
	2순위	1.2(10)	.7(6)	.7(4)	1.1(9)	.8(2)	2.7(6)	1.5(6)	.5(4)	.0(0)
	3순위	2.5(20)	.6(5)	2.7(16)	.8(6)	1.2(3)	2.3(5)	2.4(9)	1.3(10)	.5(1)
	1+2+3	4.8(40)	2.0(17)	5.0(30)	2.7(22)	2.0(5)	7.6(17)	4.9(19)	2.2(17)	1.5(3)
핸드폰 구입	1순위	.5(4)	.0(0)	.3(2)	.0(0)	.8(2)	.0(0)	.3(1)	.5(4)	.0(0)
	2순위	.1(1)	.0(0)	.0(0)	.0(0)	.4(1)	.0(0)	.0(0)	.0(0)	.5(1)
	3순위	.2(2)	.1(1)	.2(1)	.0(0)	.8(2)	.0(0)	.3(1)	.3(2)	.0(0)
	1+2+3	.8(7)	.1(1)	.5(3)	.0(0)	2.0(5)	.0(0)	.6(2)	.8(6)	.5(1)
mp3, 닌텐도 등 전자제품 구입	1순위	.3(3)	.2(2)	.3(2)	.4(3)	.0(0)	.0(0)	.5(2)	.4(3)	.0(0)
	2순위	.8(7)	.1(1)	.2(1)	.4(3)	1.6(4)	.0(0)	.3(1)	.4(3)	2.0(4)
	3순위	1.7(14)	.1(1)	.9(5)	.8(6)	1.7(4)	.5(1)	1.1(4)	.3(2)	4.3(8)
	1+2+3	2.8(24)	.4(4)	1.4(8)	1.6(12)	3.3(8)	.5(1)	1.9(7)	.7(8)	6.3(12)
여행비	1순위	.8(7)	.5(4)	.8(5)	.4(3)	1.2(3)	.0(0)	.8(3)	.8(7)	.5(1)
	2순위	1.2(10)	.5(4)	.8(5)	.8(6)	1.2(3)	.4(1)	.8(3)	1.0(8)	.5(1)
	3순위	2.2(18)	.9(7)	2.4(14)	1.4(11)	.4(1)	1.4(3)	1.9(7)	1.1(9)	3.2(6)
	1+2+3	4.2(35)	1.9(15)	4.0(24)	2.6(20)	2.8(7)	1.8(4)	3.5(13)	2.9(24)	4.2(8)
인터넷 요금	1순위	.2(2)	.0(0)	.2(1)	.0(0)	.4(1)	.0(0)	.3(1)	.1(1)	.0(0)
	2순위	.5(4)	.0(0)	.0(0)	.5(4)	.0(0)	.4(1)	.3(1)	.2(2)	.0(0)
	3순위	.2(2)	.1(1)	.2(1)	.3(2)	.0(0)	.5(1)	.0(0)	.3(2)	.0(0)
	1+2+3	.9(8)	.1(1)	.4(2)	.8(6)	.4(1)	.9(2)	.6(2)	.6(5)	.0(0)
책값	1순위	1.0(9)	.2(2)	.8(5)	.6(5)	.4(1)	.4(1)	.0(0)	.8(7)	1.5(3)
	2순위	.7(6)	1.1(9)	.8(5)	.9(7)	1.2(3)	.0(0)	.8(3)	.7(6)	3.1(6)
	3순위	1.2(10)	1.7(13)	1.5(9)	1.4(11)	1.2(3)	.0(0)	.3(1)	1.9(15)	3.7(7)
	1+2+3	2.9(25)	3.0(24)	3.1(19)	2.9(23)	2.8(7)	.4(1)	1.1(4)	3.4(28)	8.3(16)
게임머니 구입	1순위	1.7(15)	.1(1)	1.0(6)	1.1(9)	.4(1)	.4(1)	1.0(4)	.9(8)	1.0(2)
	2순위	4.8(41)	.1(1)	1.7(10)	3.3(26)	2.4(6)	1.3(3)	1.3(5)	2.9(24)	4.1(8)
	3순위	7.7(62)	.4(3)	3.4(20)	4.5(34)	5.0(12)	3.2(7)	4.8(18)	4.1(32)	2.1(4)
	1+2+3	14.2(118)	.6(5)	6.1(36)	8.9(69)	7.8(19)	4.9(11)	7.1(27)	7.9(64)	7.2(14)
기타	1순위	2.3(20)	1.8(15)	2.8(17)	1.1(9)	3.1(8)	1.8(4)	1.3(5)	2.2(19)	2.9(6)
	2순위	.5(4)	1.4(11)	.7(4)	1.1(9)	.4(1)	.0(0)	1.5(6)	1.1(9)	.0(0)
	3순위	2.2(18)	1.1(9)	2.0(12)	1.6(12)	1.2(3)	1.4(3)	1.3(5)	1.7(13)	2.7(5)
	1+2+3	5.0(42)	4.3(35)	5.5(33)	3.8(30)	4.7(12)	3.2(7)	4.1(11)	5.0(41)	5.6(11)
전 체	300.0(2525)	300.0(2421)	300.0(1809)	300.0(2383)	300.0(753)	300.0(673)	300.0(1159)	300.0(2463)	300.0(588)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사용처를 학교관련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표 III-82>), '집 생활비에 보탠다'는 비율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의 경제적수준과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수업료나 교재비 등 학비'에 사용한다는 비율은 일반계 고등학생에게서 가장 높았으나 '학원비'에 사용한다는 응답은 특목고 학생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82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사용처 - 학교관련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집 생활비에 보탬 (부모님께 드림)	1순위	7.8(26)	7.4(102)	5.4(45)	11.2(51)	8.0(6)	7.2(54)	7.7(49)	8.5(26)
	2순위	1.3(4)	4.1(55)	3.6(29)	5.3(24)	1.4(1)	2.9(21)	3.6(22)	5.4(16)
	3순위	2.0(6)	6.0(77)	4.6(36)	7.9(35)	7.5(5)	4.7(33)	6.3(37)	4.3(12)
	1+2+3	11.1(36)	17.5(234)	13.6(110)	24.4(110)	16.9(12)	14.8(108)	17.6(108)	18.2(54)
수업료, 교재비 등 학비 납부	1순위	.9(3)	1.0(14)	1.3(11)	.7(3)	.0(0)	.7(5)	.3(2)	3.3(10)
	2순위	1.9(6)	1.6(22)	1.6(13)	2.0(9)	.0(0)	1.0(7)	1.6(10)	3.4(10)
	3순위	.3(1)	.7(9)	.9(7)	.5(2)	.0(0)	.6(4)	.7(4)	.4(1)
	1+2+3	3.1(10)	3.3(45)	3.8(31)	3.2(14)	.0(0)	2.3(16)	2.6(16)	7.1(21)
학원비	1순위	.6(2)	1.5(21)	1.1(9)	2.6(12)	.0(0)	1.2(9)	.5(3)	3.3(10)
	2순위	.6(2)	.4(6)	.4(3)	.2(1)	2.8(2)	.7(5)	.2(1)	.7(2)
	3순위	.7(2)	1.3(17)	1.3(10)	.9(4)	6.0(4)	1.7(12)	.7(4)	1.4(4)
	1+2+3	1.9(6)	3.2(44)	2.8(22)	3.7(17)	8.8(6)	3.6(26)	1.4(8)	5.4(16)
대학등록금 등 저축	1순위	2.4(8)	3.9(54)	4.1(34)	3.1(14)	8.0(6)	2.0(15)	5.0(32)	4.6(14)
	2순위	2.2(7)	2.0(27)	2.2(18)	2.0(9)	.0(0)	1.8(13)	2.1(13)	2.7(8)
	3순위	2.6(8)	2.1(27)	2.6(20)	1.6(7)	.0(0)	2.3(16)	1.7(10)	3.2(9)
	1+2+3	7.2(23)	8(108)	8.9(72)	6.7(30)	8.0(6)	6.1(44)	8.8(55)	10.5(31)
옷, 지갑, 가방, 신발 등 구입	1순위	25.2(84)	30.0(412)	28.6(240)	32.5(148)	30.7(23)	30.1(226)	27.4(174)	30.0(92)
	2순위	18.2(58)	18.6(248)	17.4(141)	21.2(96)	15.5(11)	21.4(157)	16.8(103)	15.4(46)
	3순위	12.5(38)	13.6(174)	14.3(111)	12.0(53)	14.9(10)	11.6(82)	15.7(92)	12.8(36)
	1+2+3	55.9(180)	62.2(834)	60.3(492)	65.7(297)	61.1(44)	63.1(465)	59.9(369)	58.2(174)
장신구, 화장품 구입	1순위	3.0(10)	1.1(15)	1.0(8)	1.1(5)	2.7(2)	2.4(18)	.6(4)	1.0(3)
	2순위	9.1(29)	4.8(64)	4.8(39)	5.1(23)	4.2(3)	7.0(51)	4.7(29)	4.4(13)
	3순위	8.9(27)	5.3(68)	6.0(47)	4.3(19)	3.0(2)	5.5(39)	7.3(43)	4.3(12)
	1+2+3	21.0(66)	11.2(147)	11.8(94)	10.5(47)	9.9(7)	14.9(108)	12.6(76)	9.7(28)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	1순위	3.0(10)	5.6(77)	5.3(44)	5.0(23)	12.0(9)	5.2(39)	5.7(36)	3.9(12)
	2순위	11.3(36)	14.0(187)	14.4(117)	12.8(58)	16.9(12)	12.3(90)	14.0(86)	14.4(43)
	3순위	16.1(49)	12.0(154)	13.8(107)	9.1(40)	11.9(8)	12.7(90)	11.3(66)	16.3(46)
	1+2+3	30.4(95)	33.7(418)	33.5(268)	26.9(121)	40.8(29)	30.2(219)	31.0(188)	34.6(101)
외식비 (간식, 식사 등)	1순위	8.7(29)	9.1(125)	10.9(91)	6.4(29)	5.3(4)	7.6(57)	10.4(66)	10.1(31)
	2순위	9.7(31)	12.7(169)	12.6(102)	11.3(51)	23.9(17)	12.3(90)	12.2(75)	11.7(35)
	3순위	8.9(27)	10.1(130)	10.9(85)	9.3(41)	6.0(4)	12.3(87)	7.2(42)	9.9(28)
	1+2+3	27.3(87)	31.9(424)	34.4(278)	27.0(121)	35.2(25)	32.2(234)	29.8(183)	31.7(94)
친구들과 노는 돈 (노래방, 카페, PC방 이용 등)	1순위	37.5(125)	30.2(414)	32.6(273)	27.2(124)	24.0(18)	35.1(264)	29.6(188)	27.0(83)
	2순위	23.9(76)	23.8(318)	25.9(210)	21.9(99)	12.7(9)	22.5(165)	25.1(154)	24.2(72)
	3순위	15.7(48)	18.2(234)	15.9(124)	21.3(94)	25.4(17)	18.2(129)	17.9(105)	16.3(46)
	1+2+3	77.1(249)	72.2(966)	74.4(607)	70.4(317)	62.1(44)	75.8(558)	72.6(447)	67.5(201)
선물 (가족, 친구 생일이나 기념일)	1순위	1.8(6)	2.3(31)	2.6(22)	1.8(8)	1.3(1)	1.6(12)	3.1(20)	2.0(6)
	2순위	7.5(24)	6.3(84)	5.8(47)	5.7(26)	15.5(11)	6.4(47)	6.7(41)	6.4(19)
	3순위	10.2(31)	11.1(143)	12.5(97)	9.1(40)	9.0(6)	11.3(80)	11.9(70)	7.8(22)
	1+2+3	19.5(61)	19.7(258)	20.9(166)	16.6(74)	25.8(18)	19.3(139)	21.7(131)	16.2(47)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교통비	1순위	1.2(4)	2.4(33)	1.7(14)	3.7(17)	1.3(1)	1.6(12)	3.3(21)	1.3(4)
	2순위	5.7(18)	5.2(70)	4.7(38)	6.6(30)	1.4(1)	4.6(34)	6.5(40)	4.4(13)
	3순위	7.2(22)	8.4(108)	5.9(46)	13.6(60)	3.0(2)	9.0(64)	6.7(39)	9.9(28)
	1+2+3	14.1(44)	16.0(211)	12.3(98)	23.9(107)	5.7(4)	15.2(110)	16.5(100)	15.6(45)
핸드폰 요금	1순위	.0(0)	1.2(17)	.6(5)	2.4(11)	.0(0)	.8(6)	.9(6)	1.0(3)
	2순위	.3(1)	1.1(15)	.5(4)	2.4(11)	.0(0)	1.5(11)	.8(5)	.0(0)
	3순위	1.6(5)	1.6(21)	.6(5)	3.6(16)	.0(0)	1.1(8)	1.5(9)	2.8(8)
	1+2+3	1.9(6)	3.9(53)	1.7(14)	8.4(38)	.0(0)	3.4(25)	3.2(20)	3.8(11)
핸드폰 구입	1순위	.3(1)	.3(4)	.5(4)	.0(0)	.0(0)	.5(4)	.0(0)	.0(0)
	2순위	.0(0)	.1(1)	.1(1)	.0(0)	.0(0)	.0(0)	.0(0)	.3(1)
	3순위	.3(1)	.2(2)	.3(2)	.0(0)	.0(0)	.1(1)	.3(2)	.0(0)
	1+2+3	.6(2)	.6(7)	.9(7)	.0(0)	.0(0)	.6(5)	.3(2)	.3(1)
mp3, 닌텐도 등 전자제품 구입	1순위	.0(0)	.4(5)	.6(5)	.0(0)	.0(0)	.1(1)	.6(4)	.0(0)
	2순위	.3(1)	.4(6)	.6(5)	.2(1)	.0(0)	.3(2)	.3(2)	1.0(3)
	3순위	1.0(3)	.9(12)	.9(7)	.7(3)	3.0(2)	.7(5)	1.0(6)	1.8(5)
	1+2+3	1.3(4)	1.7(23)	2.1(17)	0.9(4)	3(2)	1.1(8)	1.9(12)	2.8(8)
여행비	1순위	.6(2)	.7(9)	.6(5)	.9(4)	.0(0)	.8(6)	.6(4)	.3(1)
	2순위	.3(1)	1.0(13)	1.1(9)	.7(3)	.0(0)	.8(6)	.5(3)	1.3(4)
	3순위	1.6(5)	1.6(21)	1.9(15)	1.1(5)	1.5(1)	1.4(10)	1.2(7)	2.5(7)
	1+2+3	2.5(8)	3.3(43)	3.6(29)	2.7(12)	1.5(1)	3.0(22)	2.3(14)	4.1(12)
인터넷 요금	1순위	.3(1)	.1(1)	.1(1)	.0(0)	.0(0)	.0(0)	.3(2)	.0(0)
	2순위	.3(1)	.2(3)	.2(2)	.2(1)	.0(0)	.3(2)	.2(1)	.3(1)
	3순위	.7(2)	.1(1)	.0(0)	.2(1)	.0(0)	.3(2)	.2(1)	.0(0)
	1+2+3	1.3(4)	.4(5)	.3(3)	.4(2)	.0(0)	.6(4)	.7(4)	.3(1)
책값	1순위	.6(2)	.7(9)	.6(5)	.7(3)	1.3(1)	.3(2)	.8(5)	1.0(3)
	2순위	.9(3)	.8(11)	.9(7)	.4(2)	2.8(2)	.7(5)	.7(4)	1.7(5)
	3순위	.3(1)	1.7(22)	2.6(20)	.2(1)	1.5(1)	1.0(7)	2.0(12)	1.4(4)
	1+2+3	1.8(6)	3.2(42)	4.1(32)	1.3(6)	5.6(4)	2(14)	3.5(21)	4.1(12)
게임머니 구입	1순위	2.1(7)	.6(8)	.8(7)	.2(1)	.0(0)	.8(6)	1.1(7)	.7(2)
	2순위	5.0(16)	1.9(26)	2.3(19)	1.1(5)	2.8(2)	2.5(18)	2.9(18)	2.0(6)
	3순위	7.9(24)	3.2(41)	3.3(26)	2.9(13)	4.5(3)	4.1(29)	3.9(23)	3.9(11)
	1+2+3	15(47)	5.7(75)	6.4(52)	4.2(19)	7.3(5)	7.4(53)	7.9(48)	6.6(19)
기타	1순위	3.9(13)	1.6(22)	1.8(15)	.7(3)	5.3(4)	2.1(16)	1.9(12)	2.3(7)
	2순위	1.3(4)	.7(10)	.7(6)	.9(4)	.0(0)	1.1(8)	1.0(6)	.3(1)
	3순위	1.6(5)	1.7(22)	1.7(13)	1.6(7)	3.0(2)	1.4(10)	2.4(14)	1.1(3)
	1+2+3	6.8(22)	4.0(54)	4.2(34)	3.2(14)	8.3(6)	4.6(34)	5.3(32)	3.7(11)
전	체	300.0(956)	300.0(3991)	300.0(2426)	300.0(1350)	300.0(213)	300.0(2192)	300.0(1834)	300.0(887)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사용처를 부모교육수준과 경제적수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III-83>과 같다. '집 생활비에 보탬'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가정의 경제적수준과 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고,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다는 비율은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내용/구분		부교육수준				모교육수준				경제적수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이상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이상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집 생활비에 보탬 (부모님께 드림)	1순위	7.2(60)	8.8(10)	5.5(21)	6.3(3)	7.3(72)	4.8(5)	4.3(11)	25.0(5)	10.4(64)	6.4(41)	5.2(23)
	2순위	3.9(32)	1.8(2)	2.4(9)	4.5(2)	3.8(36)	2.0(2)	2.8(7)	5.0(1)	4.0(24)	3.2(20)	3.5(15)
	3순위	4.7(37)	8.4(9)	5.2(18)	.0(0)	5.5(51)	3.1(3)	5.9(14)	.0(0)	6.3(36)	4.9(29)	4.1(17)
	1+2+3	15.8(129)	19.0(21)	13.1(48)	10.8(5)	16.6(159)	9.9(10)	13.0(32)	30.0(6)	20.7(124)	14.5(90)	12.8(55)
수업료, 교재비 등 학비 납부	1순위	.8(7)	.9(1)	.5(2)	2.1(1)	.8(8)	1.0(1)	1.2(3)	.0(0)	1.0(6)	.6(4)	1.6(7)
	2순위	1.2(10)	.0(0)	1.4(5)	2.3(1)	.8(8)	.0(0)	2.0(5)	10.0(2)	2.0(12)	1.0(6)	2.1(9)
	3순위	.5(4)	.9(1)	.9(3)	.0(0)	.5(5)	2.0(2)	.4(1)	.0(0)	1.6(9)	.2(1)	.0(0)
	1+2+3	2.5(21)	1.8(2)	2.8(10)	4.4(2)	2.1(21)	3.0(3)	3.6(9)	10.0(2)	4.6(27)	1.8(11)	3.7(16)
학원비	1순위	1.4(12)	.9(1)	1.6(6)	.0(0)	1.1(11)	2.9(3)	1.2(3)	.0(0)	1.0(6)	1.3(8)	1.8(8)
	2순위	.2(2)	1.8(2)	.8(3)	.0(0)	.5(5)	1.0(1)	.4(1)	.0(0)	.3(2)	.3(2)	.9(4)
	3순위	.5(4)	.0(0)	2.0(7)	4.8(2)	.7(6)	.0(0)	3.0(7)	5.3(1)	1.1(6)	1.3(8)	1.2(5)
	1+2+3	2.1(18)	2.7(3)	4.4(16)	4.8(2)	2.3(22)	3.9(4)	4.6(11)	5.3(1)	2.4(14)	2.9(18)	3.9(17)
대학등록금 등 저축	1순위	2.9(24)	7.1(8)	3.4(13)	6.3(3)	3.1(30)	5.7(6)	3.5(9)	.0(0)	4.1(25)	2.8(18)	4.1(18)
	2순위	1.8(15)	2.7(3)	2.4(9)	2.3(1)	2.2(21)	4.9(5)	2.4(6)	.0(0)	2.5(15)	1.6(10)	2.1(9)
	3순위	2.7(21)	.9(1)	1.7(6)	.0(0)	2.5(23)	.0(0)	.4(1)	.0(0)	1.8(10)	1.7(10)	3.4(14)
	1+2+3	7.4(60)	10.7(12)	7.5(28)	8.6(4)	7.8(74)	10.6(11)	6.3(16)	.0(0)	8.4(50)	6.1(38)	9.6(41)
옷, 지갑, 가방, 신발 등 구입	1순위	29.8(248)	29.2(33)	30.0(114)	35.4(17)	29.7(291)	23.8(25)	31.9(82)	40.0(8)	24.2(149)	31.8(203)	32.0(141)
	2순위	20.5(167)	18.9(21)	16.0(59)	18.2(8)	18.3(175)	23.5(24)	15.7(39)	25.0(5)	16.9(101)	23.1(142)	14.6(63)
	3순위	13.8(108)	15.0(16)	11.7(41)	11.9(5)	14.9(137)	11.2(11)	10.5(25)	5.3(1)	14.6(83)	13.0(77)	12.4(51)
	1+2+3	64.1(523)	63.1(70)	57.7(214)	65.5(30)	62.9(603)	58.5(60)	58.1(146)	70.3(14)	55.7(333)	67.9(422)	59(255)
장신구, 화장품 구입	1순위	1.4(12)	.9(1)	1.8(7)	.0(0)	1.5(15)	1.0(1)	1.2(3)	.0(0)	2.0(12)	1.3(8)	1.1(5)
	2순위	5.8(47)	9.9(11)	5.1(19)	2.3(1)	5.0(48)	8.8(9)	7.6(19)	.0(0)	5.2(31)	5.5(34)	6.3(27)
	3순위	6.8(53)	3.7(4)	6.6(23)	4.8(2)	6.5(60)	6.1(6)	6.8(16)	5.3(1)	4.9(28)	6.4(38)	7.0(29)
	1+2+3	14(112)	14.5(16)	13.5(49)	7.1(3)	13(123)	15.9(16)	15.6(38)	5.3(1)	12.1(71)	13.2(80)	14.4(61)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	1순위	5.0(42)	6.2(7)	6.8(26)	.0(0)	5.9(58)	3.8(4)	5.1(13)	5.0(1)	5.0(31)	4.9(31)	5.7(25)
	2순위	12.0(98)	14.4(16)	16.5(61)	22.7(10)	12.9(123)	12.7(13)	15.7(39)	15.0(3)	11.2(67)	14.0(86)	15.3(66)
	3순위	13.2(103)	10.3(11)	14.9(52)	14.3(6)	12.5(115)	13.3(13)	14.8(35)	21.1(4)	10.0(57)	13.5(80)	15.8(65)
	1+2+3	30.2(243)	30.9(34)	38.2(139)	37(16)	31.3(296)	29.8(30)	35.6(87)	41.1(8)	26.2(155)	32.4(197)	36.8(156)
외식비 (간식, 식사 등)	1순위	9.1(76)	10.6(12)	9.7(37)	10.4(5)	9.6(94)	6.7(7)	9.7(25)	10.0(2)	8.5(52)	9.1(58)	10.0(44)
	2순위	11.1(90)	9.9(11)	9.5(35)	13.6(6)	12.5(119)	8.8(9)	10.4(26)	15.0(3)	13.6(81)	10.2(63)	13.0(56)
	3순위	10.2(80)	9.3(10)	11.5(40)	9.5(4)	9.7(89)	12.2(12)	9.3(22)	.0(0)	8.1(46)	12.6(75)	8.5(35)
	1+2+3	30.4(246)	29.8(33)	30.7(112)	33.5(15)	31.8(302)	27.7(28)	29.4(73)	25.0(5)	30.2(179)	31.9(196)	31.5(135)
친구들과 노는 돈 (노래방, 카페, PC방 이용 등)	1순위	31.3(260)	27.4(31)	31.6(120)	31.3(15)	30.9(303)	36.2(38)	32.3(83)	15.0(3)	31.5(194)	33.1(211)	29.3(129)
	2순위	25.3(206)	23.4(26)	25.5(94)	15.9(7)	25.4(242)	19.6(20)	23.7(59)	15.0(3)	22.7(135)	24.8(153)	23.8(103)
	3순위	17.9(140)	24.3(26)	16.3(57)	19.0(8)	17.9(165)	20.4(20)	18.1(43)	15.8(3)	18.6(106)	17.8(106)	16.3(67)
	1+2+3	74.5(606)	75.1(83)	73.4(271)	66.2(30)	74.2(710)	76.2(78)	74.1(185)	45.8(9)	72.8(435)	75.7(470)	69.4(299)

내용/구분	부교육수준				모교육수준				경제적수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이상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이상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선물 (가족, 친구 생일이나 기념일)	1순위	2.4(20)	2.7(3)	1.6(6)	4.2(2)	2.0(20)	2.9(3)	1.9(5)	.0(0)	2.6(16)	2.4(15)	1.4(6)
	2순위	6.1(50)	5.4(6)	8.7(32)	9.1(4)	7.4(71)	5.9(6)	6.0(15)	10.0(2)	6.9(41)	5.7(35)	7.4(32)
	3순위	11.0(86)	12.1(13)	11.5(40)	7.1(3)	12.0(110)	13.3(13)	8.4(20)	5.3(1)	13.3(76)	10.4(62)	8.5(35)
	1+2+3	19.5(156)	20.2(22)	21.8(78)	20.4(9)	21.4(201)	22.1(22)	16.3(40)	15.3(3)	22.8(133)	18.5(112)	17.3(73)
교통비	1순위	2.5(21)	.0(0)	1.6(6)	.0(0)	2.5(25)	2.9(3)	2.7(7)	.0(0)	2.8(17)	1.6(10)	2.3(10)
	2순위	5.3(43)	5.4(6)	4.9(18)	2.3(1)	4.7(45)	4.9(5)	5.6(14)	.0(0)	7.4(44)	4.5(28)	3.5(15)
	3순위	8.3(65)	2.8(3)	5.2(18)	9.5(4)	7.6(70)	5.1(5)	5.1(12)	10.5(2)	10.2(58)	7.7(46)	6.3(26)
	1+2+3	16.1(129)	8.2(9)	11.7(42)	11.8(5)	14.8(140)	12.9(13)	13.4(33)	10.5(2)	20.4(119)	13.8(84)	12.1(51)
핸드폰 요금	1순위	1.2(10)	1.8(2)	.8(3)	.0(0)	1.1(11)	1.0(1)	.0(0)	.0(0)	1.5(9)	.8(5)	.2(1)
	2순위	1.1(9)	.9(1)	.5(2)	.0(0)	1.0(10)	.0(0)	.4(1)	.0(0)	1.7(10)	.6(4)	.5(2)
	3순위	1.8(14)	.0(0)	1.1(4)	2.4(1)	1.6(15)	.0(0)	1.3(3)	10.5(2)	2.6(15)	1.0(6)	1.2(5)
	1+2+3	4.1(33)	2.7(3)	2.4(9)	2.4(1)	3.7(36)	1(1)	1.7(4)	10.5(2)	5.8(34)	2.4(15)	1.9(8)
핸드폰 구입	1순위	.1(1)	.0(0)	.8(3)	.0(0)	.4(4)	.0(0)	.4(1)	.0(0)	.7(4)	.0(0)	.2(1)
	2순위	.1(1)	.0(0)	.0(0)	.0(0)	.1(1)	.0(0)	.0(0)	.0(0)	.0(0)	.0(0)	.2(2)
	3순위	.1(1)	.0(0)	.6(2)	.0(0)	.1(1)	.0(0)	.8(2)	.0(0)	.0(0)	.0(0)	.7(3)
	1+2+3	0.3(3)	.0(0)	1.4(5)	.0(0)	0.6(6)	.0(0)	1.2(3)	.0(0)	.7(4)	.0(0)	1.1(6)
mp3, 닌텐도 등 전자제품 구입	1순위	.2(2)	.9(1)	.3(1)	.0(0)	.3(3)	.0(0)	.0(0)	5.0(1)	.3(2)	.5(3)	.0(0)
	2순위	.2(2)	1.8(2)	.3(1)	2.3(1)	.3(3)	1.0(1)	1.2(3)	5.0(1)	.0(0)	.5(3)	1.2(5)
	3순위	.9(7)	1.9(2)	.9(3)	2.4(1)	.8(7)	5.1(5)	1.3(3)	.0(0)	.5(3)	.8(5)	1.7(7)
	1+2+3	1.3(11)	4.6(5)	1.5(5)	4.7(2)	1.4(13)	6.1(6)	2.5(6)	10.0(2)	.8(5)	1.8(11)	2.9(12)
여행비	1순위	.6(5)	.0(0)	.3(1)	2.1(1)	.7(7)	1.0(1)	.8(2)	.0(0)	.8(5)	.3(2)	.7(3)
	2순위	1.0(8)	.0(0)	.8(3)	.0(0)	1.0(10)	1.0(1)	.8(2)	.0(0)	1.3(8)	.3(2)	.7(3)
	3순위	1.4(11)	1.9(2)	2.3(8)	2.4(1)	1.4(13)	2.0(2)	3.0(7)	5.3(1)	.5(3)	.8(5)	4.1(17)
	1+2+3	3.0(24)	1.9(2)	3.4(12)	4.5(2)	3.1(30)	4.0(4)	4.6(11)	5.3(1)	2.6(16)	1.4(9)	5.5(23)
인터넷 요금	1순위	.1(1)	.0(0)	.0(0)	.0(0)	.0(0)	.0(0)	.0(0)	.0(0)	.2(1)	.2(1)	.0(0)
	2순위	.1(1)	.0(0)	.8(3)	.0(0)	.1(1)	1.0(1)	.8(2)	.0(0)	.0(0)	.3(2)	.5(2)
	3순위	.3(2)	.0(0)	.0(0)	.0(0)	.1(1)	.0(0)	.0(0)	.0(0)	.0(0)	.3(2)	.2(1)
	1+2+3	.5(4)	.0(0)	0.8(3)	.0(0)	.2(2)	1.0(1)	.8(2)	.0(0)	.2(1)	.8(5)	.7(3)
책값	1순위	.4(3)	1.8(2)	.3(1)	2.1(1)	.4(4)	1.9(2)	.4(1)	.0(0)	.3(2)	.5(3)	1.4(6)
	2순위	.9(7)	2.7(3)	.5(2)	2.3(1)	1.3(12)	1.0(1)	.4(1)	.0(0)	1.2(7)	.6(4)	.7(3)
	3순위	1.0(8)	2.8(3)	2.3(8)	7.1(3)	1.4(13)	3.1(3)	2.1(5)	5.3(1)	.9(5)	1.9(11)	1.7(7)
	1+2+3	2.3(18)	7.3(8)	3.1(11)	11.5(5)	3.1(29)	6.0(6)	2.9(7)	5.3(1)	2.4(14)	3.0(18)	3.8(16)
게임머니 구입	1순위	1.1(9)	.9(1)	1.1(4)	.0(0)	1.0(10)	1.9(2)	.4(1)	.0(0)	.5(3)	1.1(7)	1.1(5)
	2순위	2.1(17)	.9(1)	3.5(13)	2.3(1)	1.7(16)	3.9(4)	3.6(9)	.0(0)	1.7(10)	2.8(17)	3.5(15)
	3순위	3.1(24)	2.8(3)	4.3(15)	4.8(2)	3.0(28)	2.0(2)	7.2(17)	10.5(2)	3.2(18)	3.7(22)	5.6(23)
	1+2+3	6.3(50)	4.6(5)	8.9(32)	7.1(3)	5.7(54)	7.8(8)	11.2(27)	10.5(2)	5.4(31)	7.6(46)	10.2(43)
기타	1순위	2.3(19)	.0(0)	2.4(9)	.0(0)	1.5(15)	2.9(3)	3.1(8)	.0(0)	2.8(17)	1.6(10)	1.8(8)
	2순위	1.1(9)	.0(0)	.3(1)	.0(0)	.8(8)	.0(0)	.4(1)	.0(0)	1.3(8)	.8(5)	.5(2)
	3순위	1.7(13)	2.8(3)	1.1(4)	.0(0)	1.2(11)	1.0(1)	1.7(4)	.0(0)	1.9(11)	1.9(11)	1.2(5)
	1+2+3	5.1(41)	2.8(3)	3.8(14)	.0(0)	3.5(34)	3.9(4)	5.2(13)	.0(0)	6(36)	4.3(26)	3.5(15)
전 체	300.0(2427)	300.0(331)	300.0(1098)	300.0(134)	300.0(2855)	300.0(305)	300.0(743)	300.0(59)	300.0(1781)	300.0(1848)	300.0(1285)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사용처를 부모의 직업 유무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III-84>와 같다. '집 생활비에 보탬'에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가 직업이 '없을 경우'가 '있을 경우'에 비해 더 높았고,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아버지가 직업이 '없을 경우' '학비나 학원비'에 사용한다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직업이 '있을 경우' '외식비'에 사용한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점도 흥미롭다.

표 III-84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사용처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2) 단위: %(명)

내용/구분	부직업유무		모직업유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집 생활비에 보탬 (부모님께 드림)	1순위	6.7(96)	8.8(10)	7.3(84)	6.0(24)
	2순위	3.5(48)	2.7(3)	4.0(44)	2.3(9)
	3순위	4.2(56)	7.5(8)	4.9(52)	5.4(20)
	1+2+3	14.4(200)	19(21)	16.2(180)	13.7(53)
수업료, 교재비 등 학비 납부	1순위	.6(9)	3.5(4)	1.0(11)	1.0(4)
	2순위	1.4(19)	5.3(6)	1.1(12)	1.3(5)
	3순위	.6(8)	.9(1)	.7(8)	.3(1)
	1+2+3	2.6(36)	9.7(11)	2.8(31)	2.6(10)
학원비	1순위	1.3(18)	3.5(4)	1.0(12)	1.8(7)
	2순위	.2(3)	2.7(3)	.7(8)	.3(1)
	3순위	1.0(13)	4.7(5)	1.0(11)	.8(3)
	1+2+3	2.5(34)	10.9(12)	2.7(31)	2.9(11)
대학등록금 등 저축	1순위	3.7(53)	4.4(5)	3.6(41)	2.8(11)
	2순위	1.7(24)	2.7(3)	2.1(23)	2.3(9)
	3순위	1.9(25)	3.7(4)	2.4(26)	1.9(7)
	1+2+3	7.3(102)	10.8(12)	8.1(90)	7(27)
옷, 지갑, 가방, 신발 등 구입	1순위	29.6(422)	25.7(29)	28.6(328)	29.0(116)
	2순위	18.8(259)	12.4(14)	18.0(200)	20.0(78)
	3순위	12.7(168)	18.7(20)	13.3(142)	13.1(49)
	1+2+3	61.1(849)	56.8(63)	59.9(670)	62.1(243)
장신구, 화장품 구입	1순위	1.5(22)	1.8(2)	1.3(15)	1.8(7)
	2순위	5.4(75)	8.0(9)	5.6(62)	5.4(21)
	3순위	6.7(88)	1.9(2)	6.4(68)	5.9(22)
	1+2+3	13.6(185)	11.7(13)	13.3(145)	13.1(50)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	1순위	5.5(78)	4.4(5)	5.8(67)	4.0(16)
	2순위	14.1(195)	10.6(12)	12.8(142)	14.9(58)
	3순위	13.6(180)	9.3(10)	12.9(138)	13.7(51)
	1+2+3	33.2(453)	24.3(27)	31.5(347)	32.6(125)
외식비 (간식, 식사 등)	1순위	9.1(130)	9.7(11)	9.5(109)	9.3(37)
	2순위	11.6(160)	16.8(19)	12.8(142)	10.8(42)
	3순위	10.4(138)	7.5(8)	10.5(112)	8.6(32)
	1+2+3	31.1(428)	34(38)	32.8(363)	28.7(111)

내용/구분		부직업유무		모직업유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친구들과 노는 돈 (노래방, 카페, PC방 이용 등)	1순위	32.4(462)	24.8(28)	31.5(361)	34.5(138)
	2순위	24.8(342)	15.9(18)	24.5(272)	22.3(87)
	3순위	17.5(231)	15.9(17)	17.3(185)	18.2(68)
	1+2+3	74.7(1035)	56.6(63)	73.3(818)	75.0(293)
선물 (가족, 친구 생일이나 기념일)	1순위	2.2(32)	2.7(3)	2.4(28)	1.3(5)
	2순위	6.2(85)	12.4(14)	6.7(74)	6.7(26)
	3순위	10.7(141)	14.0(15)	10.9(116)	11.5(43)
	1+2+3	19.1(258)	29.1(32)	20.0(218)	19.5(74)
교통비	1순위	1.7(24)	1.8(2)	1.8(21)	3.8(15)
	2순위	5.4(75)	1.8(2)	5.1(57)	5.9(23)
	3순위	8.4(111)	4.7(5)	8.3(89)	6.7(25)
	1+2+3	15.5(210)	8.3(9)	15.2(167)	16.4(63)
핸드폰 요금	1순위	.9(13)	1.8(2)	.9(10)	.5(2)
	2순위	.9(13)	1.8(2)	.7(8)	1.3(5)
	3순위	1.6(21)	1.9(2)	1.5(16)	2.4(9)
	1+2+3	3.4(47)	5.5(6)	3.1(34)	4.2(16)
핸드폰 구입	1순위	.3(4)	.0(0)	.3(3)	.3(1)
	2순위	.1(1)	.0(0)	.1(1)	.0(0)
	3순위	.2(3)	.0(0)	.3(3)	.0(0)
	1+2+3	.6(8)	.0(0)	.7(7)	.3(1)
mp3, 닌텐도 등 전자제품 구입	1순위	.2(3)	1.8(2)	.3(4)	.0(0)
	2순위	.6(8)	.0(0)	.6(7)	.0(0)
	3순위	1.1(14)	.9(1)	.7(8)	1.9(7)
	1+2+3	1.9(25)	2.7(3)	1.6(19)	1.9(7)
여행비	1순위	.5(7)	.0(0)	.6(7)	1.0(4)
	2순위	.7(10)	.9(1)	.9(10)	.5(2)
	3순위	1.9(25)	.0(0)	2.0(21)	1.1(4)
	1+2+3	3.1(42)	0.9(1)	3.5(38)	2.6(10)
인터넷 요금	1순위	.0(0)	.0(0)	.1(1)	.0(0)
	2순위	.3(4)	.0(0)	.4(4)	.0(0)
	3순위	.2(2)	.9(1)	.2(2)	.0(0)
	1+2+3	.5(6)	.9(1)	.7(7)	.0(0)
책값	1순위	.6(9)	.0(0)	.9(10)	.3(1)
	2순위	1.0(14)	.0(0)	1.0(11)	1.0(4)
	3순위	1.4(19)	2.8(3)	1.2(13)	2.1(8)
	1+2+3	3(42)	2.8(3)	3.1(34)	3.4(13)
게임머니 구입	1순위	1.1(15)	.9(1)	1.0(12)	.5(2)
	2순위	2.3(32)	5.3(6)	2.4(27)	3.3(13)
	3순위	4.5(60)	.9(1)	4.3(46)	2.9(11)
	1+2+3	7.9(107)	7.1(8)	7.7(85)	6.7(26)
기타	1순위	1.9(27)	4.4(5)	1.9(22)	2.5(10)
	2순위	1.0(14)	.9(1)	.7(8)	1.8(7)
	3순위	1.5(20)	3.7(4)	1.2(13)	3.5(13)
	1+2+3	4.4(61)	9.0(10)	3.8(43)	7.8(30)
전 체		300.0(4128)	300.0(333)	300.0(3327)	300.0(1163)

⑨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족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필요한 것을 사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24.5%로 가장 높았고, '돈을 버는 목적 말고는 없다'는 응답이 24.3%로 나타나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사회경험을 쌓고 싶어서'라는 응답은 22.8%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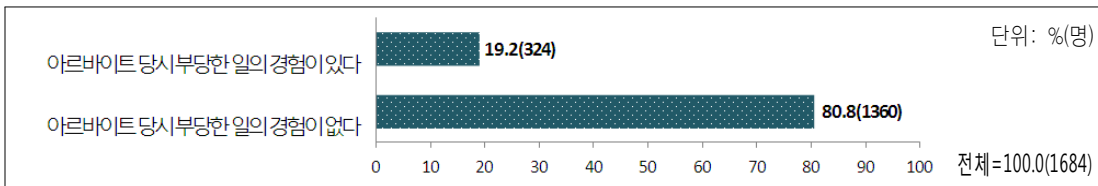
표 III-85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내용/구분		% (명)
1순위	가족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필요한 것을 사고 싶어서	24.5(732)
2순위	돈을 버는 목적 말고는 없다	24.3(725)
3순위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서	22.8(681)
4순위	가족의 간섭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8.9(266)
5순위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쓰고 싶어서	7.8(234)
6순위	가족이나 친구를 돕고 싶어서	4.5(136)
7순위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고 싶어서	3.3(98)
8순위	규칙적인 생활 태도를 기르고 싶어서	2.3(68)
9순위	기타	1.6(47)

※주: 다중응답으로 처리하여 N값이 일치하지 않음(N=2987)

⑩ 부당한 일 경험 여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일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당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9.2%를 차지했다.



【그림 III-44】 아르바이트 당시 부당한 일의 경험 여부

⑪ 부당한 일 경험 후 대처 방법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2011년 고용노동부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참고 계속 일했다’와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본 조사에서는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는 응답 비율이 24.3%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3.8%, ‘교사나 교육청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2%, ‘상담소나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도 9.8%에 달해 청소년들이 근로 중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표 III-86>참고).

표 III-86 아르바이트 관련 부당한 경험 후 대처했던 방법

내용/구분		%(명)
1순위	참고 계속 일했다	33.2(163)
2순위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	24.3(120)
3순위	개인적으로 항의하였다	14.3(71)
4순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랐다	9.8(48)
5순위	친구나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	7.7(38)
6순위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하였다	3.8(19)
7순위	가족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았다	3.5(17)
8순위	기타	1.4(7)
9순위	교사나 교육청의 도움을 받았다	1.2(6)
10순위	상담소나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7(3)

※주: 다중응답으로 처리하여 N값이 일치하지 않음(N=324)

⑫ 아르바이트가 역량개발에 도움이 된 정도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자신의 역량개발에 있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진로탐색이나 경력으로서의 의미는 크게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항목 중 ‘돈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었다’와 ‘노동의 가치에 대해 알게 되었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표 III-87>참고).

표 III-87 아르바이트가 역량개발에 도움이 된 정도

내용/구분	N	M	SD
나에게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1705	2.06	.817
다른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았다	1704	2.16	.814
돈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었다	1703	2.91	.730
일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었다	1704	2.80	.745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1704	2.76	.781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1702	2.67	.788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1703	2.22	.802
노동의 가치에 대해 알게 되었다	1705	2.91	.783
새로운 환경이나 인간관계에 적응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1704	2.72	.807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1705	2.57	.776
내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졌다	1705	2.78	.786

아르바이트가 개인의 역량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개인 및 지역 특성은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8>참고).

표 III-88 아르바이트를 통한 역량개발의 도움 정도 - 개인 및 지역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이상
아르바이트가 개인 역량개발 도움이 되는 정도의 인식	M (SD)	2.62 (.589)	2.57 (.548)	2.63 (.551)	2.58 (.588)	2.58 (.553)	2.66 (.572)	2.62 (.588)	2.58 (.547)	2.56 (.634)
	t/F	1.755		1.276			1.746			

* $p < .05$, ** $p < .01$, *** $p < .001$

※ 주: 지역규모(a=대도시, b=중소도시, c=읍·면), 기대하는 교육수준(d=고졸, e=2-3년제 대학 졸업, f=4년제 대학 졸업, g=석사이상)

아르바이트가 개인의 역량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를 학교관련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역량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았다(<표 III-89>참고).

표 III-89 아르바이트를 통한 역량개발의 도움 정도 - 학교관련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아르바이트가 개인 역량 개발 도움이 되는 정도의 인식	M (SD)	2.54 (.649)	2.61 (.548)	2.57 (.564)	2.69 (.517)	2.58 (.517)	2.56 (.548)	2.62 (.574)	2.64 (.616)
	t/F	-1.896		6.463**(hi)			2.530		

* $p < .05$, ** $p < .01$, *** $p < .001$

※ 주: 고교계열(h=일반계, i=특성화, j=특목·자율), 학업성적(k=낮은 편, l=보통, m=높은 편)

아르바이트가 개인의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 살펴본 결과, 대도시 청소년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적응 능력 등에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II-90>참고).

표 III-90 아르바이트를 통한 역량개발 - 개인 및 지역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이상
나에게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M (SD)	2.15 (.831)	1.96 (.791)	2.03 (.807)	2.06 (.825)	2.11 (.815)	2.20 (.760)	2.10 (.832)	1.99 (.803)	2.04 (.886)
	t/F	4.849***		.995			4.583**(df)			
다른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았다	M (SD)	2.23 (.812)	2.08 (.809)	2.12 (.805)	2.17 (.815)	2.20 (.829)	2.33 (.815)	2.21 (.810)	2.09 (.802)	2.11 (.838)
	t/F	3.885***		1.145			6.480***(df, dg)			
돈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었다	M (SD)	2.89 (.757)	2.93 (.699)	2.94 (.727)	2.88 (.752)	2.92 (.657)	2.90 (.700)	2.93 (.746)	2.92 (.704)	2.85 (.849)
	t/F	-1.038		1.615			.647			
일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었다	M (SD)	2.80 (.762)	2.79 (.727)	2.81 (.718)	2.77 (.777)	2.83 (.704)	2.82 (.699)	2.79 (.751)	2.80 (.725)	2.75 (.876)
	t/F	.308		.878			.349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M (SD)	2.75 (.790)	2.77 (.772)	2.84 (.770)	2.72 (.782)	2.69 (.789)	2.79 (.739)	2.76 (.801)	2.75 (.762)	2.75 (.887)
	t/F	-.491		5.307**(ab, ac)			.158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M (SD)	2.67 (.817)	2.67 (.757)	2.70 (.799)	2.66 (.785)	2.63 (.769)	2.75 (.737)	2.67 (.812)	2.67 (.767)	2.57 (.887)
	t/F	.151		.926			1.841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이상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M (SD)	2.32 (.842)	2.12 (.746)	2.21 (.808)	2.22 (.800)	2.24 (.799)	2.38 (.815)	2.29 (.823)	2.18 (.760)	2.07 (.873)
	t/F	4.988***		.168			7.197***(df, dg, eg)			
노동의 가치에 대해 알게 되었다	M (SD)	2.90 (.794)	2.93 (.772)	2.94 (.771)	2.89 (.793)	2.90 (.780)	2.91 (.750)	2.93 (.798)	2.91 (.760)	2.91 (.898)
	t/F	-.773		.751			.080			
새로운 환경이나 인간관계에 적응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M (SD)	2.74 (.808)	2.69 (.807)	2.78 (.778)	2.71 (.825)	2.61 (.810)	2.75 (.776)	2.77 (.809)	2.67 (.809)	2.75 (.855)
	t/F	1.295		4.270*(ac)			1.584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M (SD)	2.60 (.778)	2.55 (.774)	2.66 (.761)	2.54 (.785)	2.48 (.767)	2.59 (.771)	2.59 (.778)	2.56 (.772)	2.55 (.818)
	t/F	1.480		5.996**(ab, ac)			.184			
내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졌다	M (SD)	2.77 (.829)	2.80 (.739)	2.84 (.780)	2.77 (.787)	2.71 (.795)	2.78 (.771)	2.78 (.808)	2.78 (.765)	2.79 (.862)
	t/F	-.916		2.699			.022			

* $p < .05$, ** $p < .01$, *** $p < .001$

※ 주: 지역규모(a=대도시, b=중소도시, c=읍·면), 기대하는 교육수준(d=고졸, e=2-3년제 대학 졸업, f=4년제 대학 졸업, g=석사이상)

아르바이트가 개인의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인식 수준에 학교관련 특성이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 지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계열 고등학생보다 역량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91>참고).

표 III-91 아르바이트를 통한 역량개발 - 학교관련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나에게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M (SD)	2.13 (.873)	2.04 (.803)	2.00 (.827)	2.12 (.766)	2.03 (.714)	2.08 (.808)	2.02 (.824)	2.06 (.826)
	t/F	1.667		3.572*(hi)			.910		
다른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았다	M (SD)	2.21 (.859)	2.14 (.802)	2.07 (.817)	2.27 (.771)	2.14 (.729)	2.15 (.803)	2.17 (.831)	2.13 (.810)
	t/F	1.283		9.636***(hi)			.240		
돈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었다	M (SD)	2.86 (.787)	2.92 (.715)	2.90 (.740)	2.98 (.663)	2.85 (.713)	2.87 (.722)	2.92 (.713)	2.97 (.790)
	t/F	-1.328		2.386			2.053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일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었다	M (SD)	2.71 (.801)	2.82 (.730)	2.78 (.752)	2.88 (.684)	2.83 (.725)	2.75 (.729)	2.81 (.732)	2.87 (.813)
	t/F	-2.271*		2.727			2.983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M (SD)	2.59 (.864)	2.80 (.754)	2.76 (.771)	2.86 (.726)	2.91 (.701)	2.72 (.762)	2.79 (.769)	2.78 (.857)
	t/F	-4.013***		3.551*			1.728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M (SD)	2.67 (.849)	2.67 (.772)	2.63 (.783)	2.76 (.757)	2.65 (.708)	2.62 (.750)	2.69 (.804)	2.75 (.848)
	t/F	-.043		4.308*(hi)			2.868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M (SD)	2.30 (.868)	2.20 (.785)	2.15 (.783)	2.32 (.787)	2.05 (.711)	2.19 (.772)	2.24 (.823)	2.25 (.833)
	t/F	1.870		8.572***(hi, ij)			.872		
노동의 가치에 대해 알게 되었다	M (SD)	2.82 (.868)	2.93 (.760)	2.92 (.787)	2.97 (.714)	2.82 (.711)	2.86 (.761)	2.93 (.791)	2.99 (.823)
	t/F	-2.277*		1.453			3.265*(km)		
새로운 환경이나 인간관계에 적응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M (SD)	2.53 (.894)	2.76 (.779)	2.70 (.808)	2.88 (.731)	2.76 (.651)	2.66 (.788)	2.76 (.799)	2.78 (.873)
	t/F	-4.342***		7.334***(hi)			4.068*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M (SD)	2.49 (.854)	2.59 (.755)	2.56 (.777)	2.65 (.724)	2.59 (.671)	2.52 (.767)	2.61 (.770)	2.64 (.813)
	t/F	-2.041*		1.930			3.454*		
내 행동에 대한 책임 감이 강해졌다	M (SD)	2.62 (.863)	2.82 (.762)	2.82 (.775)	2.84 (.754)	2.74 (.651)	2.74 (.774)	2.82 (.750)	2.82 (.891)
	t/F	-3.995***		.606			2.196		

* $p < .05$, ** $p < .01$, *** $p < .001$

※ 주: 고교계열(h=일반계, i=특성화, j=특목·자율), 학업성적(k=낮은 편, l=보통, m=높은 편)

(4)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특성

① 가장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최근 1년간(2012 6월~2013년 5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장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종류를 질문한 결과, '음식점 서빙'이 28.2%로 가장 많았고, '전단지돌리기(스티키 붙이기)'가 24.2%로 두 번째, '뷔페, 웨딩홀 안내/서빙'이 13.1%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III-9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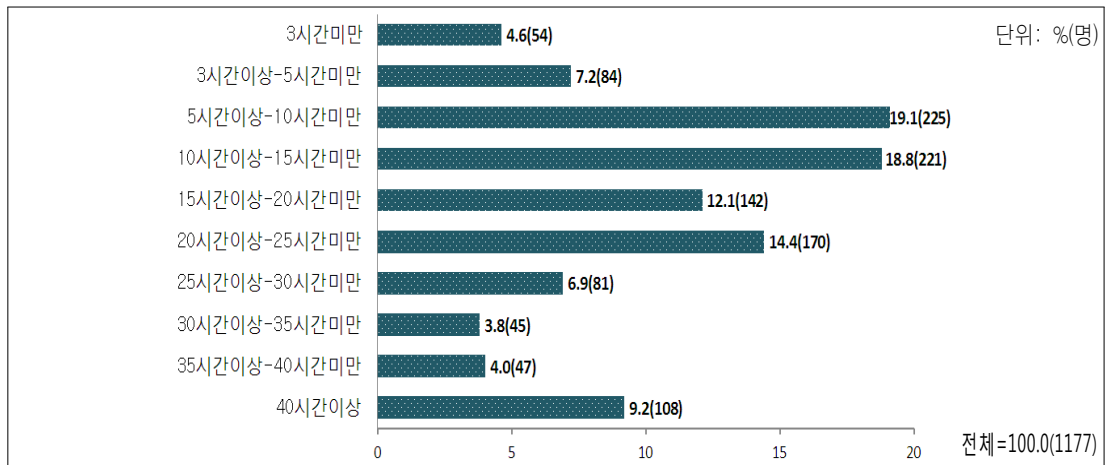
표 III-92 가장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내용/구분	%	빈도	내용/구분	%	빈도
전단지돌리기(스티커 붙이기)	24.2	279	카페 점원	1.7	19
24시간 편의점 점원	5.1	59	상품 판매(옷, 장신구 등)	1.8	21
패스트푸드점(피자, 치킨)점원	7.4	85	놀이공원 도우미	.4	4
음식점 서빙	28.2	325	주유소 주유원	1.5	17
음식 오토바이 배달	2.4	27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8	10
PC방 점원	1.3	14	사무업무 보조	1.0	12
뷔페, 웨딩홀 안내/서빙	13.1	151	공장에서 노동	1.0	12
건설현장 노동	.6	7	노래방 점원	.1	2
택배 짐 나르기(이사짐 운반 포함)	1.1	13	(노래방을 제외한) 유흥업소 직원	.0	.0
퀵서비스, 심부름 서비스	.2	2	기타	8.2	94

※ 주: 전체=100.0(1152)

② 주당 평균 근무시간

최근 1년간(2012 6월~2013년 5월) 아르바이트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5시간이상~10시간 미만’이 19.1%로 가장 많았고, ‘10시간이상~15시간 미만’이 두 번째로 높은 18.8%로 나타났다. ‘20시간 이상’ 일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8.3%였고, ‘40시간 이상’ 일했다는 응답한 청소년은 9.2%로 나타났다(【그림 III-45】 참고).



※ 주: 당초 100.0%를 기준으로 하는 척도이나 그래프 상 평균주당근무시간을 보다 명확히 보이게 하기 위해 20.0%로 조정되었음.

【그림 III-45】 평균 주당 근무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III-93>), ‘주당 20시간 이상’ 일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자청소년(34.5%)보다 남자청소년(42.0%)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한 비율이 대도시(42.9%), 중소도시(37.2%), 읍·면(30.6%)으로, 지역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대하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고졸(47%), 2-3년제 대학졸업(45.6%), 4년제 대학졸업(33.1%), 석사이상(31.3%)로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III-93 평균 주당 근무시간 - 개인 및 지역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이상
3시간미만	5.7(34)	3.6(21)	5.8(25)	3.9(22)	4.5(8)	4.4(8)	4.5(13)	4.7(26)	6.0(8)
3시간이상-5시간미만	5.3(32)	9.0(52)	4.8(21)	8.4(48)	8.5(15)	4.4(8)	7.5(22)	7.0(39)	11.9(16)
5시간이상-10시간미만	15.9(95)	22.5(130)	17.3(75)	18.6(106)	25.0(44)	14.4(26)	13.7(40)	23.6(132)	18.7(25)
10시간이상-15시간미만	19.7(118)	17.8(103)	16.2(70)	20.5(117)	19.3(34)	14.4(26)	16.8(49)	21.1(118)	20.1(27)
15시간이상-20시간미만	11.5(69)	12.6(73)	12.9(56)	11.4(65)	11.9(21)	15.5(28)	12.0(35)	10.6(59)	11.9(16)
20시간이상-25시간미만	14.4(86)	14.4(83)	15.0(65)	14.6(83)	12.5(22)	14.4(26)	15.4(45)	15.2(85)	9.0(12)
25시간이상-30시간미만	7.7(46)	6.1(35)	8.3(36)	6.8(39)	3.4(6)	9.9(18)	10.3(30)	3.6(20)	8.2(11)
30시간이상-35시간미만	4.5(27)	3.1(18)	3.9(17)	4.0(23)	2.8(5)	6.1(11)	5.8(17)	2.1(12)	2.2(3)
35시간이상-40시간미만	4.7(28)	3.3(19)	4.6(20)	3.7(21)	3.4(6)	7.2(13)	3.8(11)	3.8(21)	2.2(3)
40시간이상	10.7(64)	7.6(44)	11.1(48)	8.1(46)	8.5(15)	9.4(17)	10.3(30)	8.4(47)	9.7(13)
전 체	100.0(599)	100.0(578)	100.0(433)	100.0(570)	100.0(176)	100.0(181)	100.0(292)	100.0(559)	100.0(134)
χ^2	22.817**		22.646			63.342***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94 평균 주당 근무시간 - 학교관련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3시간미만	12.7(27)	2.9(28)	3.4(19)	1.1(4)	8.9(4)	4.8(26)	4.5(19)	4.9(10)
3시간이상-5시간미만	14.1(30)	5.6(54)	5.5(31)	5.1(18)	11.1(5)	7.0(38)	8.5(36)	4.9(10)
5시간이상-10시간미만	27.2(58)	17.2(166)	22.8(129)	9.6(34)	8.9(4)	20.6(112)	18.5(78)	15.5(32)
10시간이상-15시간미만	16.0(34)	19.4(187)	19.9(113)	17.8(63)	24.4(11)	18.0(98)	19.4(82)	19.9(41)
15시간이상-20시간미만	7.0(15)	13.2(127)	12.5(71)	14.7(52)	8.9(4)	11.2(61)	13.0(55)	11.7(24)
20시간이상-25시간미만	6.6(14)	16.2(156)	12.5(71)	21.8(77)	20.0(9)	13.8(75)	14.5(61)	16.0(33)
25시간이상-30시간미만	3.8(8)	7.5(72)	6.9(39)	9.3(33)	.0(0)	6.3(34)	7.6(32)	7.3(15)
30시간이상-35시간미만	1.4(3)	4.4(42)	3.0(17)	6.8(24)	4.4(2)	4.0(22)	3.6(15)	3.9(8)
35시간이상-40시간미만	2.3(5)	4.4(42)	4.6(26)	4.5(16)	2.2(1)	5.1(28)	2.4(10)	4.4(9)
40시간이상	8.9(19)	9.2(89)	9.0(51)	9.3(33)	11.1(5)	9.2(50)	8.1(34)	11.7(24)
전 체	100.0(213)	100.0(963)	100.0(567)	100.0(354)	100.0(45)	100.0(544)	100.0(422)	100.0(206)
χ^2	89.338***		63.868***			13.793		

* $p < .05$, ** $p < .01$, *** $p < .001$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학교관련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중학생의 경우 주당 '5시간 미만' 일한 비율이 26.8%로 고등학생의 8.5%보다 3배 이상 많았고, '20시간 이상' 일한 비율은 고등학생이 41.7%로 중학생의 23%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살펴본 결과, 주당 '20시간 이상' 일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절반이 넘는 51.7%를 차지했고, 일반계고등학생은 36%, 특목/자율고 학생들은 37.7%로 나타났다(<표 III-94>).

③ 구직경로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재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를 구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친구나 지인의 소개'가 60.7%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알바사이트'가 19.1%로 두 번째, '가족 또는 친척 소개'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선생님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으며,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구한 경우도 5%로 매우 드물었다(<표 III-95>).

표 III-95 구직 경로

내용/구분	%	빈도
친구나 지인 소개	60.7	703
학교 또는 선생님 소개	1.3	15
가족 또는 친척 소개	10.8	125
인터넷 알바사이트(예:알바몬/알바천국 등)	19.1	221
고용부 워크넷	.5	6
생활정보지(벼룩시장 등)	.8	9
직업소개소	.6	7
업소 구인광고(길거리나 상점의 광고)	3.6	42
기타	2.7	31
전 체	100.0	(1158)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지역규모가 클수록 '인터넷 알바사이트'를 통해 구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I-96>).

표 III-96 구직 경로 - 개인 및 지역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이상
친구나 지인 소개	63.2(374)	58.2(330)	53.5(228)	64.1(359)	66.5(117)	57.7(105)	62.1(177)	61.8(337)	57.1(76)
학교 또는 선생님 소개	1.7(10)	.9(5)	2.1(9)	.5(3)	1.7(3)	.5(1)	.7(2)	1.7(9)	1.5(2)
가족 또는 친척 소개	11.3(67)	10.2(58)	10.8(46)	10.4(58)	12.5(22)	11.0(20)	8.4(24)	11.7(64)	12.8(17)
인터넷 알바사이트 (예: 알바몬/알바천국 등)	15.0(89)	23.3(132)	25.4(108)	16.8(94)	10.8(19)	23.1(42)	21.4(61)	16.7(91)	19.5(26)
고용부 워크넷	1.0(6)	.0(0)	1.4(6)	.0(0)	.0(0)	1.6(3)	.4(1)	.2(1)	.0(0)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등)	.7(4)	.9(5)	.2(1)	1.4(8)	.6(1)	.5(1)	.7(2)	.7(4)	1.5(2)
직업소개소	.5(3)	.5(3)	.5(2)	.7(4)	.6(1)	.0(0)	.4(1)	.4(2)	2.3(3)
업소 구인광고 (길거리나 상점의 광고)	2.5(15)	4.8(27)	3.1(13)	3.8(21)	4.5(8)	4.4(8)	3.5(10)	3.7(20)	2.3(3)
기타	4.1(24)	1.2(7)	3.1(13)	2.3(13)	2.8(5)	1.1(2)	2.5(7)	3.1(17)	3.0(4)
전 체	100.0(592)	100.0(567)	100.0(426)	100.0(560)	100.0(176)	100.0(182)	100.0(285)	100.0(545)	100.0(133)
χ^2	31.769***		44.033***			30.104			

* $\rho < .05$, ** $\rho < .01$, *** $\rho < .001$

학교관련 변인 중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생(8.9%)에 비해 중학생(19.2%)이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로 구직하는 비율이 높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 비교를 해 보면,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친구나 지인의 소개’,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비율이 다른 계열의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다른 고교계열 학생들보다 ‘인터넷 알바사이트’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I-97>).

표 III-97 구직 경로 - 학교관련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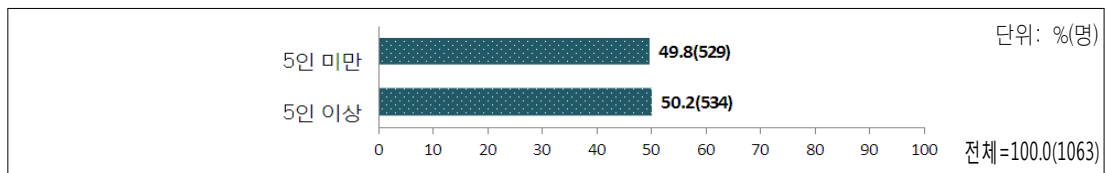
단위: %(명)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친구나 지인 소개	55.8(116)	61.8(588)	62.5(350)	61.5(214)	57.1(24)	63.0(337)	59.4(247)	56.7(114)
학교 또는 선생님 소개	1.4(3)	1.3(12)	1.1(6)	1.4(5)	.0(0)	.7(4)	1.7(7)	2.0(4)
가족 또는 친척 소개	19.2(40)	8.9(85)	10.5(59)	6.6(23)	7.1(3)	8.8(47)	12.0(50)	13.9(28)
인터넷 알바사이트 (예:알바몬/알바천국 등)	11.5(24)	20.7(197)	19.6(110)	23.0(80)	16.7(7)	19.8(106)	18.3(76)	19.4(39)
고용부 워크넷	.0(0)	.6(6)	.2(1)	.3(1)	7.1(3)	.7(4)	.2(1)	.0(0)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등)	1.0(2)	.7(7)	1.1(6)	.6(2)	.0(0)	.2(1)	1.2(5)	1.5(3)
직업소개소	1.4(3)	.4(4)	.5(3)	.3(1)	.0(0)	.6(3)	.0(0)	2.0(4)
업소 구인광고 (길거리나 상점의 광고)	4.8(10)	3.3(31)	2.3(13)	4.6(16)	4.8(2)	3.4(18)	4.8(20)	2.0(4)
기타	4.8(10)	2.2(21)	2.1(12)	1.7(6)	7.1(3)	2.8(15)	2.4(10)	2.5(5)
전 체	100.0(208)	100.0(951)	100.0(560)	100.0(348)	100.0(42)	100.0(535)	100.0(416)	100.0(201)
χ^2	35.219***		53.134***			27.546*		

* $p < .05$, ** $p < .01$, *** $p < .001$

④ 사업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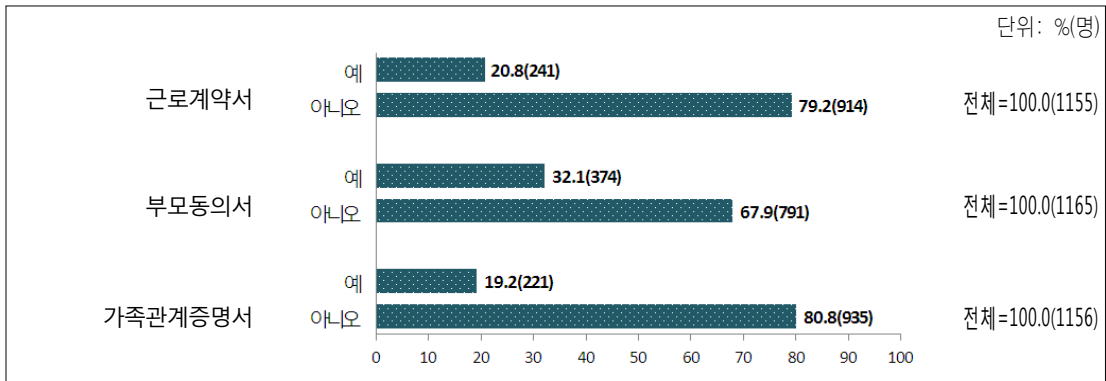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의 사업장의 직원 수를 조사한 결과, 49.8%의 청소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46】 참고).



【그림 III-46】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에서의 직원 수

⑤ 서류 작성 및 제출 여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 또는 작성했는지를 조사하였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20.8%가 작성했다고 응답했고, 부모동의서는 32.1%, 가족관계증명서는 19.2%가 제출했다고 응답했다. 2011년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비율이 더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I-47】 참고).



【그림 III-47】 서류 작성 및 제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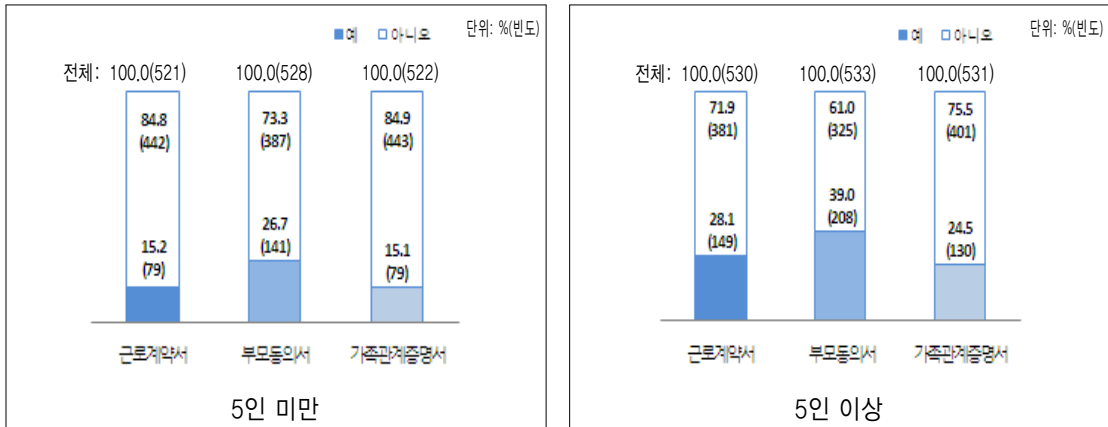
사업장 규모를 '5인 미만'과 '5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비교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비율이 '5인 이상' 사업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98>).

표 III-98 아르바이트 당시 직원의 수에 따른 서류작성 및 제출 여부 단위: %(명)

내용/구분	아르바이트 당시 직원의 수	
	5인 미만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예	28.1(149)
	아니오	71.9(381)
	전체	100.0(530)
	χ^2	25.937***
부모동의서	예	39.0(208)
	아니오	61.0(325)
	전체	100.0(533)
	χ^2	18.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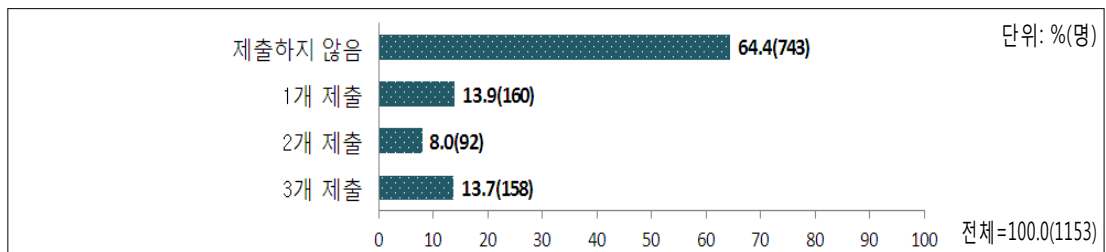
내용/구분		아르바이트 당시 직원의 수	
		5인 미만	5인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예	15.1(79)	24.5(130)
	아니오	84.9(443)	75.5(401)
	전체	100.0(522)	100.0(531)
	χ^2	14,459***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Ⅲ-48】 아르바이트 당시 직원의 수에 따른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작성 및 제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치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 여부를 질문한 결과,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의 13.7%에 그쳤으며, 이 중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비율이 64.4%에 달했다(【그림 Ⅲ-4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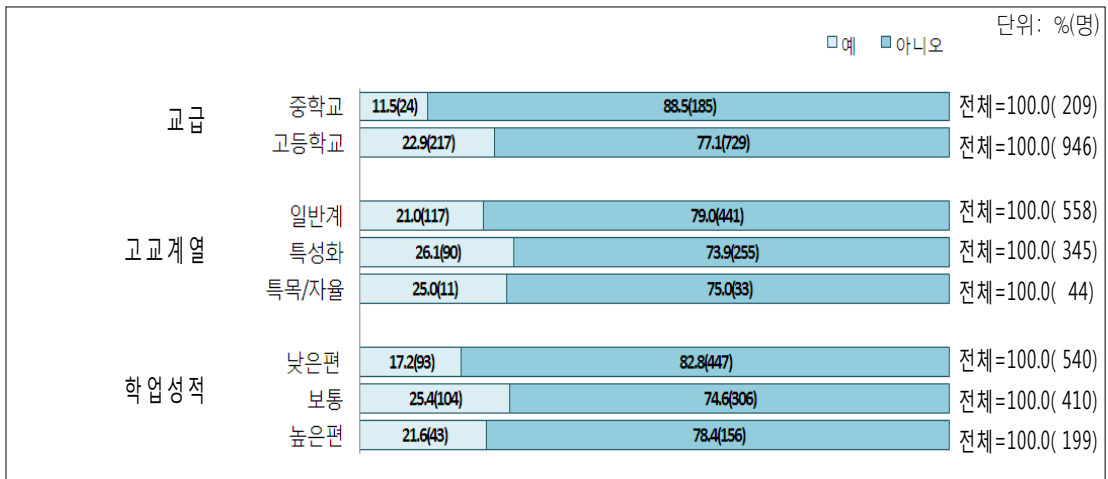
【그림 Ⅲ-49】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작성 및 제출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 여부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표 III-99>),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에 비해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를 제출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고교계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근로계약서 제출 여부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계나 특목/자율고 학생들에 비해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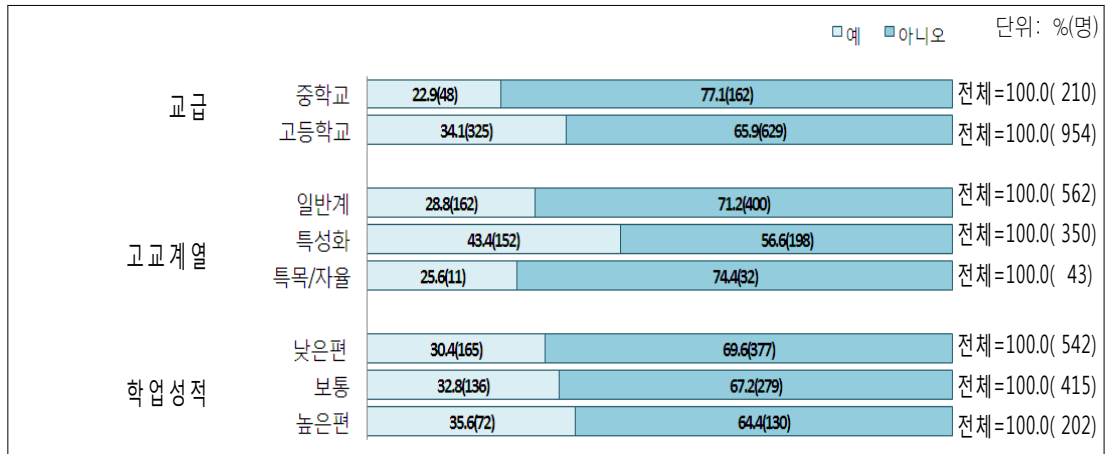
표 III-99 서류 작성 여부 - 학교관련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근로계약서	예	11.5(24)	22.9(217)	21.0(117)	26.1(90)	25.0(11)	17.2(93)	25.4(104)	21.6(43)
	아니오	88.5(185)	77.1(729)	79.0(441)	73.9(255)	75.0(33)	82.8(447)	74.6(306)	78.4(156)
	전체	100.0(209)	100.0(946)	100.0(558)	100.0(345)	100.0(44)	100.0(540)	100.0(410)	100.0(199)
	χ^2	13.604***		3.255			9.429**		
부모동의서	예	22.9(48)	34.1(325)	28.8(162)	43.4(152)	25.6(11)	30.4(165)	32.8(136)	35.6(72)
	아니오	77.1(162)	65.9(629)	71.2(400)	56.6(198)	74.4(32)	69.6(377)	67.2(279)	64.4(130)
	전체	100.0(210)	100.0(954)	100.0(562)	100.0(350)	100.0(43)	100.0(542)	100.0(415)	100.0(202)
	χ^2	9.932**		21.919***			1.926		
가족관계 증명서	예	14.8(31)	20.1(190)	17.7(99)	25.5(88)	9.1(4)	16.3(88)	21.6(89)	22.1(44)
	아니오	85.2(179)	79.9(756)	82.3(460)	74.5(257)	90.9(40)	83.7(451)	78.4(323)	77.9(155)
	전체	100.0(210)	100.0(946)	100.0(559)	100.0(345)	100.0(44)	100.0(539)	100.0(412)	100.0(199)
	χ^2	3.149		11.568**			5.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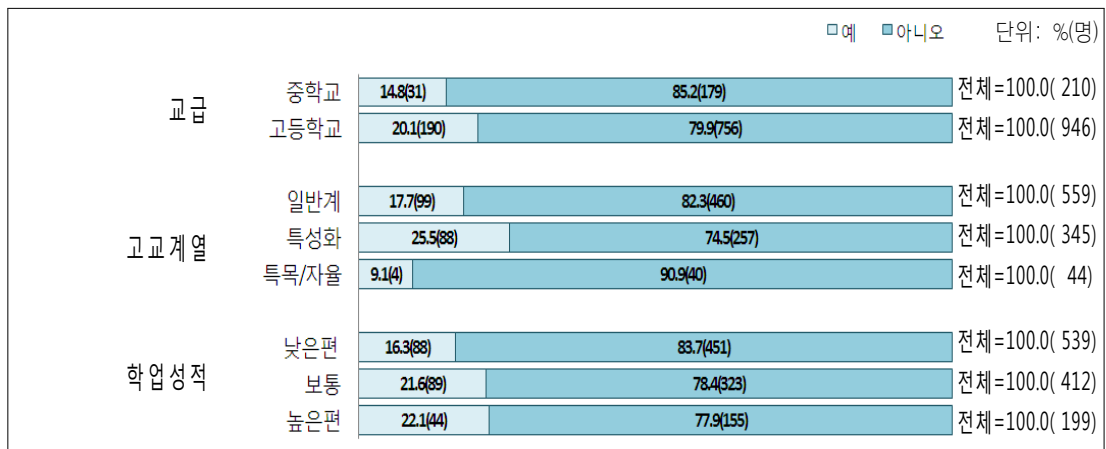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50】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서류 작성 여부-근로계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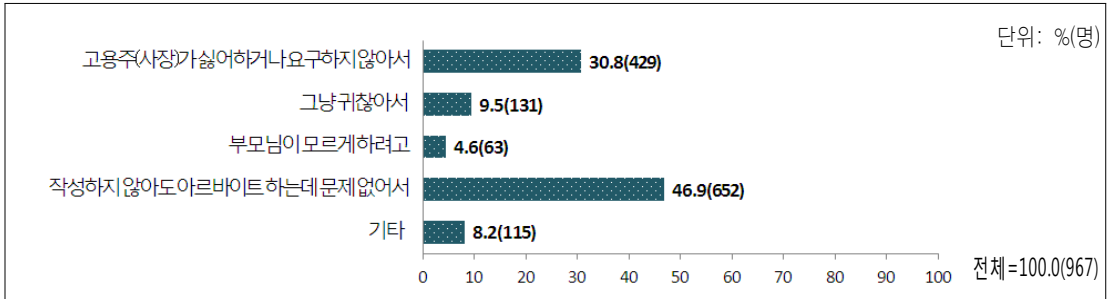
【그림 III-51】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서류 작성 여부-부모동의서



【그림 III-52】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서류 작성 여부-가족관계증명서

⑥ 서류 미작성 및 미제출 이유

연소자 고용에 필수적인 서류를 제출 또는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작성하지 않아도 아르바이트 하는데 문제가 없어서'라는 대답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고용주(사장)가 싫어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0%에 달했다. '부모님 모르게 하려고'라는 응답은 4.6%로 나타났다(【그림 III-5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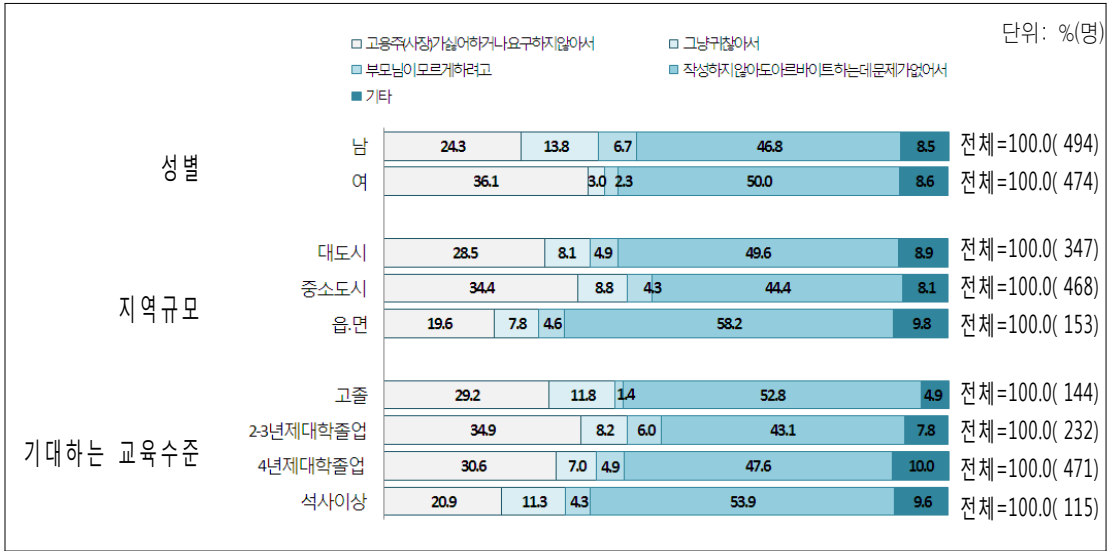
【그림 III-53】 서류 미작성 이유

서류 미작성 이유를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조사한 결과(<표 III-100>), 서류 미작성/미제출 이유에 있어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에게서 ‘그냥 귀찮아서’와 ‘부모님이 모르게 하려고’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00 서류 미작성 이유 - 개인 및 지역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이상
고용주(사장)가 싫어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서	24.3(120)	36.1(171)	28.5(99)	34.4(161)	19.6(30)	29.2(42)	34.9(81)	30.6(144)	20.9(24)
그냥 귀찮아서	13.8(68)	3.0(14)	8.1(28)	8.8(41)	7.8(12)	11.8(17)	8.2(19)	7.0(33)	11.3(13)
부모님이 모르게 하려고	6.7(33)	2.3(11)	4.9(17)	4.3(20)	4.6(7)	1.4(2)	6.0(14)	4.9(23)	4.3(5)
작성하지 않아도 아르바이트 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46.8(231)	50.0(237)	49.6(172)	44.4(208)	58.2(89)	52.8(76)	43.1(100)	47.6(224)	53.9(62)
기타	8.5(42)	8.6(41)	8.9(31)	8.1(38)	9.8(15)	4.9(7)	7.8(18)	10.0(47)	9.6(11)
전체	100.0(494)	100.0(474)	100.0(347)	100.0(468)	100.0(153)	100.0(144)	100.0(232)	100.0(471)	100.0(115)
χ^2	55.198***		14.178			20.022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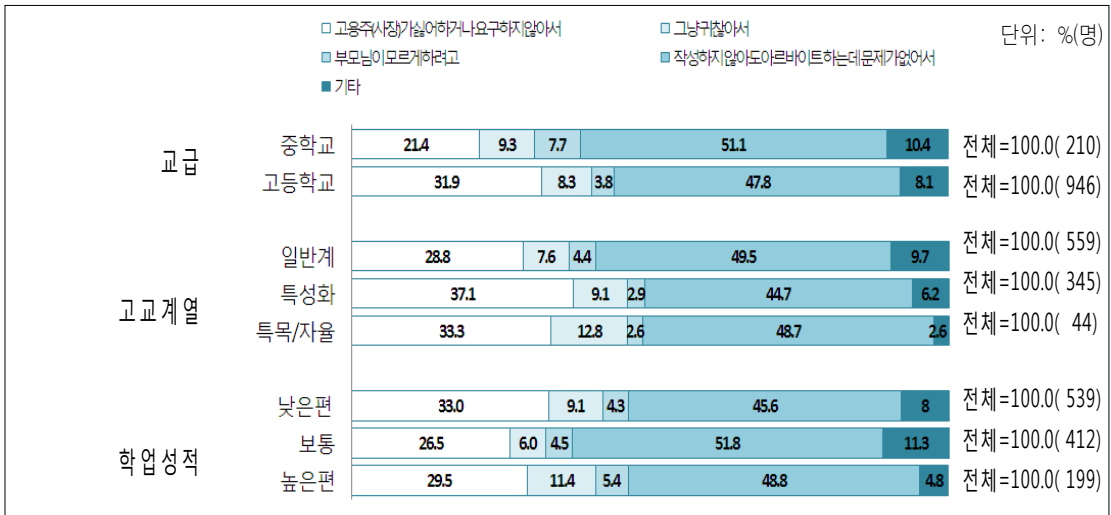
【그림 III -54】 개인 및 지역특성에 따른 서류 미작성 이유

<표 III-101>은 서류 미작성 이유를 학교관련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이다. 서류 미작성/미제출 이유에 있어 교급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학생(7.7%)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부모님이 모르게 하려고'라는 응답이 고등학생(3.8%)의 2배가 넘었다.

표 III -101 서류 미작성 이유 - 학교관련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고용주(사장)가 싫어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서	21.4(39)	31.9(251)	28.8(136)	37.1(102)	33.3(13)	33.0(152)	26.5(89)	29.5(49)
그냥 귀찮아서	9.3(17)	8.3(65)	7.6(36)	9.1(25)	12.8(5)	9.1(42)	6.0(20)	11.4(19)
부모님이 모르게 하려고	7.7(14)	3.8(30)	4.4(21)	2.9(8)	2.6(1)	4.3(20)	4.5(15)	5.4(9)
작성하지 않아도 아르바이트 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51.1(93)	47.8(376)	49.5(234)	44.7(123)	48.7(19)	45.6(210)	51.8(174)	48.8(81)
기 타	10.4(19)	8.1(64)	9.7(46)	6.2(17)	2.6(1)	8.0(37)	11.3(38)	4.8(8)
전 체	100.0(182)	100.0(786)	100.0(473)	100.0(275)	100.0(39)	100.0(461)	100.0(336)	100.0(166)
χ^2	11.761*		11.546			14.928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 -55】 학교 관련 특성에 따른 서류 미작성 이유

⑦ 아르바이트 만족도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재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같이 일하는 동료'에 대한 만족도가 3.06점(4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근로강도'에 대한 만족도는 2.61로 가장 낮았다(<표 III-102>참고).

표 III -102 아르바이트 만족도

내용/구분	N	M	SD
급여액	1166	2.75	.882
근로시간	1166	2.75	.797
근로환경 및 주변시설	1163	2.85	.798
근로강도(일하면서 힘든 정도)	1166	2.61	.897
아르바이트 일 내용	1165	2.79	.797
동료 (같은 일하는 사람들)	1165	3.06	.796

아르바이트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개인 및 지역 특성 변수를 살펴본 결과(<표 III-103>참고),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의 만족도가 전반적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청소년의 급여액, 근로강도, 동료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청소년들의 급여나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 III -103 아르바이트 만족도 - 개인 및 지역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이상	
급여액	M(SD)	2.83(.878)	2.67(.879)	2.69(.885)	2.73(.896)	2.96(.803)	2.66(.863)	2.70(.875)	2.76(.888)	2.91(.907)
	t/F	3.177**		6.227**(ac, bc)			2.507			
근로시간	M(SD)	2.78(.814)	2.71(.778)	2.69(.789)	2.75(.804)	2.90(.776)	2.74(.804)	2.68(.766)	2.75(.812)	2.90(.789)
	t/F	1.411		4.544*(ac)			2.354			
근로환경 및 주변시설	M(SD)	2.88(.814)	2.81(.780)	2.83(.791)	2.83(.812)	2.94(.768)	2.86(.778)	2.79(.822)	2.85(.788)	2.93(.831)
	t/F	1.546		1.425			1.033			
근로강도 (일하면서 힘든 정도)	M(SD)	2.67(.908)	2.56(.884)	2.60(.916)	2.61(.889)	2.67(.881)	2.65(.886)	2.59(.868)	2.58(.887)	2.74(1.023)
	t/F	2.014*		.416			1.243			
아르바이트 일 내용	M(SD)	2.82(.807)	2.75(.787)	2.75(.801)	2.81(.808)	2.81(.754)	2.89(.734)	2.72(.805)	2.79(.776)	2.78(.950)
	t/F	1.472		.835			1.698			
동료 (같은 일하는 사람들)	M(SD)	3.18(.768)	2.95(.808)	3.05(.780)	3.05(.839)	3.14(.687)	3.17(.831)	3.07(.785)	3.03(.775)	3.05(.866)
	t/F	4.900***		.963			1.487			

* $p < .05$, ** $p < .01$, *** $p < .001$

※주: 지역규모(a=대도시, b=중소도시, c=읍·면), 기대하는 교육수준(d=고졸, e=2-3년제 대학 졸업, f=4년제 대학 졸업, g=석사이상)

아르바이트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학교관련 특성 변수를 조사한 결과(<표 III-104>), 중학생(27.8%)은 고등학생(25.8%)에 비해 근로강도(일하면서 힘든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고교계열과 학업성적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표 III -104 아르바이트 만족도 - 학교관련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급여액	M(SD)	2.85(.903)	2.73(.877)	2.79(.883)	2.64(.868)	2.71(.827)	2.70(.881)	2.79(.852)	2.79(.953)
	t/F	1.709		2.928			1.486		
근로시간	M(SD)	2.83(.808)	2.73(.793)	2.77(.798)	2.67(.784)	2.73(.793)	2.73(.804)	2.78(.772)	2.73(.838)
	t/F	1.607		1.745			.568		
근로환경 및 주변시설	M(SD)	2.86(.841)	2.85(.789)	2.87(.792)	2.80(.784)	2.84(.791)	2.80(.799)	2.88(.781)	2.90(.835)
	t/F	.231		.984			1.629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근로강도 (일하면서 힘든 정도)	M(SD)	2.78(.829)	2.58(.908)	2.61(.908)	2.52(.915)	2.69(.834)	2.58(.891)	2.63(.881)	2.69(.950)
	t/F	3.078**		1.251			1.319		
아르바이트 일 내용	M(SD)	2.84(.810)	2.78(.794)	2.80(.801)	2.74(.795)	2.78(.711)	2.76(.788)	2.80(.765)	2.83(.893)
	t/F	1.017		.520			.670		
동료 (같은 일하는 사람들)	M(SD)	3.11(.714)	3.05(.812)	3.08(.825)	3.02(.816)	2.94(.581)	3.07(.800)	3.10(.761)	2.98(.860)
	t/F	.983		1.078			1.586		

* $p < .05$, ** $p < .01$, *** $p < .001$

※ 주: 고교계열(h=일반계, i=특성화, j=특목·자율), 학업성적(k=낮은 편, l=보통, m=높은 편)

⑧ 아르바이트 업무의 자율성 정도

아르바이트 업무에서 청소년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일하는 지를 9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나누어 살펴보았다. 4점 척도로 청소년들이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의 자율성을 질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중앙치(2.5) 이하가 나타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매우 낮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표 III-105>참고).

표 III -105 아르바이트 일의 자율성 정도

내용/구분	N	M	SD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 일으킨다	1167	2.34	.786
단조롭고 지루하다	1165	2.51	.790
재미있고 즐겁다	1167	2.42	.803
나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1166	2.04	.745
새롭고 유용한 것을 배울 수 있다	1167	2.37	.837
나의 기술이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1167	2.30	.820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다	1166	2.26	.821
일의 속도를 나의 페이스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1167	2.48	.841
내 의견이 일에 반영 된다	1167	2.19	.820

⑨ 아르바이트 업무상 재해 경험 빈도

최근 1년간(2012 6월~2013년 5월) 아르바이트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 1번 이상 '뜨거운 것에 데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2.0%로 가장 많았다. '네 번 이상' 데인 적이 있다는 응답도 6.8%에 달했다. '날카로운 것에 베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4.3%로 재해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발생 비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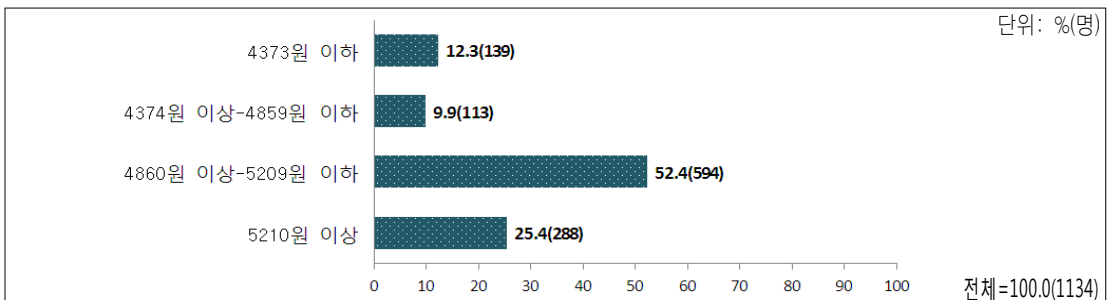
이 밖에도 '무거운 짐을 들다 허리를 빼끗한 적이 있다' 12.4%,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친 적이 있다' 9.6%, '뼈가 부러지거나 뺨 적이 있다' 4.9%,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3.4% 등으로 나타났다(<표 III-106>참고).

표 III-106 업무상 재해 경험 빈도 단위: %(빈도)

내용/구분	없다	한번	두번	세번	네번이상	N
뜨거운 것에 데인 적이 있다	68.0(793)	12.5(146)	8.4(98)	4.3(50)	6.8(80)	100.0(1167)
날카로운 것에 베인 적이 있다	75.7(884)	11.8(138)	5.7(67)	2.7(32)	4.0(47)	100.0(1167)
뼈가 부러지거나 뺨 적이 있다	95.1(1111)	2.5(30)	1.1(13)	1.1(13)	.1(1)	100.0(1167)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96.6(1128)	1.7(19)	1.0(12)	.7(8)	.0(0)	100.0(1167)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친 적이 있다	90.4(1054)	5.0(58)	2.3(27)	1.2(14)	1.2(14)	100.0(1167)
무거운 짐을 들다 허리를 빼끗한 적이 있다	87.6(1023)	7.0(82)	2.6(30)	1.3(15)	1.5(18)	100.0(1167)

⑩ 아르바이트 시급

시간당 임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3년 법정최저임금인 '4,860원 미만'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2.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노동부(2011)의 조사 결과에 비해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체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그림 III-56】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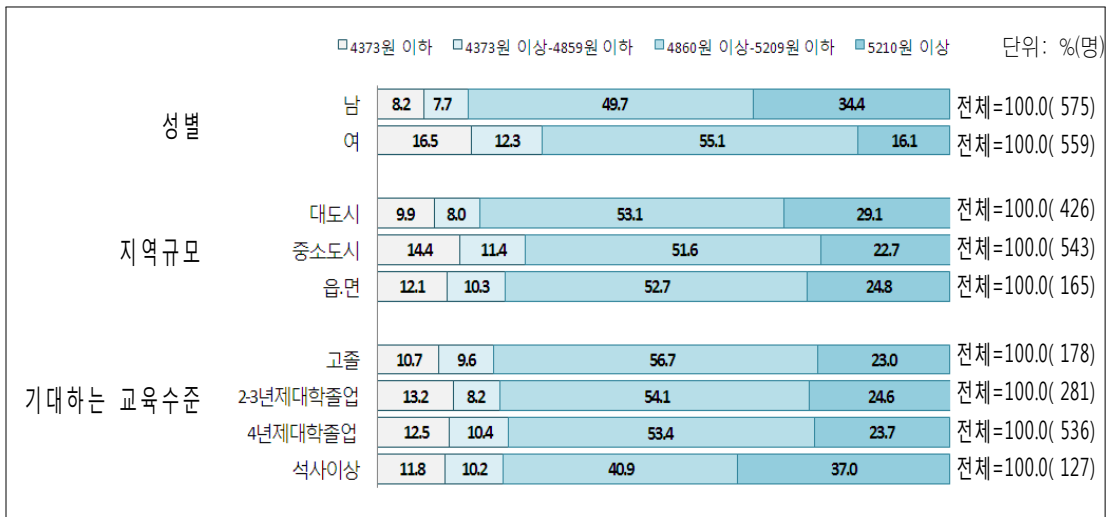
【그림 III-56】 시급

여자청소년(28.8%)이 남자청소년(15.9%)에 비해 최저임금(486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임금 측면에서 여자청소년들이 더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에 의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경향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대도시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표 III-107>참고).

표 III-107 시급 - 개인 및 지역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이상
4373원 이하	8.2(47)	16.5(92)	9.9(42)	14.4(78)	12.1(20)	10.7(19)	13.2(37)	12.5(67)	11.8(15)
4374원 이상-4859원 이하	7.7(44)	12.3(69)	8.0(34)	11.4(62)	10.3(17)	9.6(17)	8.2(23)	10.4(56)	10.2(13)
4860원 이상-5209원 이하	49.7(286)	55.1(308)	53.1(226)	51.6(280)	52.7(87)	56.7(101)	54.1(152)	53.4(286)	40.9(52)
5210원 이상	34.4(198)	16.1(90)	29.1(124)	22.7(123)	24.8(41)	23.0(41)	24.6(69)	23.7(127)	37.0(47)
전 체	100.0(575)	100.0(559)	100.0(426)	100.0(543)	100.0(165)	100.0(178)	100.0(281)	100.0(536)	100.0(127)
χ^2	61.201***		10.833			13.488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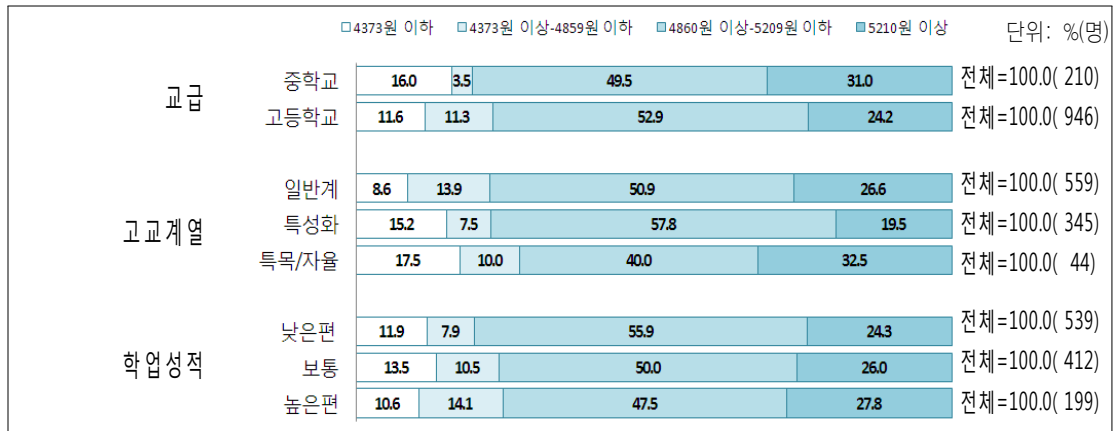
【그림 III-57】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시급

시간당 임금에 차이를 가져오는 학교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중학생(19.5%)의 비율이 고등학생(22.9%)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의 내용과 유사한 결과이다(<표 III-108>참고).

표 III-108 시급 - 학교관련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4373원 이하	16.0(32)	11.6(108)	8.6(47)	15.2(53)	17.5(7)	11.9(62)	13.5(55)	10.6(21)
4374원 이상-4859원 이하	3.5(7)	11.3(106)	13.9(76)	7.5(26)	10.0(4)	7.9(41)	10.5(43)	14.1(28)
4860원 이상-5209원 이하	49.5(99)	52.9(495)	50.9(278)	57.8(201)	40.0(16)	55.9(292)	50.0(204)	47.5(94)
5210원 이상	31.0(62)	24.2(226)	26.6(145)	19.5(68)	32.5(13)	24.3(127)	26.0(106)	27.8(55)
전 체	100.0(200)	100.0(935)	100.0(546)	100.0(348)	100.0(40)	100.0(522)	100.0(408)	100.0(198)
χ^2	16.209***		26.046***			10.29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58】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시급

사업장 규모를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나누어 2013년도 법정최저임금 준수 비율을 비교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 청소년들보다 2013년도 법정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III-109>참고).

표 III -109 아르바이트 당시 직원의 수에 따른 시간당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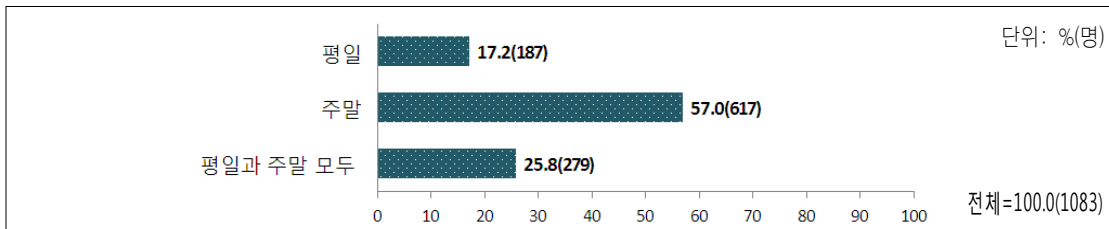
단위: %(명)

내용/구분	아르바이트 당시 직원의 수	
	5인 미만	5인 이상
4860원(2013년 최저임금) 미만	25.9(133)	19.3(102)
4860원 이상	74.1(380)	80.7(426)
전 체	100.0(513)	100.0(528)
χ^2	6.500*	

* $p < .05$, ** $p < .01$, *** $p < .001$

⑪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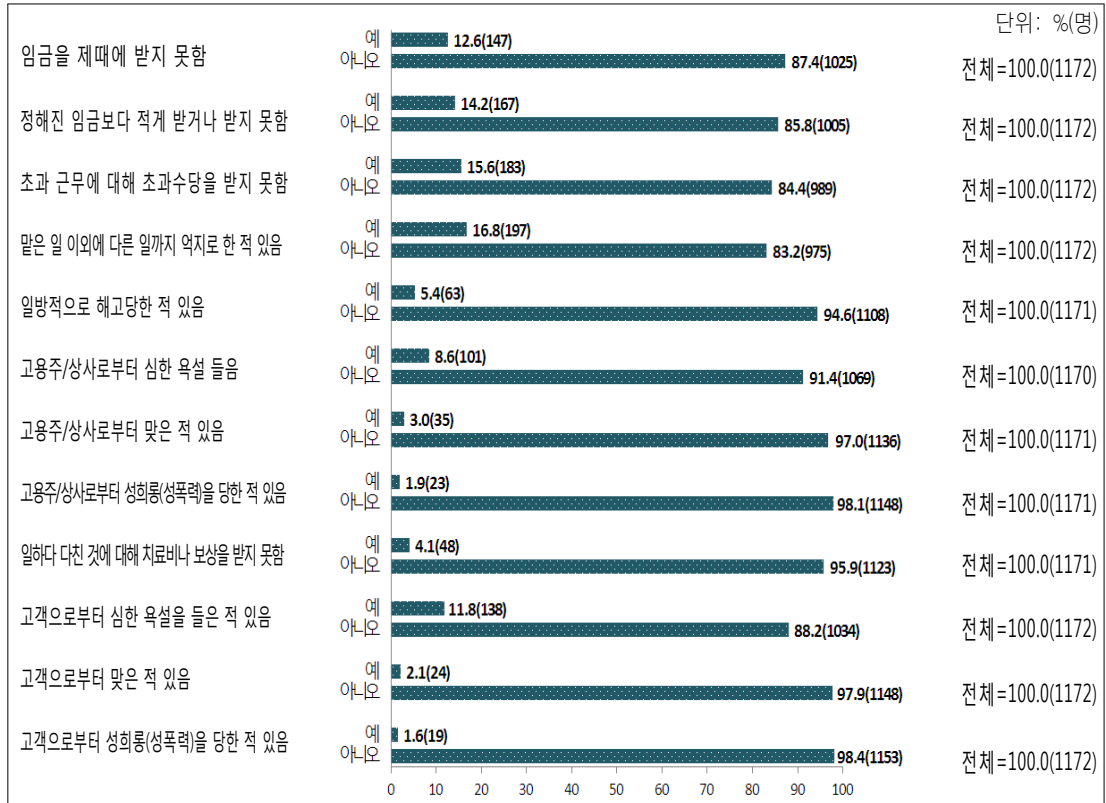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언제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주말'에만 한다는 응답이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일과 주말 모두' 한다는 응답은 25.8%, '평일'만 한다는 응답은 17.2%로 나타났다(【그림 III-59】 참고).



【그림 III -59】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대

⑫ 부당처우 유형별 경험 여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경험을 했는지 여부를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말은 일 이외에 다른 일까지 억지로 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16.8%로 가장 높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5.6%,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14.2%,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12.6%,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는 비율이 11.8%로 나타났다(【그림 III-60】 참고).



【그림 III-60】 부당처우 유형별 경험 여부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따라 부당처우를 경험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고용주나 고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욕설을 들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비율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10>참고).

표 III-110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따른 부당처우 유형별 경험 유무 단위: %(명)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이상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	예	13.8(82)	11.3(65)	13.8(59)	13.1(74)	8.0(14)	15.6(28)	10.7(31)	12.0(67)	15.9(21)
	아니오	86.2(514)	88.7(511)	86.2(370)	86.9(493)	92.0(161)	84.4(152)	89.3(258)	88.0(492)	84.1(111)
	전체	100.0(596)	100.0(576)	100.0(429)	100.0(567)	100.0(175)	100.0(180)	100.0(289)	100.0(559)	100.0(132)
	χ ²	1.634		3.996			3.829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이상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예	12.1(72)	16.3(94)	15.1(65)	13.9(79)	13.1(23)	11.7(21)	13.1(38)	14.7(82)	18.9(25)
	아니오	87.9(523)	83.7(481)	84.9(365)	86.1(488)	86.9(153)	88.3(159)	86.9(251)	85.3(477)	81.1(107)
	전체	100.0(595)	100.0(575)	100.0(430)	100.0(567)	100.0(176)	100.0(180)	100.0(289)	100.0(559)	100.0(132)
	χ^2	4.332*		.512			3.709			
초과 근무에 대해 초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예	16.9(101)	14.2(82)	17.2(74)	16.8(95)	8.0(14)	17.2(31)	17.3(50)	13.6(76)	19.5(26)
	아니오	83.1(495)	85.8(494)	82.8(356)	83.2(472)	92.0(161)	82.8(149)	82.7(239)	86.4(482)	80.5(107)
	전체	100.0(596)	100.0(576)	100.0(430)	100.0(567)	100.0(175)	100.0(180)	100.0(289)	100.0(558)	100.0(133)
	χ^2	1.633		9.090*			4.166			
맡은 일 이외에 다른 일까지 역지로 한 적이 있다	예	18.3(109)	15.3(88)	20.3(87)	14.6(83)	15.4(27)	15.1(27)	17.3(50)	16.5(92)	20.3(27)
	아니오	81.7(487)	84.7(488)	79.7(342)	85.4(484)	84.6(148)	84.9(152)	82.7(239)	83.5(467)	79.7(106)
	전체	100.0(596)	100.0(576)	100.0(429)	100.0(567)	100.0(175)	100.0(179)	100.0(289)	100.0(559)	100.0(133)
	χ^2	1.899		5.840			1.627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	예	4.9(29)	6.1(35)	5.3(23)	5.3(30)	6.3(11)	4.4(8)	4.5(13)	6.3(35)	6.0(8)
	아니오	95.1(567)	93.9(541)	94.7(407)	94.7(537)	93.7(164)	95.6(172)	95.5(277)	93.7(523)	94.0(125)
	전체	100.0(596)	100.0(576)	100.0(430)	100.0(567)	100.0(175)	100.0(180)	100.0(290)	100.0(558)	100.0(133)
	χ^2	.832		.273			1.668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예	11.4(68)	5.7(33)	9.1(39)	8.8(50)	6.9(12)	9.4(17)	8.7(25)	8.4(47)	8.3(11)
	아니오	88.6(527)	94.3(542)	90.9(390)	91.2(516)	93.1(163)	90.6(163)	91.3(264)	91.6(510)	91.7(121)
	전체	100.0(595)	100.0(575)	100.0(429)	100.0(566)	100.0(175)	100.0(180)	100.0(289)	100.0(557)	100.0(132)
	χ^2	12.001***		.843			.192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예	4.7(28)	1.2(7)	3.0(13)	3.5(20)	1.1(2)	5.6(10)	2.4(7)	2.5(14)	3.0(4)
	아니오	95.3(568)	98.8(569)	97.0(416)	96.5(547)	98.9(173)	94.4(170)	97.6(282)	97.5(544)	97.0(128)
	전체	100.0(596)	100.0(576)	100.0(429)	100.0(567)	100.0(175)	100.0(180)	100.0(289)	100.0(558)	100.0(132)
	χ^2	12.263***		2.626			4.802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예	2.5(15)	1.4(8)	1.9(8)	2.3(13)	1.1(2)	2.2(4)	1.4(4)	1.8(10)	4.5(6)
	아니오	97.5(581)	98.6(567)	98.1(422)	97.7(553)	98.9(173)	97.8(176)	98.6(286)	98.2(549)	95.5(127)
	전체	100.0(596)	100.0(575)	100.0(430)	100.0(566)	100.0(175)	100.0(180)	100.0(290)	100.0(559)	100.0(133)
	χ^2	1.925		.962			4.842			
일하다 다친 것에 대해 치료비나 보상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예	5.9(35)	2.3(13)	5.6(24)	3.9(22)	1.7(3)	7.2(13)	4.5(13)	3.0(17)	4.5(6)
	아니오	94.1(561)	97.7(562)	94.4(406)	96.1(545)	98.3(173)	92.8(167)	95.5(276)	97.0(542)	95.5(127)
	전체	100.0(596)	100.0(575)	100.0(430)	100.0(567)	100.0(176)	100.0(180)	100.0(289)	100.0(559)	100.0(133)
	χ^2	9.711**		4.931			6.019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예	13.8(82)	9.9(57)	11.7(50)	12.9(73)	8.6(15)	12.8(23)	13.1(38)	9.8(55)	15.9(21)
	아니오	86.2(514)	90.1(519)	88.3(379)	87.1(494)	91.4(160)	87.2(157)	86.9(251)	90.2(504)	84.1(111)
	전체	100.0(596)	100.0(576)	100.0(429)	100.0(567)	100.0(175)	100.0(180)	100.0(289)	100.0(559)	100.0(132)
	χ^2	4.181*		2.393			4.874			
고객으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예	3.7(22)	.3(2)	2.6(11)	1.9(11)	1.1(2)	2.8(5)	3.5(10)	1.8(10)	.0(0)
	아니오	96.3(574)	99.7(573)	97.4(418)	98.1(556)	98.9(173)	97.2(175)	96.5(279)	98.2(549)	100.0(132)
	전체	100.0(596)	100.0(575)	100.0(429)	100.0(567)	100.0(175)	100.0(180)	100.0(289)	100.0(559)	100.0(132)
	χ^2	16.296***		1.316			5.928			

내용/구분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졸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이상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예	2.3(14)	.9(5)	1.6(7)	1.8(10)	1.1(2)	1.1(2)	1.4(4)	1.6(9)	3.0(4)
	아니오	97.7(582)	99.1(571)	98.4(423)	98.2(557)	98.9(173)	98.9(178)	98.6(286)	98.4(550)	97.0(128)
	전체	100.0(596)	100.0(576)	100.0(430)	100.0(567)	100.0(175)	100.0(180)	100.0(290)	100.0(559)	100.0(132)
	χ^2	4.028*		.323			2.023			

* $p < .05$, ** $p < .01$, *** $p < .001$

학교관련 특성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의 유무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고교계열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특목/자율고 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유형의 부당 처우 경험 비율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서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표 III-111>).

표 III-111 부당처우 유형별 경험 유무 - 학교관련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	예	8.1(17)	13.5(130)	10.8(61)	16.4(58)	25.0(11)	13.5(73)	9.8(41)	16.1(33)
	아니오	91.9(194)	86.5(831)	89.2(503)	83.6(295)	75.0(33)	86.5(468)	90.2(379)	83.9(172)
	전체	100.0(211)	100.0(961)	100.0(564)	100.0(353)	100.0(44)	100.0(541)	100.0(420)	100.0(205)
	χ^2	4.720*		11.040**			5.739		
정해진 임금 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예	10.9(23)	15.0(144)	13.5(76)	17.3(61)	14.0(6)	15.2(82)	10.7(45)	19.0(39)
	아니오	89.1(188)	85.0(817)	86.5(488)	82.7(292)	86.0(37)	84.8(459)	89.3(375)	81.0(166)
	전체	100.0(211)	100.0(961)	100.0(564)	100.0(353)	100.0(43)	100.0(541)	100.0(420)	100.0(205)
	χ^2	2.362		2.511			8.49*		
초과 근무에 대해 초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예	7.6(16)	17.4(167)	14.2(80)	23.4(83)	9.3(4)	15.9(86)	12.4(52)	22.4(46)
	아니오	92.4(195)	82.6(794)	85.8(484)	76.6(271)	90.7(39)	84.1(455)	87.6(368)	77.6(159)
	전체	100.0(211)	100.0(961)	100.0(564)	100.0(354)	100.0(43)	100.0(541)	100.0(420)	100.0(205)
	χ^2	12.597***		15.039***			10.496**		
맡은 일 이외에 다른 일까지 역지로 한 적이 있다	예	6.2(13)	19.1(184)	15.1(85)	25.2(89)	25.0(11)	15.2(82)	15.0(63)	25.4(52)
	아니오	93.8(198)	80.9(777)	84.9(479)	74.8(264)	75.0(33)	84.8(459)	85.0(357)	74.6(153)
	전체	100.0(211)	100.0(961)	100.0(564)	100.0(353)	100.0(44)	100.0(541)	100.0(420)	100.0(205)
	χ^2	20.863***		15.345***			12.714**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	예	4.7(10)	5.5(53)	3.4(19)	9.6(34)	2.3(1)	3.9(21)	4.8(20)	11.2(23)
	아니오	95.3(201)	94.5(908)	96.6(545)	90.4(320)	97.7(42)	96.1(521)	95.2(400)	88.8(182)
	전체	100.0(211)	100.0(961)	100.0(564)	100.0(354)	100.0(43)	100.0(542)	100.0(420)	100.0(205)
	χ^2	.205		16.867***			16.141***		
고용주나 상 사로부터 심 한 욕설을 들 은 적이 있다	예	3.3(7)	9.8(94)	8.7(49)	11.9(42)	6.8(3)	7.6(41)	8.4(35)	12.2(25)
	아니오	96.7(203)	90.2(866)	91.3(514)	88.1(312)	93.2(41)	92.4(500)	91.6(384)	87.8(180)
	전체	100.0(210)	100.0(960)	100.0(563)	100.0(354)	100.0(44)	100.0(541)	100.0(419)	100.0(205)
	χ^2	9.112**		2.920			4.084		
고용주나 상 사로부터 맞 은 적이 있다	예	1.9(4)	3.3(32)	2.8(16)	4.2(15)	.0(0)	2.4(13)	2.1(9)	5.9(12)
	아니오	98.1(207)	96.7(929)	97.2(548)	95.8(338)	100.0(44)	97.6(528)	97.9(411)	94.1(193)
	전체	100.0(211)	100.0(961)	100.0(564)	100.0(353)	100.0(44)	100.0(541)	100.0(420)	100.0(205)
	χ^2	1.195		2.924			7.639*		
고용주나 상 사로부터 성 희롱(성폭력) 을 당한 적이 있다	예	2.4(5)	1.9(18)	2.1(12)	1.7(6)	2.3(1)	1.7(9)	1.9(8)	2.9(6)
	아니오	97.6(206)	98.1(942)	97.9(552)	98.3(347)	97.7(43)	98.3(532)	98.1(412)	97.1(198)
	전체	100.0(211)	100.0(960)	100.0(564)	100.0(353)	100.0(44)	100.0(541)	100.0(420)	100.0(204)
	χ^2	.220		.226			1.266		
일하다 다친 것에 대해 치 료비나 보상 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예	2.4(5)	4.5(43)	2.5(14)	8.2(29)	.0(0)	2.8(15)	4.3(18)	7.3(15)
	아니오	97.6(205)	95.5(918)	97.5(550)	91.8(324)	100.0(44)	97.2(526)	95.7(402)	92.7(190)
	전체	100.0(210)	100.0(961)	100.0(564)	100.0(353)	100.0(44)	100.0(541)	100.0(420)	100.0(205)
	χ^2	1.922		18.855***			7.826*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예	4.3(9)	13.4(129)	12.6(71)	14.2(50)	16.3(7)	11.5(62)	11.2(47)	14.1(29)
	아니오	95.7(201)	86.6(832)	87.4(493)	85.8(303)	83.7(36)	88.5(479)	88.8(373)	85.9(176)
	전체	100.0(210)	100.0(961)	100.0(564)	100.0(353)	100.0(43)	100.0(541)	100.0(420)	100.0(205)
	χ^2	13.842***		.805			1.290		
고객으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예	.9(2)	2.3(22)	2.1(12)	2.5(9)	2.3(1)	1.3(7)	2.6(11)	3.4(7)
	아니오	99.1(209)	97.7(939)	97.9(552)	97.5(344)	97.7(43)	98.7(535)	97.4(409)	96.6(198)
	전체	100.0(211)	100.0(961)	100.0(564)	100.0(353)	100.0(44)	100.0(542)	100.0(420)	100.0(205)
	χ^2	1.552		.173			3.910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성폭 력)을 당한 적이 있다	예	2.4(5)	1.5(14)	1.2(7)	1.7(6)	2.3(1)	.4(2)	1.9(8)	4.4(9)
	아니오	97.6(206)	98.5(947)	98.8(557)	98.3(347)	97.7(43)	99.6(540)	98.1(412)	95.6(196)
	전체	100.0(211)	100.0(961)	100.0(564)	100.0(353)	100.0(44)	100.0(542)	100.0(420)	100.0(205)
	χ^2	.904		.532			15.331***		

* $p < .05$, ** $p < .01$, *** $p < .001$

3) 요약

(1) 청소년 직업체험³²⁾

① 진로성숙도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를 조사한 결과 다섯가지 하위척도 중(계획성, 태도, 자기지식, 진로행동, 독립성)에서 ‘태도’(직업에 대한 태도)와 ‘자기지식’(자신의 적성 및 흥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진로 및 직업, 진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수집이나 관계자와의 만남 등에 대한 ‘진로준비행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진로성숙도 각 하위척도에 대한 배경변인별 분석에서는 여자청소년과 대도시 거주 청소년, 그리고 고등학생(일부 하위척도 제외), 고교 계열 중 특목/자율고 재학 청소년과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 또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적수준이 높은 청소년에게서 진로성숙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진로성숙도를 보인 남자청소년, 읍·면거주 청소년, 특성화고 청소년,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진로성숙도의 하위척도 중 ‘자기지식’은 오히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독립성’에 대해서는 교급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성화고 재학 청소년과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계획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진로체험 경험 내용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경험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직업에 대해 배웠으며(66.9%) 특정직업인의 직업관련 강연(59.8%)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직업체험프로그램의 경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현재 대부분의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진로체험과 특정직업인 강연에 치우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인턴십이나 현장실습과 같이 일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체험은 가장 낮은 경험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진로체험경험은 중소도시, 읍·면 거주 청소년들에게서 낮게 나타났으며, 소수의 예외항

32) 진로체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김희진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하였음.

목을 제외하면, 중학생, 특성화고등학생,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에게서 진로체험 경험률이 낮았다.

또한 진로체험 경험 유무는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진로체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평균이 진로체험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진로체험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진로성숙도 중 '자기지식'과 '태도(직업에 대한 태도)' 순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다섯 가지 진로성숙도 하위척도 모두 '특정직업인과의 만남/인터뷰', '특정직업인의 진학 및 진로관련 멘토링(상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견학 또는 전공체험', '직업모의체험' 등의 진로체험 경험 등에서 높은 평균을 보여, 이러한 진로체험이 청소년의 높은 진로성숙도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③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조사대상 청소년의 54%는 최근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사전교육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41.3%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매번은 아니지만 받은 적이 있다'가 38.7%, '사전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15%, 매번 사전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4.8%에 불과했다. 결국 '잘 모르겠다'는 응답과 '한 번도 사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는 56.4%로 사전교육이 더욱 강조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사후활동으로는 만족도조사가 가장 많았으며(3,176명),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내용은 '어떠한 사후활동도 없었다'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2,922명). 또한 교육당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에듀팍 작성 및 기재는 1,399명이 응답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사후활동이 없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과 교육당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에듀팍 작성 및 기재 비율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사전교육 및 사후활동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중학생과 대도시 거주, 그리고 고교 계열 중에는 특목/자율고 재학 청소년에게서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소도시나 읍·면 거주 청소년, 고등학생과 그 중에서도 특성화고와 일반고의 경우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낮은 수준이었고, 사전교육 및 사후활동에서도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자의 태도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청소년 스스로가 원해서 참여했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의 여부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조사결과 최근 1년간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스스로 원해서 참여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청소년의 비율은 52.8%정도로, 아직까지 비교적 수동적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체험 참여태도에 대해서는 약 57%의 청소년이 '적극적인 편이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라는 응답은 약 12%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원해서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여자청소년, 대도시 거주 청소년, 고등학생, 그 중에서도 특목/자율고 재학 청소년, 그리고 기대하는 교육수준이 높거나 학업성적이 높은 편인 청소년, 가정의 사회경제적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서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낮은 평균을 보인 남자청소년,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학교, 그리고 중학교와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 기대하는 교육수준이 낮고 학업성적과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인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 자발성 여부 및 참여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진로체험의 자발적인 참여가 적극적인 참여태도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러한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태도는 진로성숙도와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낮은 수준의 진로성숙도와 청소년들의 비자발적이고 소극적인 진로체험과의 관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⑤ 진로체험 경험과 관심 있는 진로와의 관련성 및 진로체험의 도움 정도

최근 1년간 참여한 진로체험프로그램과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진로분야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약간 넘는(51.5%) 청소년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는데, 이는 역시 과반수 정도의 청소년은 본인이 관심 있는 진로분야와는 관련 없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한다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다. 배경변인별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읍·면 지역 청소년, 기대교육수준이

고졸에 불과한 청소년, 특성화고 재학 청소년, 학업성적이 낮은 편인 청소년에게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을 보인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관심 진로분야와의 높은 관련성은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연관성을 보였는데, 청소년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진로체험 기회확대는 결국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태도와 연결될 수 있음을 나타내준다.

또한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진로체험을 통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73.2%), ‘진로 선택에 있어 더 많은 정보 습득’(약 70%), ‘학교 공부가 장래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이해’(약 68%)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비해, ‘희망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준비사항 등에 대한 정보 수집’(53.5%)과 ‘진학하려는 학교 또는 공부하려는 분야 선택’(58.5%)과 같이 자격증 관련 정보나 진학분야 선택 등 보다 구체적인 진로/진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로체험을 통해 도움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체험 경험의 다양한 진로/진학 분야에 대한 도움 정도는 특히 학교관련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일부항목 제외) 대체로 중학생, 특목/자율고 재학 청소년, 또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에게서 진로체험이 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진로체험 경험이 더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가능한 이른 진로체험 경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이들의 요구에 맞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에게서 진로체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낮은 것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체험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진학관련 영역에 대한 진로체험 경험의 도움 정도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이는 높은 진로성숙도를 통해, 진로체험 경험이 청소년의 실제 진로/진학 관련내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결국 진로체험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도 긍정적인 연관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진로체험을 경험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유형이 청소년 진로의 다양한 영역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모든 진로 영역에서 ‘인턴십/현장실습 등 직접 일해 보는 프로그램’, ‘특정 직업인의 진학/진로멘토링(상담)’, ‘진학을 원하는 학교 견학/ 전공체험’, ‘직업 모의체험’ 등 직접적인 직업체험과 진로멘토링이 청소년 대부분의 진로관련 부분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사전교육과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태도 역시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진학관련 이해 및 준비에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있어서 사전교육 및 체계적 운영의 중요성과 함께,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에 더욱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⑥ 향후 진로체험 참여의사

향후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참여의사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직업관련 강연뿐 아니라 직업 모의체험이나 직업현장, 학교견학 및 전공체험 등 비교적 직접적인 방식의 진로체험에 더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문직업인과의 인터뷰나 시청각 자료 활용과 같은 간접적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하게 제시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활동장소 및 운영방식에 따라 간접체험과 직접체험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이나 특정 직업인과의 강연이나 상담, 또는 관련 박람회 견학과 같은 간접체험보다는 직접 직업현장을 방문하고 체험해보는 직접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가 더 높았다. 그리고 간접 및 직접 체험 모두 여자청소년, 대도시 거주 청소년, 기대하는 교육수준이 높은 청소년, 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또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이 간접 및 직접적인 진로체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교 계열별로는 간접 및 직업체험에서 모두 특성화고 재학 청소년이 가장 낮은 참여의사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가 이미 진로 및 취업이 결정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진로체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무관심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특성과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일 때 대부분의 체험 항목의 참여의사가 높았고, 경제적수준이 보통인 경우 가장 참여의사가 낮았다.

진로성숙도 하위척도 중 '계획성', '태도', '진로행동'은 대체로 모든 내용의 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높은 참여의사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특정 직업인과의 강연 및 만남과 인터뷰, 멘토링이나 상담과 같은 진로체험 활동은 '진로행동'과 상당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진로체험에 스스로 참여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가 더 많았으며, 그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항목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견학 또는 전공체험'이었다.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항목은 가장 보편적인 간접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으로 나타났다.

⑦ 진로체험프로그램 개선사항

진로체험프로그램의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개선사항 1순위는 ‘관심 있는 분야 직업인과의 만남 기회 확대’(35.5%), 2순위는 ‘직업현장에서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25.1%)로 나타났다. 1순위 개선사항의 경우, 본 조사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중 ‘특정 직업인과의 만남이나 멘토링(상담)’이 낮은 경험률을 보인 것과 유사하며, 또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참여의사가 60%정도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진로체험프로그램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구성, 학생의견 반영 등의 내용이 진로체험 시간 확보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³³⁾

①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인지 수준 및 인지 경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 가장 기본적인 법규조차도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관련 법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들도 여전히 기본적인 연소자 근로보호 관련 법률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은 주로 TV와 인터넷을 통해 연소자 근로보호 관련 법규에 대해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기본적인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학교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안선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하였음.

②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특성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정의 경제적수준과 부모의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는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강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록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않는 우리사회의 인식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약 5분의 1에 달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참고 계속 일했다'와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5시간이상~10시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시간이상~15시간 미만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시간 이상 일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8.3%였고, 주당 40시간 이상 일했다는 응답한 청소년은 9.2%로 나타나는 등 근로시간이 상당히 긴 청소년의 비율이 적지 않아 이들이 학교적응이나 가정생활, 교우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서 등 연소자 근로에 필수적인 서류의 작성 또는 제출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서류의 미작성 및 미제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고용주가 싫어한다'거나 '서류를 작성 또는 제출하지 않아도 아르바이트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등의 이유가 많아 우리사회에 연소자근로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르바이트 도중 재해를 경험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업무 도중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상을 당하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32.0%로 가장 많았고, 재해 유형 중 가장 낮은 발생률을 보인 교통사고도 그 비율이 3.4%에 달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 시급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22.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이 많아졌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로감독이 지속·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경험을 했는지 여부를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부당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말은 일 이외에 다른 일까지 억지로 한 적이 있다’(16.8%), ‘초과근무에 대한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15.6%),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14.2%),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적이 있다’(12.6%),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11.8%) 등으로 나타났다.

제 4 장

정책제언

1. 청소년 직업체험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제 4 장

정책제언

1. 청소년 직업체험³⁴⁾

1) 청소년의 진로발달 강화

(1) 진로체험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진로성숙 방안 모색

청소년의 진로발달수준은 진로에 대한 청소년 자신의 능력과 흥미, 그리고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태도, 이를 기반으로 한 진로결정과 진로계획에 따른 진로준비 실천 정도를 포함하고 있는 진로성숙도를 통해 확인 수 있다. 본 연구의 진로성숙도 조사결과, 5개의 하위척도(계획성, 태도, 자기지식, 진로행동, 독립성) 중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태도와 자기지식에 대한 부분은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실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은 내용 중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 ‘향후 진학 학교/학업 분야선택’, ‘희망직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수집’ 과 같이 실질적인 진로계획 및 준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태도나 적성 파악 후 구체적인 진로결정과 관련 정보습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체험 기회가 더욱 필요하며, 무엇보다 희망직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진로체험내용을 구성·설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진로성숙도의 하위척도 모두 ‘특정직업인과의 만남/인터뷰’, ‘특정직업인의 진학 및 진로관련 멘토링(상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견학 또는 전공체험’, ‘직업모의체험’ 등의 진로체험 경험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인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유형의 진로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진로성숙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4) 본 절은 김희진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또한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 수준은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적극적 참여 여부와도 연관성을 보여, 진로성숙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진로성숙도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진로선택 및 관련 정보수집 방법을 이해하고, 특히 관심 있는 진로분야 관계자와의 만남·멘토링, 또 진학을 원하는 학교전공체험 및 직업모의체험 등을 위한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전국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창의적체험활동의 일환인 진로체험 활동에 더욱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창의적체험활동에서의 진로체험 활동시간 확대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본 조사결과를 반영한 진로체험을 기획하는데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2) 발달단계별 진로체험프로그램 제공 확대

청소년들이 성인기에 자신의 흥미와 역량에 맞는 건전한 직업을 갖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발달단계에 맞춘 시의적절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장·발달과정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 이에 맞는 진로탐색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진로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조사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졸업 후 진로선택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보다도 진로와 관련된 자기이해가 낮고 스스로의 진로선택에 있어 중학생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학생은 현재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프로그램의 확대로 고등학생보다 더 많은 진로체험 기회를 경험하고 있어, 일정 영역에서 진로발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더 이상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적성 및 흥미에 대한 이해가 늦지 않도록, 그리고 본인의 진로선택에 독립성을 갖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체험 기회가 더욱 필요하다. 특히 진로와 관련한 자기지식과 같은 내용은 진로탐색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자신의 능력과 흥미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학생 및 초등학생시기부터의 지속적인 진로발달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초등학생 시기부터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일본사례와 같이, 초등학생 시기에는 기업체 견학과 같은 간접체험, 중학교시기에는 직장체험을 통한 직업적성 파악, 고등학교시기에는 인턴십 및 현장실습과 같은 구체적인 직업적 특성 이해와 같은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참여 일수나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더 심화된, 단계적인 진로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부여 및 주도적 참여 독려

(1) 동기부여 강화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동기부여는 이들의 성인기 삶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이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는데 있어 동기부여는 그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원해서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은 절반이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아직까지 수동적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시사하며,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내용을 미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전학습단계에서 향후 체험할 직업에 대한 직무 및 시장 환경 등을 조사·발표하게 하는 등 사전에 더욱 흥미를 갖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결과, 높은 수준의 진로성숙도가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진로체험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진로·직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의 적성 및 흥미 파악을 위한 진로체험 시작단계에서부터 청소년들에게 동기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관련 리플릿과 자료집들을 통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다방면으로 강조하고, 홍보함으로써 각 가정에서부터 청소년들이 더욱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2) 청소년 주도적인 진로체험 참여 유도

본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청소년들이 참여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의 도움정도와 높은 관련성을 보여, 청소년들의 참여 태도가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현재 일괄적이고

일방적으로 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보다는 청소년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기존의 학교에서 전적으로 기획하고 제공하는 형태의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아닌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여 참여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방향전환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창의적체험 활동의 자율·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 그리고 진로체험활동을 연계하여 통합·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진로체험활동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기획하고 체험해 보면서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진로 및 직업관련 역량뿐 아니라 향후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능력과 사회기술(의사소통 기술 등)도 훈련할 수 있다.

(3) 다양한 직업세계 이해 증진을 통한 적극적 참여 유도

청소년들이 대체로 희망하는 장래 직업은 학부모들이나 매스미디어에서 강조하는 인기 있는 일부 직종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흥미가 없는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중요한 일자리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에 대한 시각을 더욱 확대시켜줄 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교과과정이나 시청각 자료, 그리고 직업체험 시설 탐방, 직업현장 방문 등 다양하고 흥미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청소년들의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잡월드³⁵⁾와 같은 직업체험시설에 더욱 다양한 직업들에 대한 체험시설과 공간이 구비될 필요가 있으며, 또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위하여 적어도 시·도 자치단체별로 이러한 시설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뿐 아니라 사회에 다양한 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 장래 희망하는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도 소중히 생각하고, 이후 진로·직업 체험에 더욱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결국 청소년들은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직업의식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35) 한국잡월드(<http://koreajobworld.or.kr/Index.do/>)

3) 현장중심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1) 현장중심형 진로체험지원시스템 구축

청소년들이 향후 참여하고 싶은 진로체험프로그램과 현재의 관련프로그램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이나 특정직업인의 강연, 박람회 견학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보다는, 진학을 원하는 학교견학/전공체험, 인턴십 및 현장실습, 직업현장 견학 및 직업 모의체험과 같은,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현장중심형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국제비교조사(PISA)에서 기업체 방문(44.1%)이나 현장실습(4.8%)과 같은 현장중심형 체험의 운영이 최하수준으로 나타난(김기현, 맹영임, 2011) 우리 현실에서 이러한 선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현장체험이 가능한 직업 및 직종, 작업 시설 및 환경은 매우 제한적이다. 더구나 2014년에 전국적으로 배치가 완료되는 진로지도상담교사나 진로체험활동을 포함한 창의적체험활동 담당교사의 수와 역량이 제한적인 학교현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청소년들의 선호에 맞춘 현장체험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직업체험 기관 섭외 및 연계·운영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서 외국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핀란드의 현장중심형 직업체험 온라인 정보방(TET-tori)과 같이 학생과 보호자, 학교담당자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수준의 협력체계가 매우 절실하다. 우리나라에도 청소년들의 진로지도 및 진로체험을 위한 유사한 정보웹사이트(커리어넷, 시·도교육청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 등)들이 있으나, 주로 진학/대학관련 정보이거나 적성 탐색 및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적성검사 및 진로상담 등이 주 내용으로 현장중심형 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다. 더불어 교육부의 창의인성 교육넷³⁶⁾의 창의체험자원지도(CRM : Creative activity Resource Map)등도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진로체험 활동이 일부 포함되는 수준으로, 진로체험을 위한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장중심형 진로체험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사 - 학생 - 기업 간에 진로체험과 관련된 책임 있는 정보가(예, 현장체험가능 기업소개, 참여학생 수, 학생들의 업무 예시 등) 자유롭게 교류되는 등, 이러한 진로체험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지원체계의 전환 및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기업의 참여가 매우 필수적인데, 이렇게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청소년

36) 창의인성교육넷 http://www.crezone.net/main_new.do

친화적 기업으로서의 긍정적 이미지를 홍보하고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인증시스템이나 진로체험을 위한 특별 보조금 제도와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인들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더 나아가 우리 전체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우선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자유학기제와 같은 집중적인 직접 체험 기회 확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현장에서의 인턴십이나 현장실습, 그리고 모의체험과 같은 현장체험형의 직접적인 진로체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일이나 기술의 실재를 경험하게도 하지만, 직업현장에서 더욱 구체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일에 대한 직업인들의 태도를 관찰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그러나 현재 주로 운영되고 있는 일회성의 단기간 진로체험활동으로는 이러한 현장 직업체험 기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핀란드 학생들이 1~2주간 동안 '직업생활 소개기간'을 갖고 실제 직업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는 사례와 같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진로체험이 가능한 특정기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탐색 및 자유로운 수업·학습경험 등을 위해 자유학기제 도입을 위한 시범 연구학교³⁷⁾를 운영 중에 있다(교육부, 2013a). 현재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본격적인 진로준비를 위해서는 중학교 2~3학년이나 고등학교 시기 등 자유학기제 시행시기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들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시기에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유학기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단발성 진로체험보다는 내용의 연속성을 고려한 연속형 진로체험을 확대함으로써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부터 현장에서의 직접 체험까지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37) 현재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42개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전면 실시를 계획 중에 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적성을 확인하고, 집중적인 진로수업 및 체험을 통해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자유학기제 대상학기(현재는 1학년 2학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의 평가는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등). 자유학기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및 수업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동아리활동, 진로탐색, 예술체육, 학생선택프로그램 중 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거나 혼합해서 운영하기도 한다. 대체로 많은 학교에서 진로 탐색에 중점을 두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13b).

4)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제공

(1) 개인 맞춤형 진로체험을 위한 욕구파악

주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급이나 학교 단위 수준의 대규모 진로체험프로그램은 현재 학교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개인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각각의 진로체험 실태와 관련하여 다양한 배경변인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특히 거주하고 있는 지역규모와 기대하는 교육수준, 교급 및 고교 계열, 학업성적,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 특성화고 재학 청소년, 또 학업성취와 가정의 경제적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에게서 진로성숙도 및 진로체험 경험내용과 태도, 진로체험의 도움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결과를 보여, 이러한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진로체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체험한 진로체험 경험이 관심진로분야와의 관련성도 낮다고 응답해 이들의 욕구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2) 읍·면지역 대상의 진로체험 지원 강화

청소년들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규모에 따라서 진로성숙도,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 여부, 그리고 체계적 운영과 사전교육 및 사후활동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대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은 중소도시나 읍·면 거주 청소년들에게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읍·면 거주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체험과 관련된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진로체험 기회가 더 적을 수 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의 청소년들은 가능한 동일한 수준에서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읍·면지역 특히 농산어촌 및 벽지의 청소년들을 위해 온라인 화상 멘토링 진로체험의 시범 운영³⁸⁾을

38) 「온라인 화상 멘토링 진로체험 시범운영 사업」은 2013년 9월 교육부에서 계획이 수립된데 이어, 11월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시범운영하고 있다. 스마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진로교육 자원이 부족한 벽지의 학생들에게 원격 전문직업인 멘토링 사업뿐 아니라 그 외 직업탐색을 위한 다양한 진로지도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2013년 말 SCEP (학교진로교육 프로그램: 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 시범학교 16개교와 충남과 강원지역 각각 25개교, 16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교육부, 2013c).

계획하고 있다(교육부, 2013c).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이러한 원격 직업인 멘토링 사업은, 본 조사결과에서 읍·면 지역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성숙도를 보였고, 또 전문직업인과의 멘토링(상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범사업은 향후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벽지뿐 아니라 진로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충분히 활용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상의 한계, 그리고 학급 및 학교단위의 대단위 프로그램인 것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실제 전문 직업인을 만나고 이들로부터 개별적인 수준에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고교 특성별 진로체험프로그램 특화 필요

대부분의 조사항목에서 일반고와 특성화고, 그리고 특목/자율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많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이들 학교 재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제공이 매우 필요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와 진로발달, 그리고 진로·직업에 대한 태도 및 흥미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특성화고의 경우 최근 대학진학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재학 청소년에게서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참여 태도와 향후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 의사 등에서 다른 계열 고등학교 재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진로 및 취업이 결정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진로체험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자신의 진로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는, 무관심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특성화고 재학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통해 이들이 직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인재로서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하여야 한다.

(4) 낮은 학업성취 청소년에 대한 동기부여 필요

진로체험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태도는 청소년이 기대하는 교육수준과 학업성적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입시

및 진학 중심의 학교교육 속에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교육수준이 낮거나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이들이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진로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우 진로성숙도를 포함한 진로발달의 측면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은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들 청소년들의 낮은 학업성취가 이들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효능감 등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적극적인 진로체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분히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직업관련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들 청소년에게는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흥미 있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필요한데, 대부분 이러한 내용은 초·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등학생과 같은 상대적으로 높은 교급의 청소년은 흥미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눈높이와 학업성취, 그리고 개인의 직업 적성 및 흥미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

가정의 경제적수준이 낮은 취약계층 청소년도 진로성숙도,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 태도와 진로체험 참여의사 등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취약계층 청소년은 진로에 대한 관심이나 진로지도에 있어 부모의 적절한 지원과 안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본 조사에서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가 경제적수준이 낮은 편인 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난 것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진로체험 욕구에 부합하도록 수요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이들 청소년이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들이 현재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이들에게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전문직업인의 멘토링과 상담 등을 더욱 확대·제공하여야 한다.

5)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및 기록·관리 강화

(1) 체계적인 사전교육 및 사후활동 기반 마련

체계적인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일정에 따른 운영 여부와 적절한 사전교육 및 사후활동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조사결과, 일정에 따른 체계적 운영은 과반수 정도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사전교육에 대해서도 한 번도 사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다(56.4%). 또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사후활동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응답이 약 30%에 달해 현재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여부에 따라 진로체험프로그램의 도움정도와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태도에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진로체험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에도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계획 및 일정을 현실성 있게 마련하고, 사전교육 및 사후활동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사전교육과 사후활동을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 체험기관의 협조도 매우 필요한데, 일본 사례와 같은 기업용, 학생용, 교사용, 부모용 진로체험매뉴얼은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협조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진로체험 일터의 멘토용, 학교 및 교육청용의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는데, 학부모용 매뉴얼의 개발을 포함하여 이러한 매뉴얼이 더욱 확대·보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후활동으로써 만족도 조사 외에 ‘어떠한 사후활동도 없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로체험이 이루어지는 모든 학교 현장 및 기관, 그리고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사후활동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진로체험 경험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평가까지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진로체험활동이나 프로그램의 유형과 내용별로 청소년의 진로발달상에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척도 또는 지수 개발과 같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기록·관리 강화

진로체험프로그램의 활동 내역과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진로발달 및 실질적인 진로준비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나가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 교육당국에서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사후활동으로서 에듀팟에의 작성 및 기재를 강조하고 있지만, 본 조사에 의하면 진로체험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작성 및 기재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러한 이유는 학생들의 인지도 부족과 교사의 시간 부족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더욱 보완하여 에듀팟 관리 및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관리를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자료로서의 활용가치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진로체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청소년 자신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축적된 자료로서의 의미에도 더욱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진로체험 활동은 대체로 창의적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진로체험을 포함한 창의적체험활동을 기록·관리·평가하기 위한 주요 장치가 에듀팟(edupot,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이다. 2013년부터 에듀팟이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연계되어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이러한 진로체험관련 내용을 기록할 수 있으므로(교육부, 2013b),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활동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청소년의 진로선택 및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교사를 포함한 학교현장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6) 진로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활용

(1) 진로체험 지원체계 마련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진로체험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험을 제공하는 기관 및 기업과 진로체험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연결·관리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배경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자원들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전문가의 역할도 매우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체험지원전담기구로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청소년에 적합한 진로체험이 가능한 각 지역의 일터를 발굴하여 청소년들의

흥미에 맞는 지 확인하여 연결하며, 학교 및 직업체험기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센터는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서울의 14개 자치구³⁹⁾와 인천, 울산, 포항 등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확대·설치되고 있다. 아직 대부분 시범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운영의 내실화를 논하는 것이 이를 수 있지만 경쟁적인 설치·확대보다는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진로체험 관련 정보의 관리 및 상호 공유와 체험기관 관리 등을 위해 최근 각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진로체험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⁴⁰⁾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정교한 평가체계도 함께 요구된다.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과 관련하여, 우선 2011년부터 양성·배치되고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탐색과 진로설계 등의 진로지도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교사로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현재 100%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⁴¹⁾ 진로지도상담교사 양성 및 배치는 기존의 담임교사나 특정과목 교사가 담당해야 했던 부분을 학교 내 전문교사인력으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전체 학생들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학교 밖의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 관련 자원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연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자원 관리 및 연계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타 지역의 자원과의 공유를 전담하며,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력은 진로체험 코디네이터 또는 진로코치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할 수 있으며, 학교 내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파트너로서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자원 관리 및 진로체험 매칭(matching)이 주된 역할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의 설치 및 확대가 조기에 어렵기 때문에 우선 교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선발·양성하여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 관련 기관, 또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에 배치하여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 인력으로서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대학의 관련학교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진로체험 코디네이터 과정을 개설하여, 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39) 연합뉴스(2013. 5. 21). 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21/0200000000AKR20130521061400004.HTML?input=sns

40) 미래부 교육부 고용부 합동 브리핑(2013).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41) 진로지도상담교사는 2011년부터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배치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총 5,208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게 되는데, 이 비율은 전체 중고교의 94.5%(중학교 93.2%, 고등학교 96.2%)에 달한다.

(2) 전문직업인의 활용 확대

본 조사에서 진로체험프로그램의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개선사항 1순위는 ‘관심 있는 분야 직업인과의 만남 기회 확대’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응답은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경험 내용에서 특정직업인과의 일대일 만남이나 멘토링(상담)을 받은 경험이 매우 낮으며, 또 향후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의사에서도 특정직업인과의 만남이나 멘토링(상담)에 대한 호응이 높은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들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기타 의견 중 진로상담 및 멘토링을 포함한 개별화된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 지원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된 것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TV등의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진로분야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단편적이거나 일반적인 정보만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전문직업인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훌륭한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된다.

특정분야의 전문직업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기존의 강연 중심뿐 아니라 이들의 직업 분야에 관심 있어 하는 청소년과의 일대일 상담이나 멘토링을 통한 접근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전문직업인들과의 상담과 멘토링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진로와 직업 탐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할 뿐 아니라 진로결정 및 직업선택과정과 준비노력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종의 전문직업인을 자원봉사자나 멘토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시급하다. 각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전문직업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외할 수 있는 방안은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학부모 중 전문직업인을 찾거나 학부모를 통해 지역사회 내 인사 또는 외부의 전문직업인을 연결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교육기부를 하고 있는 기업의 전문 인력을 섭외하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직업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진로계획에 참여하는 가치 있는 일로써 그 역할에 대해 재조명하는 등 사회인식의 개선이 보다 우선된다. 또한 보다 많은 직종의 전문직업인이 청소년의 효과적인 진로체험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과 함께 유·무형의 인센티브 혜택 역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⁴²⁾

1) 정부 정책의 개선과제

(1) 청소년 고용 사업장 감독 강화

① 노동부의 지도·점검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고용노동부에 의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점검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두 번에 걸쳐 총 1,812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총 7,10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는데, 지도·점검 대상 업체 수가 첫 종합대책이 수립된 2005년에는 913개소였던 데 반해 2006년에는 1,502개소, 2008년 1,318개소, 2009년 1,621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대상 업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³⁾ 연소자증명서 등 서류의 비치 여부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등 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절실한 사항이나 최저임금 주지 의무 준수, 성희롱 예방교육 등 예방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가 점검항목으로 대폭 확대된 것 역시 긍정적이다.

반면 2005년 정부대책 발표 이후부터 2013년 1월~2월 이루어진 가장 최근의 지도·점검에서도 법 위반 사업장이 평균 80% 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라는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앞의 <표 II-19>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정부나 민간단체의 실태보고와도 상당한 괴리가 있을 정도로 일부에 머물러 있다. 2005년부터 법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대책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법 위반 노동조건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지만,⁴⁴⁾ 고용노동부의 감독에서는 2005년 위반 사업장 544개소 중 사법처리

42) 본 절은 안선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배경내 활동가(인권교육 등)가 공동 집필하였음.

43) 고용노동부. 여름·겨울방학 기간 지도·점검 결과 발표자료 참고.

44)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청소년만 살펴보다라도 2009년 노동부 실태조사에서는 37.6%, 2011년 조사에서는 46.7%로 오히려 증가했다.

건수는 0건, 2008년 위반 사업장 1,031개소 중 사법처리 건수는 7건, 2009년에는 위반 사업장 1,389개소 중 사법처리 건수는 단 1건으로 집계되고 있다(김기현 외, 2011, p.97).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처벌이 미미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동안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법 위반 사항은 총 22,288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벌칙 부과 등 처벌 건수는 단 14건에 불과해 처벌비율이 단 0.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4585건 가운데 처벌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했고, 최저임금 위반 588건, 주휴수당 미지급 329건,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464건, 퇴직금 미지급 27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처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⁴⁵⁾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보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또는 시정기간이 지나도록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범죄로 인지하여 사법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것만으로 시정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는 관행 때문에 사후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뒤이은 사법처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확충하고 법 위반 반복 사업장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 없이 불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류 조사 중심에서 벗어나 일하는 청소년과의 면접조사도 강화되어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고 없는 사업장 감독' 제도는 국제기준⁴⁶⁾이기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고통을 다층적으로 고려한 근로감독점검표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휴게시간 제공 여부, 모욕·폭력 경험, 노동안전도 등도 통합적으로 점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화된 점검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수도 확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근로감독의 실질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이 발표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정책적 한계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2012년 정부 종합대책에서 법 위반업체에 대한 확인감독제가 도입되고, 정부가 위촉한 청소년 근로지킴이나 청소년 리더가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라도 불시감독제가 도입된 것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위반 사업장의 10%에 대해서만 확인감독제가 실시되는

45) 주간경향 1049호(2013.10.29). “노동법 위반 사업장 시정률 무려 99.9%? :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알바 많아도 근로감독 적발건수의 0.06%만 처벌”

46) 국제노동기구(ILO) 제81호 협약(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은 제12조와 제16조에서 예고 없는 사업장 감독의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것은 반복적인 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검 결과 법 위반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도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현행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② 관계기관 합동점검

한편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주관으로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하고 있다(김기현, 김가람, 2011). 관계기관 합동점검은 불시 점검 방식으로 4일간의 단기간 동안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검 사업장의 규모 역시 200~300개소 내외로 적은 편이다.

표 IV-1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한 법 위반 적발내역

년도	점검 업소	적발 업소	적발내역 및 건수								
			계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	근로자 명부 미비치	임금대장 미비치	연소자 증명 미비치	최저임금 미지급	야간·휴일 근무조건 위반	임금 체불	기타
2010.8.	290	39	164	44	-	-	30	11	7	-	72
2011.1.	208	38	147	49	-	-	26	9	1	1	61
2012.8.	232	48	144	36	28	13	13	-	-	-	54

※ 여성가족부 점검결과 보도자료(2010~2012) 참조하여 재구성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보면,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에 비해 위반 사업장 비율이 매우 낮아 실효성이 의심된다. 위반 사업장 적발이 어려운 이유로는 점검 기간이 매우 짧고, 대상 사업장 선정 방식이 체계적이지 않아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점검이 집중되지 못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김기현, 유성렬, 2011). 2012년부터는 점검대상 항목에서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여부 등 주요 항목이 오히려 빠졌는데, 이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점차 서류 중심의 형식적 점검으로 흘러가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된다. 합동점검이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점검 항목에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같은 점검 항목이 빠져있는 점도 문제다. 2012년 정부의 종합대책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 횟수가 2회에서 4회로 확대되었지만, 단지 횟수만 확대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그칠 우려가 크다. 점검 기간의 확대나 점검 방식의 변경 등 점검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보완책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2) 관련 노동관계법 교육과 홍보 내실화

① 홍보·캠페인

고용노동부는 2006년 10월부터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를 선발(2010년 80명 → 2011년 120명 → 2012년 145명)하여 청소년 주도의 홍보 활동도 전개해 왔다. 이와 함께 ‘청소년알바십계명’ 홍보와 교육자료를 학교에 배포하고, 최저임금 홍보자료와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등을 제작하여 사업체와 청소년단체, 구인·구직사이트 등에 배포하는 정책도 펼쳐왔다. 2013년부터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이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 기준 홍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2009년 노동부 등의 조사에서 청소년의 96.5%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도도 29.3%로 낮았다. 2011년 노동부 조사에서도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알고 있는 청소년은 9.1%로, 2009년에 비해 다소 인지도가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권리 구제 방안과 같은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거나 오히려 후퇴(2009년 28.9% → 2011년 14.8%)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도 고용노동부가 배포하고 있는 알바십계명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단 10%에 불과했다. 인터넷 홍보나 홍보자료의 제작·배포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배포된 자료가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홍보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한 법령 중심의 홍보를 벗어나 구체적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한 홍보와 접근하기 쉬운 신고·상담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보건대, 2012년 정부 대책에서 또래 홍보단이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 리더」가 확대 운영되고, 연중 상시적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점검 활동을 벌이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제도가 신설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⁴⁷⁾ 그러나 「청소년 리더」가 2012년

47)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12.11~12월)을 통해 위반 및 의심사례 831곳을 적발하고 1만4449개 사업장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2012. 1. 15),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중: 중앙일보의 ‘방학은 알바 시즌…절만난 임금착취·인권침해’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30개 팀에서 2013년 45개 팀으로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재학 중인 학생들이 캠페인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의 한계나 지역 분포를 고려할 때 전국을 포괄하기에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의 경우도 위촉 기간이 짧고(위촉 시기~2013.7월말)⁴⁸⁾ 하루 활동사례비가 최대 24,000원에 불과(1주간 성과목표를 추가 달성한 경우에 최대 10만원 성과사례비 지급)해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근로감독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100명 정도의 인력으로 사업장 방문과 홍보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위촉한 한정된 인원을 중심으로 홍보·캠페인에 주력하기보다는 관련 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통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2012년 대책에 포함된 「민관합동 청소년근로보호 서포터즈」가 내실 있게 구성·운영된다면 정부 홍보의 빈틈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노동인권·노동관계법 교육

청소년, 교사,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의 경우는 2005년 종합대책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정책으로 제안되었으나 제대로 추진된 적 없다. 교사, 사업주에 대한 교육도 시급하지만, 특히 청소년에게는 단순한 홍보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상황별 대처 방안 등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 외(2011)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관계법령을 인지하게 된 경로는 친구(23.2%), 방송매체(19.6%), 인터넷(15.5%)이 주였고, 학교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했다. 학교 교사 가운데 청소년 노동보호정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55.0%에 불과했는데, 이 조사가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고 현장실습도 내보내는 특성화고 계열의 취업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⁴⁹⁾을 고려하면 정책 홍보와 교육의 공백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노동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답한 교사 및 실무자는 59.6%에 이르렀는데, 교육내용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안내가 85.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48) 고용노동부는 위촉기간이 짧은 이유를 사업의 실효성이나 예산 배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49) 2011년 노동부 조사는 청소년, 교사 및 실무자, 사업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교사 및 실무자의 경우 특성화고 취업담당교사가 120명, 학교 밖 청소년 담당 청소년자활후견기관 등 실무자가 36명 참여했다.

등 단순한 법 기준 안내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응답률에 대해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⁵⁰⁾ 이번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주로 TV와 인터넷을 통해 노동관련 법규와 기준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답했고, 학교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비율은 10%미만대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2014년까지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배치될 진로진학상담교사⁵¹⁾로 하여금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역량을 기르고,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을 통해 노동관계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담당 교사에 따라 교육 방식이나 내용, 비중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업무 과부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진로진학상담교사에게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신입교사 연수, 관련 단체·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강사풀 형성과 지원 등의 보완책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수록하여 교육과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게다가 학생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 경험 정도가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2012년 정부대책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이 빠진 점은 시급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3) 신고·구제체계 내실화와 피해구제 강화

고용노동부는 2005년 정부대책 발표 이후 사이버신고센터 개설, 2008년 이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는 여름·겨울방학 기간 중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일제 신고 기간’ 지정, 2011년 11월 1일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안심알바신고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피해구제를 꺼리거나 신고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향이 여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9년 노동부 조사에서 청소년의 구제방안에 대한 인지도는 28.9%였고, 2011년 조사에서는 14.8%에 불과했다. 임금 미지급의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50) 하인호(2011)는 “자기소개서, 면접 등 취업관련 교육만 이루어지고 노동관계법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89.5%가 실시하였다는 결과는 믿기 어렵다.”면서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의해 산업체 현장실습을 내보내기 전에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노동관계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사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사 가운데 노동관련법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서울 46명, 부산 1명, 대구 0명, 인천 100명, 광주 4명, 대전 0명, 울산 16명에 그쳤다. 현장실습 파견 전 사전교육도 서울공고 2회 2시간, 안양공고 1회 2시간, 인천기계공고 3회 3시간, 광주공고 1회 1시간, 대구공고 1시간, 부산기계공고와 울산공고 0시간 등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51) 진로진학상담교사는 2011년 3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입된 교과 전담 교사(2급 정교사)로서, 「진로와 진학」 교과수업, 진로상담, 직업체험활동 등을 담당하게 된다.

받아 해결한 경우는 14%, 폭행이나 업무상 재해, 부당해고 등과 같은 불이익을 경험한 경우에도 '참고 일했다'라고 답한 청소년이 44.9%, '일을 그만두었다'고 답한 청소년은 39.3%였으며, 교사나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경우는 1.0%에 불과해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표 IV-2 불이익에 대한 대처방법

구 분		집단		합계
		진학	비진학	
부당한 일을 경험시 대응방식	참고 일했다	72	16	88
		46.5%	39.0%	44.9%
	개인적으로 항의하였다	6	5	11
		3.9%	12.2%	5.6%
	일을 그만 두었다	63	14	77
		40.6%	34.1%	39.3%
	가족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았다	0	1	1
		0.0%	2.4%	0.5%
교사나 아는 기관 선생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1	1	2	
	0.6%	2.4%	1.0%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	5	2	7	
	3.2%	4.9%	3.6%	
기타	8	2	10	
	5.2%	4.9%	5.1%	
합 계		155	41	196
		100.0%	100.0%	100.0%

※ 고용노동부 외(2011), p.77에서 재인용

청소년들 생활공간 가까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자 도입된 학교 안 '안심알바신고센터'는 구상은 좋았으나 실제로는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해 전시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안심알바신고센터는 청소년들이 신고한 아르바이트 피해사례를 전담교사가 지방노동지청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고, 센터와 근로감독관이 연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2012)는 청소년에게 직접 진정을 넣게 하거나 수업시간 중 지방노동관 서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사업주와 대질조사를 하고,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떠넘기고,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처리방침이 달라 혼선을 빚는 등 졸속운영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구제절차가 이렇다 보니 청소년들이 구제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하거나 꺼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센터가 설치되어도 학생과 교사에게 거의 홍보가 되지 않고, 담당교사도 자신이 담당자인

줄 모를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⁵²⁾ 그 결과, 전국 111개 신고센터 가운데 이용 실적이 있는 곳은 6곳 뿐이고 나머지 105곳은 신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⁵³⁾

이에 비추어보건대, 2012년 정부 종합대책에서 알바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교육청 상담 창구 개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상담원복지센터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다. 2012년 11월부터는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48명이 지정되고, 신고 대표전화(1644-3119) 개설, 모바일 앱 개발·배포 등을 통해 신고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문제는 이 정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지속되는가에 있다. 알바신고센터 운영 지원, 전담교사·상담원·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피해 신고 시 신속한 현장 근로감독 실시, 타 지역과의 공조체계 마련 등이 주요 개선 방향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범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지원사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⁴⁾ 이 사업은 사이버상담이나 문자상담 등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신고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현장도우미(일명 해피워크 매니저)를 지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해신고를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이 상담센터나 상담전화를 개설해놓고 청소년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보완한다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신고·구제절차의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 지원망과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일하는 청소년들의 생활세계에 밀착한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개 청소년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차원의 정책이 내실 있게 마련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52)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보도자료(2012. 4. 20), 「고용노동부 '안심알바신고센터' 운영개선을 위한 공개 촉구서」, 2011. 12. 26.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개질의서,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운영규정 및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공개질의서」 안심알바신고센터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공개질의서.

5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2012년 국정감사에서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한겨레(2012.11.18), “청소년 알바 ‘노예노동’ 내모는 사회…신고센터는 ‘개점휴업’”.

5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지원사업 시범실시」(2013.07.05).

이에 비추어 최근 경기, 광주, 서울 등 몇몇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양성과 운영, 노동인권교실 운영, 노동인권에 관한 교사연수 진행, 관련 매뉴얼 제작·보급, 노동인권 교과서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광주교육청은 2011년 말부터 교육청 단위에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두어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상담과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상담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지방노동청에 연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2013년 10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고 콜센터를 새로 설치해 운영하고 지방노동청과 학교와 청소년기관에 설치된 안심알바신고센터 담당자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노력이 모든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시(市)나 구(區) 차원에서도 별도의 지원망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나 교육청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청소년도 있고,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 동안 학교의 업무가 사실상 정지된다는 점, 교육청과 학교 단위에서는 청소년 고용 업소에 대한 직접적 감독이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 차원의 별도의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비추어볼 때 최근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별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거나 청소년 인권 조례 안에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변화가 뒤따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⁵⁵⁾ 특히 서울시의 정책 시도가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는 2012년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근로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7월에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고, 뒤이어 9월에는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선포했다. 권리장전은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청소년의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기보다 기존 법률에서 보장된 권리들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있을 뿐이지만, 이와 함께 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권리장전 선포와 함께 프랜차이즈 기업과 사용자협회 등과의 협약 체결,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노동인권교육 실시, 구(區) 단위 알바신고센터 설치,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실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발간·배포 등의 사업도 동시 추진하고 있다.⁵⁶⁾ 정부는 이와 같은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 노력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 공조, 예산 확보와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55)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제정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56)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보호 위한 권리장전 발표」(2013.9.23.)

2)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법제와 개선 과제

2005년 정부 종합대책에서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률의 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그 이후 이루어진 법적 개선은 매우 미흡하다. 청소년 노동자는 성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협약, 노동관계법에 따른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우리 법제는 청소년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에 대한 추가적 보호조치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인 보호 법률이다.

(1)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제3항은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것으로, 청소년 고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근로조건 명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서의 서면명시)에서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노동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⁵⁷⁾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고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 등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그 효과는 미흡하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1항에서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청소년 다수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5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서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2) 근로시간과 휴게·휴가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서는 청소년의 야간노동(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과 휴일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4조(휴게)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감독이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동법 제55조(휴일)에서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한 달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청소년도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법정 근로시간의 경우, 성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에 반해 청소년에게는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규정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2010)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청소년의 법정 근로시간을 1주 35시간으로, 연장근로는 1주 5시간 한도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는 연소자의 1일 법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볼 때, 1주 40시간 근로는 주 6일 근무를 상정한 것으로서 연소자에 대한 주 5일 근무제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하며, 2003. 9. 15.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성인의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또한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헌법에도 어긋난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p. 5).

야간노동이나 휴일노동에 관한 규정은 야간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증가나 청소년들이 다수 일하고 있는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의 업무 종료 시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힘들다. 따라서 관련 법 규정이 청소년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욕구를 제한하거나 청소년 고용을 기피하게 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 제한이나 야간노동 전반에 대한 최소화 정책, 그리고 야간·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 전면 적용,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대다수 일하는 서비스업종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아예 의자에 앉지 못하는 노동규율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근로감독 등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유급휴일에도 일을 했을 경우 청소년은 그날 일한 임금과 함께 주휴(일)수당도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분류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근로감독이나 실태조사에서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아 더더욱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다.⁵⁸⁾

무엇보다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제60조(연차유급휴가)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⁵⁹⁾ 특히 청소년들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확대 적용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년 2월 4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에서도 다시금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 수준 향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야간·휴일 노동을 줄이는 효과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3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1)

구분	적용법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 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58) ‘알바연대’가 서울 대학로 주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5%에 불과했다. 오마이뉴스(2013. 6. 5). “알바생은 유령”... 53%가 근로계약서도 안 써”.

59)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분	적용법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출처: 근로기준법

(3) 정당한 임금 보장과 임금체불 금지

청소년들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이 기대할 수 있는 최고임금이 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다고 해도 최저임금에서 정한 시급보다 1~2천원 높은 정도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청소년 노동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부는 매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2013년 최저임금액은 4,860원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규모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된다. 최저임금법상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제28조(벌칙)에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⁶⁰⁾”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법이 개정되어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액 등을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는 주지 의무가 신설되었다.⁶¹⁾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 온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가 문제가 되어 있다. 종래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2항에서는 수습노동자에 대해 3개월 이내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아, 최저임금

60)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

6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1항에 따라 사용자가 주지시켜야 할 내용은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이다.

지급을 요구할 경우 수습기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급을 거부하는 악용 사례가 있어왔던 것이다. 별도의 수습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면서, 최저임금 위반 혐의를 부정하는 주요 명분이 ‘수습기간 감액’이었다. 다행히 2011년 9월 9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이후 최저임금법 개정이 이루어져 동법 제5조(최저임금액)에서는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바뀌었다.⁶²⁾

더 큰 문제는 불가인상률이나 소득불평등 격차 등에 비추어볼 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액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이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기대하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기 쉽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간접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4) 폭언, 폭행, 성희롱 금지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07조)로 명시하여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은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벌칙 조항의 적용을 받는데, 이 때 폭행이라 함은 단지 물리적 행위만 아니라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 가해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에 의한 지속적인 언어폭력, 몸수색과 같은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⁶³⁾ 그러나 폭언과 폭행을 분리하는 통념이 강하고 폭언도 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폭언·폭행이 자주 보고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청소년도 이 법률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동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⁶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62) 이 조항은 2010년 6월 4일 개정되어 2012년 2월 1일 공포되었다.

63) 여성노동자에 대한 몸수색은 여성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행정해석(1966. 8. 8. 노정근 1455.9-3828)이 일찌감치 나와 있다.

있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⁶⁵⁾ 청소년들이 대다수 10인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주로 고용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주도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일임해둘 것이 아니라 교육 자료 배포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에서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해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근로자가 14조의 21항에서와 같이 “성희롱의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대다수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수치심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성희롱 피해를 외부로 드러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와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규정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교육과 사업장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안전

청소년도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관련 조항들(근로기준법 제8장 제78조~제9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보장한 권리들이 적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최저 임금법과 마찬가지로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 신청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동자의 고의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⁶⁶⁾ 업무상 재해로

6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6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정받게 되면 치료비나 요양비와 함께, 제52조(휴업급여)에 따라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해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활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법 기준과 보상 절차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정부나 학교에서의 홍보 내용에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가 청소년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하게 되면 청소년은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보상비까지 물어내는 이중 피해를 입기 쉽다. 따라서 사망이나 부상 등이 자주 발생하는 배달노동처럼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나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과 사업주에 대해 관련 법 규정과 대응 절차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대응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혼자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입증하는 절차를 거치기는 쉽지 않아 대응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한계를 고려하여 김기현 외(2011, pp.65-66)는 청소년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단순한 상담이나 지원을 넘어서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사건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맡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제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 치료와 보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에서는 사용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의무와 함께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노동자의 안전·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활동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업종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보니 법적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안전·보건에 취약한 업종과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점검표를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법 위반 내용도 철저히 점검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청소년 노동인권 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제언

지금까지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 정부정책과 법률의 개선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이 법 기준이나 피해 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법이 보장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락해버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개선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청소년 노동인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과제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방향을 ‘법적 보호’에서 ‘권리 신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청소년에게도 법 기준만을 홍보·교육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보호가 아닌 ‘권리에 기반한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부당한 노동조건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건의 확보 없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 기준만 엄격하게 강조하다 보면, 청소년에게는 법 무용론을 유포하게 되고 사용자들에게는 청소년 고용 기피 현상을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현실화, 괜찮은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 적용 확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확대, 청소년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 구축,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여건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이 다시 짜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괜찮은 일자리 제공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오랫동안 정부가 외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유급 인턴십 제도를 포함하여 청소년 맞춤형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할 필요가 있다.⁶⁷⁾

둘째, ‘권리에 기반한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청소년의 의사 존중과 참여에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발표된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안 내용을 일부 수용한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될 만하다. 사업장 근로감독이나 지킴이의 홍보·점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고충이나

67) 프랑스의 경우,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사회 부담금 면제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공동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고, 스위스나 스웨덴의 경우에도 청소년 일자리를 ‘사회적 일자리’와 ‘지역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당한 수준의 고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하인호, 「청소년 발달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2011), 「살기위해 노동한다!-2011, 청소년 발달노동 실태보고」 p.69. 참고.

개선책 제안을 적극 경청하고, 제도 개선책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2011)가 배달노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면접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거리를 고려한 배달시간 고시제 도입, 보호장구 지급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청소년의 경험과 업무 성격에 대한 통찰을 존중하면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 주도형 대책 위주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연계형, 네트워크 지원형 대책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노동의 특성과 생활주기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하다. 최근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례도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정책 수립, 지역별 네트워크 형성과 지원 등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 법 기준 홍보를 벗어나 '청소년 존중'의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다수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장 감독만으로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정당한 일터를 제공하는 것은 힘들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응대하는 고객이나 업무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도 시급하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탈선과 비행으로 연결 지어 생각하는 사회 인식도 여전하다. 따라서 일하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의식의 확산은 청소년 노동인권의 간접적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영배(2013a). 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고찰-진로직업체협 활동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6, 5-31.
- 강영배(2013b). **청소년 진로교육 및 상담론**. 경기: 양서원.
- 강영배(2013c).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의 운영 및 효과성 검토 방안-일본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2013 춘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73-100.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2013). **청소년쉼터 운영 활성화방안 연구**. 보도자료.
- 고영남(2005). 청년층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기반학습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1(1), 151-169.
- 고용노동부, 중앙대산학협력단(2011).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서울: 고용노동부.
- 고재성(2013).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의 운영 효과성 검토 방안』에 대하여. **2013 춘계공동학술대회 청소년진로체험활동 자료집**, 103-106.
- 교육부(2013a). 2013학년도 에듀팟(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운영계획.
- 교육부(2013b). 보도자료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 발표.
- 교육부(2013c). 보도자료 : 전문직업인 멘토! 농산어촌 학생을 찾는다.
- 교육과학기술부(2012a). **진로체험 매뉴얼: 학교 및 교육청용**.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2b). **2012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교육청(2010). **2009 교육과정 개정 적용을 위한 중학교 진로교육 매뉴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국가인권위원회(2010).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결정문**.
- 권대봉, 김경희(2002). **한국과 핀란드의 직업교육체제와 직업분류 비교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기현(2003). 일하는 고등학생들: 재학 중 시간제 취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7(6), 115-144.
- 김기현, 김가람(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맹영임(2011).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유성렬(2006).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중단분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동규(2004). 고등학생 진로탐색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길, 김태완(2012). **2012년 빈곤통계연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우영(2002). **학력, 훈련, 아르바이트, 자격증의 경제적 효과,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 서울: 중앙고용정보원.
- 김예성(2006). 학교청소년의 시간제노동 경험과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섭(2003). 재학 중 일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김현철(2013). 청소년 진로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연계 방안. **2013 춘계공동학술대회 청소년진로 체험활동 자료집**, 3-12.
- 김홍석(2000).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수정(2011). 고교생의 진로교육의 현황 및 진로역량과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1), 283-304.
- 노동부, (주)리서치21(2009). **2009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서울: 노동부.
- 미래부, 교육부, 고용부(2013).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미래부·교육부·고용부 합동 브리핑
- 박가열(2008). 초·중기 청소년 직업체험학습이 진로계획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5(3), 115-130.
- 박가열, 남기성, 오민홍, 임영식, 정철영(2008).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의 효과성 추적조사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박가열, 노경란(2006). **청소년 직업체험 학습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박봉수, 김홍권, 이재근(2005). **청소년 직업체험프로그램 Job School**.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2009). **십대여성 근로환경 실태조사보고 및 지원프로그램**. 서울: 서울시 늘푸른 여성지원센터.
- 손유미(2013).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 활동: 가능성과 한계. **2013 춘계공동학술대회 청소년진로 체험활동 자료집**, 49-66.
-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송민경(2012).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 연구I: 진로준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정호(2004).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분석: 청소년패널조사의 위계적일반화선행 모형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2(1), 17-37.
- 양종국(2004). 체험활동중심 진로탐색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 연구**, 17(2), 92-105.
-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분석**.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1). **2011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통계청(2011).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2). **인증수련활동 효과성 측정 연구**.
- 이경상, 김기현, 김가람(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서울: 여성가족부.
- 이경상, 유성렬(20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 분석보고서 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병희(2002). 재학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심포지엄자료**. 서울: 중앙고용정보원.
- 이지연, 정윤경(2006). **진로정보센터 운영(2006): 진로교육 지표 개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2009).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 구축(II)] 미국·프랑스·핀란드·덴마크의 교과통합 진로교육**.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철위, 박창남, 정혜영(2000). **청소년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현립, 손향숙(2006).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15(2), 101-116.

- 이현립, 이난희, 이영옥(2006).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의 진로의식 성숙 및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15(1), 221-233.
- 임영식, 남기성, 조금주, 정경은, 김윤나(2011).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임영식, 정경은, 김윤나(2011). 비진학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실태와 정책 방안. **청소년학연구**, 18(12), 583-608.
- 임지연, 김정주(2008).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 직업체험활동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15(1), 143-170.
- 장원섭(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1)**. -고등학교 단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원섭(2007). 맥락 중심의 평생 진로교육 제안. **진로교육연구**, 20(2), 1-13.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2011). **전국 고등학생 노동실태조사 보고서**.
- 정경은, 이해경(2005).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성숙도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7(2), 59-79.
- 정연순(2012).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사례: 직업체험을 중심으로. **2012년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진로체험 활동 사례 콜로키움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연순, 고재성, 강옥희, 서정화(2012). 지역사회 기반 중학생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직업교육연구**, 31(1), 217-240.
- 정윤경, 김나라, 서유정(2011). **직업체험 중심 진로교육 지원체제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성심, 주석진(2010). 체험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진로교육연구**, 23(3), 41-64.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2009). 2009 대한민국, 십대 '밀바다 노동'의 현실 - 청소년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 : 건강, 안전, 폭력 경험을 중심으로. **월간 복지동향** 135, 54-65.
<http://www.dbpia.co.kr/Article/1160279>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2011). 살기 위해 노동 한다! - 2011, 청소년 배달노동 실태 보고. **월간 복지동향**, 135, 51-57. <http://www.dbpia.co.kr/Article/1477074>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0). **학교 밖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채창균(2002). **대학 재학생의 노동시장 이행 준비실태**.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심포지엄자료. 서울: 중앙고용정보원.
- 최윤정(2012). 중학생들의 진로교육 경험에 의한 진로교육 개입 유형 탐색 및 유형별 성과 차이. **진로교육연구**, 25(2), 21-41.

- 최인재(2010). **2009 한국청소년진로·직업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 신윤희(2012). 중등학생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청소년활동 경험과의 관계 분석. **실과교육연구**, 18(3), 171-194.
- 통계청.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 통계**. 대전광역시: 통계청.
- 하인호(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토론회 자료집: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경혜(2000).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1(2), 153-180.
- 한상근, 이영대, 최동선, 정윤경(2007). **진로정보센터 운영(2007):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상근(2009).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22(4), 19-36.
- 경기일보(2013. 1. 22). “죽어라 배달해도 돈은… 이딴 게 사회경험?”.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997>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 경기일보 사설(2013. 1. 18). “아르바이트생 임금착취·인권침해 너무 심하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226>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 경향신문(2012. 6. 4). “배달대행 알바 10대 착취 활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42214335&code=940702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 고용노동부(2012. 1. 15).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중. 중앙일보의 ‘방학은 알바 시즌…철만난 임금착취·인권침해’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54779&call_from=extlink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2 2 10).「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위반건수 765건으로 전체의 21.7% 차지」.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5&aid=2355>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3. 3. 13).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919개소 감독 - 금품미지급, 성희롱예방 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 다수 발견」.

http://www.kdi.re.kr/epic_attach/2013/R1303085.pdf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0. 3. 24.).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77.3%가 노동법 위반」.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747>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1. 3. 24).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83.4%가 노동관계법 위반」.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5&aid=1600>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2. 9. 7). 「여름방학기간 아르바이트 사업장 894개소 점검- 금품미지급, 성희롱예방 교육 미실시 등 법위반 다수 발견」.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5&aid=2893>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국제노동기구(ILO) 제81호 협약(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은 제12조와 제16조.

<http://www.ilo.org/global/lang-en/index.htm>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근로기준법(법률 제11270호).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liBbgcolor0>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61호).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liBbgcolor0>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머니투데이(2013. 1. 10). “청소년 일당 10만원 ‘지옥알바’ 따라가보니 : ‘택배 상하차 알바’ 미성년자에 고임금, “가출 부추겨” 논란”.

<http://enews.mt.co.kr/2013/01/2013011012424257645.html?rnd=25899>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비정규직 종합대책(2011. 9. 9). cafe.naver.com/cplahyl/223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1882호).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liBbgcolor1>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1569호).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liBgcolor0>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2. 8. 28).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관계 법령 위반행위 144건 적발 - 여름방학 학생아르바이트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속 결과 발표」.

<http://enews.mogef.go.kr/view/board/bbs/view.jsp>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1. 1. 13).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관계 법령 위반행위 147건 적발」.

<http://enews.mogef.go.kr/view/board/bbs/view.jsp>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연합뉴스(2012. 7. 9). “자영업 효과 5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 1천만 돌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06/0200000000AKR20120706201400002.HTML?did=1179m>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연합뉴스(2013. 5. 21). “자치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14곳으로 확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21/0200000000AKR20130521061400004.HTML?input=sns>에서 2013년 10월 30일 인출.

오마이뉴스(2013. 6. 5). “알바생은 유령’... 53%가 근로계약서도 안 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2822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중도일보(2013. 1. 7). “가출청소년 8명 합숙, 택배시키며 금품갈취”.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301070266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중앙일보 사설(2013. 3. 13). “여전히 고달픈 알바생, 사후 감독 강화해야”.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919501&cloc=olink|article|default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보도자료(2012. 4. 20). 「고용노동부 ‘안심알바신고센터’ 운영개선을 위한 공개 촉구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보도자료(2011. 12. 26).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개질의서,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운영규정 및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공개질의서』 안심알바신고센터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공개질의서.

최저임금법(법률 제11278호)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liBgcolor0>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한겨레(2012. 11. 18). “청소년 알바 ‘노예노동’ 내모는 사회…신고센터는 ‘개점휴업’”.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61204.html>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헤럴드경제(2012. 11. 27).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127000111&md=20121130004652_AS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Alfeld, C., Stone, J. R., I., Aragon, S. R., Hansen, D. M., Zirkle, C., Connors, J. (2007). *Looking inside the black box: The value added by career and technical student organizations to students' high school experience*. St. Paul, MN: University of Minnesota, National Research Center for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Bennett, J. V. (2007). Work-based learning and social support: Relative influences on high school seniors' occupational engagement orientations.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Research*, 32(3), 187-214.

Betz, N. E. (1988). The assessment of career development and maturity. In W. B. Walsh and S. H. Osipow(eds), *Career Decision Making*. Hillsdale, NJ: L. Erlbaum Associates.

Canadian Council on Learning (2009). *The effectiveness of work-experience programs in Canadian high schools*. Lessons in Learning.

http://www.ccl-cca.ca/pdfs/LessonsInLearning/10_22_09.pdf에서 9월 30일 인출

Carr, R. V., Wright, J. D., & Brody, C. J. (1996). Effects of High School Work Experience a Decade Later: Evidence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Sociology of Education*, 69(1), 66-81.

Colorado Department of Education. (1999). *What works! Colorado high school senior survey 1999: Initial results*. Denver, CO: Colorado Department of Education.

Crites, J. O. (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Administration and use manual*. Monterey, CA: CTB/McGraw Hill.
- Crites, J. O. (1981). *Career counseling*. New York: McGraw-Hill.
- Cunnie, K. A., MartinRogers, N., & Mortimer, J. T. (2009). Adolescent work experience and self-efficacy. *Int J Sociol Soc Policy*, 29(3/4), 164-175.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8). *The work-related learning guide* (second edition).
http://www.employers-guide.org/media/7271/wrl_guide_second_edition.pdf에서
 2013년 6월 7일 인출.
- Frone, M. R. (1998). Predictors of work injuries among employed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4), 565-576.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Gottfredson, L. S. (1996).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compromise and self-creation*. In D. Brown and Associates (Ed.),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4th Eds, pp. 85-148). San Francisco: Jossey-Bass.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6.
- Hoyt, K. B. (1975). *An introduction to career education - A Policy paper of the U. S. Office of Education*. 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Hughes, K. L., & Golann, J. W. (2007). *When the virtual becomes real: Student learning in the virtual enterprises program*.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Institute on Education and the Economy.
- Jobs for the Future (1998). *School-to-Career initiative demonstrates significant impact on young people*. Boston: Author.
- Johnson, E. R. (1997). *Benefits of school-to work program participation: perceptions of students and comparison of pre and post grades and attendance*.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Karen L., Doug, L., Peter. T., & Martha A. (2000). *Vocation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Toward the Year 2000*. U. 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NCES 2000029). p. 88.

- Krumboltz, J. D. (1999). *Career Belief Inventory: Application and technical guide*.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y Press.
- Lave, J. & Wenger, E.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nn, A. (2012). *Work Experience: impact and delivery – insights from the evidence*. England: Education and Employers Taskforce.
- Marsh, H. W. (1991).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Character building or a subversion of academic goals? *Sociology of Education*, 64, 172-189.
- Medrich, E., Calderon, S., & Hoachlander, G. (2002). *Contextual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in high schools: Developing a vision for support and evaluation*. In Brand, B. (Ed), *Alternative assessment and contextual teaching and learning: Essentials of high school reform*. Washington, DC: American Youth Policy Forum and the Institute for Educational Leadership.
- Mortimer, J. T., & Finch, M. D. (1996). *Adolescents, work and family*. CA: Sage Publications.
- Mortimer, J. T. (2010). The benefits and risks of adolescent employment. *The Prevention Researcher*, 17(2), 8-11.
- Mortimer, J. T., Finch, M. D., Shanahan, M., & Ryu, S. (1992). Work experience, mental health and behavioral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 25-57.
- Mulraney, J., Turner, P., Wyatt, F., Harris, R., Gibson, T., & National Centre, f. V. (2002). *The role of small enterprise in school students' workplace learning*.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National Centre fo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 National Collaborative on Workforce and Disability for Youth (2011). *Practice Brief: Engaging Youth in Work Experienc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Educational Leadership.
- Noonan, A. E., Hall, G., & Blustein, D. L. (2007). Urban adolescents' experience of social class in relationships at work.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3), 542-560.
- OECD (2012).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http://www.upf.edu/materials/bib/docs/3334/employ/employ12.pdf>에서 인출
- Oettinger, G. S. (1999). Does high school employment affect high school academic performanc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3(1), 136-151.
- Osterman, P., & Iannozzi, M. (1993). *Youth apprenticeship and school-to-work transitions: Current knowledge and legislative strategy*(Working Paper No. 14),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Research and Policy Committee of the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1996). *American workers and economic change*. New York: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 Ruscoe, G., Morgan, J. C., & Peebles, C. (1996). Students Who Work. *Adolescence*, 31(123), 625-632.
- Sattar, S. (2010). *Evidence Scan of Work Experience Programs*. CA: Mathematica Policy Research, Inc.
- Smith, E., Green, A., & Brennan, R. (2001). A foot in both camps: School students and workplaces. In *Research to Reality: Putting VET Research to Work*. Proceedings of the 4th Australia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Research Association (AVETRA) Conference. Adelaide, Australia.
- Stern, D. & Nakata, Y. (1989).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paid jobs, and employment experience after graduation. In Stern, D. & Eichorn, D. (Eds.), *Adolescence and work: Influences of social structure, labor markets, and culture*. Hillsdale, NJ: Erlbaum.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82-298.
- Swanson, J. L., & Fouad, N. A. (1999). *Career Theory and Practice*.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Vickers, M., Lamb, S., & Hinkley, J. (2003). *Student workers in high school and beyond: The effects of part-time employment on participation in education, training and work*. LSAY Research Report No 30, Melbourne: ACER.
- Zanibbi, M., Munby, H., Hutchinson, N. L., Versnel, J., & Chin, P. (2006). Exemplary practice in work-based education: A validation study.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58(1). 65-81.
- Zemsky, R., Shapiro, D., Iannozzi, M. & Cappelli, P. & Bailey, T. (1998). *The transition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ational Center for Postsecondary Improvemen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Education.
- Zimmer-Gembeck, M. J. & Mortimer, J. T. (2006). Adolescent Work. *Vocational Development, and Education*. *Rev Educ Res*, 76(4), 537-566.
- 日本キャリア教育学会編(2008). キャリア教育概説. 東洋館出版社.

- 内閣府(2013). 『平成25年度版 子ども・若者白書』.
- 文部科学省(2005). 中学校職場体験ガイド.
- 文部科学省 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研究センター(2005). 職場体験・インターンシップ現状把握調査 調査概要(速報版).
- 文部科学省 国立教育政策研究所(2009). キャリア教育体験活動事例集 実業之日本社
- 文部科学省 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研究センター(2011). キャリア発達に関わる諸能力の育成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 文部科学省 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研究センター(2012). 職場体験・インターンシップ現状把握調査 調査概要(速報版).
- 柳井(2001). キャリア発達論, ナカニシヤ出版.
- 山田智之(2008), 進路関連自己効力感に影響を与える中学校美術科の取り組みに関する研究, 日本大学大学院総合社会情報研究科紀要, 8, 347-356.
- 山田智之(2011). 職場体験による中学生の進路成熟及び自律的高校進学動機の変容と影響要因, キャリア教育研究, 30, 1-14.
- 吉田(2009). キャリア教育における職場体験の意義, 東京大学大学院教育研究科紀要第49巻, 247-258.
- 藤田晃之(2004). 「第3部アメリカにおける若年就職支援施策の特質と課題」, 労働政策研究・研究機構, 『諸外国の若年就職支援政策の展開-ドイツとアメリカを中心に』, 労働政策研究報告書 No. 1.
- ワークス研究所(2004). 職場体験：ジョブシャドウイングの事例, リクルートワークス研究所.
<http://www.educationandemployers.org/research/taskforce-publications/work-experience/>
 (http://www.ccl-cca.ca/pdfs/LessonsInLearning/10_22_09.pdf)
http://www.eric.ed.gov/ERICWebPortal/search/detailmini.jsp?_nfpb=true&_ERICExtSearch_SearchValue_0=ED130076&ERICExtSearch_SearchType_0=no&accno=ED130076)
 에서 인출



부 록

- 부록 1. 청소년 진로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부록 2. 청소년 진로체험 설문조사 결과 부표

부
록

부록 1. 청소년 진로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청소년의 진로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6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조사 일시	2013년 ___월 ___일 ___시 ___분부터 ___시 ___분까지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안선영/김희진 박사	(02)2188-8806/8830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황인창 차장/염숙희 팀장	(02)3014-0086/0131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 또는 선생님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4(또는 1에서 5)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①'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 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 3〉

문 A. 학생은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결석한 적이 있다 → **「문 B」로 가세요**
- ② 결석한 적이 없다 → **「문 C」로 가세요**

☞ 나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 4〉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결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합니다. 결석을 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몸이 아파서
- ② 학교가기 싫어서
- ③ 게임을 하느라
- ④ 늦잠을 자서

☞ 결석한 이유를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음. 최근 1년간 몸이 아파서, 늦잠을 자서 각각 1번씩, 총 2번 결석을 하였으므로 ①번과 ④번에 각각 응답하였음.

개인 특성

문 1.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원하는 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직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관심 있는 진로나 전공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직업 자체가 내 인생에서 의미있는 일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진로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성격에서 나쁜 점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14) 돈을 많이 벌수만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⑤
15) 진로선택은 어른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6)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20) 진로선택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22)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가 미래의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알고 있는 진로지식이 정확하지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어른들의 결정보다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의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내 도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진로체험 경험

문 2. **최근 1년간** 학생은 아래와 같은 진로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있다	없다
1) 시청각 자료를 통해 직업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①	②
2)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직업에 관한 강연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3)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인터뷰한 적이 있다.	①	②
4)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1:1로(또는 직접)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 멘토링(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5)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견학하거나 전공체험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6) 진로박람회나 진로 관련 전시를 견학한 적이 있다.	①	②
7) 직업현장을 견학한 적이 있다.	①	②
8) 직업을 모의체험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9) 인턴십이나 현장실습과 같이 직장에서 직접 일을 해 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①	②

문 3. **최근 1년간** 학생이 참여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전혀 그렇지 않음
- ② 별로 그렇지 않음
- ③ 그런 편임
- ④ 매우 그러함

문 4. **최근 1년간** 학생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스스로 원해서 참여하였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음
- ② 별로 그렇지 않음
- ③ 그런 편임
- ④ 매우 그러함

문 5. **최근 1년간** 학생이 참여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학생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진로 분야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음
- ② 별로 없음
- ③ 약간 있음
- ④ 매우 많음

문 6. 학생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소극적
- ② 약간 소극적
- ③ 약간 적극적
- ④ 매우 적극적

문 7. 학생이 경험한 진로체험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조금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2)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	①	②	③	④
3) 향후 진학하려는 학교 또는 공부하려는 분야 선택	①	②	③	④
4) 희망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준비사항 등에 대한 정보 수집	①	②	③	④
5) 학교 공부가 장래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됨	①	②	③	④
6)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게 됨	①	②	③	④
7)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됨	①	②	③	④
8)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	①	②	③	④
9)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문 8. 학생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학교에서 진로체험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까?

- ①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마다 사전 교육을 받았다
- ② 매번은 아니지만 받은 적이 있다
- ③ 사전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9.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진로포트폴리오 작성
- ② 만족도 조사
- ③ 진로체험 보고서 작성
- ④ 진로체험 발표
- ⑤ 에듀팟(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에 작성 및 기재
- ⑥ 기타 (_____)
- ⑦ 없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

아르바이트 관련 법, 규칙에 대한 인지도

문 12. 다음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고 있어야 할 정보입니다. 학생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을 경우, 본 적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는 인지 경로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작성예시〉

* 문12. 인지여부에 ① **안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오른쪽의 문12-1. 인지경로에 표시합니다.**
* 문12. 인지여부에 ② **모른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문12-1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문 항	문12. 인지 여부	문12-1. 인지경로 (2개 이상 선택 가능)					
		학교	TV	인터넷	친구	가족	기타
1)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일하고 임금을 어떻게 받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2장 만들어서 사장님과 학생이 한장씩 가져야 한다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항	문12. 인지 여부	문12-1. 인지경로 (2개 이상 선택 가능)					
		학교	TV	인터넷	친구	가족	기타
1)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일하고 임금을 어떻게 받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2장 만들어서 사장님과 학생이 한 장씩 가져야 한다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2013년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다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고용주(사장)는 일을 그만둔 지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아르바이트비)을 지급해야 한다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고용주(사장)가 청소년근로자에게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시킬 경우,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휴일 근무*, 초과근무*, 야간근무*를 할 경우, 원래 받기로 한 시급(시간당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일을 한 댓가로 받는 임금(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사장)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 **고용노동부**란?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일을 시키고 임금(돈)을 주는 것 등에 관련된 업무 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문 항	문12. 인지 여부	문12-1. 인지경로 (2개 이상 선택 가능)					
		학교	TV	인터넷	친구	가족	기타
8)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한 경우,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4시간 일할 경우 30분의 쉬는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에 걸리면 고용주(사장)으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고용주(사장)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등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18세 미만인 자를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을 시킬 경우 고용주(사장)는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일하다 부당한 처우를 당할 경우 청소년을 도와주는 신고전화(☎1644-3119 또는 ☎1388)가 있다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학교나 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다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만15세 미만(중학교 2학년 이하)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경우 고용주(사장)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고용주는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경우 부모님(보호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만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사장)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나 업종(직업의 종류)이 있다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 * 휴일근무란? 공휴일 또는 1주일에 1일 이상 제공하게 되어 있는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
- * 초과근무란? 근로계약서에 일을 하기로 약속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
- * 야간근무란?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근로. 심야근로라고 함
-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 일을 한 근로자(아르바이트생)에게 고용주 대신 국가가 보상을 하는 보험
- * 가족관계증명서란? 부모나 배우자(남편이나), 자녀가 누구인지를 표시한, 국가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증명서, 인터넷, 동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 있음.

문 13. 학생은 청소년알바십계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아르바이트 경험 및 인식

문 15.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초등학교 때
- ② 중학교 때
- ③ 고 1때
- ④ 고 2때
- ⑤ 고 3때

문 16. 아래에서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해 본 일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 | |
|-----------------------|----------------------|
| ① 전단지돌리기(스티커 붙이기) | ⑪ 카페 점원 |
| ② 24시간 편의점 점원 | ⑫ 상품 판매(옷, 장신구 등) |
| ③ 패스트푸드점(피자, 치킨) 점원 | ⑬ 놀이공원 도우미 |
| ④ 음식점 서빙 | ⑭ 주유소 주유원 |
| ⑤ 음식 오토바이 배달 | ⑮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
| ⑥ PC방 점원 | ⑯ 사무업무 보조 |
| ⑦ 뷔페, 웨딩홀 안내/서빙 | ⑰ 공장에서 노동 |
| ⑧ 건설현장 노동 | ⑱ 노래방 점원 |
| ⑨ 택배 짐 나르기(이사짐 운반 포함) | ⑲ (노래방을 제외한) 유흥업소 직원 |
| ⑩ 퀵서비스, 심부름 서비스 | ⑳ 기타 (_____) |

문 17. 학생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주로 어디에 쓰나요? 많이 쓰는 순서대로 <보기>에서 **최대 3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보기 >
- | | |
|--------------------------------|-----------------------------|
| ① 집 생활비에 보탬(부모님께 드림) | ⑪ 교통비 |
| ② 수업료, 교재비 등 학비 납부 | ⑫ 핸드폰 요금 |
| ③ 학원비 | ⑬ 핸드폰 구입 |
| ④ 대학등록금 등 저축 | ⑭ mp3, 닌텐도 등 전자제품 구입 |
| ⑤ 옷, 지갑, 가방, 신발 등 구입 | ⑮ 여행비 |
| ⑥ 장신구, 화장품 구입 | ⑯ 인터넷 요금 |
| ⑦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 | ⑰ 책값 |
| ⑧ 외식비(간식, 식사 등) | ⑱ 게임머니 구입 |
| ⑨ 친구들과 노는 돈(노래방, 카페, PC방 이용 등) | ⑲ 기타 () |
| ⑩ 선물(가족, 친구 생일이나 기념일) | |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실태 및 인식

※ 문 21부터 문 26까지는 현재 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 21. 학생이 현재 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를 아래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① 전단지돌리기(스티커 붙이기) | ⑪ 카페 점원 |
| ② 24시간 편의점 점원 | ⑫ 상품 판매(옷, 장신구 등) |
| ③ 패스트푸드점(피자, 치킨) 점원 | ⑬ 놀이공원 도우미 |
| ④ 음식점 서빙 | ⑭ 주유소 주유원 |
| ⑤ 음식 오토바이 배달 | ⑮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
| ⑥ PC방 점원 | ⑯ 사무업무 보조 |
| ⑦ 뷔페, 웨딩홀 안내/서빙 | ⑰ 공장에서 노동 |
| ⑧ 건설현장 노동 | ⑱ 노래방 점원 |
| ⑨ 택배 짐 나르기(이사짐 운반 포함) | ⑲ (노래방을 제외한) 유흥업소 직원 |
| ⑩ 킥서비스, 심부름 서비스 | ⑳ 기타 (_____) |

문 21-1. 학생이 **가장 최근에 한 그 아르바이트**는 총 며칠 동안 일을 하셨습니까? 1개월 이상 일을 하셨을 경우에는 1개월을 30일로 계산해 주세요.

총 _____ 일 (1개월은 30일로 계산해 주세요)

문 21-2. 학생이 **가장 최근에 한 그 아르바이트**는 1주일에 평균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1주일(7일) 평균 _____ 일동안 일하였음

문 21-3. 학생이 **가장 최근에 한 그 아르바이트**는 하루에 평균 몇 시간 동안 일하셨습니까?

1일 평균 _____ 시간 일하였음

문 21-4. 학생이 가장 최근에 한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시간당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1시간당 , 원을 받았음
만 천 백 십 일

문 21-5. 학생이 **가장 최근에 한 그 아르바이트**는 언제 하였습니까?

- ① 평일 ② 주말 ③ 평일과 주말 모두

문 21-6. 학생이 **가장 최근에 한 그 아르바이트**에서는 몇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나요?

총 _____ 명 근무

문 22. 학생은 가장 최근에 한 그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아래 항목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친구나 지인 소개
- ② 학교 또는 선생님 소개
- ③ 가족 또는 친척 소개
- ④ 인터넷 알바사이트 (예: 알바몬, 알바천국 등)
- ⑤ 고용부 워크넷
- ⑥ 생활정보지(벼룩시장 등)
- ⑦ 직업소개소
- ⑧ 업소 구인광고(길거리나 상점의 광고)
- ⑨ 기타 ()

문 23. 학생은 가장 최근에 한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작성하거나 제출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1) 근로계약서	①	②
2) 부모동의서	①	②
3) 가족관계증명서	①	②

문 23-1. **(문23에서 하나라도 ② 아니라고 응답한 분만 응답)** 위의 서류들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가져가지 않았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고용주(사장)가 싫어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서
- ② 그냥 귀찮아서
- ③ 부모님이 모르게 하려고
- ④ 작성하지 않아도 아르바이트 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 ⑤ 기타 ()

문 24. 학생은 가장 최근에 한 그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얼마나 만족하였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급여액	①	②	③	④
2)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3) 근로환경 및 주변시설	①	②	③	④
4) 근로강도 (일하면서 힘든 정도)	①	②	③	④
5) 아르바이트 일 내용	①	②	③	④
6) 동료 (같이 일하는 사람들)	①	②	③	④

문 25. 학생은 **가장 최근에 한 그 아르바이트**는 학생이 느끼기에 어떠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 일으킨다	①	②	③	④
2) 단조롭고 지루하다	①	②	③	④
3) 재미있고 즐겁다	①	②	③	④
4) 나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새롭고 유용한 것을 배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의 기술이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일의 속도를 나의 페이스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내 의견이 일에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문 26. 학생은 **가장 최근에 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경우를 당한 적이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없다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이상
1) 뜨거운 것이 데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날카로운 것에 베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뼈가 부러지거나 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무거운 짐을 들다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27. 학생은 **최근 1년간(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28」로 가세요
 ② 아니오 → 「16페이지 배문 1」로 가세요

문 28. 학생은 최근 1년간(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 및 주변 사람과 관련한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아르바이트로 인해 숙제를 제때에 해 가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문 29. 학생은 최근 1년간(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까?

문 항	예	아니오
1)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2)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3) 초과 근무에 대해 초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4) 맡은 일 이외에 다른 일까지 억지로 한 적이 있다	①	②
5)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	①	②
6)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7)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8)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9) 일하다 다친 것에 대해 치료비나 보상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10)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11) 고객으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12)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배경 질문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 1. 아래에 **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 1: 시집 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 ☐ 표시하지 않습니다.

※ 예 2: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 ☐ 표시합니다.

- ① (외)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 ⑧ 없음

배문 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②번)에 표시합니다)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 3.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이 없음	현재 직업이 있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배문 4. 학생의 학업 성적(2013년 1학기)이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 5. 학생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배문 6. 학생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 받기를 원합니까?

- ① 고졸 ② 2-3년제 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석사 ⑤ 박사

부록 2. 청소년 진로체험 설문조사 결과 부표

부표 1

최근 1년 간 진로체험 경험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2)

단위: %(명)

내용/구분		전체	부직업유무		모직업유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	있다	66.9	67.5	59.8	67.4	67.2
	없다	33.1	32.5	40.2	32.6	32.8
	전체	100.0(10109)	100.0(9135)	100.0(420)	100.0(6618)	100.0(2920)
	χ^2		10.897**		.065	
특정직업인의 직업 관련 강연	있다	59.8	60.0	56.4	59.9	60.4
	없다	40.2	40.0	43.6	40.1	39.6
	전체	100.0(10104)	100.0(9130)	100.0(420)	100.0(6616)	100.0(2919)
	χ^2		2.171		.248	
특정직업인과의 만남, 인터뷰	있다	26.3	26.6	23.2	27.1	25.0
	없다	73.7	73.4	76.7	72.9	75.0
	전체	100.0(10106)	100.0(9131)	100.0(420)	100.0(6615)	100.0(2919)
	χ^2		2.243		4.510*	
특정직업인의 진학/진로관련 멘토링(상담)	있다	16.9	17.1	15.5	17.6	15.0
	없다	83.1	82.9	84.5	82.4	85.0
	전체	100.0(10104)	100.0(9129)	100.0(420)	100.0(6616)	100.0(2916)
	χ^2		.778		9.737**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견학 또는 전공체험	있다	22.0	22.3	22.7	22.1	21.9
	없다	78.0	77.7	77.3	77.9	78.1
	전체	100.0(10105)	100.0(9131)	100.0(419)	100.0(6615)	100.0(2919)
	χ^2		.039		.030	
진로박람회나 진로 관련 전시 견학	있다	27.7	27.9	24.6	27.5	28.2
	없다	72.3	72.1	75.4	72.5	71.8
	전체	100.0(10097)	100.0(9125)	100.0(418)	100.0(6611)	100.0(2916)
	χ^2		2.174		.376	
직업현장 견학	있다	33.0	33.1	32.7	33.0	32.9
	없다	67.0	66.9	67.3	67.0	67.1
	전체	100.0(10107)	100.0(9133)	100.0(421)	100.0(6618)	100.0(2917)
	χ^2		.024		.003	
직업 모의체험	있다	21.4	21.6	21.1	21.8	20.3
	없다	78.6	78.4	78.9	78.2	79.7
	전체	100.0(10107)	100.0(9133)	100.0(421)	100.0(6616)	100.0(2919)
	χ^2		.049		2.662	
인턴십/현장실습과 같이 직장에서 직접 일해 보는 프로그램	있다	12.2	12.2	13.2	12.9	10.4
	없다	87.8	87.8	86.8	87.1	89.6
	전체	100.0(10096)	100.0(9123)	100.0(419)	100.0(6609)	100.0(2916)
	χ^2		.297		11.276**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2 진로체험경험이 청소년의 진로 각 영역에 도움이 된 정도 - 개인 및 지역 특성

내용/구분		전체 평균값 (SD)	성별		지역규모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M	2.77	2.76	2.79	2.78	2.77	2.77
	(SD)	(.669)	(.706)	(.628)	(.655)	(.692)	(.638)
		<i>t/F</i>	-1.834		.341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	M	2.65	2.66	2.63	2.64	2.67	2.60
	(SD)	(.776)	(.797)	(.753)	(.768)	(.783)	(.776)
		<i>t/F</i>	1.775		3.774*(bc)		
향후 진학 학교/공부하려는 분야 선택	M	2.62	2.62	2.61	2.63	2.61	2.57
	(SD)	(.772)	(.786)	(.758)	(.768)	(.780)	(.761)
		<i>t/F</i>	.848		2.422		
희망직업위한 자격증/준비사항 정보수집	M	2.54	2.57	2.51	2.55	2.55	2.48
	(SD)	(.801)	(.808)	(.793)	(.796)	(.811)	(.786)
		<i>t/F</i>	3.292**		3.319*(bc)		
학교 공부의 장래진로 도움 이해	M	2.75	2.73	2.77	2.77	2.74	2.71
	(SD)	(.790)	(.807)	(.771)	(.786)	(.795)	(.787)
		<i>t/F</i>	-2.382*		2.469		
향후 진학분야관련 공부를 열심히 함	M	2.64	2.63	2.66	2.67	2.63	2.61
	(SD)	(.776)	(.795)	(.754)	(.771)	(.787)	(.754)
		<i>t/F</i>	-1.863		3.851*		
진로선택관련 더 많은 정보 습득	M	2.77	2.76	2.78	2.79	2.76	2.74
	(SD)	(.757)	(.778)	(.735)	(.751)	(.768)	(.741)
		<i>t/F</i>	-.899		3.120*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의 긍정적 변화	M	2.71	2.70	2.72	2.72	2.71	2.69
	(SD)	(.762)	(.785)	(.738)	(.756)	(.772)	(.749)
		<i>t/F</i>	-1.278		1.129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	M	2.70	2.71	2.68	2.70	2.69	2.68
	(SD)	(.754)	(.788)	(.716)	(.748)	(.763)	(.741)
		<i>t/F</i>	1.422		.279		

* $p < .05$, ** $p < .01$, *** $p < .001$

※ 주: 지역규모(a=대도시, b=중소도시, c=읍·면)

부표 3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향후 참여할 의사 - 개인 및 지역 특성

내용/구분	전체 평균값 (SD)	성별		지역규모			기대하는 교육수준				
		남	여	대도 시	중소 도시	읍·면	고졸	2-3 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이상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	M (SD)	2.60 (.831)	2.54 (.852)	2.66 (.802)	2.60 (.818)	2.60 (.846)	2.59 (.824)	2.35 (.841)	2.46 (.814)	2.64 (.815)	2.68 (.857)
	t/F		-7.407***		.042			47.345*** (de, df, dg, ef, eg)			
특정직업인의 직업 관련 강연	M (SD)	2.89 (.897)	2.74 (.916)	3.05 (.847)	2.92 (.875)	2.86 (.920)	2.86 (.884)	2.49 (.920)	2.67 (.883)	2.94 (.872)	3.08 (.890)
	t/F		-17.540***		5.823**(ab)			117.338*** (de, df, dg, ef, eg, fg)			
특정직업인과의 만남, 인터뷰	M (SD)	2.69 (.992)	2.52 (.984)	2.89 (.962)	2.73 (.974)	2.67 (1.005)	2.65 (1.000)	2.29 (.964)	2.44 (.960)	2.73 (.977)	2.95 (.986)
	t/F		-19.278***		4.909**(ab, ac)			121.908*** (de, df, dg, ef, eg, fg)			
특정직업인의 진학/진로관련 멘토링(상담)	M (SD)	2.75 (1.046)	2.53 (1.037)	2.98 (1.005)	2.77 (1.030)	2.73 (1.061)	2.73 (1.044)	2.34 (1.023)	2.47 (1.024)	2.80 (1.029)	3.00 (1.035)
	t/F		-22.208***		2.059			118.110*** (de, df, dg, ef, eg, fg)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견학 또는 전공체험	M (SD)	2.92 (1.017)	2.69 (1.021)	3.18 (.948)	2.96 (.992)	2.88 (1.041)	2.94 (1.012)	2.49 (1.034)	2.65 (1.040)	2.97 (.987)	3.16 (.988)
	t/F		-25.081***		6.352**(ab)			120.467*** (de, df, dg, ef, eg, fg)			
진로박람회나 진로 관련 전시 견학	M (SD)	2.62 (.973)	2.48 (.971)	2.77 (.952)	2.63 (.954)	2.60 (.991)	2.63 (.970)	2.31 (.958)	2.46 (.981)	2.65 (.951)	2.77 (.999)
	t/F		-15.213***		1.568			55.226*** (de, df, dg, ef, eg, fg)			
직업현장 견학	M (SD)	2.90 (.989)	2.70 (.994)	3.11 (.937)	2.93 (.960)	2.86 (1.018)	2.91 (.976)	2.58 (1.031)	2.71 (1.012)	2.95 (.963)	3.04 (.983)
	t/F		-21.460***		5.707**(ab)			62.368*** (de, df, dg, ef, eg, fg)			
직업 모의체험	M (SD)	2.87 (1.017)	2.68 (1.024)	3.07 (.968)	2.90 (.991)	2.84 (1.041)	2.87 (1.009)	2.52 (1.036)	2.61 (1.036)	2.92 (.987)	3.07 (1.006)
	t/F		-19.741***		3.509*(ab)			92.621*** (de, df, dg, ef, eg, fg)			
인턴십/현장실습처럼 직접 일 해보는 프로그램	M (SD)	2.86 (1.050)	2.63 (1.051)	3.12 (.986)	2.89 (1.033)	2.83 (1.069)	2.87 (1.038)	2.52 (1.075)	2.60 (1.065)	2.91 (1.021)	3.07 (1.043)
	t/F		-24.449***		3.141*(ab)			89.994*** (de, df, dg, ef, eg, fg)			

* $p < .05$, ** $p < .01$, *** $p < .001$

※ 주: 기대하는 교육수준(a=고졸, b=2-3년제 대학졸업, c=4년제 대학 졸업, d=석사이상)

부표 4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향후 참여할 의사 - 학교관련 특성

내용/구분		전체 평균값 (SD)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 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 자율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	M (SD)	2.60 (.831)	2.55 (.847)	2.64 (.814)	2.68 (.800)	2.51 (.837)	2.64 (.845)	2.50 (.824)	2.62 (.818)	2.68 (.850)
	t/F		-5.365***		15.997***(ab, bc)			36.582***(de, df, ef)		
특정직업인의 직업 관련 강연	M (SD)	2.89 (.897)	2.73 (.917)	3.04 (.851)	3.08 (.829)	2.79 (.900)	3.15 (.841)	2.76 (.906)	2.89 (.883)	3.05 (.876)
	t/F		-17.291***		48.362***(ab, bc)			78.748***(de, df, ef)		
특정직업인과의 만남, 인터뷰	M (SD)	2.69 (.992)	2.51 (.993)	2.86 (.960)	2.91 (.948)	2.58 (.981)	3.02 (.910)	2.54 (.999)	2.72 (.971)	2.86 (.985)
	t/F		-17.973***		52.154***(ab, bc)			77.087***(de, df, ef)		
특정직업인의 진학/진로 관련 멘토링(상담)	M (SD)	2.75 (1.046)	2.53 (1.049)	2.96 (.998)	3.01 (.977)	2.68 (1.049)	3.12 (.962)	2.59 (1.052)	2.76 (1.028)	2.94 (1.032)
	t/F		-21.310***		47.342***(ab, ac, bc)			84.094***(de, df, ef)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견학 또는 전공체험	M (SD)	2.92 (1.017)	2.74 (1.047)	3.10 (.956)	3.15 (.928)	2.83 (1.037)	3.19 (.925)	2.74 (1.043)	2.95 (.996)	3.13 (.968)
	t/F		-17.936***		45.060***(ab, bc)			110.173***(de, df, ef)		
진로박람회나 진로 관련 전시 견학	M (SD)	2.62 (.973)	2.52 (.983)	2.71 (.955)	2.73 (.949)	2.58 (.956)	2.73 (.975)	2.49 (.979)	2.65 (.954)	2.73 (.977)
	t/F		-9.336***		10.313***(ab, bc)			45.912***(de, df, ef)		
직업현장 견학	M (SD)	2.90 (.989)	2.76 (1.012)	3.03 (.949)	3.07 (.931)	2.83 (.993)	3.04 (.955)	2.76 (1.023)	2.93 (.962)	3.04 (.959)
	t/F		-13.447***		25.753***(ab, bc)			62.686***(de, df, ef)		
직업 모의체험	M (SD)	2.87 (1.017)	2.71 (1.029)	3.01 (.982)	3.07 (.964)	2.75 (1.027)	3.08 (.955)	2.70 (1.035)	2.90 (.992)	3.04 (.994)
	t/F		-14.740***		41.140***(ab, bc)			85.506***(de, df, ef)		
인턴십/현장실습처럼 직접 일 해보는 프로그램	M (SD)	2.86 (1.050)	2.69 (1.065)	3.03 (1.008)	3.09 (.979)	2.75 (1.085)	3.09 (.984)	2.72 (1.072)	2.88 (1.029)	3.03 (1.026)
	t/F		-16.540***		43.548***(ab, bc)			67.159***(de, df, ef)		

* $p < .05$, ** $p < .01$, *** $p < .001$

※ 주: 고교계열(a=일반계, b=특성화, c=특목/자율), 학업성적(d=낮은 편, e=보통, f=높은 편)

부표 5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향후 참여할 의사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

내용/구분		전체 평균값 (SD)	부교육수준		모교육수준		경제적수준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	M (SD)	2.60 (.831)	2.62 (.827)	2.63 (.836)	2.62 (.824)	2.64 (.837)	2.58 (.837)	2.58 (.808)	2.62 (.851)
	t/F		-.909		-1.286		2.647		
특정직업인의 직업 관련 강연	M (SD)	2.89 (.897)	2.89 (.899)	2.97 (.881)	2.92 (.888)	2.97 (.885)	2.93 (.883)	2.83 (.896)	2.92 (.903)
	t/F		-3.879***		-2.260*		11.905***(ab, bc)		
특정직업인과의 만남, 인터뷰	M (SD)	2.69 (.992)	2.71 (.987)	2.80 (.982)	2.73 (.982)	2.79 (.993)	2.71 (1.002)	2.64 (.973)	2.75 (1.003)
	t/F		-4.121***		-2.701**		11.602***(ab, bc)		
특정직업인의 진학/진로 관련 멘토링(상담)	M (SD)	2.75 (1.046)	2.78 (1.047)	2.85 (1.025)	2.79 (1.043)	2.85 (1.030)	2.81 (1.040)	2.68 (1.036)	2.78 (1.058)
	t/F		-3.311**		-2.776**		14.900***(ab, bc)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견학 또는 전공체험	M (SD)	2.92 (1.017)	2.95 (1.012)	3.01 (.989)	2.98 (1.004)	3.00 (.994)	2.99 (1.006)	2.86 (1.020)	2.95 (1.017)
	t/F		-2.728**		-.702		13.044***(ab, bc)		
진로박람회나 진로 관련 전시 견학	M (SD)	2.62 (.973)	2.64 (.971)	2.68 (.971)	2.66 (.974)	2.67 (.971)	2.63 (.975)	2.59 (.963)	2.64 (.982)
	t/F		-1.553		-.661		3.098*		
직업현장 견학	M (SD)	2.90 (.989)	2.93 (.989)	2.96 (.972)	2.96 (.975)	2.95 (.983)	2.97 (.989)	2.85 (.983)	2.91 (.990)
	t/F(Scheffé)		-1.414		.816		10.923***(ab, bc)		
직업 모의체험	M (SD)	2.87 (1.017)	2.88 (1.019)	2.96 (.991)	2.91 (1.009)	2.94 (1.005)	2.93 (1.007)	2.81 (1.011)	2.89 (1.025)
	t/F		-3.359**		-.1199		12.134***(ab, bc)		
인턴십/현장실습처럼 직접 일 해보는 프로그램	M (SD)	2.86 (1.050)	2.90 (1.053)	2.95 (1.025)	2.92 (1.046)	2.94 (1.030)	2.93 (1.042)	2.81 (1.049)	2.88 (1.054)
	t/F		-2.274*		-.785		11.176***(ab, bc)		

* $p < .05$, ** $p < .01$, *** $p < .001$
 ※ 주: 경제적수준(a=낮은 편, b=보통, c=높은 편)

부표 6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후 참여 의사 - 프로그램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

내용/구분		전체 평균값 (SD)	프로그램 참여에의 자발성		프로그램 참여에의 적극성	
			그렇지않다	그렇다	소극적	적극적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체험	M (SD)	2.60 (.831)	2.46 (.805)	2.83 (.760)	2.49 (.792)	2.79 (.787)
	t/F		-22.199***		-17.633***	
특정직업인의 직업 관련 강연	M (SD)	2.89 (.897)	2.71 (.865)	3.17 (.786)	2.77 (.848)	3.10 (.831)
	t/F		-25.614***		-18.096***	
특정직업인과의 만남, 인터뷰	M (SD)	2.69 (.992)	2.47 (.960)	2.99 (.920)	2.54 (.945)	2.91 (.964)
	t/F		-25.484***		-18.132***	
특정직업인의 진학/진로관련 멘토링(상담)	M (SD)	2.75 (1.046)	2.53 (1.026)	3.04 (.970)	2.60 (1.024)	2.97 (1.002)
	t/F		-23.699***		-16.658***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견학 또는 전공체험	M (SD)	2.92 (1.017)	2.74 (1.017)	3.21 (.897)	2.80 (1.003)	3.14 (.941)
	t/F		-22.840***		-16.000***	
진로박람회나 진로 관련 전시 견학	M (SD)	2.62 (.973)	2.44 (.939)	2.89 (.909)	2.48 (.922)	2.83 (.944)
	t/F		-22.727***		-17.578***	
직업현장 견학	M (SD)	2.90 (.989)	2.73 (.981)	3.17 (.875)	2.77 (.966)	3.12 (.911)
	t/F		-22.228***		-17.491***	
직업 모의체험	M (SD)	2.87 (1.017)	2.68 (1.012)	3.15 (.909)	2.73 (.997)	3.09 (.947)
	t/F		-22.414***		-17.379***	
인턴십/현장실습과 같이 직장에서 직접 일해보는 프로그램	M (SD)	2.86 (1.050)	2.68 (1.048)	3.13 (.958)	2.73 (1.035)	3.07 (.995)
	t/F		-20.951***		-15.187***	

* $p < .05$, ** $p < .01$, *** $p < .00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ature of Korea youth's experience with career experience programs and their part-time job.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survey of 10,119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garding their experiences in those two areas.

The research topics with regard to the career experience programs include the types of the career experience programs Korea youth participated in, their attitudes toward their participation, how they perceive its benefits and the relevance to their career interest, and th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career experience programs. How systematically such programs were offered and youth's willingness to participate again in career experiences programs were also investigated. The main findings on youth's participation in career experience programs are as follow. The most common types of the career experience programs Korean youth participate in are audio-visual presentations and guest lectures. Slightly over half of the youths expressed that the career experience programs were managed systematically. Many participants were not given any prior information about the programs and similarly high number of participants did not engage in any follow-up activities. About half of the youths participated in the career experience programs voluntarily and actively, and they thought that the programs were helpful to their understanding of the job-world and in making their career choices. Many youths prefer to participate in more field-centered career experience programs, such as job shadowing and internship and college field trips. Also, youth want more opportunities to meet the people who work in the field of their career interest.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regarding the management of career experience programs, helping youth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ir participation in those programs and providing more opportunities for youth to be exposed to real-world work experiences. In addition, providing customized career experience programs for vulnerable youths from the low-income families and with low level of academic performance is discussed.

In terms of youth's part-time job,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and their part-time job experience. In addition, we looked into

how well Korean youth understand the labor and employment laws and from which channel they get the legal information. Also, we examined the labor conditions for youth, the level of violation of the labor and employment laws and how properly youth cope with the unfair treatment in the workpla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we found that the family SES shows high level of association with youth's part-time job experience. Youth from lower SES families are more likely to work part-time jobs. The levels of academic aspir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are strongly related with their part-time job experience, too. Youth with higher levels of academic aspir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are less likely to work part-time job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think that part-time jobs hurt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in our society.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 level of youth's understanding of the labor and employment laws is very low, therefore, they do not handle the unfair treatment at work properly. Unfortunately, it turned out that school education does not play a meaningful role in it. Also, we conclude that the labor and employment laws are failing to protect significant number of Korean young workers.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recommendations are articulated regarding strengthening enforcement of employment and labor laws and supporting public education and campaigns on the ways and importance of protecting youths from workplace violations. Also, the importance of offering more convenient access for youth to report labor law violations is emphasized.

Key words: career maturity, systematic management of career experience programs, follow-up activities of career experience, job shadowing, field-centered career experience, young workers, youth labor, youth's part-time jobs, labor rights, employment and labor laws, workplace violations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임희진·정효진·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현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김희진·강영배·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조아미·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전명기
- 13-R10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윤옥경·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배상률·성은모·이혜연·김균희·이용교·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이혜연·배상률·성은모·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오현석·최윤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김경준·김지혜·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경준
- 13-R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황진구
- 13-R1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 이종원
- 13-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 13-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가지 종단부석 - / 황진구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 · 박정배 (자체번호 13-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오해섭 · 박정배 (자체번호 13-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 홍영란 · 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 · 김형주 · 이선영 (자체번호 13-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정신건강지표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현직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 · 강석영 · 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 · 황여정 · 이준일 · 방은령 · 강현철 (자체번호 13-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 개발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 김나연 · 정다은 (자체번호 13-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윤철경 · 유성렬 · 김신영 · 임지연 (자체번호 13-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전영실 · 김지영 · 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수 시 과 제

-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전략 연구 / 최창욱
-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 · 김희진
-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 · 김윤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수 탁 과 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 · 김형주 · 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이유진 · 한상철 · 추승연 · 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 · 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 · 이창호 · 최금해 · 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 · 황진구 · 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 · 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 · 황진구 · 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 · 맹영임
- 13-R43 자유학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 · 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 · 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 · 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 · 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 · 이주석
- 13-R49 2013년 또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김지연 · 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 · 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 · 배상률 · 강영배 · 김정주 · 김혁진 · 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 · 김경준 · 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오해섭 · 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혜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혜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현철 · 김희진 · 김인아 · 김재근 · 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 · 김영지 · 김희진 · 송인숙 · 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 · 김영지 · 김현철 · 박정수 · 박지만 · 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 ·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 · 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요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요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민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 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 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가나다 순) ◆

강 영 배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교수)

강 현 철 (호서대학교 정보통계학과·교수)

배 경 내 (인권교육 들·활동가)

◆ 자문진(가나다 순) ◆

김 연 배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정책과)

유 승 완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정책과)

이 규 운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정책과)

이 수 정 (노무사)

조 고 익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조 금 주 (상명대학교 교양대학)

하 손 숙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연구보고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5. 08. 31 제 301-2012-019호

인쇄처 동진문화사 전화 02)2269-4783 대표 이병무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정보자료·전산보안팀)

ISBN 978-89-7816-672-0 93330

